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Seventh-day Adventists Believe…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Seventh-day Adventists Believe …

sijosA

Seventh-day Adventists Believe...

A Biblical Exposition of Fundamental Doctrines

머리말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벧전 3:15)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영원한 희망으로 알고 믿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서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총본부인 대총회가 주관하여 본 교단의 신자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믿고 실천하는 성경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신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체계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명확한 대답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을 출판하는 데는 교단의 광범위한 학자와 목회자, 행정자, 편집자들이 참가하여 오랜 시간 정리하였다. 성경을 연구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 즉, "소망에 관한 이유"를 떠받치고 있는 28개의 기둥을 일목요연하게 가려 낸 것이다.

본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는 권면에 따른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리 즉 믿는 도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즉 사도이시며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총화이시며 사람의 진정한 모본이시다. 그래서 본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여러 국면에 어떤 관련과 이유를 가지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모든 교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다.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5:39)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따라서 성경의 모든 장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신 그리

스도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히 10:23)으라고 당부한다.

본서가 1989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27"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된 이후 많은 사람에게 본 교단의 신앙 즉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신자들 자신의 신앙을 체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5년 세계 대총회에서 내용을 개정하고 추가하여 다시 펴내게 되어 본 한국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11장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가 되었다. 또 각 장의 설명에 근거가 되는 성경절을 추가하였으며 권 말에 단어별 인덱스를 새로 추가하여 관련된 항목의 단어를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 100년을 지나고 새로운 선교 2세기를 출발하면서 그동안 지켜 온 신앙의 도리를 다시 확인하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성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출판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는 오랫동안 지켜 오던 기준과 가치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약 1:17)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본서는 단순히 한 번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줄기를 찾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자료집이기도 하다. 보화를 찾는 광부가 광맥을 찾아 가듯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성경의 고귀한 진리를 찾는 데 요긴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내용을 신중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엡 4:14) 하는 충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둔 믿음을 다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마 7:25) 때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히 서게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의 신앙이 갱신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시조사 편집국장 박 재 만

기본교리 출판에 대하여

여러 해 동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조를 공식화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적인 목적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조직체로서 우리의 교리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1872년 베틀크릭에 소재한 교회출판사(Adventist press)는 25개의 신조로 된 '우리 믿음의 개요'를 출간했다. 이 문서는 28개 항목으로 약간 개정되고 증보되어 1889년판 교회연감에 게재되었고, 1905~1914년 사이에 다시 게재되었다. 이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 관리들과 사람들에게 우리 사업을 좀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대총회장을 포함한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믿음의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문서로 준비하였다. 22개의 기본교리로 구성된, 이 문서는 1931년판 교회연감에 처음으로 소개된 후 계속 사용되다가, 1980년 대총회 회기 시에 27개의 항목으로 비슷하면서도 좀 더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하였다. 그것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것이 1980년에 정리 출판되었지만, 교회는 그것을 불변의 교리라고 보지 않았기에 계속하여 연구를 거듭했다. 기본교리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신조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분명한 기본교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이 교리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리들은 교회가 대총회 회기 시 성령의 지도를 받아 성경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더 나은 표현법을 찾아냈을 때,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대총회 회기 시에 그러

한 증보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때 하나의 교리를 추가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이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생명을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11장 참조).

이 교리서는 매 장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간략하게 요약한 교리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 책을 만든 우리의 목적은 우리 신자들, 지인들 그리고 다른 관심 있는 이들에게 – 자세하고, 쉽고 그리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신념과 그것의 중요성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 전체가 공식적으로 결의된 것은 아니지만(요약된 교리 부분만 대총회 회기 시 공식적으로 결의되었음), 전 세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간직하고, 선포하고 있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엡 4:21)를 대변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전임 대총회장이신 닐 C. 윌슨 목사님과 여러 행정자의 선견지명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교리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대총회 목회부에 이 책의 초판인 1988년판을 준비하도록 처음으로 위임하고 격려를 주었다. 또한 초판의 기본 원고를 써주신 아래의 여러 학자와 전문가에게 감사를 드린다. P. G. Damsteegt, Norman Gulley, Laurel Damsteegt, Mary Louise McDowell, David Jarnes, Kenneth Wade 그리고 나의 전임 대총회 목회부장이신 W. Floyd Bresee 님께 감사를 드린다. 전 세계 지회에서 19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지도자,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로 구성된 더 작은 규모의 편집위원회도 1988년판을 위해 지도와 감독을 해 주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증보판을 위해 수고해 주신 John M. Fowler 목사님의 집필과 편집 작업에 –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항목으로 추가된 11장을 위한 작업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전 대총회 목회부장이자 오랜 기간 〈Ministry〉지 편집장으로 봉사하면서 이 출판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모은 J. R. Spangler 목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꿈을 가졌다고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해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결과를 손에 들고 있다. 그의 비전이 없었다

면, 이 책은 계획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출판되지 않았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 기본교리의 매 장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위한 그분의 복 된 계획들을 분명히 보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James A. Cress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목회부장

이 책을 읽는 분들께

당신은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에게,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9).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사셨기 때문에 – 참으로 우리 중 하나가 되셨기에 –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28개의 주요 신조를 설명한 본서를 마련했습니다. 본서는 그분의 사랑,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은혜와 공의, 자애로우심, 순결성과 의로우심, 평강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애롭게 어린이를 무릎 위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가에서 애곡하는 자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을 봅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탄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상(異像) 즉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시 85:10)었던 곳인 갈바리에 초점을 맞춘 이상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는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죄를 전혀 알지 못하셨던 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후 5:21)도록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던 갈바리에.

우리는 어떤 교리나 신조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본서를 썼습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인물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육신이신 주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아직도 발견해야만 할 진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역대의 그리스도교 교회로부터 전해 받은 풍부한 성경 진리들에 큰 빚을 지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위클리프(Wycliffe), 후스(Huss), 루터(Luther), 틴데일(Tyndale), 칼빈(Calvin), 녹스(Knox), 웨슬리(Wesley)와 같은 고귀한 증인들의 계보를 인정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빛 가운데로 전진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잠 4:18)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때, 그것들은 성경의 연합된 증거와 완전히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지시의 말씀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면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만일 그대가 상고하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또는 그대의 지론(持論)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발견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부합하도록 그릇되게 해석하지 말고 그 진리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라"(Ellen G. White, Christ's Object Lessons [Mountain View, CA : Pacific Press Pub. Assn., 1900], p.112).

우리는 신학적 콘크리트 안에 굳어 버린 신조들의 진술인 신경(信經)의 역할을 하도록 본서를 저술하지 않았습니다. 재림교회는 오직 하나의 신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경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하여 본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순전히 이론적인 책이 아닌 것처럼 본서도 순수 이론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가 믿는 것을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해 놓은 신조들은 어느 한날 고심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1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또 기도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벧후 3:18) 속에서 재림교회가 자라남으로 생긴 열매입니다.

우리는 핵폭탄이 주는 인류 말살의 위협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대에, 폭발적인 기술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시대에, 가난과 굶주림, 불의와 무지의 망령을 제지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에 "교리란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라고 질문하는 많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리는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러기에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는 깊은 확신 속에서 본서를 집필했습니다. 교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격을 정의합니다. 그것들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해석하여 우주 안에서의 위치 감각과 목적의식을 확립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그분의 목적을 밝혀 줍니다.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안정을 얻습니다. 만일 교리가 없다면, 제대로 균형 잡힌 체험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교리를 통해, 절대성을 부정하는 사회 속에 확실성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교리는 인간의 지성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무시키는 목표를 확립시켜 주며, 그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하고자 본서를 발간합니다. 기만이 난무하며, 각종 교리가 난무해 있고, 냉담하기 이를 데 없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야말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지식은,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파괴하고자 어그러진 말을 하는 "흉악한 이리"와 같은 자를 물리치는 데 유일의 안전책이 될 것입니다(행 20:29, 30). 특히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엡 4:14)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품성, 통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로 심령을 굳건히 한 자들만이 최후의 쟁투 때에 설 수 있습니다.

본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왜 믿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재림교인에 의해 직접 기록된 본서는 겉만 핥고 넘어간 책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하며 연구했기에 본서는 재림교회의 신조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설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가 세 가지 명백한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서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둘째, 진리를 보존합니다. 셋째,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합니다. 참된 교리는 단순한 신조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조는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고 성령에 관한 참지식은 "구원하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본서의 주제입니다.

– 편집인 일동

Contents | 기본교리

머리말 …… 6
기본교리 출판에 대하여 …… 8
이 책을 읽는 분들께 …… 11

|신론|

제1장 하나님의 말씀 …… 17
제2장 하나님 …… 31
제3장 아버지 하나님 …… 45
제4장 아들 하나님 …… 55
제5장 성령 하나님 …… 85

|인간론|

제6장 창조 …… 97
제7장 인간의 본질 …… 111

|구원론|

제8장 대쟁투 …… 137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 147
제10장 구원의 경험 …… 163
제11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 183

Seventh-day Adventists Believe...

|교회론|

제12장 교회 …… 201
제13장 남은자손과 그 사명 …… 223
제14장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 247
제15장 침례 …… 261
제16장 성만찬 …… 279
제17장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 293
제18장 예언의 선물 …… 305

|그리스도인 생활론|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 323
제20장 안식일 …… 345
제21장 청지기 직분 …… 371
제22장 그리스도인의 품행 …… 383
제23장 결혼과 가정 …… 405

|종말론|

제24장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 427
제25장 그리스도의 재림 …… 453
제26장 죽음과 부활 …… 473
제27장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 …… 491
제28장 새 땅 …… 507

주제별 색인 …… 520

제1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신적인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류(無誤謬)의 계시이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경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벧후 1:20, 21; 딤후 3:16, 17; 시 119:105; 잠 30:5, 6; 사 8:20; 요 17:17; 살전 2:13; 히 4:12)

성경만큼 그렇게 사랑과 미움, 존중과 저주를 받은 책은 없다. 사람들이 성경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다른 이들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것은 인간을 고무시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행동을 하게 했으며, 또한 가장 몹쓸 짓과 퇴보적인 행위를 유발시켰다고 비난을 받았다. 성경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으며, 성경의 갈피 속에서 혁명들이 성숙되었고, 성경의 사상들 때문에 왕국들이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해방(解放) 신학자로부터 자본주의자까지, 파쇼주의자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까지, 독재자로부터 해방자까지, 평화론자로부터 군국주의자까지 온갖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어구를 찾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의 독특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과 주제에 있다. 성경은 유일한 신-인(神-人)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

님의 계시이다.

신적 계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확신 있게 증거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그분의 계시 속에서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반 계시. 역사, 인간의 행동, 양심, 천연계 등이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통찰은 흔히 '일반 계시'라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관찰할 수 있고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수백만의 사람에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 19:1)고 있다. 햇빛과 비, 산과 시냇물은 모두가 사랑의 창조주를 증거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어떤 이들은 친구,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의 행복스런 관계와 놀라운 사랑 속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본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사 66:13).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시 103:13).

그러나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증거하는 똑같은 햇빛이 땅을 황폐한 사막으로 변하게 해서 굶주림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똑같은 비가 급류로 변해 가족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 똑같이 우뚝 솟은 산도 갈라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다. 또한 인간 관계도 이따금 질투, 시기, 분노에 빠지며, 심지어 증오하여 죽이기까지 한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복잡 다단한 신호들을 보냄으로써 의문과 대답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끝날 줄을 모른다. 세상은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을 드러낸다. 그러나 어떻게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누가, 왜 싸우고 있는지 또한 누가 궁극적으로 이기게 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특별 계시. 죄는 하나님의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

켜, 천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제한한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특별 계시를 주셨다.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관해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계시를 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궁극적인 계시를 주셨다(히 1:1, 2).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명제와 그분을 한 인격체로 계시하는 명제들을 모두 담고 있다. 두 방면의 계시는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엡 4:21, NIV)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요 17:3).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 도덕적, 영적 제한을 돌파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갈망을 전달하신다.

성경의 초점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의 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성경은 우리의 곤경을 폭로하고 그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자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진 자임을 인식케 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하나님께 데려가는 분이심을 깨닫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초점이시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 메시야로 제시한다. 신약은 그분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한다. 각 장마다 상징이나 혹은 실제 상황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과 품성의 어떤 면을 계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궁극적 계시이다.

십자가는 두 개의 극단, 즉 인간의 측량할 수 없는 사악함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대비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궁극적인 계시를 가능케 한다. 그 무엇이 죄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무엇이 이보다 죄의 진상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십자가는 자기의 독생자가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계시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인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의 계시를 보여 주실 수 있으셨을까? 진실로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주적 드라마의 중심 무대에 계신다. 머지않아 갈바리에서 거두신 그분의 승리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절정에 달할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은 다시 연합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특히 갈바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에서 볼 수 있는바 우주의 가장 위대한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초점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주요 진리는 이 관점에서 연구되어야만 한다.

성경의 저자

성경은 그 기원 때문에 신앙과 행위에 대해 권위를 갖는다. 그 기자들은 성경을 다른 문서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이것을 "성경"(롬 1:2), "신성한 저서"(딤후 3:15, RSV), "하나님의 말씀"(롬 3:2; 히 5:12)으로 언급했다.

성경의 독특성은 그 기원과 근원에 있다. 성경 기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기별을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신적 근원으로부터 기별들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적 계시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전해 주는 진리를 볼 수 있었다(사 1:1; 암 1:1; 미 1:1; 합 1:1; 렘 38:21 참조).

성경 기자들은 성령을 선지자를 통해 백성과 교통하시는 분으로 가리켰다(느 9:30; 슥 7:12 참조).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삼하 23:2)라고 말했다. 에스겔은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영이 나를 들어"(겔 2:2, 11:5, 24)라고 기록했다.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을 얻"(미 3:8)었다고 증거했다.

신약은 구약을 저술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인정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막 12:36). 바울은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믿었다(행 28:25). 베드로는 성령이 불과 몇 사람만이 아닌 모든 선지자를 인도하셨음을 드러내었다(벧전 1:10, 11 ; 벧후 1:21). 때때로 기자는 뒷전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참저자이신 성령만이 인정되고 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히 3:7, 9:8).

신약 기자들은 성령이 그들 자신의 기별의 근원임을 인정했다.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딤전 4:1)라고 설명했다.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계 1:10)었다고 말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매체를 통하여 사도들을 임명하셨다(행1:2; 엡 3:3~5 참조).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다. 당신의 손으로서가 아니라 약 40명의 손을 통해 1,500여 년에 걸쳐 기록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성경의 영감성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 3:16)이라고 말한다.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데오프뉴스토스**(theopneustos)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God-breathed)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 그런 말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감동 혹은 영감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시는 과정이다.

영감의 과정. 신적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주어졌다(벧후 1:21). 이 계시들은 제한성과 불완전성을 지닌 인간 언어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증언이다. 하나님은 낱말에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감을 주셨다.

신자들은 녹음된 그대로 재생해 내는 녹음기처럼 수동적이었는가? 어떤 경우에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이 보거나 들은 것을 자신의 재능을 다해 표현하도록 지시하셨다. 이 후자의 경우에, 기자들은 자신의 언어 양식과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고전 14:32)는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영감은 선지자의 인격과 개성, 이성, 성실성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과 기자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예시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출 7:1, 4:15, 16 참조)라고 하셨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기별들을 알려 주었고, 그 대신 아론은 그것들을 자신

의 어휘와 표현 양식을 사용하여 바로에게 전했다. 마찬가지로, 성경 기자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 양식에 따라 신적 명령과 사상, 생각들을 전달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전달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서로 다른 책들은 그 어휘가 다르며 기자의 교육과 교양을 반영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사고 방식이나 표현 양식이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어떤 표현은 하나님답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어와 논리와 수사(修辭) 가운데 당신 자신을 두어 성경상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필촉이 아니었다."[1]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작용하는 것이며, 그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개인의 정신적 특징을 지니게 된다. 거룩한 정신으로 물든다. 거룩한 정신과 의지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혼합되어 인간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2]

오직 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확한 말을 직접 기록하셨는데 곧 십계명이다. 이것은 인간의 작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다(출 20:1~17, 31:18; 신 10:4, 5). 그러나 이것들까지도 인간 언어의 제한성 내에서 표현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신적 진리이다. 양자(量子) 물리학을 아기에게 가르친다고 상상해 보라.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제한된 인간에게 신적 진리를 전달해 주려고 하실 때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제한성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성경 사이에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된 분으로, 신성과 인성이 한 개체 속에 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요 1:14)신다고 한 말씀은 성경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성경을 다른 문학서들과 구별되게 한다.

영감과 기자. 성령은 신적 진리를 전달하도록 특정 인물들을 준비시키셨다. 성경은 그분이 이러한 인물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 방법으로 그분은 신적, 인적 대리자 사

이에 연합을 이루셨다.

성경을 기록하는 데 참여했던 이들은 선천적인 재능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신적 계시가 필연적으로 인물을 변화시켰거나 그에게 영생을 보증하지도 않았다. 발람은 하나님의 조언과는 반대되게 행동하면서도 영감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했다(민 22~24장). 성령이 사용하셨던 인물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시 51편 참조). 성경의 모든 기자는 죄 된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필요로 했다(롬 3:12 참조).

성경 기자들이 체험했던 영감은 조명(照明)이나 신적 지도 이상이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이르러 오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경 기자들은 때때로 그들이 전달하는 신적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기록했던 것이다(벧전 1:10~12).

자신이 증거하는 기별에 대한 기자들의 반응은 일치된 것이 아니었다. 다니엘과 요한은 그들의 글에 대하여 크게 당황해 했다고 말했다(단 8:27; 계 5:4).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다른 기자들은 자신의 기별 혹은 타인의 기별이 가진 의미를 탐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때로 이들은 영감된 기별을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논쟁을 했다(합 1; 욘 1:1~3, 4:1~11).

계시의 방법과 내용. 성령은 자주 이상과 꿈을 통해 신적 지식을 전달하셨다(민 12:6). 때때로 성령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거나 내적 감각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귀에"("in his ear", 삼상 9:15) 말씀하셨다. 스가랴는 상징적인 것을 제시받은 후 설명까지 들었다(슥 4장). 바울과 요한이 받은 하늘의 이상들은 구두 지시를 동반했다(고후 12:1~4; 계 4, 5장). 에스겔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았다(겔 8장). 어떤 기자들은 자신의 이상에 참여하여 그 이상의 한 부분으로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계 10장).

내용에 대하여 말하면, 몇몇 사람에게는 성령이 장래의 사건들을 계시하셨으며(단 2, 7, 8, 12장), 다른 기자들은 개인적 체험을 토대로 하여, 혹은 기존의 역사적 기록들로부터 자료를 선별하여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기도 했다(사사기, 사무엘상, 역대하, 사복음서, 사도행전).

영감과 역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 혹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서 도덕적·영적 생활에 유익하고 권위를 갖고 있다는 성경의 주장은(딤후 3:15, 16, NIV)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적 지도가 있었음에 대해 전혀 의문을 남기지 않는다. 개인적 관찰, 구두 자료나 기록 자료, 혹은 직접적 계시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정보를 얻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기자에게 이르러 온 것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성경은 추상적 교리들의 집합 속에서가 아닌 하나님과 인류와의 역동적 상호 작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한다. 그분의 자기 계시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들 속에 뿌리박고 있다. 역사적 설명의 신빙성은 지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골격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이해는 영생에 이르게 하나 부정확한 견해는 혼란과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특정 인물들에게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취급하신 역사를 기록하도록 명령하셨다. 세속 역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이러한 역사 이야기들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민 33:1, 2; 수 24:25, 26; 겔 24:2 참조). 신적 관점에서 본 이러한 역사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알려 준다. 성령은 기자들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부여하여, 선악 간의 쟁투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구원을 찾는 백성들을 인도한다.

역사적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 "표상" 혹은 "실례"이다(고전 10:11).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고 말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본(本)" 혹은 경고의 역할을 한다(벧후 2:6; 유 7장). 아브라함의 칭의 체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롬 4:1~25; 약 2:14~22). 깊은 영적 의미가 가득 찬 구약의 민법까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록되었다(고전 9:8, 9).

누가는 자기가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눅 1:4)고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 중 자기의 복음서에 포함시킨

것들을 선택한 기준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요 20:31)이었다.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을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 역사를 제시하도록 하셨다.

성경 인물들의 전기는 신적 영감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그들의 품성의 약점과 장점을 모두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것들은 그들의 성공뿐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도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다.

노아의 자제심 부족과 아브라함의 기만을 전혀 숨기지 않는다. 모세, 바울, 야고보, 요한이 보였던 감정의 폭발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장 현명한 왕의 실패, 열두 족장과 열두 사도의 연약성을 폭로한다. 성경은 추호도 그들의 실수들을 변명해 주거나 그들의 범죄를 극소화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또는 어떤 인물이 되기에 실패했는지를 남김없이 보여 준다. 신적 영감이 없었더라면 그 어느 전기 저술가도 그토록 지각력 있게 분석한 글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 기자들은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역사 이야기를 신화나 상징이 아닌 참된 역사적 기록들로 보았다. 수많은 현대 회의론자는 아담과 하와, 요나, 대홍수 등의 이야기를 배척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며, 영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마 12:39~41, 19:4~6, 24:37~39).

성경은 부분적 영감설이나 영감의 등급설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박탈해 가는 억측에 불과하다.

성경의 정확성.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요 1:14)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주어졌다. 성경의 영감성은 성경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성경의 기별이 유효하고 진실함을 충분히 확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원본이 전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셨는가? 고대 사본들은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나, 필수적인 진리들은 보존되어 왔다.[3] 필사자들과 성경의 번역가들이 작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나 오류라고 주장되고 있는 많은 것이 사실은 학자들의 오해였음이 성서 고고학을

통하여 얻어 낸 증거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상당수가 서구적 안목에서 성경의 역사와 풍습을 읽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우리는 인간이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 곧 신적 행위에 대한 인간의 통찰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실제로 잘못인 경우보다도 우리의 부정확한 이해에서 기인된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과 본문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심판할 것인가? 우리는 결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설명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성취된 예언들은 성경의 신빙성을 확증한다.

성경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고도 신기스러울 정도의 정확성을 지닌 채로 보존되었다. 사해 두루마리와 후기의 구약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조심성 있게 전수되었는지를 밝히 알 수 있다.[4]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로서, 성경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음을 확증해 준다.

성경의 권위

성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지식 탐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성경의 주장들. 성경 기자들은 그들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고 증거한다.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의 인물들에게 임한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렘 1:1, 2, 9; 겔 1:3; 욜 1:1; 욘 1:1). 주님의 기별자로서(학 1:13; 대하 36:16)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겔 2:4; 사 7:7 참조)라고 말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적 신임장이요 권위가 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인간 대리자들은 뒷전으로 물러난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마 1:22)라는 말과 함께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선지자의 배후에 있는 권위를 시사하고 있다. 그는 주님을 직접 매개자요 권위자로 보고 있다. 선

지자는 간접 매개자인 것이다.

베드로는 바울의 저작들을 성경으로 분류한다(벧후 3:15, 16).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것에 대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 1:12)고 증거한다. 신약 기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으며, 그것들이 구약의 글들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딤전 5:18; 눅 10:7).

예수님과 성경의 권위. 예수님은 공생애 전반에 걸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나 반대자들과 논쟁하실 때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방어하시고 공격하셨다(마 4:4, 7, 10; 눅 20:17).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눅 10:26)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을 인간의 전통과 의견들보다 위에 놓으셨다. 그분은 성경의 권위를 제쳐 놓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으며(막 7:7~9),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고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기를 권하셨다(마 21:42; 막 12:10, 26 참조).

그분은 예언적 말씀의 권위를 강하게 믿으셨으며, 그것이 당신을 가리킨다고 밝히셨다. 그분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셨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39. 46). 자신이 신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지극히 확신에 찬 단언은 구약의 예언을 그리스도가 성취시킨 데서 나온 것이다(눅 24:25~27).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성경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권위 있는 계시임을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셨다. 그분은 성경을 진리의 본체요 객관적 계시라고 생각하셨으며, 인류를 거짓된 유전과 신화에서 구원의 지식의 참빛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보셨다.

성령과 성경의 권위. 예수님의 생애 동안 지도자들과 부주의한 대중들은 그분의 진정한 신분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침례자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곧 단순한 인간일 뿐이라고 느꼈다. 베드로가 예수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신적 조명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마 16:13~17). 바울은 이 진리를 강조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主)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뜻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5]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전 2:11)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 2:14).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고전 1:18)이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고전 2:10)을 통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로 성경의 권위를 확신할 수 있다. 그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고전 1:18)이 되고, 그는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증거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2).

성령과 성경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성령은 성경 진리의 저자시요 계시자이시다.

영감에 관한 우리의 개념에 따라 우리 생애 속에서 성경의 권위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인간적 증언들을 수집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믿는다든지, 혹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성경의 권위가 좌우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들이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었다해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한다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절대적 권위가 된다(딤후 3:16).

성경적 권위의 범위. 성경과 과학 사이의 마찰은 추상적 사변의 결과인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가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지 못할 경우에 그것은

"과학 혹은 계시에 관한 불충분한 이해때문"이며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 둘은 완전히 조화된다."[6]

모든 인간의 지혜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만 한다. 성경 진리는 규범으로서, 이에 따라 모든 사상은 시험을 받아야만 한다. 유한한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막대자로 별들을 재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성경은 인간의 규범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지혜와 문예보다도 우월하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성경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모든 체험과 생각의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 인도받는 것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들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전 12장, 14:1; 엡 4:7~16). 성령의 은사는 성경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사실상 그것들은 성경에 의해 시험을 받아야 하며, 만일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참된 것이 아니므로 배제되어야만 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 (본서 제18장을 보라).

성경의 통일성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성경은 이야기, 설교, 역사로 뒤범벅이 된 책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조명하심을 받는 이들, 인내와 수많은 기도로 숨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들 속에 깔려 있는 통일성의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단조롭게 획일적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양하고 풍부한 색조를 띤 증언들이 조화를 이루며 보기 드물게 뛰어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다양한 면모 때문에 성경은 모든 시대를 통해 인간의 필요를 더욱 잘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계시하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시대를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계시하셨다.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기록을 했든지, 혹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든지 그 책들은 동일한 성령으로 영감받은 교통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진적 계시'에 대한 이해는 성경과 그 통일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러 세대의 시간차를 두고 기록되었지만 구약과 신약의 진리들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신구약은 하나이다. 구약은 예언과 상징을 통해 오실 구주의 복음을 계시한다.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오신 구주 곧 실체화된 복음을 계시한다.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을 계시한다. 구약은 신약의 기초 역할을 한다. 그것은 신약을 여는 열쇠를 제공하는 한편 신약은 구약의 신비들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당신과 사귀도록 우리를 은혜스럽게 초청하신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보증의 풍성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딤후 3:16, 17).

참고 문헌

1. Ellen G. White, Selected Messages(Washington, D.C.:Review and Herald, 1958), book 1, p. 21.
2. Ibid.
3. 본문상의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White, Early Writings(Washington, D.C.:Review and Herald, 1945), pp. 220, 221을 참조하라.
4. Siegfried H. Horn, The Spade Confirms the Book, rev. ed. (Washington, D.C.:Review and Herald, 1980)을 참조하라.
5.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일반적 성경 해석법에 대하여 더 알기 원하면 아래의 문헌들을 참고하라.
   General Conference Committee, Report of the General Conference Committee Annual Council, Oct. 12, 1986, "Methods of Bible Study," Distributed by the Biblical Research Institute,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6840 Eastern Ave., N. W., Washington, D.C. 20012. 또한 A Symposium on Biblical Hermeneutics, ed. G. M. Hyde(Washington, D.C.:Review and Herald, 1974) ;Gerhard F. Hasel, Understanding the Living Word of God(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1980)을 보라. Cf. P. Gerard Damsteegt, "Interpreting the Bible"(Paper prepared for the Far Eastern Division Biblical Research Committee Meeting, Singapore, May 1986).
6.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Mountain View, CA:Pacific Press, 1958), p. 114.

제2장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곧 함께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이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지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신 6:4; 마 28:19; 고후 13:14; 엡 4:4~6; 벧전 1:2; 딤전 1:17; 계 14:7)

갈바리에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이 사실상 누구이셨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들 중에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죽어 가는 강도가 있었고(눅 23 : 42),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 15 : 39)라고 말했던 로마 군인이 있었다.

요한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요 1:11)다고 기록했을 때 십자가 주위의 무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으며, 각 세대를 포함했던 것이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이 갈바리에서 떠들어 댔던 무리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과 구주를 알아보는 일에 실패했다. 인간 최대의 비극인 이런 실패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식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이론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찬

반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신성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에 관해 알고자 하는 것은 별자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확대경을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고전 2:7)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비밀이다. 바울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전 2:8)고 기록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 중 하나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마 22:37; 신 6:5, 참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욥 11:7).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의 궁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동정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셨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한 것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목적들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1]이라는 점을 성경은 밝혀 준다. 이러한 자기 계시는 반역적인 세상과 돌보시며 염려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구렁 위로 다리를 놓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그의 최고의 계시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요일 5:20)셨다.

또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 17:3)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비록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긴 하나,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구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그분에 관한 실제적 지식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법. 다른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두뇌에 관계된 것인 만큼 마음과도 관계된 일이다. 이것은 지성만이 아닌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다. 성령께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요 7:17; 마 11:27, 참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마 5:8)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0, 21).

성경에서 하나님 알기를 배우는 방법은 지식을 얻는 다른 모든 방법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놓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분석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자기 계시인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만 한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들과 방법들에 대해 우리 자신을 굴복해야 한다. 이러한 성경의 지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파악하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성경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굴복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별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들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들의 문제는 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지성을 어둡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을 초래한 것은 그들의 닫힌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두 가지 주요한 자료가 있다. 그것은 천연계와 성경이다.

천연계의 증거. 모든 사람은 천연계와 인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해 배울 수 있다.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라고 기록했다. 요한은 천연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각 사람을 계몽시킨다고 주장했다(요 1:9). 그리

고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롬 1:20)라고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의 경배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행 17:23). 바울은 또한 비기독교인의 행동이 "그(들의) 양심"의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롬 2:14, 15)겨져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러한 직관은 성경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수많은 고전적인 이성적 논증을 불러일으켰다.[2]

성경의 증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치고 있다. 성경의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고 선언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 유지자,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다.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 강력하여 무신론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신론은 신적 진리를 억압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시 14:1; 롬 1:18~22, 28).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확신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증거들이 충분하게 있다. 그러나 믿음이 선행 조건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히 11:6)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맹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과 천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발견되는 충분한 증거 위에 기초되어 있다.

성경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활동,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름은 중요한 것이었는데, 근동 지방과 동양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러하다. 그곳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격, 본성, 신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분의 본성, 성품과 신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출 20:7)는 명령 속에 드러나 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시 7:17)하라.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심…이로다"(시 148:13).

히브리 이름인 **엘**(El)과 **엘로힘**(Elohim,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강하고 힘센 분, 창조의 하나님(창 1:1; 출 20:2; 단 9:4)으로 그분을 묘사한다. **엘룐**(Elyon, "지극히 높으신 분", "Most High")과 **엘 엘룐**(El El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God Most High")은 그의 높으신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창 14:18~20; 사 14:14). **아도나이**(Adonai, "주")는 전능하신 통치자로 하나님을 묘사한다(사 6:1; 시 35:23). 이러한 이름들은 하나님의 위엄 있고 초월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다른 이름들은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성을 계시한다. **샤다이**(Shaddai, "전능한 분", "Almighty")와 **엘 샤다이**(El Shaddai, "전능의 하나님", "(God Almighty")는 축복과 안위의 근원이신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낸다(출 6:3; 시 91:1). **여호와**(Jehovah)로 번역된 **야훼**(Yahweh)[3]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과 은총을 강조한다(출 15:2, 3; 호 12:5, 6).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야훼는 당신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스스로 될 자(I shall be what I shall be)"로 기술함으로써 당신의 백성과의 변함없는 관계를 지적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며(출 4:22; 신 32:19 참조), 때때로 "아버지"라는 칭호를 통해 더욱 친근한 관계로 나타내신다(신 32:6; 사 63:16; 렘 31:9; 말 2:10).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은 구약의 것들과 의미가 같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갖도록 **아버지**를 사용하셨다(마 6:9; 막 14:36; 롬 8:15; 갈 4:6 참조).

하나님의 활동.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그분의 활동을 기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하나님은 창조주(창 1:1; 시 24:1, 2), 세상을 붙드시는 분(히 1:3), 구속자와 구주(신 5:6; 고후 5:19)로서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을 책임지신 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분은 계획하시고(사 46:11), 예고하시고(사 46:10), 약속하신다(신 15:6; 벧후 3:9).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며(출 34:7), 따라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시다(계 14:6, 7).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통치자 즉,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딤전 1:17)으로 계시한다. 그분의 행동은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하나님의 속성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들에 관하여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부가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나누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당신의 신적 본성의 측면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속에 생명"(요 5:26)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의지(엡 1:5)와 능력(시 115:3)에 있어서 독자적이시다. 그분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신다(욥 37:16; 시 139:1~18, 147:5; 요일 3:20).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로서(계 1:8) 그분은 처음부터 종말을 아시기 때문이다(사 46:9~11).

하나님은 **편재**(偏在)하시며(시 139:7~12; 히 4:13),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공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서(시 90:2; 계 1:8)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신다. 그러면서도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께 불가능한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단 4:17, 25, 35; 마 19:26; 계 19:6).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신다. 그분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신다(말 3:6; 시 33:11; 약 1:17 참조).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누어 줄 수 있는 속성들은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의 관심에서

흘러나온다. 이것들로는 사랑(롬 5:8), 은혜(롬 3:24), 긍휼(시 145:9), 인내(벧후 3:15, NIV), 거룩함(시 99:9), 의(스 9:15; 요 17:25), 공의(계 22:12), 진리(요일 5:20)가 있다. 이러한 은사들은 그것들을 주시는 분 자신과 더불어서만 이르러 온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하게 가르친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단 4:35).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계 4:11).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시 135:6). 그러므로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잠 21:1)고 말할 수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행 18:21; 롬 15:32 참조)고 기록하였으며, 한편 야고보는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약 4:15, 공동번역)라고 권면했다.

예정과 인간의 자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롬 8:29, 30). 또한 당신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기업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다(엡 1:4, 5, 11). 이러한 주권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사 **예정하다**(to predestinate)는 "미리 결정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성경절들이 인간 자신의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어떤 이는 구원을 받도록, 어떤 이는 멸망을 받도록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성경절들의 문맥을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어떤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성경절들의 원취지는 **포괄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 2:4)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벧후 3:9)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도록 명하셨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한 것을 명하셨다면 갈바리를 부정하는 것인바, 갈바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는 구절 속의 "믿는 자마다"란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을 제시하시며 죄인들로 하여금 순종과 생명을 선택하도록 강권하신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신 30:19;수 24:15;사 1:16, 20;계 22:17) 인간의 자유 의지가 개인적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임이 자명하다. 한때 은혜를 맛보았던 신자라 할지라도 타락하여 멸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에서(고전 9:27;갈 5:4;히 6:4~6, 10:29)도 이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이 어떻게 선택할지를 미리 보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분의 예지(豫知)가 그 선택이 어떻게 되도록 결정하지 않는다. …성경의 예정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아직도 유효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목적 속에 존재한다(요 1:12;엡 1:4~10).[4]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하는 성경절(롬 9:13)과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는 말씀(17, 18절;15, 16절 참조;출 9:16, 4:21)은 무슨 뜻인가? 본문 말씀의 문맥은 바울의 관심이 선교였지 구원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정인들을 선택하신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야곱과 에서에게 똑같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계보로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허용하신 것을 당신이 행하신 것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호소에 대한 바로의 부정적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주셨다는 것을 사실상 증거하는 것이다.

예지와 인간의 자유. 어떤 이들은, 인간이 선택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른 채 인간과 관계하신다고 믿는다. 또한 하나님은 재림, 천년기, 지구의 회복 등과 같은 특정 미래를 아시지만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믿는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신다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역동적 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시초부터 종말을 안다면 하나님이 따분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개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도 그들이 실제로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역사학자가 과거의 인물들이 행했던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진기가 장면은 녹화하지만 그것을 변동시키지는 못하는 것처럼, 예지는 미래를 변경시킴 없이 그것을 직시한다. 하나님의 예지는 결단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부의 역동성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는가? 그리스도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유일성. 주변 이교국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었다(신 4:35, 6:4; 사 45:5; 슥 14:9). 신약성경도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하여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막 12:29~32; 요 17:3; 고전 8:4~6; 엡 4:4~6; 딤전 2:5). 이러한 유일신론적 강조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성부, 성자, 성령)과 모순되지 않는다. 도리어 이것은 여러 종류의 신을 모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 내부의 복수성. 비록 구약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나, 구약은 하나님 내부의 복수성을 시사한다. 때때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창 3:22), "**우리**가 내려가서"(창 11:7).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

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출 3:6)고 말하였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다.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창 1:2)었다. 어떤 구절은 성령을 언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셋째 위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제는 주 여호와[아버지]께서 나[하나님의 아들]와 그의 영[성령]을 보내셨느니라"(사 48:16), "내[아버지]가 나의 영을 그[메시야]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사 42:1).

하나님 내부의 관계.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요한의 복음서는 하나님은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관계를 지닌 삼위의 영원한 신격의 연합체이신 아버지 하나님(본서 3장)과 아들 하나님(4장)과 성령 하나님(5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 준다.

1. 사랑의 관계.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라고 외치셨을 때, 주님은 죄가 야기한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래적 관계를 파괴하였다(창 3:6~10; 사 59:2).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대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이었던 하나님과의 분리를 체험하셨으며, 마침내 죽으셨다.

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계셨다. 이분들은 상호 간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속에서 동일하게 영원성을 지니신 채 공존하셨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에 존재했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는 말씀은 삼위의 각 분께서 전적으로 다른 분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모두 다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체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정의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오래 참음이나 인내와 같은 자질들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지닌 분이신 삼위 하나님 내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인내는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을 다룰 때 처음으로 필요했으며, 후에는 곁길로 나간 인간들을 취급하

실 때 필요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사이에는 전혀 간격이 없다. 삼위 모두가 신성이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적 능력과 자질들을 공유하신다. 인간의 조직체에서 최종적 권위는 한 사람 즉 대통령, 왕 혹은 수상에게 있다.

하나님의 내부에서 최종적 권위는 삼위 모두에게 있다.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이 같은 단일성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개성을 말살하지 않는다. 또한 신성 안에 존재하는 개체의 독립성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유일신론적 주장을 파괴하지도 않는다.

2. 활동상의 관계. 하나님 내부에는 기능상의 경제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법칙이므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활동하신다. 이러한 질서는 신성 내부의 연합에서 나오며 신성 내의 연합을 보존한다. 성부는 근원으로, 성자는 중보자로, 성령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성육신은 신성의 삼위께서 가지고 계신 활동상의 관계를 훌륭하게 보여 주셨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며,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주셨고, 성령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다(요 3:16; 마 1:18, 20).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증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신비적 사건 속에서 세 분 모두의 활동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 1:35).

신성의 각 위께서는 그리스도의 침례 시에 임재하셨다. 아버지는 격려하셨고(마 3:17),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으로서 침례를 받으셨고(마 3:13~15), 성령은 예수께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눅 3:21, 22).

예수님은 지상 생애 말기에 조언자와 조력자로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요 14:16). 여러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향해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구속의 역사가 절정에 달하였던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등장하셨다.

오늘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

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요 15:26)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려 주시는 것과(요 17:3)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화하는 것이다(마 28:20; 히 13:5 참조). 신자들은 구원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베드로는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벧전 1:2)라고 말한다.

사도의 축도 중에는 삼위 하나님 모든 분이 포함되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그리스도가 맨 첫머리에 나와 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접촉은 과거에도 현재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록 성삼위일체 모든 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일하셨지만 오직 예수님만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죽으셨으며,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요 6:47; 마 1:21; 행 4:12).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후 5:19)었으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주라 부를 수 있다(딛 3:4 참조). 왜냐하면 그분은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엡 5:23; 빌 3:20; 딛 3:6 참조).

기능상의 경제성에 입각하여 삼위 하나님 각 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각기 다른 과업을 수행하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희생의 충분함 위에 그 어느 것도 추가하지 않으신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됨으로 십자가에서의 객관적인 대속 사업이 주관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곧 영광의 소망"(골 1:27)에 대해 말하였다.

구원에 초점

초기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마 28:19).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분은 구약에 제사와 절기들 속에 예표된 소망이시다. 그분은 복음서에서 무대 중앙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다. 그분은 제자들이 설교와 책들을 통해 복된 소망으로 선포한 복음이시다. 구약은 그분의 오심을 고대한다. 신약은 그분의 초림을 기록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연합시킨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시다. 복음은 어떤 행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음은 단지 규범들의 준수가 아니라 관계성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진리와 생명을 위한 핵심과 내용과 배경을 발견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그 고통의 도구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쏟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과 공허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 채워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곳에 매달리셨다. 갈바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자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 그러나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다. 우리가 갈바리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점까지 올라간 것이다.

십자가에서 삼위일체께서는 이타심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았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죽고자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자아의 존재보다도 자아의 부정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셨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고전 1:30)이 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가치와 의미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희생에서 기인할 것이다.

유일하신 참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주에 드러내셨다. 그분은 반역한 지구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분리의 고뇌를 자원하여 통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초청을 선포하신다. 화해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7).

참고 문헌

1. Gordon R. Lewis, Decide for Yourself : A Theological Workbook(Downers Grove, IL, : Inter Varsity Press, 1978), p. 15.
2. 이것들은 우주론적, 목적론적, 존재론적, 인류학적, 종교학적 논증이다. 다음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T. H. Jemison, Christian Beliefs(Mountain View, CA : Pacific Press, 1959), P. 72 ; Richard Rice, The Reign of God(Berrien Springs, MI : Andrews University Press, 1985), pp. 53~56. 이러한 논증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신앙에 기초한다.
3. 야훼는 구약의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추측상의 음역(音譯)"이다(출 3 : 14, 15, 6 : 3). 원래 히브리어는 YHWH와 같이 네 개의 자음을 포함했다. 시대가 흘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를까 두려워서 이 이름을 소리 내어 읽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YHWH가 나타날 때마다 그 단어를 **아도나이**(Adonai)로 읽었다. 주후 7, 8세기에 히브리어에 모음이 첨가될 때 마소라 학자들은 YHWH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덧붙였다. 이러한 조합에 의해 **여호와**(Jehovah)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것을 KJV가 사용하였다. 다른 번역들은 **야훼**(Yahweh, Jerusalem Bible), 혹은 주(LORD)(RSV, NIV, NKJV)를 선호한다(Siegfried H. Hom, Seventh-day Adventist Bible Dictionary, Don F. Neufeld, ed., rev. ed. [Washington, D.C. : Review and Herald, 1979], pp. 1192, 1193 참조).
4. "Predestination," Seventh-day Adventist Encyclopedia, Don F. Neufeld, ed., rev. ed. (Washington, D.C. : Review and Herald, 1976), p. 1144.

제3장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다. 성자와 성령 안에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창 1:1; 계 4:11; 고전 15:28; 요 3:16; 요일 4:8; 딤전 1; 17; 출 34:6, 7; 요 14:9)

심판의 큰 날이 시작된다. 불붙은 바퀴 달린 화염 보좌가 자리를 잡는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서 좌정하신다. 위엄 있는 외모를 지니신 그분께서 심판을 주관하신다. 심판정의 수많은 관중은 그분의 두려운 임재에 압도당한다. 증인들의 무리가 그분 앞에 서 있다.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펼쳐지며, 인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조사를 받기 시작한다(단 7:9, 10).

온 우주는 이 순간을 기다려 왔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당신의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선고가 내려진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단 7:22).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하늘을 가로질러 울려 퍼진다. 하나님의 품성이 아주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그분의 놀라운 이름이 우주 전역에서 옹호된다.

아버지에 대한 견해

성부 하나님은 때때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인류를 위한 그리

스도의 지상 사명과 개인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해 어떤 관계에 계시는가? 그분은 은혜로우신 성자, 성령과는 대조적으로 이 세상과 전적으로 동떨어져 계신 분이요, 부재중인 지주, 부동의 원동자(不動의 原動者;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제1원인인 자)이신가?

또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구약의 하나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마 5:38; 출 21:24 참조)라는 격언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복수의 하나님, 완벽한 행위만을 요구하는 엄격한 하나님이신가? 신약에 나타난 것처럼 다른 뺨도 돌려 대며 십 리까지 동행해 주기를 강조하는(마 5:39~41) 사랑의 하나님과 전적으로 대조되는 하나님이신가?

구약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신구약에 공통적인 구속의 경륜의 통일성은 신구약 모두에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1, 2). 비록 구약성경은 신성의 각 개체들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그리스도 즉 아들 하나님은 창조의 활동적 실행자요(요 1:1~3, 14; 골 1:16)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셨다(고전 10:1~4; 출 3:14; 요 8:58)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창조와 출애굽에서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역할에 대해 신약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약성경까지도 아들을 대리인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다. 구약성경은 아버지를 다음과 같이 저술하고 있다.

인자하신 하나님. 죄 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다(출 33:20).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의 행동들과 모세 앞에 말씀으로 그려 보여주신 모습들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

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출 34:6, 7; 히 10:26, 27 참조). 인자하심은 맹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공의의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거절하는 이들은 악에 대한 그분의 형벌을 거둔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소망을 표현하셨다. 그분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출 25:8)라고 말씀하셨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적 체험의 초점이 되었다.

언약의 하나님. 항구적인 관계 맺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창 9:1~17), 아브라함(창 12:1~3, 7, 13:14~17, 15:1, 5, 6, 17:1~8, 22:15~18; 본서 7장을 보라)과 같은 인물들로 더불어 엄숙한 언약을 맺으셨다(본서 7장 참조). 이러한 언약들은 당신의 백성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 준다. 노아에게 그분은 규칙적인 계절의 순환을 보증하셨으며(창 8:22) 또한 전 세계적인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임을 약속하셨다(창 9:11). 아브라함에게 그분은 허다한 후손들(창 15:5~7)을 두게 될 것과 그와 그의 후손들이 거할 한 땅을 약속하셨다(창 15:18, 17:8).

구속자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노예 민족을 기적적으로 자유롭게 하셨다. 이 위대한 구속적 행동은 온 구약성경의 배경이며 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려는 그분의 갈망을 보여 주는 본보기이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홀로 계시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 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다.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써 깊이 관여하고 계심에 크게 감동되어 이렇게 기술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시 8:3, 4).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

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 18:1, 2).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시 22:24).

피난처이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무죄한 도피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6대 도피성과 전적으로 같은 분으로 보았다. 시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피난처"란 주제는 그리스도와 성부를 모두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셨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시 27:5).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시 125:2).

시편 기자는 자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시 42:1, 2). 다윗은 경험을 통해 이렇게 간증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 62:8).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시 86:15).

용서하시는 하나님.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 11)라고 열렬하게 간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은 놀랍도록 인자하시다는 보증에 의하여 위로를 받았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 103:11~14).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시 146:7~9)는 분이다.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잘 묘사되어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도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시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 방황하였다(레 26장; 신 28장). 하나님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호세아서는 악명 높은 불성실과 배반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도록 묘사한다.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성실 때문에 야기된 재난 속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셨지만—이는 이스라엘의 길을 바로잡고자 하심이다.—여전히 이스라엘을 자비하심으로 감싸 주셨다. 그분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9, 10)고 이스라엘에게 보증하신다. 그들의 불성실에도 그분은 부드럽게 약속하신다. "그들이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레 26:40~42; 렘 3:12 참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구속적 자세를 상기시키신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1, 22).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22)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구원과 복수의 하나님.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으로 기술하는 구약적 묘사는 악인에 의해 그분의 백성이 파멸되는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만 한다. "여호와의 날" 주제를 통하여 선지자들은 종말에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을 계시한다. 그날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그러나 멸망받게 될 그들의 원수에게는 복수의 날이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사 35:4).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설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들의 아버지로 언급하였다.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신 32:6).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양자로 삼으셨다. 이사야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사 64:8, 63:16 참조)라고 기록했다.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말 1:6)라고 확언하셨다. 다른 곳에서 말라기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역할과 관련시킨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말 2:10).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모두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

신약의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자요 모든 참신자들의 아버지로 계시되어 있으며,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시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전 8:6; 히 12:9; 요 1:17 참조). 그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엡 3:14, 15)라고 증거했다.

모든 신자의 아버지. 신약 시대에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자 개인

사이에도 존재한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의 지침을 제시하시는데(마 5:45, 6:6~15) 이것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확립된다(요 1:12, 13).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통하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성령은 이 관계를 촉진시키신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5, 6; 롬 8:15, 16 참조).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심오하게 나타내 보이셨다(요 1:1, 14).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어떤 사본에는 독생자)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고 기술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며(요 6:38),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요 14:9)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개인적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 1:1~3).

1.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우리는 창조에서, 베들레헴에서, 갈바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습을 본다.

창조 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행동하셨다. 아버지는 인간의 창조 행위가 결국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줄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베들레헴에서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당신 자신도 주셨다. 당신의 아들이 죄로 오염된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셨을까! 당신의 아들이 천사들의 사랑과 찬송을 죄인들의 미움과 바꾸시고, 하늘의 영광과 광채를 사망의 길과 바꾸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느낌이 어떠했을런지 상상해 보라.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곳은 다름 아닌

갈바리이다.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와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도 겪어 보지 못한 혹독한 것이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 무엇이 아버지에 대해 이보다도 더욱 잘 증언해 줄 수 있겠는가! 십자가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2.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주제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충만한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마 5:44, 45)고 말씀하셨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눅 6:35, 36).

몸을 굽혀 당신을 배반한 자의 발을 씻기심으로써(요 13:5, 10~14)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을 계시하셨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막 6:39~44, 8:1~9), 귀머거리를 고치시고(막 9:17~29),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막 7:32~37),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눅 5:18~26), 문둥병자를 고치시고(눅 5:12, 13),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막 5:35~43; 요 11:1~45), 죄인들을 용서하시고(요 8:3~11), 마귀를 내쫓으시는 모습 속에서(마 15:22~28, 17:14~21)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해 주시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장차 임할 새 땅을 그들에게 가리켜 보이시는 아버지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열쇠가 됨을 아셨다(롬 2:4).

그리스도의 세 가지 비유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눅 15). 잃은 양의 비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제 행동을 통해 이르러 오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찾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님을 가르친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었을 때 자기 양을 사랑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처럼, 이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은 타락한 각 사람을 향해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신다.

이 비유는 우주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잃어버린 양은 우리의 반역한 세계,

하나님의 광대한 우주 속에서 불과 하나의 원자에 불과한 지구를 대표한다. 우리 지구를 우리 안에 이끌어 들이려고 하나님께서 값비싼 선물이신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실은 우리의 타락한 세계가 그분께는 당신의 나머지 창조물과 같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잃은 주화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값진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강조한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 준다. 그는 통회하는 자녀들을 집으로 환영해 들이신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에 기쁨이 있다면(눅 15:7),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우주가 경험하게 될 기쁨이 어떠할런지를 상상해 보라.

신약은 당신 아들의 재림에 아버지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재림 때 악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계 6:16)고 외친다.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마 16:27), "인자가 권능(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26:64)고 말씀하셨다.

갈망하는 심정으로 아버지는 재림을 고대하신다. 그때 구속받은 자들은 마침내 그들의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요일 4:9)는 말씀이 헛되지 않았음이 입증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원수였지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롬 5:10)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측량할 수 없는 이타적 사랑만이 설명해 준다. 감히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떨쳐 버리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시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4장

아들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참하나님이신 분이 참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예증해 보이셨다. 그분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야이심이 증명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요 1:1~3, 14; 골 1:15~19; 요 10:30, 14:9; 롬 6:23; 고후 5:17~19; 요 5:22; 눅 1:35; 빌 2:5~11; 히 2:9~18; 고전 15:3, 4; 히 8:1, 2; 요 14:1~3)

광야는 독사들 때문에 악몽 속에 사로잡혔다. 뱀들이 음식 그릇 밑에서 꿈틀대고 다녔으며, 장막 지주를 감고 있었다. 그것들은 아이들의 장난감 더미 속에 숨어 있었고, 잠자리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독사의 이빨은 깊이 박혀서 치명적인 독을 뿜어내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었던 광야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 넘어졌다. 자신들의 곤경을 깨닫고 공포에 질린 채 부모들은 모세의 장막을 찾아가 도움을 호소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이마다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민 21:9).

뱀은 항상 사탄을 상징하며(창 3장; 계 12장), 죄를 대표한다. 진영은 사탄의 손아귀에 빠졌었다. 하나님의 회복책은 무엇이었는가? 성소 제단 위의 어린양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한 상징이다. 무는 뱀의 형상이 장대 위에 달렸던 것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롬 8:3)이 되신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될 것이었다(요 3:14, 15). 그분은 죄가 되셔서 이미 살았거나 살게 될 각 사람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에 소망 없는 인간이 삶을 발견하게 된다.

성육신이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을 갖다 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으며 이 일은 왜 필요했는가?

성육신: 예언과 성취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 방황하는 인간을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요 3:16; 요일 4:9)은 그분의 사랑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이 경륜 속에서 당신의 아들은 죄를 위한 희생물로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바 되신 이"(벧전 1:19, 20)로 인류의 소망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죄에서 구출하실 것이었다(벧전 3:18; 마 1:21; 요일 3:8).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즉시 죽어야만 했다. 그러나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계획(벧전 1:20, 21) 즉 "평화의 의논"(슥 6:13)에 따라 아들 하나님이 그들과 신적 공의 중간에 서셔서 구렁을 잇는 다리를 놓으시고 사망을 제어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은총 때문에 죄인들은 살 수 있었으며, 구원을 보증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하나님은 뱀과 여인 사이에 또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초자연적인 적대감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함축적인 진술 속에서 뱀과 그 후손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를 대표한다. 여인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구주를 대표한다. 이 진술은 선악 간의 쟁투가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로 종결짓게 될 것이란 점을 처음으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승리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다. "여자의 후손[구주]은 네[사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사탄]는 그[구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쌍방이 다 상처를 입게 될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인류는 약속되신 분을 고대했다. 구약은 그 같은 희구를 서술한 것이다. 예언들을 통해 약속된 분이 언제 오실는지가 미리 제시되었고, 세상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될 것이었다.

구속의 예언적 극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오실 구주의 사명을 예시하기 위하여 동물 제사를 제정하셨다(창 4:4을 보라). 이 상징적 체계를 통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떤 식으로 도말하실 것이지가 극화되었다. 죄–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때문에 인류는 사망에 직면했다(창 2:17, 3:19; 요일 3:4; 롬 6:23).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한히 자애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요 3:16)셨다. 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겸비하신 행동이신가!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친히 죄 값을 대신 갚으시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마련하신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희생제물은 언약 관계의 한 부분으로 성막에서 드려졌다. 하늘의 식양에 따라 모세가 만든 성소와 그 제사제도는 구속의 경륜을 예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출 25:8, 9, 40; 히 8:1~5).

용서받기 위하여 죄인은 전혀 흠이 없는 희생제물을 가져왔는데 이 제물은 무한하신 구주를 대표한다. 그때 죄인은 무죄한 동물 위에 손을 얹고 자

기 죄들을 고백한다(레 1:3, 4). 이 행위는 죄인으로부터 무죄한 희생제물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을 상징했는데, 이것은 희생제사의 대속적 본질을 묘사하는 것이다.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히 9:22)기 때문에 죄인은 동물을 죽였으며, 이에 따라 죄의 치명적 본질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것은 소망을 표현하는 서글픈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이 신앙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제사장의 제사 집전 후에(레 4~7장) 죄인은 동물 제사가 상징했던 오실 구속주의 대속적 죽으심을 믿는 신앙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다(레 4:26, 31, 35 참조).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으로 인정한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벧전 1:19)를 통하여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죄의 궁극적 형벌로부터 구속을 성취하셨다.

구주에 관한 예언들. 하나님은 구주–메시야(기름부음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창 22:18, 12:3 참조).

이사야는 구주께서 사내 아이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 따라서 구주는 인간이시며 하나님이 되실 것이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이 구속자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한 평강의 정부를 세우실 것이었다(사 9:7).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었다(마 5:2).

신–인(信人)이신 이분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것이 될 것이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신약은 말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구주의 사명은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사

61:1, 2; 눅 4:18, 19 참조).

놀랍게도 메시야는 거절을 당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2~4).

절친한 친구가 은전 삼십을 받고(슥 11:12) 그분을 배반할 것이었다(시 41:9). 그분은 심문을 받으실 때 침 뱉음과 매 맞음을 당할 것이었다(사 50:6). 그분을 처형하는 자들은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을 차지하기 위해 도박을 벌일 것이었다(시 22:18). 그분의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었으나(시 34:20) 그분의 옆구리는 찔림을 당할 것이었다(슥 12:10). 그분은 고난당하실 때 반항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무죄하신 구주는 죄인을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것이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사 53:4~8).

구주로 확인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러한 예언들을 성취하셨다. 성경은 그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추적하여 그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마 1:1).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한다(갈 3:16). 메시야적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분에게 널리 적용되었다(마 21:9). 그분은 약속된 메시야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자로 확인되었다(행 2:29, 30).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적이었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마 1:18~23)다. 로마의 칙령을 통해 그녀는 베들레헴, 곧 메시야의 출생지로 예언된 곳으로 가게 되었다(눅 2:4~7).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임마누엘, 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신-인 동성을 반영하여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하나님을 예증하

였다(마 1:23). 그분의 이름 예수는 그분이 갖고 계신 구원의 사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17~21)고 하심으로 이 예언과 당신의 사명을 일치시키셨다.

비록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쳤으나 그분의 기별은 일반적으로 거절을 당했다(요 1:11; 눅 23:18). 불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인정한 이가 없었다. 영접을 받으시기는커녕 그분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요 5:16, 7:19, 11:53).

예수님의 삼 년 반 동안의 봉사가 끝날 무렵에 제자 가룟 유다가 은 삼십 개를 받고(마 26:14, 15) 그분을 배반했다(요 13:18, 18:2). 저항하는 대신에 그분은 당신을 수호하려는 당신의 제자의 시도를 꾸짖으셨다(요 18:4~11).

비록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지만 체포된 지 24시간이 못 되어 그분은 침 뱉음을 당하고, 매 맞고, 심문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마 26:67; 요 19:1~16; 눅 23:14, 15). 군병들은 그의 옷을 차지하려고 도박을 벌였다(요 19:23, 24). 그분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동안에 그분의 뼈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요 19:32, 33, 36). 그리고 그분이 운명하신 후에 군인들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요 19:34, 37).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분의 죽으심을 죄인을 위한 유일한 희생으로 인정하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그분의 봉사와 사망 시기. 성경은 "때가 차매"(갈 4:4)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셨다고 계시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시작하실 때 "때가 찼다"고 선포하셨다(막 1:15). 때에 관한 이러한 언급은 구주의 사명이 세밀한 예언적 계획에 일치하게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5세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봉사 시작과 죽으심

의 사건이 일어날 정확한 시기를 예언하셨다.[1]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 70년이 끝나 갈 무렵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유대인과 예루살렘 도성을 위하여 70이레의 유예 기간을 할당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유대 민족은 회개를 통하여 메시야의 오심을 위해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야 했다.

다니엘은 이때를 가리켜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메시야적 활동들은 구주가 이때 안에 오실 것임을 지적한다(단 9:24).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 도합 69 이레가 되는 때에 메시야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확언했다(단 9:25). 69 이레 후에 메시야는 "끊어져 없어질 것"(단 9:26)이었다. 그분의 대속적 죽으심에 대한 언급이다. 그분은 70번째 이레의 절반 시기에 죽으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단 9:27)이었다.

시기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는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문자적 태양력 1년에 해당된다는 성경 원칙이다(민 14:34; 겔 4:6).[2] 이 연-일(年日)원칙에 따르면 70이레 (혹은 예언상의 490일)는 문자적인 490년을 대표한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단 9:25) 이 기간이 시작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자치를 허용하는 이 칙령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Artaxerxes) 왕 제칠년에 반포되어 주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생했다(스 7:8, 12~26, 9:9).[3] 예언에 따르면 칙령 후 483년(예언상의 69이레)에 "메시야 곧 왕"이 나타날 것이었다. 주전 457년으로부터 483년을 계수하게 되면 주후 27년 가을이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공중 봉사 사업을 시작하셨다.[4] 주전 457년과 주후 27년 이 두 연대를 받아들인 글리손 아쳐(Gleason Archer)는 이것은 "그러한 고대 예언이 가장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된 사례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아들의 오심을 그토록 정밀하게 예고하실 수 있다. 이것은 모든 합리주의적 설명을 배격한다."[5]라고 주석했다.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메시야"(히브리어), 혹은 "그리스도"(헬라어)-두 말 모두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눅 3:21, 22; 행 10:38; 요 1:41)-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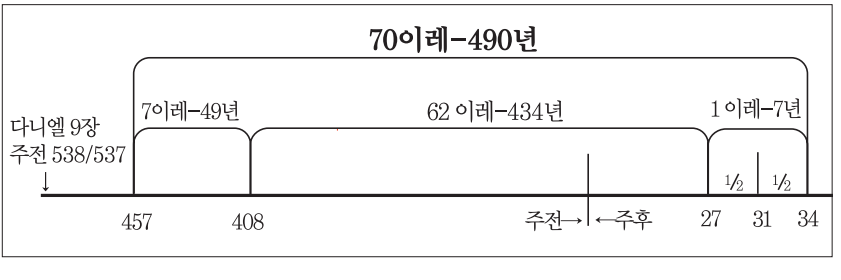
다. "때가 찼다"(막 1:15)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이 시기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언급하는 것이다.

70번째 이레의 중간 즉, 주후 31년 봄, 정확히 그리스도의 침례 후 3년 반이 되던 때에 메시야는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제사 제도를 끝나게 하셨다. 그분은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초자연적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마 27:51)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 봉사를 폐지하심을 지적하는 것이다.

모든 제물과 제사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메시야의 희생을 미리 가리켜 보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참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물로 갈바리에서 희생되셨을 때(벧전 1:19) 모형은 원형을 만났으며, 그림자는 실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상의 성소 봉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유월절 축제 중에 예언된 정확한 시간에 그분은 죽으셨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전 5:7)고 말했다. 이토록 놀랍게도 정확한 시기에 관한 예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예언된 세상의 구주시라는 기초적인 역사적 진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를 얻게 된다.

구주의 부활. 성경은 구주의 죽음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다윗은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행 2:31; 시 16:10 참조)고 예언하였다. 비록 그리스도는 타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지만(막 5:35~42; 눅 7:11~17; 요 11장), 그분 자신의 부활은 세상의 구주시라는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 26).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계 1:17, 18)다고 선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라는 기술 속에서 요한은 심오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은 신비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 속에 나타나신 것을 "경건의 비밀"(딤전 3:16)이라고 부른다.

자신 속에 신성의 충만함이 거했던 세상의 조물주께서 구유 안의 속절없는 아기가 되셨다. 그 어느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다.

사람은 이 신성한 신비의 의미를 거의 파악할 수 없으며, 오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길 간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성육신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해야만 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신 29:29).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분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백성들은 그분의 신성을 인식했는가?

1. 그분의 신적 속성들. 그리스도는 신적 속성들을 소유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마 28:18; 요 17:2)를 주셨다고 말했다.

그분은 **전지**하시다. 바울은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3)고 말했다.

예수님은 당신의 **편재성**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보증의 말씀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약속을 통해 주장하셨다.

비록 그분의 신성은 본질적으로 편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 이 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

다. 그분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편재하기로 선택하셨다(요 14:16~18).

히브리서는 그분의 **불변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분의 **자존성**은 그분이 당신 안의 생명을 주장하셨을 때(요 5:26) 분명해졌으며,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고 증거하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 안에는 "빌려오지 아니하고 파생되지 아니한 고유의 생명"[6]이 있음을 확언한다.

거룩함은 그분의 본성의 일부를 이룬다. 수태를 고지할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 1:35). 예수님을 보고 마귀들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막 1:24)라고 외쳤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요일 3:16)안다고 기록했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이사야는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사 9:6)라고 불렀다. 미가는 그분에 관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미 5:2)고 말했다. 바울은 그분의 존재 시기에 관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골 1:17)셨다고 말했다. 또한 요한도 동의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2, 3)고 했다.[7]

2. 그분의 신적 능력과 고유 권한. 하나님의 행위들이 예수께 돌려졌다. 그분은 창조주요(요 1:3; 골 1:16), 유지자 혹은 붙드는 자로 인식되고 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7; 히 1:3).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로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요 5:28, 29),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마 25:31, 32). 그분은 죄를 용서하셨다(마 9:6; 막 2:5~7).

3. 그분의 신적 칭호들. 그분의 이름들은 그분의 신적 본성을 나타낸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 1:23)라는 뜻이다. 신자들과 마귀가 모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막 1:1; 마 8:29; 막 5:7 참조). 하나님의 신성한 구약적 칭호인 여호와, 혹은 **야훼**가 예수께 적용된다. 마태

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예비하는 사업을 묘사할 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라"(마 3:3)는 구절을 사용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동일한 분이라고 했다(사 6:1, 3; 요 12:41).

4.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시인.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했다(요 1:1, 14).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요 20:28)이라고 인정했다. 바울은 그분을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롬 9:5)으로 언급했다. 히브리서는 그분을 하나님이시요 창조주라고 불렀다(히 1:8, 10).[8]

5. 그분의 개인적 증언. 예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주장하셨다. 그분은 "내가(나는) 있느니라(I AM)"(요 8:58)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구약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I AM THAT I AM), 출 3:14 참조]과 일치시키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내 아버지"(요 20:17)라고 부르셨다.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는 그분의 진술은 그분이 아버지와 "한 본질"이요 "동일한 속성들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주장을 공포하는 것이다.[9]

6. 하나님과의 동등성이 주장됨.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은 침례식의 공식 어구(마 28:19), 사도적 축도(고후 13:14), 그분이 떠나시며 주신 권면(요 14~16장), 영적 은사들에 관한 바울의 설명(고전 12:4~6) 등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히 1:3)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요 14:9)다고 대답하셨다.

7.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신다. 백성들은 그분을 경배했다(마 28:17; 눅 14:33 참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히 1:6). 바울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빌 2:10, 11)라고 기록했다. 몇 개의 축복 기도가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간구한다(딤후 4:18; 히 13:21; 벧후 3:18 참조).

8. 그분의 신성의 필수성. 그리스도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완

전하게 그들에게 계시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셨다(요 1:14).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17:6 참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요 14:9)다고 증거하였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요 5:30)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적 권능을 사용하셨다. 신적 능력을 통하여 그분은 고치고, 회복하고, 죄를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랑의 구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눅 6:19; 요 2:11, 5:1~15, 36, 11:41~45, 14:11, 8:3~11). 그러나 그분은 다른 사람도 같은 처지에 있다면 당할 수도 있는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적을 결코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10]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이시다. 성경은 그분의 신성에 추가하여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갖고 계심을 증거한다. 이 교훈을 수용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일 4:2, 3)다.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출생, 성장, 특성, 개인적 증언 등은 그분의 인성을 입증한다.

1.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탄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여기 "육신"이란 말은 "인간 본성", 곧 그분의 하늘 본성보다도 열등한 본성을 의미한다. 명백한 언어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갈 4:4; 창 3:15 참조)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형체"(빌 2:7, 8, RSV)가 되셨다. 하나님이 인성으로 나타나신 것은 "경건의 비밀"(딤전 3:16)이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는다(마 1:1). 인간적 본성에 따라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롬 1:3, 9:5) "마리아의 아들"(막 6:3)이셨다. 비록 그분은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여인에게서 나셨지만 엄청난 차이와 독특성이 있었다. 마리아는 처녀였으며,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마 1:20~23; 눅 1:31~37). 그분은 당신의 모친을 통하여 참된 인성을 취할 수 있으셨다.

2. 그의 인간적 성장. 예수님은 인간의 성장 법칙을 따르셨다. 그분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눅 2:40, 52)여지셨다. 12세 때 그분은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자각하셨다(눅 2:46~49). 소년기를 통해 그분은 당신의 부모님께 복종하셨다(눅 2:51).

십자가로 가시는 길은 고난을 통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었으며, 이것은 그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히 5:8, 9, 2:10, 18)었다. 그분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으나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3. 그분은 "사람"으로 일컬어지셨다. 침례자 요한과 베드로는 그분을 "사람"(요 1:30; 행 2:22)이라고 칭했다. 바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롬 5:15)라 했다.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초래하시는 "사람"이시다(고전 15:21).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딤전 2:5)이시다. 당신의 원수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일컬어 사람이라고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요 8:40).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길 좋아하신 칭호는 77회나 사용된 "인자"(마 8:20, 26:2 참조)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삼위 하나님 내에서 그분이 갖고 계신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사람의 아들("인자")이란 칭호는 당신의 성육신을 통한 인류와의 결속을 강조한다.

4. 그분의 인간적 특성.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시 8:5). 마찬가지로 성경은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난외주: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히 2:9)라고 말한다.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창조된 것이었으며 초인간적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이셨다. 이것은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그분이 인간적 본성의 특성을 필히 소유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혈과 육"(히 2:14)이셨다. "범사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동료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히 2:17).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다른 인간들과 같은 심리적, 육체적 감수성을 갖고 계셨다.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걱정 등(마 4:2; 요 19:28, 4:6; 마 26:

21, 8:24 참조).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실 때 동정, 의로운 분노, 슬픔을 나타내셨다(마 9:36; 막 3:5). 때때로 그분은 걱정과 슬픔을 느끼셨으며 울기까지 하셨다(마 26:38; 요 12:27, 11:33, 35; 눅 19:41). 그분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으며 한 번은 피땀이 나도록 기도하셨다(히 5:7; 눅 22:44). 그분의 기도의 생애는 그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셨음을 나타낸다(마 26:39~44; 막 1:35, 6:46; 눅 5:16, 6:12).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셨다(요 19:30, 34). 그분은 영으로서가 아니라 신체를 갖고서 부활하셨다(눅 24:36~43).

5. 예수님은 얼마만큼 인간 본성과 일치되셨는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심을 계시한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혹은 "죄 많은 인간의 모습"(롬 8:3, 공동 번역)으로 사셨다. 어느 정도까지 그분은 타락한 인간과 일치하셨거나 일치되셨는가? 죄 된 인간, 혹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란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부정확한 견해 때문에 기독교 역사 전체에 걸쳐 파당과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1)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셨다. 전에 언급한, 광야에서 들어올린 뱀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사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놋뱀은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 높이 매달렸다. 마찬가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이었다.

성육신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난외주: 형체]"이셨는데, 이것은 태초부터 그분은 신적 **본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말한다(요 1:1; 빌 2:6,7).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그분은 신적 고유 권한(prerogatives)을 유보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 되셔서(사 42:1)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다(요 6:38; 마 26:39, 42). 그분은 인성으로 신성을 옷입으셨으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혹은 "죄 있는 인간 본성" 혹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롬 8; 3 참조).[11]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거나, 죄 된 행위와 생각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비록 죄 있는 육신의 형체 혹은 모양이 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그분의 무죄하심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그분은 둘째 아담이셨다. 성경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아담을 "첫 사람",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전

15:45, 47). 그러나 아담은 그리스도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타락할 때 그는 낙원에 살았다. 그의 신체와 심령에 활력이 넘치는 완전한 인성을 소유했다.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셨다. 그분은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 4,000년에 걸쳐 이미 타락해 버린 인간적 본성을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타락하지 않은 본성과 비교해 볼 때 신체적, 정신적 활기가 떨어진 인간적 본성을 취하셨다.[12] 그러나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결과를 지니고 있는 인간적 본성을 취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연약성과 약점을 가지셨다.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연약에 휩싸여 있"었으며,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었다(히 5:2; 마 8:17; 사 53:4). 그분은 당신의 연약함을 느끼셨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히 5:7), 이렇게 하심으로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곤궁함과 약점에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셨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담의 인성, 곧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모든 점에서 타락한 후의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담의 인성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의 무죄한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락한 자의 인성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불결함 속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의 인성과 같되 죄는 없는 것이다."[13]

3) 그분은 시험을 겪으셨다. 시험은 그리스도께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분이 그것을 저항하시기가 쉬웠을까, 혹은 어려웠을까? 그분이 시험을 겪으신 방식은 그분이 참으로 인간이셨음을 증명한다.

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히 4:15)라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 준다. 시험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분에게 엄연한 현실이었다. 만일 그분이 죄를 지을 수 없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셨거나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시험에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온갖 불리한 조건을 지닌 인간 본성을 지니셨다.

어떻게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 "모

든 일"에, 혹은 "모든 점에"(NIV)라는 말씀은 그분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시험들을 만나셨다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결코 퇴폐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자동차의 제한 속도 위반 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다.

모든 시험 속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이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분은 인간이셨으나 가장 혹심한 시험도 성공적으로 저항하셨다.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분은 인간의 연약성을 동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명쾌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신비이다."[14]

②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히 2:18).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히 2:10)되셨다. 그분은 친히 시험의 권세를 직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시험당하는 모든 사람을 도우실 길을 알고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은 인간 본성이 당하는 시험에 인간과 하나되어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아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비록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분의 영적 기능들은 전혀 죄에 오염되지 않았었다. 그 결과 그분의 거룩한 본성은 지극히 민감했다. 악과 어떻게든지 접촉하기만 하면 그분은 고통을 받으셨다. 이처럼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거룩성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은 다른 어느 사람에게보다도 그분께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15]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분이 광야, 겟세마네, 골고다에서 겪으신 체험은 그분이 피 흘리기까지 시험에 저항하셨다는 것을 드러낸다(히 12:4 참조).

그리스도는 당신의 거룩성에 비례하여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것보다도 더욱 강력한 시험에 직면하셨다. 웨스트

코트(B. F. Westcott)는 말한다. "고난 중에 빠진 죄인에 대한 동정은 죄에 대한 체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죄한 자만이 그 최대 강도를 알 수 있는 죄의 유혹력에 대한 체험에 의존한다. 유혹에 넘어지는 자는 최후의 분투 이전에 굴복하는 것이다."[16] 브루스(F. F. Bruce)는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있다. "그분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온갖 형태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견디시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화되거나 그분께 대한 순종을 조금도 이완시키지 않으셨다. 이러한 견딤은 보통의 인간적 고난보다도 훨씬 심한, 결코 적지 않은 고난을 수반한다.[17]

그리스도는 또한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강력한 시험에 직면하셨다. 즉 당신의 신적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시험이었다. 엘렌 G. 화잇(E. G. White)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서 영예를 받으셨으며 절대적 권능에 익숙하셨다. 그분에게 있어서 인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처한 저열한 수준을 넘어서 신적 본성에 참여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18]

4)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실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실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에 제각기 다른 태도를 취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필립 샤프(Philip Schaff)의 말에 동의한다. "그분[그리스도]이 시초부터 **절대적**인 범죄 불가능성(犯罪不可能性) 혹은 죄 짓는 일이 불가능함을 부여받으셨다면 그분은 참인간, 혹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본이 되실 수 없었다. 그분의 거룩성은 스스로 획득한 행위나 고유의 공로가 되는 대신에 우연적이거나 외부에서 부여한 은사가 될 것이며, 그분의 시험들은 비실제적인 연극이 되었을 것이다."[19] 칼 울만(Karl Ullmann)은 추가해서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되던지 간에 그분이 시험을 받은 역사적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히브리서에 그분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표현한 말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20]

6.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의 무죄함. 예수님의 신적 본성은 무죄했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그분의 인간적 본성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을 무죄한 것으로 제시한다. 그분의 탄생은 초자연적이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마 1:20). 신생아로서 그분은 "거룩한 자"(눅 1:35)로 기술되었다. 그분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 본성을 취하셨는데, 이것은 죄의 결과들을 지닌 것이지 그 죄 됨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죄를 제외하고는 인류와 하나가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히 4:15, 7:26 참조)신다. 바울은 그분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고후 5:21)라고 기록했다. 베드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벧전 2:22)다고 증언했으며, 또한 그분을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벧전 1:19; 히 9:24)으로 비유했다. 요한은 그분은 죄가 없고 의로우시다고 했다(요일 3:5~7).

예수님은 온갖 불리한 조건을 지닌 우리의 본성을 자진해서 취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유전적 오염이나 타락과 실제적 죄와는 무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적대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요 8:46)고 도전하셨다. 가장 혹독한 시련에 직면해서 그분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요 14:30)라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악한 성향이나 기질, 혹은 죄 된 정욕을 전혀 갖지 않으셨다. 그 어떤 시험의 사태(沙汰)도 그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고백하거나 제물을 드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 드리지 않으셨다. 도리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라고 기도하셨다.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닌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의지하셨다(요 5:30 참조).

타락한 인간과는 달리 예수님의 "영적 본성"은 "모든 죄의 감염에서 벗어나"[21] 순결하고 거룩하다. 그분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전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분은 둘째 아담이시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죄의 성향을 지닌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인간 본성이 시험당하는 모든 일에 시험을 당하면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으셨으며,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분 안에는 악한 성향이 결코 없었다.[22]

진정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모본이시다. 그분은 무죄하시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완전하였다. 참으로 그분은 무죄한 인간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7.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야 할 필요성. 성경은 그리스도께

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것을 말해 준다.

1)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메시야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위치를 차지하셔야만 했다(슥 6:13; 히 4:14~16). 이 직능을 행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취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리스도는 이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셨다: ① 그분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므으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으셨다(히 5:2). ② 그분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에 "자비하고 신실한" 분이시다(히 2:17). ③ 그분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히 2:18). ④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이시기에 연약함에 대해 동정하시는 분이시다(히 4:15).

2) 가장 타락한 인간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이 처해 있는 곳까지 도달하여 가장 속절없는 자까지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종의 수준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필요하였다(빌 2:7).

3) 당신의 생명을 세상의 죄를 위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은 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죽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인간적 본성을 소유해야만 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죄의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은 사망이었다(롬 6:23; 고전 15:3). 인간으로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히 2:9).

4)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무죄한 생애를 사셔야만 했다. 둘째 아담으로서 그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거나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신화를 추방하셨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첫째 아담이 타락한 곳에서 둘째 아담은 죄와 사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셨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요 16:33).

그분을 바라봄으로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후 3:18)게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히 12:2, 3). 참으로 그리스도는 "너

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벧전 2:21; 요 13:15)다.

두 본성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두 개의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그분은 신-인(神人)이시다. 그러나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간 예수가 신성을 획득한 것이 아니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이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으로 융합되었다. 다음의 성경적 증거들을 주목하도록 하자.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연합되신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복수성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님을 두 분이 아닌 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러 구절이 신성과 인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오직 한 분에 관해 말한다. 바울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에게서 나신(인간적 본성) 하나님의 아들(신적 본성)로 묘사하였다(갈 4:4). 따라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신적 본성)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인간적 본성)"(빌 2:6, 7) 되셨다.

그리스도의 이중적 본성은 그분의 인간성과 관련된 추상적인 신적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라고 기록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롬 8:3)셨다고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딤전 3:16; 요일 4:2)나셨다.

두 본성의 혼합. 때때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인간적 본성과 관련해서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 자신의 피로 사셨다(행 20:28; 골 1:13, 14) 참조). 다른 경우에 그분의 신적 본성과 관련해서 인자를 기술한다(요 3:13, 6:62; 롬 9:5 참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위해 "한 몸"이 예비되었다(히 10:5). 그분이 인성을 스스로 취하셨을 때 그분의 신성은 인성으로 가리워졌

다. 이것은 인성을 신성으로, 혹은 신성을 인성으로 변화시킴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벗어나 다른 본성으로 옮겨가지 않으셨으며, 당신 안에 인성을 취해 들이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치셨거나 그분의 신성이 인간적 수준으로 격하되지는 않았다. 각각의 본성은 제자리를 지켰다. 바울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골 2:9)라고 말한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죽었으나 그분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두 본성의 연합은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사명과 우리의 구원 자체에 대하여 긴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1.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오직 신성과 인성을 지닌 구주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었다. 성육신할 때에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성을 신자들에게 나눠 주기 위하여 당신 안에 인성을 취해 들이셨다. 신-인이신 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신자들은 신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벧후 1:4).

야곱의 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다리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다다라 있다.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도 그분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신적인 팔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으며, 그분의 인성은 인류를 감싸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땅을 하늘과 연결시킨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효력을 갖는다. 무죄한 인간, 혹은 그 어떤 천사의 생명도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 오로지 신-인이신 창조주만이 인류를 속량하실 수 있었다.

2. 인성으로 신성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인성의 옷으로 당신의 신성을 가리우셨다. 그분은 천상의 영광과 위엄을 유보하셨는데 이는 죄 있는 인간이 파멸되지 않고 그분의 존전에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비록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셨다(빌 2:6~8).

3. 승리의 생애를 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성만으로는 사탄의 강력

한 기만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골 2:9)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이길 수 있으셨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써(요 5:19, 30, 8:28) 그분의 "인성과 결합된 신성의 능력은 인간을 위해 무한한 승리를 거두셨다."[23]

그리스도의 성공적인 생활 체험은 그분만이 가지시는 특권이 아니다. 그분은 인간이 행사할 수 없는 능력은 그 어느 것도 행사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엡 3:19)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의 열쇠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벧후 1:3, 4). 그분은 당신이 승리하셨던 동일한 능력을 제공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안위하시는 약속 중 하나는 승리에 관한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독특한 것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기름부음을 통하여 봉헌하는 의식을 요구했다(왕상 19:16; 출 30:30; 삼하 5:3). 예언이 가리킨 메시야 즉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질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신다. 선지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나아오신다. 왕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행사하신다.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계시하셨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신 18:18).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인식하였다

(요 6:14, 7:40; 행 3:22, 23).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선지자"(눅 13:33)라 칭하셨다. 그분은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마 7:29) 하나님 왕국의 원칙들을 선포하셨고(마 5~7장, 22:36~40), 또한 미래를 계시하셨다(마 24:1~51; 눅 19:41~44).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는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을 채우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이어지는 영광에 관한 예언들을 주셨다(벧전 1:11).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신다. 성경은 그분이 당신의 "증거"–"대언의 영"("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신)–를 당신의 신실한 남은자손에게 주신다고 말한다(계 12:17, 19:10; 본서 17장을 참조하라.).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메시야의 제사장직이 확립되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시 110:4).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다. 멜기세덱처럼 그분의 제사장 권리는 하나님의 임명에 의한 것이었다(히 5:6, 10, 본서 7장 참조). 그분의 중보하시는 제사장직은 두 개의 국면이 있었다.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

1. 그리스도의 지상 제사장직.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역할은 예수님의 지상 봉사를 상징했다.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 수행을 위한 완벽한 자격을 갖추셨다. 그분은 참인간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셨으며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특별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에" 종사하셨다(히 5:1, 4, 10).

제사장들은 죄를 속죄하는 장치인 희생제도를 통하여 경배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했다(레 1:4, 4:29, 31, 35, 5:10, 16:6, 17:11). 따라서 번제단에서 계속 드려지는 희생은 계속적인 속죄가 가능함을 상징했다.

이런 제사들은 불충분했다. 이것들은 드리는 자를 온전케 하고 죄를 없애버리고, 깨끗한 양심을 갖다 주지 못했다(히 10:1~4, 9:9). 이것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했다(히 10:1, 9:9, 23, 24 참조). 구약성경은 메시야께서 이러한 동물 희생을 대신하리라고 말했다(시 40:6~8; 히 10:5~9). 이러한 제사들은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는 고난과 속죄의 죽으심을 가리켰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

셨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한다(고후 5: 21; 갈 3:13; 요일 1:7; 고전 15:3 참조).

이처럼 당신의 지상 봉사 생애 동안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셨다. 그분의 십자가 상의 죽으심은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일의 일부였다. 골고다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후에 그분의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는 하늘 성소에 그 중심을 두었다.

2.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직. 지상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제사장 봉사는 하늘에서 그분에 의해 완성된다.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지상에서 보이신 겸비하심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였다(히 2:17, 18, 4:15, 5:2). 예언들은 메시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계시한다(슥 6:13). 부활하신 후에 겸비케 되신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셨다. 현재 우리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히 8:1,2, 1:3, 9:24 참조)셔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승천 후 즉시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다. 성전의 성소에서 위로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 기도, 의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경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가납되도록 한다. 향은 오직 번제단에서 취한 불 위에서만 드려질 수 있었다. 이것은 중보와 제단의 속죄의 희생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당신께서 성취하신 희생적 속죄 위에 기초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은 격려를 받는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고소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다(요일 2:1; 슥 3:1 참조).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수사학적으로 질문한다(롬 8:34).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인정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요 16:23)라고 말씀하셨다.

왕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시 103:19). 하나님의 아들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권을 나눠 가지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신-인으로서 그리스도는 당신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 대해 왕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시 45:6; 히 1:8, 9).

그리스도의 왕국은 싸움 없이 확립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메시야]를 대적"(시 2:2)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는 실패한다.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칙령에 따라 당신의 보좌에 세우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시 2:6,7; 히 1:5).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왕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렘 23:5, 6)이다. 그분의 통치는 독특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일하시기 때문이다(슥 6:13).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메시야적 통치자가 되리라고 말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3). 그분의 왕권은 그분의 두 왕국을 상징하는 두 보좌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은혜의 보좌"(히 4:16)는 은혜의 왕국을 대표하며 "영광의 보좌"(마 25:31)는 영광의 왕국을 대표한다.

1. 은혜의 왕국. 첫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했다. 믿음을 통하여 백성들은 이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망 때까지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분이 외치셨을 때 구속의 경륜을 위한 요구 사항은 충족이 되었으며 새 언약이 비준되었다(히 9:15~18 참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막 1:15)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당신의 죽으심에 의해 곧 건국될 왕국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창조가 아닌 구속 사업 위에 설립된 이 왕국은 거듭남 즉, 중생을 통해 그 시민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3:3 참조)라고 그 법을 정하셨다. 그분은 이 왕국의 성장을 겨자씨의 엄청난 발전과 밀가루에 미치는 누룩의 효과에 비유하셨다(막 4:22~31; 마 13:33).

은혜의 왕국은 외적 과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자의 심령에 끼치는 그 영향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 보인다. 예수님은 이 왕국이 "볼 수 있게 임하

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 21)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진리의 왕국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요 18:37). 바울은 이 왕국이 신자들이 옮겨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 골 1:13)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했다.

이 왕국의 확립은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몹시 괴로운 체험이었다. 당신의 공중 사역이 끝나 갈 때 메시야시요 신-인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정당한 후계자로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왕의 입성 모습을 갖추어 나귀를 타신(슥 9:9) 예수님은 대중의 자발적이고도 열렬한 지지를 받으셨다. 왕도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동안에 허다한 무리가 자기의 옷을 펼쳐 왕의 양탄자를 만들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폈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1:9)라고 소리침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이제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메시야적 왕으로 제시하셨다.

불행하게도 보좌에 대한 그분의 주장은 반대 없이 지나가지 않았다. "무죄하신 분"에 대한 사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신앙의 수호자로 자처한 산헤드린은 그분을 비밀리에 체포하여 심문하고 사형 언도를 했다.

예수님은 심문을 받는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의 백성의 왕이심을 공적으로 시인하셨다(눅 23:3; 요 18:33~37). 그분의 그 같은 주장에 그들은 조롱하면서 그분에게 왕복을 입혔으며, 면류관을 씌웠는데 그 면류관은 황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었다(요 19:2).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는 일은 순전히 조롱하는 행위였다. 군인들은 그분을 때리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요 19:3)라며 비웃었다. 또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분을 백성 앞에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제시했다. 그분의 친백성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요 19:14, 15)라고 부르짖었다.

가장 깊은 겸비-십자가에서의 죽으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은혜의 왕국을 세우셨다. 곧 이어 높임을 받으심으로 그분의 겸비는 끝났다.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하늘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보좌를 함께 하시고 제사장과 왕으로 즉위하셨다(시 2:7, 8; 히 1:3~5; 빌 2:9~11; 엡 1:20~23 참조). 이 즉

위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그분에게 전에는 그의 것이 아니었던 그 어떤 다른 권세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신-인 중보자로서 그의 인성이 하늘의 영광과 권세에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2. 영광의 왕국. 영광의 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 변화산에서 주어졌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마 17:2). 모세와 엘리야는 구속받는 자들을 대표했다.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자들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재림 때에 하늘로 취함을 입을 신자들을 대표했다.

영광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대격변적인 사건들과 더불어 세워질 것이다(마 24:27, 30, 31, 25:31, 32). 하늘 성소에서 인자의 중보 사업이 끝나는 때, 심판에 이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아버지 하나님-가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실 것이다(단 7:9, 10, 14). 그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단 7:27).

영광의 왕국은 천년기 끝에 지상에 최종적으로 세워질 것인데, 그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계 20, 21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고, 그분의 재림 때에 영광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삶이 펼쳐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인생은 실패와 산산조각이 난 소망과 꿈들로 꽉 채워진 삶이 아니다. 성장의 삶이요, 구주와 함께 성공적으로 동행하는 삶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갈 5:22, 23)-자신의 생애를 당신께 의탁하는 모든 이를 위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관계의 열매-을 점점 더 나타내는 삶이다. 그 누가 이러한 선물을 거절하겠는가?

참고문헌

1. 70이레 예언에 관해서는 70 Weeks, Leviticus, and the Nature of Prophecy, ed.

Frank B. Holbrook(Washington, D.C.: Biblical Research Institute,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1986), pp. 3~127을 참조하시오.

2. 연-일 원칙에 관한 성경적 토대에 관해서는 Willam H. Shea, Selected Studies on Prophetic Interpretation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82), pp. 56~93을 참조하라.
3. 아닥사스다의 치세 연대는 올림피아드 연대, 프톨레미 정경, 에레판틴 파피리, 바빌로니아인들의 설형문자 점토판들에 의해 확고하게 밝혀졌다.
4. C. Mervyn Maxwell, Good Cares(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1981), vol. 1, pp. 216~218도 참조하라.
5. Gleason L, Archer, Encyclopedia of Bible Difficultie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2), p. 291.
6. White, The Desire of Ages(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1940), p. 530.
7. 성경이 예수님을 "독생자" "맏아들"로 시사하며, 그분이 출생한 날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그분의 신적 본성과 영원한 존재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독생자"(요 1:14, 1:18, 3:16; 요일 4:9)라는 용어는 헬라어 **모노게네스**(monogenes)에서 온 것이다. **모노게네스**의 성경적 용법은 그 의미의 범위가 "유일한" 혹은 "독특한"에 미치며, 시간 속에서의 사건이 아닌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자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도 아니요, 맏아들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불려지고 있다(창 16:16, 21:1~21, 25:1~6).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기로 작정된 독특한 아들, 그 종류의 유일한 자(the only one of his kind)였다. "예수 그리스도, 선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신 분이 당신의 성육신 때에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분은 '모노게네스', 그의 유형의 유일한 분(the only one of His kind), 그분의 존재와 생애의 많은 측면에서 전적으로 독특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인간 중에 그 어느 사람도 그의 인생이 그토록 함축적이며, 그토록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며, 그분이 이루셨던 것과 같은 일을 행한 이는 전혀 없다. 따라서 '모노게네스'는 신성의 구별된 인격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다. 이것은 구속의 경륜의 섭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복합적인 신적-인적 인격에 속한 관계이다."(Committee on Problems in Bible Translation, Problems in Bible Translation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54], p. 202).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칭해졌을 때(히 1:6; 롬 8:29; 골 1:15, 18장; 계 1:5), 이 용어는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중요성이나 우선권을 강조하는 말이다(히 12:23 참조). 히브리 문화에서 장자는 가독상속권(家督相續權)을 받았다. 따라서 예수님도 인간들 중 장자로서 인간이 상실했던 모든 특권을 돌려받았다. 그분은 새 아담, 곧 인류의 새 "장자" 혹은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신 날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독생자와 맏아들의 언급과 유사한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문맥에 의지해서 볼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 2:7)라는 메시야적 예언은 예수님의 성육신(히 1:6), 부활(행 13:33, 30절 참조), 혹은 즉위식(히 1:3, 5)을 언급한다.
8. 부가적 증거를 헬라어 문법의 규칙 속에서 찾을 수 있다. (1) "주"의 무관사 용법(정관사를 쓰지 않는 용법). 70인역은 야훼를 무관사의 **쿠리오스**(Kurios)로 번역한다. 신약에

서 무관사의 **쿠리오스**를 사용할 때 이것은 흔히 하나님을 가리킨다(예 : 마 7 : 21, 8 : 2, 6, 25). (2) 단수 관사는 두 개의 실질 명사를 제한한다. 이런 예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딛 2 : 13),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벧후 1 : 1)와 같은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3) 두 개의 실질 명사가 있을 때 두 번째 것이 관사가 없는 소유격이면, 실질 명사의 경우에 전자의 특성이 후자에 종속된다. 로마서 1장 17, 18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기술되어 있다(눅 1 : 35).

9. "The True Sheep Respond to the Voice of the Shepherd", Signs of the Times, Nov. 27, 1893. p. 54
10.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34.
1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저술가들은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을 기술하는 데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이 어떤 면으로든지 죄가 있었다는 의미를 결코 내포하지 않는다. 온 역사를 통해서 본 교회의 공식 입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무죄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12. 그리스도는 동시대인들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동일한 감수성"을 갖고 계셨다(White, "Notes of Travel,"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Feb. 10, 1885. p. 81) – "신체적 힘과 정신적 능력과 도덕적 가치"가 감소한 인간적 본성을 갖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무죄하셨다(White, "In All Points Tempted Like As We Are," Signs, Dec. 3, 1902, p. 2 ; White, The Desire of Ages, p. 49).
13. Henry Melvill, in Sermons by Henry Melvill, B. D., ed., C. P. Mcllvaine(New York, N Y : Stanford & Swords, 1844), p. 47. "무죄한 연약성"에 대해서 그가 의미한 것은 굶주림, 고통, 슬픔 등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간 타락 전후의 본성에 관한 이런 이론을 "정통 교리"라고 말했다(상게서).
14. White, Letter 8, 1895 in The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ed., Francis D. Nichol, rev. ed.(Washington, D.C. : Review and Herald, 1980), vol. 5, pp. 1128, 1129 ; cf.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 426.
15. White, "In Gethsemane," Signs, Dec. 9, 1987, p. 3 ; White in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 927 참조.
16. Brooke F. Wescott, The Epistle to the Hebrews (Grand Rapids, MI : Wm. B. Eerdmans, 1950), p. 59.
17. F. F. Bruce,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Grand Rapids, MI : Wm. B. Eerdmans, 1972) pp. 85, 86.
18. White, "The Temptation of Christ," Review and Herald, April 1, 1875, p. [3].
19. Philip Schaff, The Person of Christ (New York, NY : George H, Doran, 1913), pp. 35, 36.
20. Karl Ullmann, An Apologetic View of The Sinless Character of Jesus, The Biblical Cabinet ; or Hermeneutical Exegetical and Philological L ; brary (Edinburgh : Thomas Clark, 1842), vol. 37, p. 11.
21. White, "In Gethsemane," Signs, Dec. 9. 1897. p. 3 ; cf. White, The Desire of

Ages, p. 266.

22. White, Letter 8, 1895. in SDA Bible Commentary, vol. 5, pp. 1128, 1129. E. G. 화잇 시대에는 **성향**(propensity)을 다음과 정의했다: "성향"은 라틴어의 **프로펜수스**(propensus)에서 파생한 말로 "자연적인 경향; 성벽, 성미"로 정의가 된다(Webster; s Collegiate Dictionary, 3rd ed. [Springfield, MA: G & C. Merriam Co., 1916]) ; cf. Nuttal's Standard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Boston, MA: De Wolfe, Fiske & Co., 1886). Webster's Unabridged Dictionary는 이것을 "기욺[도덕적 의미로 기울어지는 것]의 특성, 혹은 그 상태; 자연적인 경향, 선이나 악을 행하는 기질 성벽 ; 성미, 추세"라고 정의하였다(Webster's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Springfield, MA: G. & C. Merriam & Co., 1890). 엘렌 G. 화잇이 좋아했던 저술가 중 한 사람인 헨리 멜빌(Henry Melvill)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러나 그분이 무죄한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죄의 성향들과 함께 그것을 취하지는 않으셨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성령이 동정녀를 덮으시고 그녀에게서 연약성을 취하도록 허용하시면서도 사악성은 배제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슬픔과 고난의 인성을 생성하셨는데, 결코 더럽혀지거나 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눈물을 가진 인성이셨으나 얼룩진 것은 아니었다. 고뇌하실 수 있으셨으나 성내는 경향은 갖지 않으셨다. 발생한 불행에 가장 가까이 연결되셨지만 불행을 야기하는 일로부터는 절대적으로 무관한 분이었다(Melvill, p. 47). Tim Poirier, "A Comparison of the Christology of Ellen G. White and Her Literary Sources" (Unpublished MS, Ellen G. White Estate, Inc.,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Washington, D.C. 20012)를 참조하시오.
23. White, "Temptation of Christ," Review and Herald, Oct. 13, 1874. p. [1] ; cf. White in SDA Bible Commentary, vol. 7, pp. 907, 904;Vol. 5, p. 1113.

제5장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창 1:1, 2 ; 눅 1:35, 4:18 ; 행 10:38 ; 벧후 1:21 ; 고후 3:18 ; 엡 4:11, 12 ; 행 1:8 ; 요 14:16~18, 26, 15:26, 27, 16:7~13)

비록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좌절과 고뇌와 공포를 안겨 주었지만 부활을 통해 그들의 생애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굴레를 깨뜨리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의 심령 속에 동이 텄다.

이제는 결코 꺼질 줄 모르는 불길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타고 있었다. 몇 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가운데 거친 장벽을 쌓게 했던 불화는 이제 모두 녹아 버렸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허물을 고백했으며 승천하신 그들의 왕 예수님을 모셔 들이기 위하여 자신들을 더욱 완전하게 개방하였다.

한때 흩어졌던 이 양 무리의 연합은 날마다 기도로 시간을 보냄에 따라 공고해졌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그들에게 이르러 왔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중에 들려왔으며, 그들의 불길은 영혼을 보여 주기라도 하는 듯 맹렬한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성난 불길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께 대해 새롭게 타오르는 사랑과 기쁨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공공연히 그리고 열렬하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국가에서 온 순례자들과 지방민으로 구성된 군중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건물 앞으로 몰려들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채 그들은 순박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능력 있게 증거하는 소리를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어떤 이는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며 무시하고자 했다. 무리들의 웅성대는 소리를 뚫고 베드로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침 아홉 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행 2장).

성령은 누구신가?

성경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닌 한 인격체로 계시한다. "성령과 우리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행 15:28)와 같은 진술들은 초기 신자들이 그분을 인격체로 보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을 별개의 인격체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 16:14)라고 말씀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성경절은 성령을 한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다(마 28:19; 고후 13:14).

성령은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노력하시고(창 6:3), 가르치시고(눅 12:12), 죄를 책망하시고(요 16:8), 교회 일을 지시하시고(행 13:2), 도우시며 중보하시고(롬 8:26), 영감을 주시고(벧후 1:21), 성화시키신다(벧전 1:2).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행해질 수 없다. 오직 한 인격체만이 이것들을 할 수 있다.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제시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령께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3, 4)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1, 32). 이런 일은 성령이 하나님이실 때에만 진실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성령과 신적 속성들을 관련시킨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바울은 그분을 "생명의 성령"(롬 8:2)이라고 했다. 그분은 **진리**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진리의 성령"(요 16:13)이라고 부르셨다. "성령의 사랑"(롬 15:30)과 "하나님의 성령"(엡 4:30)이라는 표현은 **사랑**과 **거룩함**이 그분의 본성 중 일부임을 계시한다.

성령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전 12:11)신다. 그분은 **편재**하신다. 그분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게 하실 것"(요 14:16)이다. 그 누구도 그분의 영향권에서 도피할 수 없다(시 139:7~10). 그분은 또한 **전지**하시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전 2:10, 11)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역들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 창조와 부활 모두 그분이 관여하신다. 욥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욥 33:4)고 말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시 104:30)라고 말했다.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고 주장했다.

비인격적 영향력이나 피조된 존재가 아닌 오직 편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만이 신적 그리스도를 한 개인 마리아에게 임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오순절 때 성령은 받아들이기를 자원하는 모든 이에게 유일하신 신인이신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임재하게 하셨다.

성령은 침례식의 공식 문구(마 28:19), 사도적 축복(고후 13:13), 영적 은사에 관한 말씀(고전 12:4~6)에서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분으로 간주

되고 있다.

성령과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셋째 위격(位格)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자존하시는 분이다. 비록 각 위(位)께서는 동등하시지만 기능상의 경제성이 삼위일체 내부에서 작용한다(본서 2장 참조).

성령 하나님께 대한 진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성령이 신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신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자기만의 신임장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다. 그분의 역사 속에서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명에 집중이 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셨고(눅 1:35), 침례 시에 그분의 공중 사역을 인정하셨고(마 3:16, 17),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부활의 유익을 인류에게 가져오셨다(롬 8:11).

신성 내에서 성령은 집행자의 기능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실 때(요 3:16),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마 18~20). 성령은 계획을 완수하여 실현시키기 위해 오셨다.

창조 시에 성령이 밀접하게 개입한 사실은 창조 시에 그분이 임재하신 것으로 알 수 있다(창 1:2). 생명의 기원과 유지는 그분의 작용에 달려 있다. 그분이 떠나가시는 것은 사망을 의미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욥 34:14, 15, 33:4 참조)고 성경은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열고 있는 각 사람 속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재창조 사역을 통해 성령의 창조적 사역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창조주 성령을 통하여 개인 속에서 수행하신다. 성육신, 창조, 재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시키러 오신다.

약속된 성령

우리는 성령의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의도된 존재이다(고전 3:16을 보라).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에덴동산과 내재하시는 성령에게서 분리되었다. 이러한 분리는 계속되었으며, 홍수 전 시대에 엄청난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창 6:3)라고 선언하시기에

이르렀다.

구약 시대에 성령은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개인들을 준비시키셨다(민 24:2;삿 6:34;삼상 10:6). 때때로 그분은 사람들 "안에" 계신다(출 31:3; 사 63:11). 진실한 신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육체에게"(욜 2:28 난하 주) 성령을 부어 줄 것이 예고되었다. 이때는 성령이 훨씬 크게 나타나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는 때이다.

세상이 아직도 찬탈자의 손아귀 속에 남아 있는 동안 성령의 충만한 부어 주심은 미루어져야만 했다. 성령께서 만민에게 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당신의 지상 사역을 수행하여 속죄의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으로 가리키면서 침례자 요한은 말했다. "나는…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마 3:11).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내용의 언급이 없다. 당신의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요 14:16, 17).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십자가에서 받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시던 금요일에 비둘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암흑과 번개뿐이었다.

부활하실 때까지 그분은 성령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불어넣지 않으셨다(요 20:22).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눅 24:49)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성령이(너희에게) 임하"(행 1:8)실 때 받게 되어 신자들은 땅 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었다.

요한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9)고 말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성령님을 부어 주시기 위한 전제 요건이었다.

새 시대는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오직 그때에 그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실 수 있으셨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후에 "성령을…부어 주셨느니라"(행 2:33)고 말했다. 이 사건을 열렬하게 고대하는 제자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행 1:5, 14). 오순절, 곧 갈바리 사건 후 50

일 되던 때에 성령께서 모든 능력으로 임재하심과 더불어 새 시대가 개막되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제자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행 2:2~4).

예수님과 성령의 사명은 전적으로 상호 의존적이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수 없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마 1:8~21),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막 1:9, 10),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눅 4:1),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기적을 행하시고(마 12:24~32), 당신 자신을 갈바리에서 성령을 통해 드리셨고(히 9:14, 15), 어떤 의미로는 성령에 의하여 부활하셨다(롬 8:11).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첫 번째 인간이셨다.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성령을 우리 주께서 부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진리이다.

성령의 사명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당신께서 떠나갈 때가 임박했다고 하신 말씀은 그분의 제자들을 크게 괴롭혔다. 그분은 즉시 당신의 개인적 대표자로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들은 고아처럼 홀로 남지 않을 것이었다(요 14:18).

사명의 기원. 신약은 성령을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한다. 그분은 "예수의 영"(행 16:7), "그 아들의 영"(갈 4:6), "하나님의 영"(롬 8:9), "그리스도의 영"(롬 8:9; 벧전 1:11),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빌 1:19)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성령의 사명을 창안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의 기원을 나타내셨을 때 그분은 두 개의 근원을 언급하셨다. 첫째로 그분은 아버지를 언급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요 14:16, 15:26 참조, "아버지께로서"). 성령의 침례를 그분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행 1:4)이라고 불렀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언급하셨다. "내가 그[성령]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나오신다.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명.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시인할 수 있다.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고 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보증을 받고 있다(요 1:9). 그분의 사명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요 16:8)하시는 것이다.

첫째, 성령은 우리에게 죄,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를 깊이 슬퍼하도록 하신다(요 16:9). 둘째, 성령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신다. 셋째,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심판은 죄로 어두워진 심령들에게 회개와 회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는 물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다(요 3:5). 그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자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 성령에 관한 성경절 중 대다수가 그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분의 성화케 하는 감화력이 순종으로 이끈다(벧전 1:2). 그러나 그 누구도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는 그분께서 내재하시는 체험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했다(행 5:;32).[1] 따라서 신자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하고,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는다(행 7:51;엡 4:30;살전 5:19).

성령은 신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1. 그분은 신자들을 도우신다. 성령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또 다른 보혜사(**파라클레토스**Parakletos)"(요 14:16)라고 부르셨다. 이 헬라어는 "돕는 자"(Helper, NKJV), "위로자"(Comforter, KJV), "상담자"(Counselor, RSV)로 번역이 되었으며, "간구자"(Intercessor), "중보자"(Mediator) 혹은 "대언자"(Advocate)를 의미하기도 한다.

성경에 언급된 유일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혹은 간구자이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혹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간구자, 중보자,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것은 왜 성령이 "은혜의 성령"(히 10:29)이라고 일컬어지는지를 설명한다. 그분께서 기여하시는 가장 큰 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고전 15:10; 고후 9:4; 요 4:5, 6 참조).

2. 그분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오신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요 14:17, 15:26, 16:13)이라고 칭하셨다. 그분의 기능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요 14:26)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요 16:13)는 것이다. 그분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요 15:26).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 16:13, 14).

3. 그분은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별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도 가져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돕는 자, 요 14:16, 17]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인성으로 제약받으신 인간 예수님은 편재하실 수 없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유리하였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요 14:16, 17).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요 14:17, 18)라는 보증을 주셨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지만 인간의 개성을 갖지 않으신 분이며, 그러기에 독립적인 분이시다.[2]

성육신 때에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 마리아에게 임하시도록 했다.

오순절 때, 성령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임하시도록 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 "내가 세

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성령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은 구약에서 그분에 대해 결코 사용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칭호를 사용한다(빌 1:19).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들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므로(요 14:23)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이다.

4. 그분은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신다.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이시다. 신앙과 교리상의 항구적인 권위의 중심으로 그분이 교회를 이끄시는 방식은 성경과 아주 잘 조화된다. "개신교의 두드러진 특색–이것이 없다면 개신교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은 성령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시요 후계자시라는 것이다. 조직, 혹은 지도자, 혹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앉는 것이다."[3]

성령은 사도 교회를 치리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셨다. 선교사를 선발할 때 교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그분의 지도를 얻었다(행 13:1~4). 개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긴 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묘사한다(행 13:9, 52 참조). 그들의 활동은 그분의 지배하에 있었다(행 16:6, 7).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그 위치를 얻은 것은 성령에 의해서라는 것을 상기시켰다(행 20:28).

성령은 교회의 일치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경은 최초의 교회 총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성령과 우리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행 15:28)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다.

5. 그분은 교회에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부여해 주셨다. 구약 시대에는 "주의 영"께서 개인들 "위에" 임하셨으며,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출할 수 있도록 탁월한 능력을 주셨다(삿 3:10, 6:34, 11:29 등). 또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민 11:17, 25, 26; 삼하 23:2).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로 사울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임하셨다(삼상 10:6, 10, 16:13). 어떤 백성에게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독특한 공예 기술이 임하였다(출 28:3, 31:3, 35:30~35).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은사들을 교회에게 부여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였다. 성령은 이러한 은사들을 당신께서 적합하다고 보시는 이에게 분배하심으로 온 교회에 유익을 끼치신다(행 2:38; 고전 12:7~11). 그분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능력을 준비하셨다(행 1:8; 본서 17장 보라).

6. 그분은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신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2)라고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모든 신자에게 중대한 질문이다.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 제자들 위에 안수했으며,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행 19:6).

성령에 의하여 죄를 자각하게 되는 일 그리고 생애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일은 별개의 두 가지 체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지적해 준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의 필요성을 지적하셨다(요 3:5). 승천 직전에 그분은 새 신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마 28:19)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에 조화를 이루어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침례 때에 받게 된다고 설교했다(행 2:38). 또한 바울은 성령의 침례의 중요성(본서 14장)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는 긴박한 호소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중생 때 시작된 성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비를 좇아 구원하시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딛 3:5, 6)셨다.

"복음 사역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지식, 재능, 능변, 각종 천부적이거나 후천적인 자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심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4]

성령은 필수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변화는 성령의 봉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이다. 신자로서 우리는 성령 없이

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만 한다(요 15:5).

오늘 성령은 당신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신다. 그분은 당신의 호소에 저항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계신다.

참고 문헌

1. Arnold V. Wallenkampf, New by the Spirit(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1978). pp. 49, 50 참조.
2. White, The Desire of Ages, p. 669.
3. LeRoy E. Froom, The Coming of th Comforter, rev. ed.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49), pp. 66, 67.
4.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1948), vol 8, pp. 21, 22.

제6장

창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계시하셨다. 엿새 동안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며 그 첫 주일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것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첫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 다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심히 좋았"다.(창 1:2; 출 20:8~11; 시 19:1~6, 33:6, 9, 104장; 히 11:3)

성경의 설명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출 20 : 11)이 즉시 나타났다. 단 엿새 동안에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완전히 성숙한 동물들과 식물류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우리 유성은 청순하고 밝은 색깔과 형태와 향기로 단장을 했으며, 화려한 모습과 심히 정교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마치신 후 경축하시기 위하여, 즐기시기 위하여 "안식하셨다." 이 엿새 동안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은 그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태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물과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

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키시고 빛을 "낮"이요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둘째 날 하나님은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다. 땅 위의 물과 대기권을 분리하심으로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셨다.

셋째 날 하나님은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 육지와 바다를 조성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벌거숭이 해안, 언덕, 계곡을 옷 입히셨다.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창 1:12)셨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 달, 별들을 만드셔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창 1:14~16).

다섯째 날 하나님은 조류와 수중 생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 종류대로"(창 1:21)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일관성 있게 자기 종류를 번식시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고등 동물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창 1:24).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로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창 1:27)셨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셨다.

창조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시 33:6)라고 기록하였다. 어떻게 이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 작용하였는가?

창조력이 있는 말씀과 선재하는 물질. 창세기는 창조 주일 엿새 동안의 장엄한 사건들을 유발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명령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도입하고 있다(창 1:3, 6, 9, 11, 14, 20, 24). "혼돈하고 공허"한 유성을 낙

원으로 변화시킨 창조적 에너지로 충전된 각각의 명령이 발해졌다.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 33:9). 진실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히 11:3)졌다.

이 창조력 있는 말씀은 **선재하는 물질**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ex nihilo).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비록 때때로 하나님은 선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셨지만—아담과 짐승들은 흙으로 형성되었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창 2:7, 19, 22)—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다.

창조 이야기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설명에 관하여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성경 첫 책에 있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는 서로 상충하는가 혹은 일치하는가? 창조의 하루는 문자 그대로인가 혹은 엄청난 시간적 기간들을 대표하는 것인가? 하늘—해, 달 그리고 별까지도—은 정말 겨우 6000년 전에 만들어졌는가?

창조에 관한 설명. 창조에 관한 한 성경의 두 기사—창세기 1장 1절~2장 3절과 창세기 2장 4~25절의 말씀—는 조화된다.

첫째 이야기는 만물의 창조를 그 이루어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이야기는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가족의 역사를 도입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창 5:1, 6:9, 10:1; KJV에서는 '대략'이란 말이 generations로 '계보', '사적(事蹟)', '후예' 등의 단어에 사용되고 있다.—역자 주). 이 이야기는 창조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엄격하게 시간적 순서를 지키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계시한다.[1] 이것은 첫 번째 것보다도 더욱 상세하게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리고 에덴동산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환경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덧붙여서, 이것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 알려 준다. 이 두 개의 창조 설명을 문자적이며 역사적인 것으로 수용할 때에만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이것들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창조의 날들. 성경의 창조 기사에 나오는 날들은 문자적인 24시간의 기간을 의미한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측량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창 1:5, 8, 13, 19, 23, 31)라는 표현은 저녁, 혹은 일몰로부터 시작되는 개별적인 날들을 의미한다(레 23:32;신 16:6 참조). 이 표현이 레위기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하루를 의미하고 창세기에서는 수천, 수백만 년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

창세기 1장에서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욤**(yom)이다. **욤**이 한정된 숫자와 함께 나올 때 이것은 언제나 문자적인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창 7:11; 출 16:1의 예들을 참조하라.). 이것은 창조 이야기의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24시간 하루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날들이 문자적인 날을 의미한다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 넷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하나님은 창조 이야기를 간결하게 재언급하신다. 각 날(**욤**)은 창조적 활동으로 채워졌으며, 그 다음에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 주일은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24시간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창조 주일을 경축하는 것이다. 만일 각 날이 영겁을 의미한다면, 넷째 계명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2]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창조의 하루가 문자적인 24시간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자들은, 동일한 구절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로 끝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의 날들을 수천 년 혹은 수백만, 수억 년의 막연한 기간으로 읽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의심하는 자이다. 뱀은 하와가 바로 이렇게 행하도록 유혹했던 것이다.

"하늘들"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천지(하늘들과 땅, the heavens and the earth)를 창조하시니라"(창 1:1, 2:1;출 20:11 참조)는

구절과 그분께서 6000년 전의 창조주일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볼 때에(창 1:14~19) 당황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때에 모든 천체가 존재하게 된 것일까?

창조주일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하신 하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늘들"은 아마 지구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유성들과 별들을 언급할 것이다.

사실상 지구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창조물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가장 마지막 창조물이었을 것이다. 성경은 우주의 머나먼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과 회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욥 1:6~12), 이들은 아마 타락하지 않은 모든 세계의 아담들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주 탐사를 통해 인간이 거하는 어떤 유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분명히 광대한 우주 속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들은 죄로 오염된 태양계에서 죄에 감염되지 않을 만큼 멀리 격리된 곳에 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토록 무한하신 분께서 당신의 우주 저 멀리 모퉁이에 존재해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인가?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그분은 더욱 크고 나은 일들을 하러 가지 않으셨는가?

돌보시는 하나님. 성경의 창조 설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게로 옮겨온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완전한 환경을 준비하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남녀 인간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걸작품이었다.

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세심한 분임을 알게 된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동산의 가정을 장만하시고 그들에게 그곳을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분은 인간들이 당신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 이것은 강요되거나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선택의 자유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에 관여하셨다(창 1:2, 26). 그러나 활동적인 행위자는 하나님의 아들, 선재하시는 그리스도이셨다. 창조 설명의 서언에서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했다. 이 말을 회상하면서 요한은 창조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1~3). 이어서 요한은 동일한 장에서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분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예수님은 창조주, 땅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분이셨다(엡 3:9; 히 1:2 참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 자애로운 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향해 무릎을 꿇고 이 첫 인간의 손을 조성하실 때, 그분은 인간들이 어느 날 그 손을 남용하고 결국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이 분명하다. 어떤 의미로 창조와 십자가는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계 13:8). 그분의 예지(豫知, foreknowledge)[3]가 그분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험악한 갈바리 구름 아래에서 그리스도는 이 창조적 행위로 인해 당신에게서 생명의 호흡이 거두어질 것을 아시면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창조의 기초이다.

창조의 목적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요일 4:8).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당신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인 "존재"를 창조를 통해 나눠 주셨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목적을 위해 우주와 그 거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

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시 19:1~4).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천연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이 사람들을 그들의 창조주께로 향하게 하도록 의도하셨다. 바울은 말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 곧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 반영시킬 수 있는 특성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명상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게 된다.

세상에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창조주께서는 지구가 외롭고 공허한 유성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사람이 거하도록 하셨다(사 45:18). 첫 인간이 반려자의 필요를 느꼈을 때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2:20; 고전 11:9). 이렇게 해서 결혼 제도가 제정되었다(창 2:22~25). 그리고 창조주는 이 부부에게 새로 창조된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창 1:28)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다.

창조의 중요성

사람들은 창조 교리를 무시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누가 안단 말인가? 우리가 알아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늘에 갈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창조 교리는 "그리스도인과 성서 신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초"[4]를 형성한다. 성경상의 수많은 근본적 개념들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5] 사실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은 궁극적으로 계시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 교리가 함축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우상숭배에 대한 해독제. 하나님의 창조주 신분은 그분을 여타의 모든 신들로부터 구별시킨다(대상 16:24~27; 시 96:5, 6; 사 40:18~26, 42: 5~9, 44장).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우리가 만든 신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창조주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러한 충성심을 교란하는 어떤 관계도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조주께 신실성을 지키는 일은 생사의 문제이다.

참된 경배의 기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는,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시 95:6).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상 거민들을 향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계 14:7)를 경배하라는 호소 속에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보아 엿볼 수 있다.

안식일-창조의 기념물. 하나님은 제칠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심으로 매주일 우리 자신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다. 안식일은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한다. 그분은 특별히 이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생은 일하는 것 외에도 창조주와 교제하는 일, 휴식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사역을 경축하는 일(창 2:2, 3)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하셨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창조적 능력을 거룩하게 기념하는 날인 안식일을 창조의 영원한 표징과 상징으로서 기억하라는 명령을 도덕률의 중심에 놓으셨다(출 20:8~11, 31:13~17; 겔 20:20; 본서 20장을 보라.).

결혼-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 창조 주일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제도로서 결혼 제도를 수립하셨다. 그분은 두 개인 간의 이 거룩한 연합이 결코 나뉘어질 수 없도록 의도하셨다. 남자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야 했으며 또한 그들은 "한 몸을 이룰" 것이었다(창 2:24; 막 10:9 참조; 본서 23장을 보라.).

참된 인간 가치의 기초.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개인의 참된 가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결코 열등하게 평가하도록 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참으로 우리는 창조물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창조주와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과 점점 더 그분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참된 교제의 기초. 하나님의 창조주 신분은 그분의 부권(父權, fatherhood)을 확립하며(말 2:10), 모든 인류가 형제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성과 인종과 교육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기만 한다면 인종주의, 독선, 기타 어떤 형태의 분리주의도 해소되고 말 것이다.

개인적인 청지기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기능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창조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행동하는 것은 배은망덕의 전형(典型)이라 할 수 있다(본서 21장을 보라.).

환경에 대한 의무. 창조 때에 하나님은 첫 남자와 여자를 동산에 두셨다(창 2:8). 그들은 땅을 갈고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 했다(창 1:28).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

육체 노동의 존엄성.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지키"(창 2:15)라는 요구를 주셨다. 완전한 세계에서 인간에게 이 유용한 일을 맡기신 것은 육체 노동의 존엄성을 드러낸다.

물질적인 우주의 가치. 창조의 각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을 "좋았더라"(창 1:10, 12, 17, 21, 25)라고 하셨다. 그분은 당신께서 완성하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선언하셨다. 이렇게 해서 창조

된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

비관주의, 고독감, 허무주의에 대한 치료제. 창조 이야기는 만물은 우연한 진화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목적 있게 창조되었음을 말해 준다. 인간은 창조주 자신과 영원한 관계를 갖도록 의도되었다. 우리가 이유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인생은 의미 있고 풍요롭게 된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고통스런 공허감과 불만족감은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잡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성.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 타락 이전에 존재했다. 인간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율법에 복종해야 했다. 이것은 자기 파멸을 경계하고 자유의 한계를 드러내며(창 2:17), 하나님 왕국의 백성의 행복과 평화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창 3:22~24; 본서 19장을 보라.).

생명의 신성성.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의 생명을 생성하는 일에 계속해서 관여하신다. 이에 따라 생명은 신성한 것이 된다. 다윗은 자기의 출생에 그분께서 개입하신 것을 찬송하고 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3~16). 이사야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사 44:24)라고 신분을 밝히신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보존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끝내셨는가? 창조 이야기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창 2:1)는 진술로 끝을 맺고 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세상을 창조할 때"(히 4:3)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창조적인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1. 그리스도와 그분의 창조력이 있는 말씀. 창조부터 사천 년이 지난 후에 한 백부장은 그리스도에게 말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마 8:8). 창조 시에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자 하인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의 지상 봉사 기간 내내 아담의 생명 없는 신체에 생명을 부여했던 동일한 창조력이 죽은 자를 일으켰으며 또한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고난 속에 빠진 이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주었다.

2. 오늘날의 창조력이 있는 말씀. 이 세상이나 우주는 그 자체에 고유하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시 147:8, 9; 욥 26:7~14 참조).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골 1:17; 히 1:3 참조).

우리는 신체의 각 세포가 작용하는 데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 매번의 호흡과 심장 박동, 눈 깜짝임 하나하나가 사랑이 깊으신 창조주의 돌보심을 말해 준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행 17:28).

하나님의 창조력은 오로지 창조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속과 회복에도 관여하고 있다. 하나님은 심령을 재창조하신다(사 44:21~28; 시 51:10).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엡 2:10)라고 말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우주를 가로질러 수많은 은하계를 펼쳐놓으신 하나님은 가장 크게 타락한 죄인을 당신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동일한 능력을 사용하신다.

이 구속하는 능력과 회복시키는 힘은 인간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래 천지를 창조했던 동일한 능력이 최후의 심판 후에 그것들을 재창조할 것이다. 그것들은 새롭고 장엄한 창조물, 곧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질 것이다(사 65:17~19; 계 21, 22장).

창조와 구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분은 장엄한 우주와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셨다.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을 놓고 서로 대조하고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창조에 사용된 기간. 창조 시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다. 그러자 즉시 성취되었다. 엄청난 기간의 변태 현상 대신에 그분의 권능의 말씀이 창조를 이루어 냈다. 6일 동안에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6일이 걸렸을까?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순식간에 만물이 존재하게 하실 수 없었는가?

아마도 그분은 우리 유성을 그 6일 동안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다. 혹은 이 "연장된" 시간이 그분께서 각각의 피조물에 부여하신 가치와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7일 주일이 그분께서 인간을 위하여 의도하신 활동과 휴식의 주기를 제시하는 모델이 되도록 하신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원이 존재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셨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은 수천 년에 걸친 것이다.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생활하신 33년 반의 세월 그리고 곧 이어서 거의 200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하늘의 중보 사업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의 연대에 따르면 창조로부터 약 6000년이 지났는데도 백성들은 아직도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창조와 재창조에 필요되는 시간을 대조해 볼 때, 하나님의 활동들은 언제나 인류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조가 단시일에 이루어진 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창조물을 즐길 수 있는 완전히 계발된 인간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반영한다. 창조가 점진적인 발달 과정에 따라서 오랜 시대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어 창조의 완성을 지연시키셨다면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었을 것이다. 재창조에 허용된 시간의 양은 최대한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나타낸다(벧후 3:9).

그리스도의 창조 사업. 에덴에서 그리스도는 창조력이 있는 말씀을 하셨다. 베들레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요 1:14)셨다. 창조주께서 창조물이 되신 것이다. 얼마나 철저한 비하(卑下)인가! 비록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사

람은 맹인에게 시력을 주고(요 9:6, 7),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마 9:32, 33), 나병 환자를 고치고(마 8:2, 3),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요 11:14~45)을 목격하였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곧 인류의 새로운 시작으로 오셨다(롬 5장). 그분은 에덴동산에서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주셨다. 그런데 인간은 그분을 갈바리에서 나무 위에 매어달았다. 낙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늠름히 서 있었다. 그런데 갈바리에서는 한 인간 예수께서 축 늘어진 범죄자의 형상으로 매어달리셨다. 창조의 금요일과 십자가의 금요일, 두 날 모두에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발해졌다(창 2:2; 요 19:30).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후자는 인간으로서 이루신 것이다. 전자는 신속한 능력으로,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고난 중에 이룩한 것이다. 전자는 단시일 동안이요, 후자는 영원토록이다. 전자는 타락에 굴복했고, 후자는 사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 것이다.

처음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거룩한 손이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게 될 것은 찔림당하고 피에 물든 그리스도의 손이다. 인간은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재창조될 수 있다.

두 번의 창조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그 어느 것도 자연적인 진보에 의하여 내부의 힘으로 이룩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당신의 창조 사업의 극치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구함으로 당신과의 교제에 들어오도록 우리 각 사람을 초청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좀 더 충만하게 반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4th rev. ed.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41), p. 182.
2. 창조의 하루를 단지 1000년으로 간주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도식을 취하게 되면 여섯째 "날"의 저녁-아담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의 생애의 첫 "날"에 해당한다-무렵에 이르러서는 아담은 성경이 그에게 할당하고 있는 수명(창 5:5)보다도 훨씬 늙게 될 것이다. Jemison, Christian Beliefs, pp. 116, 117 참조.

3. 본서 4장 참조
4. “Creation,” SDA Encyclopedia, p. 357.
5. Ibid.; Arthur J. Ferch, “What Creation Means to Me,” Adventist Review, Oct. 9, 1986, pp. 11~13.

제7장

인간의 본질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적인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회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창 1:26~28, 2:7; 시 8:4~8; 행 17:24~28; 창 3장; 시 51:5; 롬 5:12~17; 고후 5:19, 20; 시 51:10; 요일 4:7, 8, 11, 20; 창 2:15)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최고 걸작품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존재케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분은 자애스럽게 몸을 굽히시고 흙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만드셨다.

지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조각가일지라도 이처럼 고귀한 존재를 깎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이는 외모를 빼어나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도 지닐 뿐 아니라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안된 해부학과 생리학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완전한 조형물이 머리카락, 눈썹, 제자리에 자리잡은 손톱 등을 갖춘 채 완성되어 놓여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다 끝마치신 것이 아니었다. 이 인간은 생명 없이 누워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살아나서 생각하고 창조하고 영광 중에 자라나야 했다.

창조주께서 이 멋진 형태 위에 허리를 굽히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1:26 참조). 인간에게 반려자가 필요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아담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창 2:18, 21, 22).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동산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그곳에는 나무, 덩굴 식물, 꽃, 언덕과 계곡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친히 꾸며 놓으신 것이었다.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에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의 모든 나무에서 자유로이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창 2:8, 9, 17).

이렇게 해서 창조 주일의 절정을 장식하는 사건이 완결되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인간의 기원

비록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인간은 하등 동물로부터 기원했으며 수십억 년이 소요된 자연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한 사상은 성경의 기록과 조화되지 않는다. 인간은 타락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

간의 본질에 관한 성경적 견해의 핵심이다.[1]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의 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 1:26)라고 말씀하셨다. 복수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다(본서 2장을 보라.). 그리고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은 첫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창 1:27).

흙으로 창조됨.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형성하셨다(창 2:7). 곧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해양 동물이나 지상의 동물 중 어떤 다른 것의 형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모든 기관을 형성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리에 놓으신 다음에 "생기"(생명의 호흡)를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창 1:21, 24, 25) 동물–어류, 조류, 파충류, 곤충류, 포유류 등–을 만드셨다. 각 종(種)은 나름대로의 전형적인 형태가 있으며, 자기 종을 번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계의 어떤 형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고 말씀하셨다. 인간과 동물계 사이에는 확실한 불연속성이 있다. 인간의 기원을 묘사하는 누가의 족보는 이러한 차이점을 단순하나 심오하게 이런 말로 표현한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눅 3:38).

인간의 드높은 지위. 인간의 창조는 모든 창조 활동의 절정이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지구성과 모든 동물의 생명을 맡기셨다. 벌코프(L. Berkhof)는 아담에 대해 이렇게 진술한다. "자신과 자신의 온 영토가 전능하신 창조자시요 우주의 주이신 분께 찬양을 돌리도록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천연계와 피조물들을 자기 뜻과 목적에 맞추도록 하는 것은 그의 의무요 특권이었다(창 1:28; 시 8:4~9)".[2]

인류의 통일성. 창세기의 족보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연속적인 세대들이 모두 이 첫 부모에게서 내려온 것임을 보여 준다.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유전적, 혈통적 통일성을 이루게 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서 살게 하시고"(행 17:26, 공동 번역)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이**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에게 구원이 준비되었다는 성경의 주장 속에서 인류의 유기적 통일성에 관한 암시까지도 볼 수 있다(롬 5:12, 19; 고전 15:21, 22).

인간 본질의 통일성

인간은 어떤 특성을 지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몸, 혼, 영과 같은 여러 독립적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생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하나님은 흙의 요소들을 살아 있는 존재로 바꾸실 때, 아담의 생명 없는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생명을 주는 "전능자의 기운"(욥 33:4, 공동 번역–"전능하신 분의 입김"), 즉 생명의 불꽃(the park of life)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텔레비전의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전류는 여러 가지 전기 부품에 흘러가면서 화면을 색깔 있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바꾸어 준다. 전기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소리와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이다.

인간-생령. 생기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흙의 요소들로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심장, 폐, 신장, 간장, 비장, 뇌 등 모든 기관이 존재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생명 없는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성경의 등식은 다음과 같다. 흙(땅의 요소)+생기=생령 혹은 살아 있는 존재. 땅의 요소와 생기가 결합하여 살아 있는 존재 혹은 생령이 생겼다.

이 '생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들은 생

기가 있다. 그 예로, 성경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모두에게 생기가 있었다고 한다(창 7:15, 22).

"생령" 혹은 "살아 있는 존재"로 번역된 창세기 2장 7절의 히브리 용어는 **네페쉬 하야**(nephesh chayyah)이다. 이 표현은 전적으로 인간만을 칭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중 동물, 파충류, 짐승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다(창 1:20, 24, 2:19).

"존재" 혹은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쉬**는 "숨쉬다"를 뜻하나 **나파쉬**(naphash)로부터 나왔다. 이에 해당하는 신약 헬라어는 **프쉬케**(psuche)이다. "호흡이 가장 현저한 생명의 증거인만큼 **네페쉬**는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개체를 지칭한다."[3] 창조 이야기에서 동물에 사용되었을 경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살아 있는 피조물로서 그것들을 기술하고 있다.

성경에서 인간이 살아 있는 혼(생령)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것이다. 창조 이야기에서는 창조 때 인간의 육체에 연합하게 된 구별된 실체로서의 혼(soul)을 인간이 **받았다**고 전혀 암시하고 있지 않다.

불가분리의 통일체. 인간의 본성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창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아무리 크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은 인간의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전체로서 묘사한다. 그렇다면 혼과 영은 인간의 본성에 어떻게 관계되는 것일까?

1. 혼(soul)에 대한 성경적 의미.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구약의 '혼'은 히브리어 **네페쉬**를 번역한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것은 생기가 흙의 요소로 형성된 물리적 육체 속에 들어간 다음의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새 혼이 존재케 되는 것이다. 각 '혼'은 다른 유사한 단위와는 독특하게 구별되고 구분되는 생명의 새 단위이다. 각각의 살아 있는 존재 속에서 독특한 실체를 이루게 하는 이러한 개체의 특성은 히브리어 **네페쉬**라는 말로 강조된 사상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네페쉬**는 개인의 한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일컫는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창 14:21; 민 5:6; 신 10:22; 시 3:2 참조), 혹은 '자신'(레 11:43; 왕상 19:4; 사 46:2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반면에 '내 혼', '네 혼', '그의 혼' 등과 같은 말들은 일반적으로 인칭 대명

사 '나', '나를', '너', '그' 등을 나타내는 관용어이다(창 12:13; 레11:43, 44, 19:8; 수 23:11; 시 3:2; 렘 37:9 등). 구약에 총 755회 사용되었는데 그중 100회 이상을 흠정역(KJV) 성경은 '생명'(life)으로 번역하였다(창 9:4, 5; 삼상 19:5; 욥 2:4, 6; 시 31:13 등).

때때로 네페쉬는 소망, 식욕, 정욕 등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며(신 23:24; 잠 23:2; 전 6:7 참조), 이따금 '식욕'으로 번역되고 있다(잠 23:2; 전 6:7). 이것은 애정이 자리잡은 곳(창 34:3; 아 1:7)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때때로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신명기 23장 24절, 시편 105편 22절 예레미야 34장 16절에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다. 민수기 31장 19절에서 네페쉬는 죽임을 당했으며, 사사기 16장 30절('나를'로 번역되어 있음.)에서는 죽기도 한다. 민수기 5장 2절('죽은 자')과 9장 6절('시체')에서는 이것이 시체를 언급하고 있다(레 19:28; 민 9:7, 10 참조).

신약에서 사용된 **프쉬케**라는 헬라어도 구약의 **네페쉬**와 유사한 용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에도 사용된다(계 16:3). 흠정역에서 이것은 40회에 걸쳐 단순하게 '생명' 혹은 '목숨'(마 2:20, 6:25, 16:25 등을 보라.)으로 번역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은 단순하게 '백성'(행 7:14, 27:37; 롬 13:1; 벧전 3:20 등을 보라.)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와 동등하게 사용되기도 한다(마 12:18; 고후 12:15 등 참조), 때때로 이것은 감정(막 14:34; 눅 2:35), 마음(행 14:2; 빌 1:27), 혹은 심장(엡 6:6)을 언급한다."[4]

프쉬케는 불멸이 아니라 죽을 수 있다(계 16:3). 이것은 파멸될 수도 있다(마 10:28).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네페쉬**와 **프쉬케**는 어떤 경우에는 전인(全人)을 가리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애정, 감정, 식욕, 느낌과 같은 인간의 특정 국면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인간이 두 개의 구별되는 별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혀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육체와 혼은 함께 존재하며, 이들은 함께 나눌 수 없는 통일체를 형성한다. 혼은 육체와 떨어져서 결코 의식을 갖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혼이 의식 있는 실체로서 육체가 죽은 후에도 생존한다고 암시하는 성경절은 전혀 없다.

2. 영(spirit)의 성경적 의미.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쉬**가 개인, 혹은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영으로 번역된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흐**(ruach)는 개인의 존재에 필수적인 힘을 주는 생명의 불꽃을 언급한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 있도록 하는 신적 에너지, 혹은 생명의 소인(素因)을 의미한다.

"**루아흐**는 구약에 377회 사용되었으며 거의 대부분 '영', '바람', 혹은 '호흡'(창 8:1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것은 활력(삿 15:19), 용기(수 2:11), 성질 혹은 분노(삿 8:3), 성향(사 54:6), 도덕적 특성(겔 11:19), 감정이 자리잡은 곳(삼상 1:15)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호흡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루아흐**는 동물의 **루아흐**와 동일하다(전 3:19). 인간의 **루아흐**는 사망 때 육체를 떠나서(시 146:4)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전 12:7; 욥 34:14 참조). **루아흐**는 이사야 63장 10절처럼 자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구약에서 **루아흐**는 인간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몸을 떠나 감각적 존재가 가능한 지성적 실체로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루아흐와 대등한 신약 용어는 **프뉴마**(pneuma)인데, 이 말은 '불다', 혹은 '호흡하다'라는 의미의 **프네오**(pneo)에서 파생했다. **루아흐**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 속에는, 육체를 떠나 의식적 존재가 가능한 어떤 실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신약의 용법은 인간과 관련해서 그러한 개념을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 로마서 8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21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요한일서 4장 6절과 같은 구절 속에서 **프뉴마**는 '상태', '태도', 혹은 '감정적 상태'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 로마서 12장 11절 등의 구절 속에서처럼 개성의 다양한 측면에 사용되고 있다. **루아흐**처럼 **프뉴마**는 사망 시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눅 23:46; 행 7:59). **루아흐**와 마찬가지로 **프뉴마**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고전 2:11, 14; 엡 4:30; 히 2:4; 벧전 1:12; 벧후 1:21 등)."[5]

3. 육체, 혼, 영의 통일체. 육체, 혼, 영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관계는 인간의 통일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1) 이중적 통일체. 비록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통일체로 보지만 이것은 육체, 혼, 영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때때로 영과 혼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태 고지 후에 마리아가 기쁨을 표현한 말 가운데 나타나 있는 대구법을 살펴보자. "내 영혼(soul)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spirit)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눅 1:46, 47).

한번의 경우에 인간은 예수님에 의하여 몸과 혼으로 구분되어 언급되었다(마 10:28).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바울에 의해 몸과 영으로 언급되었다(고전 7:34). 전자의 경우에 혼은 인간의 고등 기능, 생각컨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인 정신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는 **영**이 이 고등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두 경우에 모두 육체는 개인의 신체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2) 삼중적 통일체. 이중적 통일체로 인간의 일반적 특성을 보는 것에 대해 하나의 예외가 있다. 육체와 영의 이중적 통일체로 이야기한 바울은 삼중적 통일체로도 언급하였다. 그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이 구절은 인간의 이러한 국면 중 그 어떤 국면도 성화의 과정에서 제외되기를 바울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 경우에 **영**은 "인간에게 부여된 고차원의 지성적 본질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것과 교통하실 수 있다(롬 8:16을 보라.). 개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이다(롬 12:1, 2을 보라.).

영과 구분해서…'혼'은 본능, 감정, 욕구 등을 통해 표출되는 인간의 본질 중 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본질의 이 부분은 역시 성화될 수 있다.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고, 성화된 이성이 저급한 본성을 주관하게 될 때,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충동들은 그분의 뜻에 굴복하게 된다."[6]

몸은 그것이 고상한 본성이나 저급한 본성 중 어떤 것에 지배를 받든지 그것은 살, 피, 뼈와 같은 신체 조직이다.

바울이 첫 번째로 영을, 다음에 혼을, 최종적으로 육체를 언급한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이 성화될 때 지성은 신적 지배 하에 있게 된다. 성화된 지성은 또 다시 혼, 곧 욕구, 느낌, 감정에 대하여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성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 그의 육체적 건강은 증진될 것이다. 따라서 육체는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분을 섬길 수 있는 성화

된 도구가 될 것이다. 바울이 성화를 호소한 것은 분명히 인간 본성의 통일성에 관한 개념 속에 뿌리를 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전인(全人)–영과 혼과 몸–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한다.

3) 불가분리이며, 공감적인 통일체. 각 사람은 불가분의 통일체임이 분명하다. 육, 혼, 영은 밀접하게 협력하여 작용하며, 개인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기능 사이에 있는 강력한 공감적 관계를 나타내 보인다. 한 분야의 결함은 다른 두 분야에 피해를 준다. 병들고 불결하고 혼란한 정신이나 마음은 개인의 정서 건강과 신체 건강에 손상을 끼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신체 조직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서 및 영적 건강을 손상시킨다. 기능 상호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각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들을 최적의 상태에 두도록 할 신성한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창조의 제육일에 창조된 생령은 "하나님의 형상"(창 1:27)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됨. 인간의 도덕적·영적 차원이 하나님의 도덕적·영적 본성에 관한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리적 통일체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 모습도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아니신가? 어떻게 영적 존재가 특정 모습이나 형태와 관련지어질 수 있는가?

천사들에 관해 잠깐 살펴보면, 그들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들이다(히 1:7, 14). 그러나 그들은 항상 인간의 형체로 나타난다(창 18:1~19:22; 단 9:21; 눅 1:11~38; 행 12:5~10). 영적 존재가 형태와 모습을 갖춘 "영적 신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고전 15:44 참조).

성경은 어떤 인물들이 하나님의 신체의 일부를 본 것에 관해 말한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칠십 인 장로들은 그분의 발을 보았다(출 24:9~11). 비록 그분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시기를 거절했지만,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다음에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당신의 등을 보여 주셨다

(출 33:20~23).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서 심판정의 이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단 7:9, 10).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요. "그 본체의 형상"(히 1:3)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며 개인적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런 말씀은 결코 놀랄 만한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히 2:7, 난외주 참조) 창조되었다. 이것은 그가 지적, 영적 은사를 부여받았음이 분명하다는 암시이다. 비록 아담이 체험, 통찰력, 품성 계발의 분야에서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는 "정직하게"(전 7:29) 창조되었다. 이것은 도덕적 고결성에 대한 언급이다.[7]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으로서 인간은 거룩할 뿐 아니라 의로웠으며(엡 4:24 참조), 하나님이 "심히 좋았"(창 1:31)다라고 선언하신 창조의 한 부분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주께 사랑과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는 하나님처럼 선택력, 곧 도덕적 규범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요일 4:8)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품성을 계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 표현, 곧 온 영과 혼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었다(마 22:36~40).

타인과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됨.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라고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드셨다. 사랑의 관계 속에 성삼위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정이나 결혼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다(창 2:18).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관계지향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이 측면을 계발하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조화와 번영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환경의 청지기가 되도록 창조됨.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 1:26).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신적 형상과 하등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단숨에 언급하신다. 인간이 열등한 피조계에 대해 갖는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인 신분이다. 동물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동물은 인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다윗은 인간의 주권을 언급하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시 8:6)다고 말한다. 인간의 드높은 지위는 인간이 누리고 있었던 영광과 명예를 시사한다(시 8:5~8). 그에게는 세계를 자비스럽게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통치를 생각나게 하거나 반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 힘에 지배당하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여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능동적인 기여를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파괴로 가득 찬 세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지구의 천연자원을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일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인간 본연의 자세에 관한 성경상 견해를 채택하는 일이야말로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의 길이다.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창조됨.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들어졌기에 하나님과같이 행동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신이 아닌 인간이기는 하나,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조물주를 반사해야 한다. 넷째 계명은 이러한 의무를 제시한다. 우리는 주일 중 첫 엿새 동안 일하고 제칠일에 쉬셨던 우리 조물주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출 20:8~11).

조건적 불멸성을 띠고 창조됨. 창조 시에 우리의 첫 부모에게는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긴 했지만 불멸성이 주어졌다. 생명나무에 접근함으로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다. 자신의 불멸의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유일의 길은,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신 명령을 범하는 것이었다. 불순

종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창 2:17, 3:22 참조).

타락

비록 완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완전한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토록 급진적이고 두려운 변화가 초래되었을까?

죄의 기원.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죄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1. 하나님과 죄의 기원. 창조주 하나님이 죄의 장본인이신가? 성경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사 6:3), 그분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으시다고 지적한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신 32:4). 성경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욥 34:10)라고 진술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약 1:13). 그분은 죄를 미워하신다(시 5:4, 11:5).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심히 좋았"(창 1:31)다. 그분은 결코 죄의 장본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히 5:9)이시다.

2. 죄의 창시자. 하나님이 오직 프로그램대로만 행동할 수 있는 로봇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죄를 막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당신의 사랑에 자유로이 반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셔야 했다. 이러한 반응은 오로지 선택력을 지닌 존재에게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창조물에게 이런 유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피조된 어떤 존재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아설지도 모르는 위험을 하나님이 부담하셔야만 한다는 의미였다. 불행스럽게도 천사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루스벨이 교만하게 되었다(겔 28:17; 딤전 3:6 참고). 하나님 정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불만족하여(유 6 참고) 그는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기 시작하였다(사 14:12~14). 이 타락한 천사는 우주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동료 천사들 사이에 불만족의 씨앗을 뿌렸고 많은 천사의 동조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로 빚어진 하늘의 싸움은 현재 대적 사탄으로 불리는 루스

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방됨으로 끝이 났다(계 12:4, 7~9; 본서 8장을 보라).

3. 인간 세계에서의 죄의 기원.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음에도 반역을 단념치 않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여 다른 이들을 유혹하여 자기의 반란에 가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관심은 새로 창조된 인류에게 쏠렸다. 그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반란 가운데로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완전한 세상에 살았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창조주께서 공급해 주셨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신 분께 불만족을 느끼고 불신을 품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첫 인간을 공격할 때 사탄은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버리기로 결정했다.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가까이 오자 뱀을 가장하여 그녀에게 접근한 사탄은, 하나님께서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하와가, 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시인하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전하며 말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체험, 곧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신다고 암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일으켰다(창 3:4, 5).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뿌리를 내렸다. 하와는 그 과실이 제공할 것이라는 위대한 가능성에 매혹되었다. 유혹은 그녀의 성결한 마음을 여지없이 때려 부수었다. 갑자기 그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상상하기에 이르렀다. 자기 위치에 불만족하게 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6).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함으로써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의뢰심을 끊어버리고 그녀의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러므로 인류의 타락은 그 가장 주요한 특징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다. 이러한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생겼다.

죄의 영향. 죄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또한 죄를 제거하고 인간 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1. 즉각적인 결과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 인간 본성의 변화였다. 새로운 흥겨운 경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경험은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감만을 가져다주었을 뿐이다(창 3:7). 사탄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는커녕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숨고자 시도하게 되었다(창 3:8~10).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을 때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는 대신에 그들은 잘못을 전가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하와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죄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기 창조주에 대해 그가 유지하고 있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하와도 뱀을 비난하였다(창 3:13).

그 결과로 이르러 온 치명적인 결과들은 그들의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사탄의 매개물인 뱀을 저주하여 배로 기어다닐 것을 명하셨고, 이것은 타락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 될 것이었다(창 3:14). 하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 또한 아담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그는 고생하며 힘겹게 일해야 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7~19).

당신의 율법의 불변성과 어떠한 범죄도 기필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그분은 범죄자들을 에덴의 본향에서 추방하시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단절하심으로써 당신의 판정을 실행하셨다(창 3:23, 24). 또한 그들에게 영생의 근원이 되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셨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창 3:22).

2. 죄의 성질. 특별히 최초의 타락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서, 수많은 성경

절은 죄란 도덕적 악이라는 것, 곧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범한 결과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창 3:1~6; 롬 1:18~22).

1) 죄의 정의. 죄에 관한 성경적 정의는 "불법"(요일 3:4),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약 4:17)는 것,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롬 14:23)하는 모든 것 등을 포함한다. 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데 등한히 한 것이나 혹은 그분께서 특별히 금지하신 것을 행하는 것 등,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하는 것"[8]을 말한다.

죄는 결코 중립을 모른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마 12:30)라고 판결하신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요 16:9).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절대적인 것이다. 크나 작으나 어떤 죄든지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약 2:10)고 만다.

2) 죄는 행위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포함한다. 자주, 죄는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범법 행위에 국한해서만 거론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이를 향하여 분내는 사람은 십계명의 여섯째 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출 20:13)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음욕적인 욕구는 "간음하지 말라"(출 20:14)는 명령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죄는 분명한 불순종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욕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3) 죄와 죄책. 죄는 죄책을 가져온다. 성경적 관점에서 죄책은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롬 3:19, 난외주) 아래 놓여 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죄책감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들을 고갈시킨다. 또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기 때문이다.

죄책감에 대한 해독제는 용서로서(마 6:12), 그 결과로 청결한 양심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허락하기를 갈망하신다. 죄짐을 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류를 향해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스럽게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4) 죄를 지배하는 본부. 죄가 자리잡고 있는 곳은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마음이며, 우리는 이것을 정신으로 알고 있다.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잠 4:23)이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밝히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마 15:19). 전 인격–지성, 의지, 애정, 감정, 신체–이 영향을 받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렘 17:9)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철저하게 죄 되다고 기술할 수 있다.

3. 인류에게 죄가 끼친 영향. 어떤 사람은 금단의 과실을 먹은 것에 대하여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는지 모른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은 오직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에 비추어서만 제대로 헤아릴 수 있다.

아담과 하와의 첫아들은 살인을 저질렀다. 그들의 후손은 일부다처로 신성한 결혼 제도를 범하였으며, 오래지 않아 온 땅은 사악함과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창 4:8, 23, 6:1~5, 11~13).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호소는 주의를 끌지 못했고, 단지 8명의 사람만이 회개치 않은 자들을 멸망시킨 대홍수에서 구출을 받았다. 홍수 후의 인간 역사는, 불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죄로 가득 찬 인간 본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해 보여 주는 서글픈 기록이다.

1) 인간의 죄의 보편성. 역사는 아담의 후손들이 그의 죄 된 본성을 나누어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다윗은 기도드릴 때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시 14:3, 143:2 참조)라고 말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왕상 8:46). 또한 솔로몬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잠 20:9),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전 7:20)고 말하였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일 1:8).

2) 죄성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전 15:22)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고 말한다.

인간 마음의 부패는 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빛 가운데서 욥은 외쳤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욥 14:4). 다윗은 말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또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 8:7, 8)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회심 이전에는 신자들도 다른 나머지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였다고 지적했다.

비록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모방을 통하여 죄 된 행실을 습득한다고 할지라도, 위의 구절들은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타고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죄의 보편성은 본질상 우리가 선이 아닌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3) 죄 된 태도의 제거. 자신의 생애와 사회에서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힘을 통해서 의로운 생애를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애초부터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6)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의를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요 15:4, 5).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운 생애를 사는 데 실패했다. 그는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표준을 알았지만 그것을 성취할 수 없었다. 자신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그는 말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생애에 죄가 끼친 영향을 지적하였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을 찬양하

여 이렇게 말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15, 19, 20, 22~24).

바울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시인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떨쳐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롬 7:25;8:1).

성령 안에서의 이러한 새 삶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사이다. 신적 은총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된다(엡 2:1, 3, 8~10). 영적인 거듭남은 이토록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1:13, 3:5)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러나 새로운 삶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요일 2:1).

4. 진화와 인간의 타락. 창조 이래 사탄은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에 관한 성경상의 설명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킴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생명체는 우연히 발생했으며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인간이 하등 생명체로부터 출현하게 되었다는 가설에 근거한 진화론은 인간의 '자연발생적' 견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적자생존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현재 상태까지 진화했다. 자신의 가능성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에 인간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의 수효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 이론은 하나님이 창세기의 창조를 이루실 때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셨다고 주장한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수용하는 이들은 창세기 첫 장들 속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화, 혹은 신화로 여긴다.

1) 인간과 진화에 관한 성경의 입장.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이 기독교 신앙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제임스 오르(James Orr)는 기록하였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 교리들에 대한 단편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솜씨 있게 구축되고 옹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본적 사상은 기독교 제도의 뿌리에 타격을 입히는, 적극적으로 고안된, 성경과 정반대되는 세계관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9]

성경은 창세기를 우화적으로, 혹은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절한다.

성경 기자들은 창세기 1~11장을 문자적인 역사로 해석하고 있다. 아담, 하와, 뱀 그리고 사탄은 대쟁투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이다(욥 31:33; 전 7:29; 마 19:4, 5; 요 8:44; 롬 5:12, 18, 19; 고후 11:3, 딤전 2:14; 계 12:9을 보라).

2) 갈바리와 진화론. 어떠한 유형이나 모습으로부터든지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적 기초에 어긋난다. 레오나르드 베르두인(Leonard Verduin)이 주장한 것처럼 "'타락'의 이야기를 대신하여 **향상**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다."[10] 기독교와 진화론은 정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죄에 빠졌든가 그렇지 않든가 둘 중 하나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무엇인가?

갈바리는 진화론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만일 타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이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다. 인간 멋대로 하도록 방임한다면 우리는 온 인류가 멸절되기까지 계속 타락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 달려 있다. 그분의 죽으심만이 더욱 훌륭하고 결코 다함이 없는 충만한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갈바리는,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한다.

3) 성육신과 진화론.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문제는 성육신의 관점에서 인간의 창조를 바라볼 때에 가장 훌륭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속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이끌어 들이실 때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역사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대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 첫 아담을 형성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심에 관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4) 인간은 자립할 만큼 성숙했는가? 진화론자들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이룩한 과학적 발전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증거라고 자주 지적하고 있다. 과학을 통해 자신의 필요을 충족시키며, 충분한 시간만 부여받는다면 인간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의 메시야적 역할은 증강하고 있는 회의주의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기술 문명 때문에 지구는 멸절 위기에까지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은 죄 된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과학적 발전은 세상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을 뿐이다.

허무주의와 좌절의 철학들이 급격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의 "소망은 인간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솟아난다."는 명언이 오늘날은 공허하게 울리는 판이다. 욥은 실재를 더욱 잘 파악했다. 나의 시간은 날마다 "희망 없이 그저 지나가 버리는구나"(욥 7:6, LB). 인간의 세계는 내리닫고 있다. 누군가가 인간 역사의 외부로부터 와서, 적극 개입하여 새로운 실재를 가져와야만 한다.

소망의 빛. 인간의 타락은 얼마나 컸는가? 십자가에서 인간은 그들의 창조주를 죽였다. 궁극적 부모 살해자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소망 없이 버려 두지 않으셨다.

다윗은 창조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깊이 생각하였다. 처음에 우주의 광대함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는 인간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에 그는 인간의 참된 위치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인간이 현재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말하면서 그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시 8:5, 6; 히 2:7 참조)라고 피력하였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남아 있다. 비록 손상되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다.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 되다고 해도, 인간은 아직도 지구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그의 본성은 신성보다 못하지만 아직 그는 지상의 피조물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존엄한 위치에 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였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9).

은혜의 언약

범죄를 통해서 첫 부부는 죄인이 되었다. 더 이상 사탄을 저항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자유케 될 길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소망이 있었는가?

타락 때에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부부의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그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제시하심으로 소망을 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하나님의 기별은 용기를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사탄이 인간을 자기의 악한 마력으로 장악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패배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졌던 것이다. 맨처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죄에 대한 보루를 약속하셨다. 그분은 뱀과 여자, 사탄의 추종자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증오심을 조성하실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사탄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갱신된 관계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세기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절정에 달할 것이었는데, 그분은 예언된 여인의 후손의 화신(化身)이셨다. 갈바리에서 사탄은 패배하였다. 비록 여인의 후손이 상함을 받았지만 죄의 장본인은 패배하였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들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는 죄에 대한 증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구주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창조 이전에 세워진 언약. 은혜의 언약은 타락 후에 개발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들 사이에 인류가 죄에 빠질 경우를 위해 그들을 구출할 것을 언약하셨다고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4~6; 딤후 1:9 참조)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벧전 1:20)다고 말했다.

언약은 흔들릴 수 없는 기초 위에 근거하였으니 곧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맹세에 근거한 것이다(히 6:18).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히 7:22). 보증인은 타인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그 빚과 의무를 대신 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보증인으로서의 봉사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 속에 빠질 경우에 그분께서 그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부담하시겠다는 의미였다. 그분은 그들의 구속에 필요한 값을 지불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범해진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것이었다.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이런 의무를 떠맡을 수 없었다. 오직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 되신 그분만이 그 의무를 짊어지실 수 있었다(롬 5:12~21; 고전 15:22).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의 보증이실 뿐 아니라 중보자, 혹은 실행자이시기도 하다. 성육신한 인자로서의 당신의 사명에 대한 묘사는 그분의 역할이 지닌 이러한 측면을 계시한다. 그분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38, 39; 5:30, 43 참조)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요 6:40)이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당신의 사명을 끝내시면서 그분은 아버지의 명령의 실행에 관해 증거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 17:4).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언약 속에서 인간의 보증이 되기로 하신 당신의 서약을 성취하셨다. "다 이루었다"(요 19:30)는 그분의 외침은 그분의 사명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었다. 그분은 범해진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죄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으며, 회개하는 인류에게 구원을 보장하셨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은혜의 언약을 비준하였다. 그분의 속죄하는 보혈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고, 따라서 영생의 후사가 된다.

이 은혜의 언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한다. 창조 이전에 세워진 언약이 타락 후에 계시되었다. 그때에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동반자가 되었다.

언약의 갱신. 불행스럽게도 인간은 홍수 전후를 막론하고 이 엄청난 은혜

의 언약을 거절했다(창 6:1~8, 11:1~9).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제공하셨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다시 그분은 구속의 약속을 확인하셨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 22:18, 12:3, 18:18 참조).

성경은 특별히 언약의 조건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성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분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창 15:6)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창 17:1, 26:5).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에게 "믿는 모든 자의 조상"(롬 4:11)이라는 칭호를 줄 만하였다. 그는 순종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모본이다(롬 4:2, 3; 약 2:23, 24). 은혜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그 축복을 부여하지 않는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갈 3:7). 지상의 모든 사람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언약된 구원의 약속들을 체험할 수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9).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시내산 언약(첫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을 갱신한 것이었다(히 9:1).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언약으로 왜곡시켰다(갈 4:22~31).

새 언약. 후기의 성경절들은 "새롭고 더 나은 언약"에 대하여 말한다.[11]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1)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제도로 왜곡되었다.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 죽음, 부활, 중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계시된 것과 관련 있다(히 8:6~13 참조). (3) 이것은 십자가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준된 것이 되었다(단 9:27; 눅 22:20; 롬 15:8; 히 9:11, 12).[12]

이 언약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제공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마

음에 십계명을 기록하는 일을 하시도록 하며, 회개하는 죄인을 그들의 조물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한다(렘 31:33). 새 언약, 중생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다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체험을 갖게 한다.

이것이 제공하는 심령의 새롭게 됨을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 23) 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총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날마다 즐길 수 있게 된다(요 8:29).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왕국의 후사가 됨을 보증하는 이런 관계를 체험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인간론(the doctrine of man)은 인간 가족의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한 오래된 신학적 용어이다. 본 논의에서 인간은 여성을 제외한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학적 전승과 어의학(semantics)적 논의의 편의상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2. Berkhof, Systematic Theology, p. 183.
3. "Soul," SDA Encyclopedia, rev. ed., p. 1361.
4. "Soul,"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1061.
5. Ibid., p. 1064.
6.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 257.
7. Ibid., rev. ed., vol. 3, p. 1090.
8. "Sin, I"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1042.
9. James Orr, God's Image in Man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48), pp.3, 4.
10. Leonard Verduin, Somewhat Less than God: The Biblical View of Man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70), p. 69.
11. 신약성경은 이스라엘의 시내산 체험을 옛 언약과 연관짓는다(갈 4:24, 25).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해방된 당신의 백성에게 갱신하셨다(대상 16:14~17; 시 105:8~11; 갈 3:15~17).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출 19:5, 6; 창 17:7, 9, 19 참조).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기초했으며(롬 10:6~8; 신 30:11~14), 또한 율법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될 것이었다(신 6:4~6, 30:14).

은혜의 언약은 신자들이 그것을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제도로 바꿈으로 언제나 왜곡될 수 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한 것–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 것–을 옛 언약의 실례로 사용하였다(창 16, 12:10~20;갈 4:22~25). 사실상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체험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영원한 언약이 파괴된 이래 항상 존재했다(호 6:7).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시도했다(롬 9:30~10:4). 그들은 영에 따라 살지 않고 의문에 따라 살았다(고후 3:6).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의롭게 하고자 노력함으로(갈 5:4) 그들은 율법의 정죄 하에 살았으며, 자유가 아닌 속박 속에 있었다(갈 4:21~23). 이렇게 그들은 시내산 언약을 왜곡시킨 것이다.

히브리서는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을 시내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 잠정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히브리서는 레위족 제사장직이 잠정적인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도달할 때까지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히 9, 10). 지극히 서글프게도 많은 사람은 의식들 그 자체만으로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실패했다(히 10:1). 모형이 원형을 만나고 그림자가 실체를 만났을 때에도 이러한 "그림자" 제도에 집착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사명을 곡해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내산 언약보다도 더욱 훌륭하고 새로운 언약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강력한 어조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부정적인 용어로도 긍정적인 용어로도 기술될 수 있다.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백성들이 왜곡하는 것을 지칭한다.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이러한 인간의 실패로 야기된 응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고안된 일시적인 지상적 봉사를 대표한다.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p. 370~373;White, "Our Work," Review and Herald, June 23, 1904, p. 8 ;White, "A Holy Purpose to Resotre Jerusalem," Southern Watchman, March 1, 1904, p. 142 ;Hasel, Covenant in Blood(Mountain View, CA:Pacific Press, 1982) ;cf. Wallenkampf,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83), pp. 84~90.

12. Cf. Hasel, Covenant in Blood.

제8장

대 쟁 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하므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戰場)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런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계 12:4~9; 사 14:12~14; 겔 28:12~18; 창 3장; 롬 1:19~32; 5:12~21; 8:19~22; 창 6:8; 벧후 3:6; 고전 4:9; 히 1:14)

성경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전 우주가 관여되어 있는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대쟁투의 우주적 개관

불가사의 중의 불가사의는 선악 간의 쟁투가 하늘에서 발단된 것이다.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죄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인 천사들(시 8:5)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되었다(계 1:1, 3:5, 5:11).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시 103:20) 그들은 종 혹은 "부리는 영"(히 1:14)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왕왕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창 18, 19장; 히 13:2). 죄는 이 천사들 중 하나를 통하여 우주에 들어왔다.

대쟁투의 기원. 성경은 두로와 바벨론 왕들을 루스벨에 대한 비유적 기술로 사용하여, 어떻게 이 우주의 쟁투가 시작되었는지 설명한다.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고 있었다(사 14:12; 겔 28:14).[1] 성경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겔 28:12, 15)라고 말한다.

죄의 발생은 불가해 하며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그 뿌리들은 루스벨의 교만에서 찾아낼 수 있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겔 28:17). 루스벨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높은 지위에 만족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이기심을 품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몹시 탐하였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내가…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사 14:13, 14). 그러나 정작 그가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지위였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가 움켜쥐려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지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루스벨의 반역은 그가 "대적" 사탄으로 변신하는 첫걸음이었다.

루스벨이 암암리에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많은 천사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자라나서 마침내 하늘 천사의 무리의 삼분의 일이 그의 반역에 가담하였다(계 12:4). 하나님의 왕국의 평온은 깨어졌고 "하늘에 전쟁이 있"(계 12:7)었다. 그 전쟁으로 결국 큰 용, 옛 뱀 그리고 마귀로 묘사된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으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계 12:9)겼다.

인류가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경위. 하늘에서 추방된 사탄은 지구에 그의 반역을 확산시켰다. 사탄은 말하는 뱀으로 위장하고, 자신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동일한 논증을 사용하여 그들의 창조주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신뢰심을 효과적으로 훼손시켰다(창 3:5). 사탄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부여하신 처지에 대하여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는 기대에 혹하여 유혹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도 그렇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창조주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와 충성을 저버렸다. 비극적이게도 하늘에서 시작된 쟁투의 씨앗들이 지구성(地球星)에 그 뿌리를 박게 되었다(창세기 3장 참조).

사탄은 인류의 첫 부모를 꾀어 죄짓게 하고, 그들로부터 지구에 대한 그들의 지배권을 교묘하게 강탈하였다. 사탄은 자신이 이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새 본부가 된 지구성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와 온 우주의 평화에 도전하였다.

인류에게 미친 영향.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투쟁의 결과는 죄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킴에 따라 곧 확연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에게 당신의 은혜의 언약을 주셨지만(창 3:15; 본서 7장 참조), 그들의 장남 가인이 그의 아우를 살해했다(창 4:8). 사악함이 계속 증가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창 6:5)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깨끗이 제하시고 인류를 새출발하게 하시려고 큰 홍수를 내리셨다(창 7:17~20). 그러나 오래지 않아 충성스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결코 다시는 홍수로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떤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바벨탑을 건립함으로써 몹시 주제넘게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신을 구체화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의 만국 공통어를 혼잡케 하심으

로 인간의 반역을 진압하셨다(창 9:1, 11:11).

얼마 후, 거의 전 세상이 배도에 빠져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만국을 복 주시려고 계획하셨다(창 12:1~3, 22:15~18).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의 덫에 걸려, 언약의 창시자이시며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사탄이 대쟁투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조력했다.

우주의 극장인 지구. 우주 각처에서 온 대표자들이 참석한 우주적 회집에 대한 욥기의 기록은 대쟁투에 대한 부가적 통찰을 더해 준다. 그 기록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욥 1:6, 7, 2:1~7 참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사탄아, 욥을 보아라. 그는 나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순종한다. 그는 완전하다"(욥 1:8 참조).

사탄이, "그렇습니다만 그가 온전한 사람인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섬기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반격하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갖 방법으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심으로 응수하셨다(욥 1:9~2:7 참조).

욥기가 제공하는 우주적 시각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마련해 준다. 이 유성은 정(正)과 사(邪) 간의 이러한 극적인 쟁투가 실연(實演)되고 있는 무대이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전 4:9).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롬 14:23). 하나님의 계명 혹은 율법을 범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초래하는 즉각적 결과이며 끊어진 관계의 증거이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창조주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랑은 순종으로 이끈다(요 14:15).

불법이 성행하는 우리 시대에 절대적인 것들이 힘을 잃고, 부정직이 찬양을 받고, 뇌물은 생활의 한 방식이 되었고, 간음이 만연하고, 국제적이건 개인적이건 계약들이 깨어지고 있다. 우리의 절망적인 세상을 넘어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 거시적 시각은 우주적 대쟁투를 종결짓고 있는 우리 구주의 구속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우주적 쟁점들

이 사활(死活)이 걸린 투쟁의 중추적 쟁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 우주를 결합시키고 활동을 유지시키는 자연법칙과 같이 하나님의 도덕률은 우주 존속에 똑같이 필수 불가결하다. 죄는 "불법"(요일 3:4) 혹은 헬라어 **"아노미아"**(anomia)가 지적하듯이 "무법"이다. 불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를 거부하는 데서 생긴다. 사탄은 세상에 성행하는 불법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그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그는 자신이 전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그는, 그 율법은 순종이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피조물들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비난한다. 사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손상시켜서 하나님의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도 타도하려고 시도한다.

그리스도와 순종의 문제. 지상 봉사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직면하셨던 시험들은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에 대한 쟁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히 2:17)이 되도록 그를 준비시킨 그 시험들을 대처하시면서 그는 불공 대천의 원수를 일대일로 대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라고 유혹하였다(마 4:3).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탄은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는 말씀의 확실성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려고 손으로 돌을 집으셔서 그것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그는 하와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을 드러내

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은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다. 극심한 허기를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응수하셨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려고 또 다른 시험을 그에게 던졌다. 사탄은 그분에게 세상 왕국의 전경(全景)을 보여 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9)고 약속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되찾으시고, 갈바리의 고뇌를 겪지 않고서도 그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다고 암시하였다. 예수님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대쟁투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성경을 사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말씀하셨다. 그의 이 말씀으로 싸움은 종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심으로 사탄을 패배시켰다.

갈바리에서의 결판. 이 우주적 대쟁투는 갈바리에서 가장 명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자 그의 사명을 중지시키려고 격렬하게 노력하였다. 사탄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특히 성공적으로 이용하였다. 예수의 인기에 대한 그들의 질투심은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켜서 결국 그분께서는 그의 공중 봉사를 끝내실 수밖에 없었다(요 11:45~54).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배반과 조작된 위증을 통하여 예수님은 체포당하셨고, 심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마 26:63, 64; 요 19:7).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혜택들은 인간의 제한된 세계 그 너머까지 미친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이 세상 임금(사탄)이 쫓겨나리라"(요 12:31)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요 16:11)고 하셨다.

우주적 대쟁투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사탄의 잔인한 취급에도 아랑곳없이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충성스러운 순종을 나타내심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의 위치는 손상되었고, 그의 궁극적 멸망은 확실해졌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들에 관한 대쟁투

오늘날 그리스도의 권위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쟁투는 그분의 율법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두고 벌어진다. 신적 계시를 거의 용인하지 않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성서 해석 방법들이 개발되었다.[2] 성경은 여느 고대 문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책인양 그렇게 취급되었고, 동일한 비평적 방법론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학자들을 포함하여 점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성서적 견해에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분의 본성과 동정녀 탄생 그리고 기적들은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3]

가장 중대한 질문.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마 16:13, 14)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분을 단순한 한 인간으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성경은 그 설명을 계속한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5~17)

오늘날 각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동일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생사가 걸린 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각인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대한 각자의 믿음에 좌우된다.

성서 교리들의 중심. 그리스도는 성경의 초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엡 4:21)를 이해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요 14:6). 우주적 쟁투에서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없이도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다. 그같이 하여 진리의 여러 중심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제안되었다. 즉 (1)인간, (2)자연계 혹은 관측 가능한 우주, (3)성경,

(4)교회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데 각기 나름대로 공헌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상기한 모든 것의 창조주요, 그것들을 모두 초월하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그것들이 유래한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 성경의 교리를 그분과 분리시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신 분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다른 진리의 중심점을 제시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질과 목적에 잘 부합된다[헬라어 원문을 참조해 보면, **적그리스도**(antichrist)는,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회의 교리에서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중심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사탄은 인류 유일의 소망이신 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하려는 그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기독교 신학의 기능. 우주적 시각(視角)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와 진리에서 차지하고 계시는 정당한 위치를 박탈하려는 사탄의 기도를 폭로한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과 그분과의 관계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는 신학은 모든 교리를 그리스도에 비추어 전개해야 한다. 기독교 신학의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신뢰심을 북돋아 주고, 진리의 중심으로 제안된 모든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다할 때, 참된 그리스도교 신학은 교회에 올바른 공헌을 한다. 왜냐하면 참된 신학은 우주적 대쟁투의 뿌리에 접근하여 그것을 폭로하고, 반박할 수 없는 유일의 논증, 즉 성경 가운데 계시된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하나님은 지상에서의 사탄의 활동을 저지하는 데 인류를 돕는 가장 효율적인 한 도구로 신학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이 교리의 중요성

대쟁투의 교리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쟁, 사실상 우주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전쟁을 계시해 준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라고 말한다.

이 교리는 계속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시켜 준다. 이 교리를 이해할 때 사

람은 악과 싸워야 할 필요를 자각하게 된다. 승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시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 24:8)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존 전략을 받아들이는 데는 다음의 사항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엡 6:13~18). 우리로 "넉넉히 이기"(롬 8:37)게 하신 분을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인내와 충성스러움, 항상 임전 태세를 갖춤(계 14:12)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생애를 사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 교리는 고난의 신비를 설명해 준다. 악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히 1:9)신 분은 세상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야말로 잔인한 행위와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다. 우리가 대쟁투의 맥락에서 강도질, 살인, 장례식, 범죄 그리고 사고 등을 고찰할 때, 그것들(아무리 우리의 가슴을 에게 하는 것일지라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십자가는 죄의 파괴성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두 증거했다. 이와 같이 대쟁투의 주제는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그 교리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심을 계시해 준다. 하늘로 귀환하시면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 크신 긍휼 가운데서 그분께서는 악과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의 계속적인 동반자가 되도록, "그 공백을 메우시도록" 위임을 받으셨다(요 14:16; 마 28:20 참조). 천사들 또한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업에 관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히 1:14).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업을 찬양할 수 있다.

그 교리는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를 드러낸다. 인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봉사와 죽으심에 달려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러 오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사탄이 거짓 비방을 일삼았던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과 율법과 정부를 옹호하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는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죄인들이 매일의 유혹들로 인한 괴로움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음을 보이셨다.

참고 문헌

1. "루스벨"은 "빛을 지닌 자(light bearer)"라는 뜻의 라틴어 **루시퍼**(Lucifer)에서 유래되었다. "아침의 아들"이라는 구절은 '새벽별(금성)'을 지칭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루스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을 문자적으로 옮긴다면 '빛나는 존재, 새벽(여명)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별 중 가장 밝은 유성인 찬란한 금성을 타락 전 사탄에게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루스벨이 타락 전에 차지하고 있었던 높은 지위에 대한 생생한 예증으로서 매우 적절하다"("Lucifer,"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683).
2. General Confernce Committee, "Methods of Bible study," 1986 ; Hasel, Biblical Interpretation Today(Washington, D.C.: Biblical Research Institute[of the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1985)를 보라.
3. K. Runia, The Present-Day Christological Debate(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1984) ; G.C. Berkouwer, The Person of Christ(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1954), pp. 14~56을 보라.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스러움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및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을 꿇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하는 것이다.(요 3:16; 사 53장; 벧전 2:21, 22; 고전 15:3, 4, 20~22; 고후 5:14, 15, 19~21; 롬 1:4, 3:25, 4:25, 8:3, 4; 요일 2:2, 4:10; 골 2:15; 빌 2:6~11)

우주의 중심인 하늘에 이르는 한 문이 열려 있다. 한 음성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고 부른다. 성령에 감동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을 주시한다.

눈부신 에메랄드 빛깔의 무지개가 중심 보좌를 두르고 있고, 번개와 뇌성

과 음성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온다. 귀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조금 작은 보좌에 앉아 있다. 송영이 울려퍼지자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진다.

일곱 인으로 봉한 한 두루마리를 든 한 천사가 외친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계 5:2).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 두루마리를 능히 개봉할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다. 그가 실망해서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하나가 그를 위로하였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계 5:5).

위엄의 보좌를 다시 바라본 요한은, "일찍 죽임을 당"했으나 지금은 살아계셔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신 어린양을 본다. 이 겸비한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생물들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터뜨린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계 5:9, 10).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노래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이 두루마리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 이 두루마리는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류의 구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선택하기만 하면 죄에 포로된 자들을 그들의 멸망의 감옥에서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너무도 완전한 구원을 드러내고 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오래 전에 어린양은 이렇게 부르짖으셨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7, 8; 히 10:7 참조). 인류의 구속을 성취한 것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의 강림이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성경은 인류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계시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창조주와 다시 연합시키시는 일에 연합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강조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고 선언한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렘 31:3)으로 인류에게 접근하신다. 구원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각인이 그 초청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갖도록 허용하셨다(계 3:20, 21).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배치되는 방법이며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선제 행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찾아나서셨다. 범죄한 부부는 그들의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맞기 위해 이전처럼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몸을 숨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집요하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다.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들, 즉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어려움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셨다. 그들의 상황은 가히 절대적으로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한 놀라운 계획을 공개하셨다(창 3:15).

은혜인가 공의인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의 배도 후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자비하시며 공의로우신 품성을 계시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반포하셨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출 34:6, 7).

하나님의 품성은 은혜와 공의의 독특한 혼합, 기꺼이 용서하심과 형벌받을 자를 면죄하시기를 꺼리심의 독특한 혼합을 보여 준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러한 품성의 특질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용서인가 형벌인가? 이스라엘의 배도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주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당신께로 돌이키도록 애타게 간청하셨다

(렘 3:12~14).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초청을 일축하였다(렘 5:3). 용서를 비웃는 회개하지 않는 태도는 형벌을 불가피하게 만든다(시 7:12).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죄에 집착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없으시다(렘 5:7). 용서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사 55:7). 그분의 구원의 기별이 세계 방방곡곡에 명백하게 울려퍼지고 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22).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최초의 범죄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증오하는 기질을 심어놓았다(골 1:21).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다(히 12:29; 합 1:13 참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롬 3:23)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엡 2:3, 5:6 참조)며,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엄숙한 진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부른다(롬 1:18).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당신의 율법에 대한 계획적인 배척은 그분의 의분 혹은 진노를 촉발시킨다(왕하 17:16~18; 대하 36:16). 래드(G. E. Ladd)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인간은 윤리적으로 죄악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과들을 계수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죄인으로,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보실 수밖에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에 대한 진노로 표출되는 것이 윤리적, 종교적으로 필연적이기 때문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반역적인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죄는 모두 미워하시나 각 개인에 대하여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인간의 반응.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엡 2:7)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 주셨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

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사도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전 1:30, 31)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누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할 수 있을까?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롬 2:4)신다고 지적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의에 대한 인간의 반응조차도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따름이다(롬 12:3).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이다(행 5:31).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에서 우러나온다(요일 4:19). 우리는 사탄, 죄,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사 64:6).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4, 5, 8, 9).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다는 것이다. 그분의 화목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 성경절은, 이 과정은 하나님을 죄인에게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 화목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화목의 계획은 놀라운 신적 겸비이다. 그는 인간을 멸망하도록 버려둘 온갖 권리를 가지고 계셨다.

전술한 바와같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선제 행동을 하셨다.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롬 5:10)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롬 5:11).

화목의 과정은 '**속죄**(atonement)'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 "영어 단어

atonement(속죄)는 원래 'at-one-ment(하나로 됨)' 즉 '하나로 된' 상태 혹은 '의견이 일치된' 상태를 뜻했다. 그러므로 'atonement'는 관계의 조화를 의미했다. 그리고 관계가 소원했던 곳에 이러한 조화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화목의 과정의 결과일 것이다. 그 단어의 원래의 의미에 비추어 이해할 때, 그것은 소원한 상태를 종결시킨 화목의 상태를 훌륭하게 나타내 준다."[2]

많은 그리스도인은 **속죄**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죽음에만 한정시킨다. 그러나 성소 봉사에서 속죄는 희생제물인 양을 죽이는 일뿐 아니라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그 흘린 피로 제사를 집전하는 것도 포함하였다(레 4:20, 26, 35, 16:15~18, 32, 33 참조). 이러한 성서적 용법에 비추어 볼 때,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봉사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 그곳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완전한, 완성된 속죄 희생의 공로를 적용하고 계신다.[3]

빈센트 테일러(Vincent Taylor)로 속죄의 교리는 "(1)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행위, (2) 믿음으로 그분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개인 및 공동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등 두 가지 국면이 있으며, 이 둘이 합하여 속죄를 이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통찰에 기초하여 그는, "속죄는 **우리를 위해** 성취되고 또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4]고 결론지었다. 본 장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지어 속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분의 대제사장의 봉사와 관련된 속죄는 뒤에서 다룰 것이다(본서 24장 참조).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갈바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에 전환점이 되었다. 백성들의 죄의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화목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후 5:19).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철회하신다거나 죄가 더 이상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율법의 공의를 여전히 유지하시면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용서를 허용하시는 길을 발견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의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도덕적 그리고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심판으로 옮겨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셔야 한다. 이 선고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취하셨다. 이 속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 섰기 때문에 필요했다. 여기에 죄에 대한 용서의 복음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오묘와 핵심이 깔려 있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게 만족시켰고, 또 하나님은 인간이 죽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을 기꺼이 받아주신다."[5]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고 말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공의를 모두 드러낸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롬 3:25, 26).

속죄의 희생이 성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부께서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희생제물"[롬 3:25, NIV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hilasterion)], "화목제물"(KJV, NKJV), "속량제물"(an expiation, RSV)로 주셨다. 신약에서 사용된 **힐라스테리온**의 용례는 "분노한 신을 달래"거나 "복수적이고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신을 진정시키"는 이교적인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6] 그 구절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운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에 대한 그의 거룩한 진노에 대한 화목제물로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받도록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표자와 하나님의 대속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7]

이러한 견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엡 5:2;창 8:21;출 29:18;레 1:9 참조)린 것으로 묘사한 바울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이 희생제물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충분히 담당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죄 된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헐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이 진노가 인간에게서 떠나고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게 되었다."[8]

또한 로마서 3장 25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죄는 그 값이 치러졌다(혹은 제거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속량(expiation)은 속죄의 피가 회개하는 죄인에게 이루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용서, 개인적 죄책의 제거 그리고 죄로부터의 정결을 경험한다.[9]

죄를 대신 지시는 분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지시는 분"으로 제시한다. 이사야는 심오한 예언적 언어로 이렇게 진술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사 53:5, 6, 10, 12; 갈 1:14 참조).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고전 15:3)셨다고 말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이 예언이었다.

이 구절들은 구속의 계획에서 한 중요한 개념을 지적한다. 즉, 우리를 더럽힌 죄와 죄책이 우리의 죄를 지시는 분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 51:10). 구약 성소의 희생 제사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역할을 계시했다. 그곳에서 회개하는 죄인으로부터 무고한 어린양에게로 죄가 옮겨지는 것은 죄를 지시는 분 그리스도에게로 죄가 옮겨지는 것을 상징했다(본서 4장을 보라).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피는 성소 봉사의 속죄 희생 제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레 17:11)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속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으신 것이었다. 짐승을 죽인 후에, 용서가 주어지기 전 제사장은 그 피를 사용해야 하였다.

신약은, 대치물의 피를 통하여 용서, 정결, 화목을 얻는 구약의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갈바리 희생의 속죄의 피로 성취되었음을 드러낸다. 구약과는

대조적으로 신약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4)라고 말한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롬 3:25). 요한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힐라스모스**, hilasmos]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했다[요일 4:10; 속량(expiation), RSV ; 속죄의 희생제물, NIV].

요약하면, "화목에 대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행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적, 속죄적 보혈(자아 희생)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같이 하나님은 '화목의 제공자인 동시에 수령자이시다'."[10]

속량물이신 그리스도

인간이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롬 6:4; 갈 3:10~13). 죄의 노예로서(롬 6:17),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피할 길이 없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시 49:7)한다.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호 13:14).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속량하셨는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마 20:28; 딤전 2:6 참조)기 위하여 오셨다고 증거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행 20:28).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엡 1:7; 롬 3:24 참조). 그가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딛 2:14)시려는 것이었다.

속전으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였다.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전 6:19, 20; 고전 7:23 참조)다고 말했다.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영적인 포

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셨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제거하셨고, 모든 회개하는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베드로는 신자들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벧전 1:18)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바울은 죄의 종살이에서 그리고 그 죽음의 열매로부터 구출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22)고 기록하였다.

속량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의 진수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어린양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가장 깊은 동기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11] 이 원칙은 하늘 궁전에서 불리운 송영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계 5:9, 10).

인류의 대표자 그리스도

아담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고전 15:45, 47)이신 그리스도는 둘 다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육적인 출생은 각인에게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짊어지우지만,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희생의 혜택을 받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아담의 반역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정죄와 죽음을 가져다주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사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다. 그의 대속적 죽음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과 회개하는 죄인을 위한 영생의 은사를 마련하였다(고후 5:21; 롬 6:23; 벧전 3:18).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보편적 본질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은 각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다(히 2:9).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롬 5:12) 모든 사람이 죽음 즉 첫째 사망을 맛본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맛보신 죽음은 둘째 사망 곧 죽음의 본격적인 저주였다(계 20:6; 본서 27장 참조).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10). 죄로 말미암아 생긴 틈을 메우는 데는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도 필요하였다. 둘 다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시면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이 고귀한 생애를 회개한 죄인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 그분의 완전한 품성은 인간이 스스로 이루고자 시도함으로 입은 "더러운 옷"(사 64:6)을 가리기 위해 그분께서 주시는 결혼 예복(마 22:11) 혹은 의의 두루마기(사 61:10)로 묘사되었다.

우리 인간의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산다.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움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참회하는 죄인을 보실 때 그분은 벌거벗음이나 죄의 흉함을 보지 않으시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형성된 의의 두루마기를 보신다.[12] 이 두루마기로 가리움을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참으로 의로울 수 없다.

결혼 예복의 비유에서, 자신의 옷을 입은 채로 도착한 그 하객이 쫓겨난 것은 불신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수락했다(마 22:10). 그러나 그가 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결혼 예복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왕 앞에 나설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 그분의 의로운 품성 또한 필요하다.

죄인들로서 우리는 빚을 탕감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은행 계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상이 필요된다. 우리는 왕의 가족으로 입양될 필요가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봉사는 용서와 옷입힘이라는 이중의 목적이 있다. 즉, 그의 죽으심과 생애를 우리의 생애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적용하는 것이다. 갈바리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죄인에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영감. 이 땅에서 사신 그리스도의 생애는 또한 인류에게 삶의 방법에 관한 모델을 주었다. 예컨대, 베드로는 예수께서 개인적 학대를 받으실 때 반응하셨던 방법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추천하고 있다(벧전 2:21~23).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 중에 계속 빠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도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보증을 준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증거하였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고전 15:14, 17)이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부활하셨고(눅 24:36~43), 신-인(神人)으로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중요한 대언자의 일을 시작하셨다(히 8:1, 2; 본서 4장 참조).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에 희망이 산산이 깨어진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의미를 십자가에 부여하였다. 그의 부활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역사를 바꾸어 놓은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사명의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그리스도,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분을 선포하였다. 사도들이 전한 기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위를 판가름 짓는,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던가 아니면 미증유의 기만이던가 둘 중 하나이다"[13]라고 기록하였다. 윌버 스미스(Wilbur M. Smith)는 이렇게 논평하였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성채이다. 첫 세기에 세계를 뒤집어 놓고 기독교를 유대교와 지중해 세계의 이교 종교들 위에 현저하게 뛰어나게 만든 교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 교리가 무너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지극히 중요하고 독특한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

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고전 15:17)."[14]

그리스도께서 현재 수행하고 계시는 봉사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갈바리에서의 속죄의 죽음이 충분하고 또 완전하였더라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다는 보증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무덤 저편에 있는 생명의 실재를 확증해 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입증해 준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봉사의 결과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봉사는 인류뿐 아니라 전 우주에 영향을 끼친다.

우주 전체의 화목. 바울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중대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엡 3:10). 그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골 1:20)셨다고 역설하고 있다. 바울은 이러한 화목의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나타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0, 11).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옹호.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희생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품성뿐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공의와 선함 혹은 의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량은 율법의 요구(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를 만족시켰으며,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 하였다. 바울은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3, 4)고 말하였다.

칭의. 화목은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탕자가 그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아버지와 화목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세상과 화목케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즉석의 열매를 맺는 무한히 소중한 **칭의**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롬 5:1). 의롭게 된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적대감으로 상징된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 또는 증오심의 모든 분리의 벽을 깨뜨리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엡 2:14~16 참조)."[15]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무익성.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헛됨을 드러내 준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찰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의롭게 해 주는 의를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심은 순종을 기쁨으로 만든다. 그렇게 될 때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열매가 된다.[16]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 그분의 의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값없이 선물로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끈다. 감사, 찬양 그리고 기쁨이 우러나고, 순종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 있는 거처가 된다. 하나님과 회개하는 죄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다. 그것은 두려움과 의무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랑과 경탄에 기초된 교제이다(요 15:1~10 참조)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로움을 더욱 적게 느낄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관여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실패하는 대신,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사명을 위한 동기 부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그것을 스스로 체험했을 때, 우리는 죄를 위해 드리신 그리스도

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돌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둘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0, 21)는 감동적인 복음의 초청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줄 것이다.

참고 문헌

1. George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MI:Wm. B. Eerdmans, 1974), p. 453.
2. "Atonement,"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97.
3. 이 성서적 개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참조하려면, Seventh-day Adventists Answer Questions on Doctrine(Washington, D.C.:Review and Herald, 1957), pp. 341~355를 보라.
4. Vincent Taylor, The Cross of Christ(London:Macmillan, 1956), pp. 88, 89.
5. Hans K. LaRondelle, Christ Our Salvation(Mountain View, CA:Pacific Press, 1980), pp. 25, 26.
6. Raoul Dederen, "Atoning Aspects in Christ's Death," in The Sanctuary and the Atonement, ed. Arnold V. Wallenkampf and W. Richard Lesher (Washington, D.C.:[Biblical Research Institute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1981), p. 295.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방 종교에서의 화해(propitiation)는 경배자 자신이 신의 심경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로 생각되어졌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호의적이 되도록 신에게 뇌물을 바친 것이다. 성경상 속량-화해(expiation-propitiation)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ibid., p. 317).
7. LaRondelle, p. 26.
8. Ibid., pp. 26, 27.
9. Dederen, p. 295.
10. LaRondelle, p. 28. 이 참고문에서의 인용구는 H. G. Link and C. Brown, "Reconciliatio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heology(Grand Rapids, MI:Zondervan, 1978), vol. 3, p. 162에서 따온 것이다.
11. LaRondelle, p. 30.
12. White, Christ's Object Lessons(Washington, D.C.:Review and Herald, 1941), p. 312.
13.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Grand Rapids, MI:Wm. B. Eerdmans, 1962), vol. 1, p. 173.
14. Wilbur M. Smith, "Twentieth-Century Scientists and the Resurrection of Christ", Christianity Today, April 15, 1957, p. 22.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를 위

해서는 Josh McDowell,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Campus Crusade for Christ, 1972), pp. 185~274를 보라.

15. LaRondelle, pp. 32, 33.
16. Hyde, "What Christ's Life Means to Me," Adventist Review, Nov. 6, 1986, p. 19를 참조하라.

제10장

구원의 경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고, 우리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허물을 회개하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대치물과 모본으로 믿는 믿음을 행사하게 된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거룩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능력을 받는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현재와 심판 때에 구원에 대한 보증을 얻는다.(고후 5:17~21; 요 3:16; 갈 1; 4, 4:4~7; 딛 3:3~7; 요 16:8; 갈 3:13, 14; 벧전 2:21, 22; 롬 10:17; 눅 17:5; 막 9:23, 24; 엡 2:5~10; 롬 3:21~26; 골 1:13, 14; 롬 8:14~17; 갈 3:26; 요 3:3~8; 벧전 1:23; 롬 12:2; 히 8:7~12; 겔 36:25~27; 벧후 1:3, 4; 롬 8:1~4; 5:6~10)

여러 세기 전, 헤르마스의 목자(Shepherd of Hermas)는 장수했던 한 쪼글쪼글한 노파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의 꿈에, 그 노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몸은 여전히 노쇠하고 머리칼은 백발이었지만 얼굴은 더 젊어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회춘했다.

토런스(T. F. Torrance)는 이 여자를 교회에 비유하였다.[1] 그리스도인들은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속에서 왕 노릇하시면(롬 8:9) 그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5:25~27)고 말했다. 이러한 정결이 교회의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신자들은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라고 증거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이러한 변화야말로 궁극적인 내적 오순절이다.

성경 전반에 걸쳐 신자의 경험, 즉 구원, 칭의, 성화, 정결 그리고 구속은 (1) 이미 성취된 것으로, (2) 현재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3)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시각을 이해하면 칭의와 성화에 관한 강조점에서 외관상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본 장은 신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세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취급한다.

구원의 경험과 과거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자애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리스도를 제쳐 놓고 자신 속에 선을 계발하려는 시도는 반(反)생산적이다. 심령 깊숙한 곳까지 미치는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리스도는 이 경험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3, 5)고 언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행 4:12)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다.

구원의 경험은 회개, 자복, 용서, 칭의 그리고 성화를 포함한다.

회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얼마 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요 16:8)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성령을 약속하셨다. 오순절에 백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깨닫고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행 2:37, 38, 3:19 참조)라고 대답하였다.

1.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회개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함**(nacham)을 번역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오**(metanoeo)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자책감을 느끼다', '회개하다'이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성령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자신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심각성을 자각케 하신다. 그들은 슬픔과 자책감을 경험한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는 진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한다. 그들은 결연한 의지로 자신들을 구세주께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의 죄 된 행위를 버린다. 이와 같이 하여 회개는 회심–죄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돌이켜 ~로 향함을 뜻하는 헬라어 **에피스트로페**(epistrophe)로부터 나옴. 행 15:3 참조]–으로 절정을 이룬다.[2]

살인과 간음죄에 대한 다윗의 회개는 어떻게 이 경험이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는지 극명하게 예시(例示)해 준다. 성령에 의해 자신의 죄를 자각한 그는 자신의 죄를 멸시하고 슬퍼하였다. 그리고 그는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3, 4, 1, 10). 그에 뒤이은 다윗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죄의 용서뿐 아니라 죄에서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회개가 죄의 용서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인이 회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확보할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죄인은 스스로 회개를 이루어 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행 5:31; 롬 2:4 참조). 성령은 죄인이 죄에 대한 이러한 진정한 슬픔, 즉 회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2. 회개를 위한 동기 부여.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고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은 녹고 굴복된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죄수가 느닷없이 사면장을 받았을 때 그의 감정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무죄 방면, 즉 의롭다고 선언된다! 그는 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다.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의 의롭다 하심(칭의)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롬 5:6~10).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죄인들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롬 2:4).

칭의.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고후 5:21)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은 성령으로 채움을 입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동일한 믿음을 통하여(롬 12:3; 엡 2:8) 회개하는 죄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롬 3:28).

'칭의'라는 용어는 '의로운 요구, 행실', '규정', '사법적 선고', '의의 행위'를 뜻하는 헬라어 **디카이오마**(dikaioma)와 '칭의', '옹호', '무죄 석방'을 뜻하는 **디카이오시스**(dikaiosis)를 번역한 것이다. '의롭다고 선고되고 그렇게 취급을 받다', '무죄 방면되다', '의롭다고 여겨지다', '석방되다', '순결하게 하다', '공평하게 행하다'를 의미하는 관련된 동사 **디카이오오**(dikaioo)도 그 용어의 의미에 부가적인 통찰을 준다.[3]

대체로 신학적으로 사용되는 **칭의**의 의미는 "참회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거나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롬 5:16)."[4] 이 칭의의 기초는 우리의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왜냐하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롬 5:18, 19)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롬 3:24) 신자들에게 이 순종을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하셨나니"(딛 3:5).

1. 믿음과 행함의 역할.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이 그들의 선행이나 악행에 좌우된다고 잘못 믿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 3:8, 9)고 명료하게 진술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을 지적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롬 4:3; 창 15:6)다. 그는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할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롬 4:9, 10).

아브라함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순종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하였다고 드러낸다(히 11:8~10; 창 12:4, 13:18 참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소유했었다는 사실은 그의 순종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역동적 믿음의 기초 위에서였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또 다른 부정확한 이해 즉,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나타냄 없이도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경고하였다. 그는 진정한 믿음은 행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그의 요점을 아브라함의 경험을 사용하여 예시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린 행위(약 2:21)가 그의 믿음을 입증시켜 주었다.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네가 보느냐"(약 2:22)고 질문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

아브라함의 경험은 행함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증거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칭의로 인도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다(약 2:24).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다. 바울이 행함으로 칭의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의 그릇됨을 지적한 반면, 야고보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 없이 칭의를 주장하는, 그에 못지 않게 위험한 개념을 취급하였다. 행함이나 죽은 믿음 그 어느 것도 칭의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며(갈 5:6) 영혼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2. 칭의의 경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우리는 우리의 대리인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고 말했다.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충만하고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하여 스가랴가 본 이상은 칭의를 아름답게 예시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죄의 더러움을 대표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다. 그가 거기 서 있을 때 사탄은 그의 정죄를 요청한다. 사탄의 비난은 옳다. 여호수아는 무죄 석방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적인 자비하심으로 사탄을 꾸짖으신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슥 3:2). 이 사람은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시키고 있는 나의 고귀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더럽혀진 옷을 신속하게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신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슥 3:4). 우리의 사랑하시는, 온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사탄의 비난을 일축하시고 떨고 있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를 가리우신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 죄를 상징했듯이, 새옷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새로운 경험을 상징했다. 칭의의 과정에서 고백되고 용서받은 죄는 죄를 지시는 어린양이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옮겨진다. "그러나 무가치한,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의 옷이 입혀졌다. 이러한 옷을 바꿔 입음, 이 같은 구원의 거룩한 거래가 성경적 칭의의 교리이다."[5]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용서를 경험했고 그들의 죄 씻음을 받았다.

결과들. 회개와 칭의의 결과는 무엇인가?

1. 성화. '성화'라는 용어는 '성결', '성별', '성화'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기아스모스**(hagiasmos)를 번역한 것이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성화시키다', '구별하다'라는 뜻의 **하기아조**(hagiazo)로부터 나온 말이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다쉬**(qadash)로서 '보통 용도로부터 구별하다'를 뜻한다.[6]

진정한 회개와 칭의는 성화로 인도한다. 칭의와 성화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7] 분명히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그것들은 구원의 두 단계를 표시한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에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칭의나 성화 그 어느 것도 공로가 인정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둘 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서 기인된다.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 주는 의는 전가되는 의이며 우리가 성화되게 하는 의는 나누어 주는 의이다. 전자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증서요, 후자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적합성이다."[8]

성경이 제시하는 성화의 세 국면은 (1) 신자의 과거에 이미 성취된 행위, (2) 신자의 현재의 경험 가운데서 진행되는 과정, (3) 신자가 그리스도 재림 때 경험하는 최종적 결과 등이다.

신자의 과거에 대하여 말하자면 칭의의 순간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고전 6:11) 또한 성화된다. 그는 "성도"가 된다. 그 시점에 새 신자는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롬 1:7) 신자들은 "성도"로 불리우는데 그것은 그들이 죄 없는 상태를 이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빌 1:1; 요 15:1~7 참조). 구원은 현재적 경험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딤 3:5)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사 우리를 거룩한 목적과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위해 성별하셨다고 말했다.

2.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됨. 동시에 신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즉, 신자들이 우주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는 그들을 당신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롬

8:15~17)로 삼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영예이며 기쁨인가!

3. 구원의 보증. 칭의는 또한 신자의 가납을 보증해 준다.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재연합된 기쁨을 맛보게 해 준다. 과거의 생애가 아무리 죄악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는 더 이상 정죄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엡 1:7).

4. 승리하는 새 생활의 시작. 구주의 피가 우리의 죄 된 과거를 가리운다는 깨달음은 몸과 영혼과 마음에 치유를 가져다준다. 죄책감은 제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날마다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신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치유와 변화가 진전되며 그분은 어둠의 권세에 대해 점점 더 승리를 얻게 해 주신다. 세상에 대한 그분의 승리는 죄의 예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보증해 준다(요 16:33).

5. 영생의 은사. 그리스도와 우리의 새 관계는 아울러 영생의 은사를 가져다준다. 요한은 이렇게 단언하였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우리의 죄 된 과거는 다 청산되었다.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복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

구원의 경험과 현재

정결케 함, 칭의 그리고 성화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성화의 생애로 부르심.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이루신 것에 기초하여 성화된 생애를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윤리적 성결과 도덕적 행위에 전념하는 생애를 살도록 호소하였다(살전 4:7). 하나님은 신자들이 성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결의 영"(롬 1:4)을 주신다. 바울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

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엡 3:16, 17)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자는 새로운 책임을 진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롬 6:19)고 바울은 말하였다. 이제 그들은 "성령 안에서"(갈 5:25) 살아야 한다.

성령의 채움을 입은 신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롬 8:4, 8:1 참조)해야 한다. 그들은 변화되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롬 8:6)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 그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롬 8:9)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생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살전 4:1).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했다. 그러므로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살전 4:5~7)라.

내적인 변화. 재림 때 우리의 육체는 변화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몸, 죽을 몸이 불멸성을 입을 것이다(고전 15:51~54). 그러나 우리의 품성은 재림에 대비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품성 변화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내적 본질"(고후 4:16, RSV; 롬 12:2 참조)인 하나님의 형상의 정신적, 영적 국면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헤르마스의 목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노파처럼 교회는 내부적으로 점점 젊어진다. 온전히 굴복한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마침내 재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그들의 변화가 완성될 것이다.

1.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여. 창조주께서만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창조 사업을 성취시킬 수 있으시다(살전 5:23).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참여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에 자신을 두어야 하는 바 그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할 때 성령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들을 회복시키신다(딛 3:5 참조).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관여하신다(롬 8:1~10 참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

(고후 6:16; 요일 3:24, 4:12 참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갈 2:20; 요 14:23 참조)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창조주의 내재는 매일 신자를 내적으로 소생시키고(고후 4:16) 그들의 마음을 쇄신시켜 준다(롬 12:2; 빌 2:5 참조).

2. 신의 성품에 참여함.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의 품성 변화를 완성시킬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보증한다(벧후 1: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벧후 1:5~7)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벧후 1:8, 9).

1)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그들의 창조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롬 13:14; 히 3:14)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심"(딛 3:5)이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요일 4:12). 여기에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에 비견할 만한 신비가 있다. 성령께서 신성이신 그리스도로 인성을 취하실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들을 취하는 일을 가능케 해 주신다. 신의 성품을 이와 같이 내 것으로 삼을 때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개인차는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준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는 데 반하여 신자들은 신이 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2) 역동적 과정. 성화는 점진적이다. 기도와 말씀 연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구원의 계획을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요 6:53~56)라고 계시하셨다.

그의 비유적 표현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마 4:4도 보라.)고 말씀하셨다.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꼴 지어진다. 생명의 떡을 소화시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3. 두 가지 변화. 1517년 마틴 루터가 그의 95개 조항을 독일의 비텐베르크(Wittenberg)성 교회의 문에 못 박았던 해에 라파엘은 로마에서 그의 유명한 그리스도의 변형(Transfiguration)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루터의 행위는 개신교주의 탄생을 알렸고, 라파엘의 그림은,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개신교 정신을 요약하였다.

그 그림은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서 계시고 귀신 들린 자가 골짜기에서 희망의 눈초리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막 9:2~29 참조).

산 위에 있는 제자들과 골짜기에 있는 제자들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묘사한다.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기를 원했고 외관상 아래 골짜기의 필요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듯 보였다. 각 시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세상의 필요를 멀리 등지고 '산' 위에 초막을 세웠다. 그들의 경험은 활동이 없는 기도이다.

반면에, 골짜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도 없이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귀신을 내쫓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 없이 다른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덫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활동 없이 기도만 하는 덫 중 하나에 걸려 있다.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1) 참된 변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의 의지, 마음, 소망 그리고 품성을 일변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성령은 신자들의 사고방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썩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남아 있지만 성령의 열매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 23)가 이제 그들의 생활 방식이 된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혼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충동에 따라 실행하더라도 그분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봉사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가장 드높은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9]

2) 두 종착점. 그리스도의 변형되심은 또 다른 뚜렷한 대조를 보여 준다. 그리스도는 변형되셨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골짜기에 있었던 그 소년도 변형되었다. 그 소년은 악마의 형상으로 변형되었던 것이다(막 9:1~29을 보라.). 여기서 우리는 두 대조적인 계획들 즉,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이 예시된 것을 본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유 24)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타락된 상태에 묶어두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인생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수반된다. 중립지대는 없다. 우리는 고상하게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거나 타락해 가는 중에 있거나 그 어느 하나에 속한다. 우리는 "죄의 종"이나 "의의 종"(롬 6:17, 18) 중 하나에 해당된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자가 우리를 차지한다. 만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생애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고후 10:5)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살면 생명과 변화의 근원에서 단절되며 우리의 최후 멸망은 불가피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완전. 성서적 완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1. 성서적 완전. '온전한' 혹은 '완전'이라는 단어는 '완성된', '옳은', '평화로운', '건전한', '완전한' 혹은 '흠잡을 데 없는'을 뜻하는 히브리어 **탐**(tam) 혹은 **타밈**(tamim)을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헬라어 **텔레이오스**(teleios)는 '완성된', '완전한', '다 자란', '성숙한', '충분히 계발된'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한'을 의미한다.[10]

구약에서, 인간에 대하여 사용될 때 그 단어는 상대적 의미를 지닌다.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욥은 모두 불완전한 점이 있었지만(창 6:9, 17:1, 22:18; 욥 1:1, 18) 각기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묘사되었다(창 9:21, 20장; 욥 40:2~5).

신약에서 **완전한**(perfect)은 접할 수 있는 최선의 빛에 따라 살아서 그들의 영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능력의 가능성에 도달한 성숙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고전 14:20; 빌 3:15; 히 5:14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그리고 절대적인 영역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신자들이 그들의 유한한 영역에서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 5:48 참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봉사하는 데 전적으로 마음과 생애를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의 생애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받은바 모든 빛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다(골 4:12; 약 3:2 참조).

2.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완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을 가져다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된다. 사람들은 '완전'이 그들의 타고난 소유물이거나 혹은 소유권이 있는 양 결코 독립적으로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 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은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성화)과 구원함"(고전 1:30)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특질들이 우리의 완전을 구성한다. 그분은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 아무도 그분께서 하신 일에 보탤 수 없다. 우리의 결혼 예복, 혹은 의의 두루마기는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의해 만들어졌다. 성령은 이제 그 완성품을 취하시사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재현되게 하신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충만하게"(엡 3:19) 될 수 있다.

3. 완전으로 나아가라. 신자로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 그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 시절의 경험을 뛰어넘어(엡 4:14),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보적인 진리들 이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으며, 성숙한 신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단단한 음식"(히 5:14)을 섭취해야 한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히 6:1, 2)고 말했다. 그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하노라"(빌 1:9~11)고 말했다.

성화된 생활은 모진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는 생활아 아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훈계하였다. 그러나 그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2, 13).

그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3, 14; 마 24:13)고 말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히 10:26, 27)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당부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히 사법적인 칭의와 성화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품성의 성결을 필요로 한다. 하늘 가는 권리 증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달려 있다. 칭의에 덧붙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증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내재에 의하여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준비한다. 이 적합성은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로써 인간의 도덕적 품성이 드러나야만 한다."[11]

인간의 용어로 위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끊임없는 기도는 그 발전의 매 단계마다 완전한, 성화된 생애를 사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 "이로써…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골 1:9, 10).

매일의 칭의. 성령 충만한 성화된 생애(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생애)를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매일의 칭의(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는 칭의)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의식적인 죄들과 부지중에 지을 수도 있는 과오들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이 죄악됨을 깨닫고 다윗

은 그의 "숨은 허물"(시 19:12; 렘 17:9 참조)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별히 신자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고 보증하신다.

구원의 경험과 미래

우리의 구원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거나 하늘로 승천할 때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성취된다. 하나님은 영광화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과 당신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소망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시기 위하여"(히 9:28, NIV) 재강림하실 때 이 일이 성취된다.

영광화와 성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미래의 구원, 즉 우리의 죽을 몸의 영광화를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바울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3, 14)고 보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궁전에 있다(골 3:1~4).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은 실제로 "내세의 능력을 맛"(히 6:4, 5)보았다. 주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스런 품성에 고정시킴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고후 3:18)른다. 우리는 재림 때 경험하게 될 변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최종적 구속과 하나님의 자녀로의 입양은 미래에 있을 것이다.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롬

8:19, 23; 엡 4:30 참조)고 말한다.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이 사건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행 3:21)에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세상이 새롭게" 됨(마 19:28; 만물의 쇄신, NIV)으로 부르셨다. 그때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 8:21).

어떤 의미로 양자됨과 구속(혹은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고, 또 다른 의미로 그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성서적 견해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구속주로서 그리스도의 사업의 전체 범위에 대한 연구가 그 해답을 제공해 준다. "바울은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시켰다.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칭의와 성화는 단번에 확보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 즉 우리의 **몸**의 영광화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시켰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과거에 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 비추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장래에 오실 것에 비추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동시에 말할 수 있었다."[12]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도외시하고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부정확하고 잘못된 이해를 초래한다.

영광화와 완전. 어떤 이들은 영광화가 가져올 궁극적 구원이 이미 인간에게 가능하다고 잘못 믿고 있다.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2~14).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다. 현재의 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고 경고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베드로의 생애는 모든 이들에게 심각한 경고가 된다. "생명이 지속되

는 한, 확고한 목적으로 애정과 정욕을 감시할 필요가 내부의 타락과 외부의 유혹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진전되는 곳에는 사탄은 언제나 유혹이 영혼에게 압도적인 세력으로 엄습하도록 상황을 그렇게 조성해 놓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지 않는 한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13]

우리의 마지막 창조적 변화는 썩지 아니할 것과 불멸성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성령께서 원래의 창조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 성취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납되는 근거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특질이나 흠없는 행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납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구원하는 의는 유일하게 의로우신 사람이신 예수로부터 나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에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하다(롬 3:10). 독립적인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사 64:6; 단 9:7, 11, 20; 고전 1:30을 보라).[14]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반응하여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납의 기초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 가납은 그리스도의 일로 확인되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셔 오심으로 성령은 그 가납을 가져다주신다.

우리의 가납은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의에 기초되는가 혹은 성화시키는 의에 기초되는가 아니면 둘 다에 기초되는가? 존 칼빈(John Calvin)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질 수 없듯이 둘 즉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다고 우리가 인지하는 바 칭의와 성화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다."[15] 우리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그 전체적인 면에서 보아야 한다. "칭의와 성화 사이의 차이점들을 상세하게 정의하려" 함으로 이 두 용어들에 관하여 억측하는 일을 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영감(의 말씀)보다 더 상세하게 하려고 시도하는가?"[16]

태양이, 서로 나눌 수는 없지만 각기 독특한 기능을 보유한 열과 빛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뿐 아니라 거룩함(성화)도 되셨다(고전 1:30). 우리는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분 안

에서 온전히 성화된다.

성령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납의 유일한 경험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어 갈바리의 "다 이루었다"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신다. 십자가는 이 "다 이루었다"는 가납을 얻으려는 인간의 여타 시도에 이의를 제기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마음속에 모셔 오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자격과 적합성을 마련해 주심으로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가납의 유일한 근거를 만들어 주신다.

참고 문헌

1. T. F. Torrance, Royal Priesthood,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Occassional Papers, No. 3(Edinburgh : Oliver and Boyd, 1963), p. 48.
2. "Conversion" and "Repent, Repentance,"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p. 235, 933을 참조하라.
3. W. E. Vine, An Expository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words(Did Tappan, NJ : Fleming H. Revell, 1966), pp. 284~86 ;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p. 196.
4. "Justifiction,"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635.
5. LaRondelle, p. 47.
6. "Sanctification,"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979.
7. Ibid.
8. White, Messages to Young People (Nashville, TN : Southern Publishing Assn., 1930), p. 35.
9. White, The Desire of Ages, p. 668.
10. "Perfect, Perfection,"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864.
11. LaRondelle, p. 77.
12. Ibid., p. 89.
13. White in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2, p. 1032.
14.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석하면서 화잇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하므로 너무 더려워져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흠없는 순결성으로 드리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써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이 지상 성막에서 피우

는 모든 분향은 그리스도의 깨끗케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야 한다"(Selected Messages, book 1, p. 344).

15.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Associated Publishers and Authors, Inc. n. d.), III, 11, 6.
16. White in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 1072.

제11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악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셨다. 지상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귀신의 영들을 진압하신 분께서는 그들의 능력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궁극적인 파멸을 확실하게 하셨다. 예수의 승리는 평화, 기쁨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준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 계속하여 우리를 위탁할 때, 우리는 과거의 행위의 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악의 세력을 두려워 함, 무지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의 무의미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분의 구원에 대해 증언하는 일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는 매 순간마다 매일 그것을 영적 경험으로 전환시킨다. (시 1:1, 2, 23:4, 77:11, 12; 골 1:13, 14, 2:6, 14, 15; 눅 10:17~20; 엡 5:19, 20, 6:12~18; 살전 5:23; 벧후 2:9, 3:18; 고후 3:17, 18; 빌 3:7~14; 살전 5:16~18; 마 20:25~28; 요 20:21; 갈 5:22~25; 롬 8:38, 39; 요일 4:4; 히 10:25.)

출생은 기쁨의 순간임. 씨에 싹이 트고 최초로 두 떡잎이 나오는 것은 정원사를 행복하게 한다. 아이가 태어나 첫 울음을 울 때 그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새 생명이 있음을 세상에 알린다. 어머니는 모든 고통을 잊고 다른 모든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한다. 한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로 태어날 때 전 국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시의 광장을 메우고 그들이 새로 발견한 기쁨의 상징물들을 흔든다. 그러나 상상해 보라. 그 두 떡잎이 넷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든지 없어지는 것을. 일년 후에 그 작은 아이가 미소를 짓지 못하고 첫걸음도 떼지 못하며 세상에 태어날 때의 그 단순한 모양으로 얼어붙은 듯 남아 있는 것을. 새롭게 자유를 얻은 나라 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두려움, 고통 그리고 속박의 감방으로 변할 것이다.

정원사의 기쁨, 어머니의 환희 그리고 자유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약속은 낙망, 슬픔 그리고 비탄으로 변한다. 자라남 곧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성장은 생명에 필수적이다. 성장이 없는 출생은 의미나 목적이나 행선지가 없다.

성장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생명과 분리할 수 없는 동일한 것이다. 육체적 성장에는 적절한 영양, 환경, 양육, 운동, 교육, 훈련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곳에서 고려하는 문제는 영적 성장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가? 영적 성장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생명은 죽음으로 시작됨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독특한 원리는 아마도 그것이 죽음 곧 두 가지 사건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일 것이다. 우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새로운 삶 곧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고(골 1:13, 14)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고(롬 8:1) 죄의 삯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롬 6:23) 삶을 가능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온다. 둘째로 자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삶을 살게 해 준다. 그 결과 셋째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탄과 그의 악마적인 세력은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고 사망은 분쇄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다.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고안되고 시작되었다면 그 계획의 시행은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설명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의 독특한 점은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주신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도록 주신 사실에 있다. 십자가 없이는 죄의 용서도 영생도 사탄에 대한 승리도 있을 수 없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승리하셨다. 광야에서의 불 같은 시험부터 겟세마네의 고뇌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길에서 비틀거리게 하고 그분이 그분의 아버지를 불신하게 유도하고 대속적인 희생으로 인간의 죄라는 쓴 잔을 마시는 길을 피해 가도록 그분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십자가는 마지막 맹공격이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죄를 위한 제물(요 3:16)로 그분의 아들을 드리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실패하기를 희망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큰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분쇄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골 2:15)다. 십자가 위에서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에 개선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2]

골로새서에 있는 사도의 생생한 묘사는 주목할 만하다.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악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 버리셨다. **벗어 버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벗겼다'를 의미한다. 십자가로 인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 위의 승리를 가져오신 분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사하던 그의 모든 악마적인 힘을 빼앗긴다. 둘째로 십자가는 사탄과 그의 군대를 우주 앞에 "밝히 드러"낸다. 한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사 14:14)고 뽐

내던 자가 이제는 수치와 패배의 우주적인 구경거리가 된다. 악은 더 이상 신자들 위에 힘을 쓰지 못한다. 신자들은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골 1:13)으로 옮겨졌다. 셋째로 십자가는 사탄, 죄 그리고 사망에 대한 마지막 종말론적 승리를 보장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되었다.

* 그것을 통해 죄의 용서가 가능하게 된 수단(골 2:13)

* 우주적 화목을 우주적으로 드러냄(고후 5:19)

* 죄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승리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 현재 가능하다는 것(롬 6:12)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보증(롬 8:14)

* 한때 사탄이 찬탈했던 왕국인 이 악한 세상이 죄의 존재와 능력으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라는 종말론적 확실성(계 21:1)

이 구속과 승리의 사다리의 단계마다 우리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라는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를 본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예수께서는 그분의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마 26:28) 되어야 한다고 단언하셨다. 그 피 흘림은 구원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것은 한 가지 일 곧 죄에 대해 말한다. 죄는 실재한다. 죄는 많은 값을 치르게 한다. 죄의 장악력은 매우 크고 치명적이어서 죄의 용서 그리고 죄의 힘과 죄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벧전 1:19)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죄의 실재를 부인하거나 계속하여 죄에 대해 무관심한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죄에 대한 이 진리는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악마적인 속성과 대치하게 되는데 죄는 오직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마 26:28) 그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그분의 죽으심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거나 그러한 사실에 무관심하게 되지 말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은 우리의 죄이다. 이는 바울이 진술한 것과 같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롬 5:6, 8)셨다. 엘렌 G. 화잇은 죄가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破碎)되고 있었다."[3]고 진술하였다. 예수의 죽음은 "단번에"(참조 롬 6:10; 히 7:27, 10:10) 드려진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성격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선한 사람 그리스도나, 신-인 그리스도나, 위대한 교사 그리스도나, 완벽한 모본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4]

그때에 예수의 피는 죄로부터의 용서를 보증하며 새롭게 성장할 씨앗을 뿌린다.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이 새로움과 성장의 우선적인 면모 중의 하나는 화목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다고 말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것이 처리되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십자가 위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공표하셨으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라고 강권하셨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즉시 구속적인 성장 과정의 두 번째 국면 곧 동료 인간과의 화목의 국면을 연다.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광경 중의 하나는 그 둘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다양함이다. 모두가 예수를 찬탄한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성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라. 사업적 총명을 자랑하던 애굽인들이 있었으며 문명과 문화를 뽐내던 로마사람들이 있었고 학문에서 뛰어났던 헬라인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선택받은 자들 중의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며 교리적으로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자유를 추구하던 노예들이 있었으며 한가로운 사치에 탐닉했던 자유인들

이 있었고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들 모두를 차별하지 않았다. 십자가는 그들 모두를 죄인으로 판정하였다. 십자가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화목의 길을 제공했다. 십자가 아래의 땅은 높낮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며 더 이상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새로운 형제 관계가 시작된다. 새로운 교제가 시작된다. 동방이 서방과 합하고 북방이 남방으로 내려오며 백인이 흑인과 악수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손을 잡기 위해 장벽을 뛰어넘는다. 삶의 달콤함을 맛보도록, 은혜의 경험을 나누도록, 세상에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족의 출현(엡 2:14~16)을 선포하도록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피의 기초로 초청한다. 이렇게 십자가는 사탄과 죄에 대해 승리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 생명을 가져왔다.

자아에 대한 죽음. 그리스도인의 새로움과 성장의 두 번째 중요한 면모는 옛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신약을 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새 삶의 기본적인 면모를 알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 21절을 읽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는 로마서 6장 6~11절을 읽으라.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혹은 새 생명 원칙에 대한 예수의 선언을 읽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애는 출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시작한다. 자아가 죽기까지, 자아가 십자가에 못박히기까지 전혀 시작이 있을 수 없다. 자아에 대한 근본적이고 생각이 깊고 전면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

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5] 사도는 침례의 경험을 통한 죄에 대한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부활 둘 다 강조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3, 4). 그러므로 침례는 상징적으로 새 생명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에게 명한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다. 동요하던 시몬은 용기 있는 베드로가 된다. 핍박하던 사울은 전도자 바울이 된다. 의심하던 도마는 일선의 선교사가 된다. 겁쟁이는 용기 있는 자가 된다. 믿음의 횃불이 불신을 대신한다. 질투는 사랑이 삼켜버린다. 자아에 대한 관심은 형제 우애의 관심으로 변한다. 마음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박힌다. 그러므로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9, 10)라고 기록하였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참조 눅 9:23)라고 주장하셨다.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자아의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십자가와 그 즉각적이고도 궁극적인 요구는 그리스도인 제자의 신분을 가진 자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반응을 요구해야만 한다. 디트리히 본 회퍼의 강력한 주석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만약 기독교가 제자의 신분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갖는 일을 중지했다면 복음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며, 일반적인 생존과 그리스도인 생존 사이에 구별할 수 없는 정서적 고양으로 희석시켰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일반적으로 매일 당하는 비운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생애의 시련과 고생 중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분은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그것은 매번 동일한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그분의 부르심에 옛 사람이 죽는 죽음이다."[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애로의 초청은 십자가로 초청하는 것, 곧 자아와

스스로 구주가 되려는 완고한 욕망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전 2:5) 도록 전적으로 십자가의 사람에게 붙는 것이다.

새 생애를 삶.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세 번째 면모는 새로운 생애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대한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엡 1:7)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 9)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분의 아들의 생명을 치르게 하였다. 무상의 은혜는 값싼 은혜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본 회퍼의 말을 인용한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교회의 훈육 없는 침례를, 고백 없는 성찬식을, 개인적인 고백 없는 사죄(赦罪)를 설교한다. 값싼 은혜는 제자 됨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 계시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7]

값싼 은혜는 예수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는 그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제공하신다. 제자가 되는 것은 추종자가 되는 것이며 예수의 추종자가 되는 것은 값싼 계략이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은혜의 의무에 대해 강력하게 편지한다. 먼저 그는 그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한다. 곧이어 그는 이 은혜가 그에게 헛되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첨부한다. 헬라어 **에이스 케논**(eis kenon)은 문자적으로 '빈 것을 위하여'로 번역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헛되고 공허한 생애를 살기 위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내재하는 은혜의 힘에 의한, 성령의 열매가 채워진 삶을 살기 위해 은혜를 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라"(고후 6:1)고 신자들에게 호소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한 종류의 공허함에서 구속하여 다른 종류의 공허함에 두려고 이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게 하는 그분의 행동이다. 일단 가족이 되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그 가족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의 뜻을 반영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도록 성숙한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성숙한 삶의 특징과 그 지속적인 성장의 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게 될 것이다. 세목을 다 살피지 않고 그런 특징 일곱 가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의 특징들

1. 성령의 삶.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새로 나게 하는 능력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그분은 "진리의 영"(요 14:17)이시다. 그분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요 16:13)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다. 그분은 죄에 대한 자각, 의 그리고 심판(요 16:7, 8)을 가져오신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의 결과를 헤아릴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의 변화시키는 힘이다(롬 8:14).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요일 3:24)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다.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써 새 생애 곧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옛 사고방식, 행동 그리고 관계를 거부하는 새로운 생애 또한 의 가운데서 자라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후 3:17, 18)기까지 예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며 화목하게 하며 구속하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롬 8:1~16) 새로운 생애가 이르러 온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 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8]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롬 8:17) 후사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삶은 영적 행위를 하도록 부르는 초청이다. 옛 죄의 상태를 거부하고 장래의 영광을 그분과 함께 누리기 위해 현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영성은 환상과 신비의 세계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며 함께 나누며 증언하며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의 기도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요 17:15)이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만 한다. 세상은 우리의 거주지이며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활동무대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의 시민권과 소망이 장차 이르러 올 세상에 속하기 때문이다(빌 3:20).

바울은 성령이 힘을 불어넣은 이 생애를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는 생애로 묘사한다. 그러한 성숙은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갈 5:19~21)을 거부하고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 23)를 받아들일 것이다.

2. 사랑과 연합의 생애. 그리스도인 생애는 연합의 생애 곧 한편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생애이며 다른 한편으로 동료 인간과 화목한 생애이다. 화목은 관계에서 깨진 것을 치료하는 것이며 이 관계의 깨어짐의 주된 원인은 죄이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했으며(사 59:2) 사람을 여러 당파 곧 종족, 인종, 성, 국적, 피부색, 계급제도 등으로 조각냈다. 예수의 복음은 이 죄의 문제와 그 죄의 문제에 관련된 모든 깨짐의 요인들을 다루며 연합과 화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고후 5:18)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 화목에서 새로운 공동체 곧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합과 동료 인간과의 수

평적 연합을 그 특징으로 하는 구속을 받은 공동체가 생겨난다. 진정 이 사랑과 연합의 생애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예수의 구속 전 사명과 그분의 복음의 능력은 구속을 받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결속시켜야만 하는 사랑과 연합을 소리 높여 옹호한다. 그러한 사랑과 연합 없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랑과 연합이 압도적인 곳에서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모든 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인종, 국적, 성, 계급제도, 피부색 그리고 다른 분리 요소들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성을 경험한 자의 생애 속에서 폐지된다(엡 2:11~16). 그가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화목, 사랑 그리고 연합의 영광스러운 진리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개인적인 표현이나 단체적인 표현 모두에서 점점 더 밝게 빛난다.

그리스도인 성장에서 사랑이라는 요인은 복음의 독특한 요소이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새계명(요 13:34)이라고 칭하셨다. 그러나 새롭다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하기는 하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것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사랑이 우주적이고 희생적이고 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랑은 벽을 세우지 않는다. 그것은 포용적이다. 그것은 원수까지 사랑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마 22:37~40)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수정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이 기대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9]

진정한 이웃 사랑은 피부색을 관통하며 사람의 인간됨을 직면한다. 그것은 계급제도라는 보호막 쓰기를 거절하고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일에 기여한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편견에서 사람의 권위를 구해낸다. 그것은 물질주의의 철학적 대학살에서 사람의 운명을 구해 낸다. 사실상 참된 사랑은 각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 곧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혹은 실질적인 형상을 본다.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정 모든 그리스도인 연합의 기초인 그러한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3. 연구하는 생애. 성장에서 음식은 필수적이다. 살아 있는 유기체는 그 어느 것이나 적절하고 지속적인 영양공급을 필요로 한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디에서 영적 음식을 발견할 것인가? 주로 두 근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그리고 기도의 생애를 신장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는 데서 발견한다. 예수께서 손수 하신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생애에 중요함을 말한 것은 달리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예수께서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신 것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제공하셨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10]

우리도 마찬가지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라고 말한다. 여기에 사도가 제공한 약속이 더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그리스도인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성령의 검을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하면 그는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관통하며 쪼개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올바른 쪽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속삭임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신자에게 주어

진다. 이런 것이 영적 성장에서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없게 한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 17)라고 기록했다. 그대는 진리와 교리를 이해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그대의 영혼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기 원하는가? 그대는 오늘, 내일 혹은 후일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비축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가? 성경을 손에 쥐라. 매일 성경을 연구하라. 기도로 성경에 접근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분의 길을 추구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4. 기도의 생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영적 성장의 일부 곧 그분과 교제하는 일의 일부이다.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와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일의 또 다른 면은 기도이다. 우리의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 있게 하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복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일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자아를 부인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 기다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여행을 하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온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성장에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힘써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엡 6:18)라는 여섯 가지 기본 원리를 언급한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처럼(눅 18:11) 남에게 보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또는 단지 습관적으로 기도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효력이 있는 기도는 자아를 부정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중보적이며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됨으로써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에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산소이며 그것이 없으면 영혼은 위축되며 죽는다. 엘렌 G. 화잇은 다음과 같

이 말한다. "기도를 많이 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필수적인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이는 그대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고상하게 하고, 힘을 주며, 고결하게 한다. 그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11]

5. 열매를 맺는 생애. 예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라고 말씀하셨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장의 중요한 면모이다. 은혜에 의한 구원은 흔히 순종과 열매 맺음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된다. 이보다 더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것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구원을 받으며 우리 자신 안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엡 2:7, 8; 요 3:16).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구원을 받는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죄로부터의 해방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결과이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주장과 희망을 숙고해 보라. 주장은 성부와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희망은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우선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요 15:10)였다고 주장하신다. 예수께서 성부께 순종하신 것은 율법주의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분이 성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결과였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사랑, 오직 사랑에 기초하며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겟세마네와 갈바리의 쓴 맛을 보게 한 것은 이 사랑이었다.

예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한 예증으로 사용하신다. 예수께서 성부와의 사이에 가지신 관계가 그분이 성부께 순종하는 것에 앞섰던 것과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와의 사이에 가진 관계가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는 것에 앞서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요 14:31).

예수께서 제자들에 대해 가지신 희망을 살펴보라. 그분은 세상이 그분께

서 성부와의 사이에 가지신 사랑의 관계를 알도록 성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다. 사랑의 관계가 성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앞선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즐겨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랑의 기초를 기대하신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 15:4)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표들이다. 열매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6. 영적 전쟁의 생애.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실제적이고 위험한 전쟁을 하고 있다. 바울은 말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2, 13).

이 전쟁에는 초자연적인 세력이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 소환되어 있다. 주님의 천사들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악에서 구원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봉사에 종사하듯이(시 34:7, 91:11, 12; 행 5:19, 20; 히 1:14, 12:22), 타락한 천사들도 제자가 되려면 해야 할 일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교묘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성경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노하며(계 12:17) 마귀 자신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벧전 5:8, 9)는다고 주장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는 마귀의 덫이 놓여 있으며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맹렬해진다. 그러므로 바울은 일어서라! 취하라! 입으라! 강하라!(엡 6:12, 13) 등 행동을 나타내는 강한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과 전진의 생애이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다. 계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승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 성실성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구해야 하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이 싸움에 참전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우리는 개인

적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전쟁에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제공하신다(고전 15:57). 그분은 우리에게 원수를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시험된 갑옷을 주셨다. 바울은 이 갑옷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의 틀림없는 능력(엡 6:13~18)으로 이루어진다고 묘사한다. 그런 갑옷으로 방비하고 성령의 틀림없는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영적 용맹 가운데 자라며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7. 예배, 증언 그리고 소망의 생애.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구속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이 필요한 공동체에 증언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사도시대의 공동체를 살펴보라.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적으로 예배, 친교, 연구 그리고 증언에서 성장과 성숙을 나타냈다(행 2:42~47;5:41, 42;6:7). 단체적인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정체성과 친교의 활동무대를 잃게 되는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와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 25).

예배, 연구 그리고 친교에서 더 많이 성장할수록 봉사와 증언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진다. 그리스도인 성장은 봉사에서의 성장과 증언을 향한 성장을 요구한다(마 20:25~28).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결코 자기라는 원 안에 사는 생애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증언하는 일을 통해 흘러넘치는 생애이다. 마태복음 28장의 큰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알도록 세상에 두루 용서의 복음을 전할만큼 충분히 성숙할 의무를 지운다. 성령에 의한 생애와 그리스도인 성장의 생애의 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행 1:8) 끊임없이 확장되는 증언의 생애이다.

우리는 살고 경배하고 친교하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미래 지향적이다.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빌 3:12~14)간다고 말한다. 동일한 사도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살전 5:23)도록 성화된 생애를 영위하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장차 이르러 올 왕국에서 갖게 될 구속적인 경험의 궁극적인 완성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일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겸손하고, 믿는 영혼에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하는 말들은 한 백성을 하늘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능이다. 그 고상한 예배에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13]

참고 문헌

1. Ellen G. White, The Desire of Ages, pp. 746, 749.
2. Ibid., p. 758.
3. Ibid., p. 687.
4. Ibid., p. 25.
5. Ibid., p. 172.
6.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9), pp. 78,79.
7. Ibid., p. 47.
8. White, The Desire of Ages, p. 173.
9. Ibid., p. 503.
10. Ibid., p. 120.
11.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 2 p. 313.
12. ___, The Ministry of Healing, p. 453.
13. ___,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 5, p. 491.

제12장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만찬의 거행, 온 인류에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의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케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름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모든 시대를 통하여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아들이실 것이다.(창 12:3; 행 7:38; 엡 4:11~15, 3:8~11; 마 28:19, 20, 16:13~20, 18:18; 엡 2:19~22, 1:22, 23, 5:23~27; 골 1:17, 18)

참다못해 격노한 한 노인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 재차 지팡이를 휘둘러친 다음 그는 "너희 반역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야만 하느냐?"고 외친다.

반석에서 한 물줄기가 솟아 나왔으며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기갈이 해소되

었다. 그러나 모세는 물의 선물이 **그 반석**에게서 기인된 것으로 돌리는 대신에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는 그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민 20:7~12 참조).

그 반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모두 그 위에 세우신 기초 곧 그리스도였다. 이 비유적 표현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묘사하기 위하여 바위의 은유를 사용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신 32:3, 4).

여러 세기가 지난 후, 다윗은 동일한 주제 즉 반석으로서의 그의 구주를 노래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시 62:7).

이사야도 오실 메시야에 대하여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이라"(사 28:16).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한 평범한 돌로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벧전 2:4)로서 이 예언을 성취시켰다고 증거했다. 바울은 그분을 유일의 견고한 기초로 확인하였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그는 모세가 쳤던 반석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4)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표상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셨다. 그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선언하셨다. 그는 그리스도 교회를 산 반석인 자신 위에 설립하셨다. 반석이 침을 당한 것처럼 당신 자신의 몸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 어떤 것도 그분께서 마련하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으로부터 나온 치유의 물이 목마른 국가들로 흘러가

게 될 것이다(겔 47:1~12; 요 7:37, 38; 계 22:1~5 참조).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선언을 하실 때 그 교회는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했던가! 그 교회는 지치고, 의심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소수의 제자들, 몇 아낙네들 그리고 그 반석이 침을 당했을 때 사라져 버렸던 지조 없는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연약한 인간의 지혜와 명철 위에가 아니라, 만세 반석 위에 설립되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교회를 파멸시키거나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남녀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방해할 수 없었음을 시간이 입증할 것이었다(행 4:12, 13, 20~23 참조).

'교회'의 성서적 의미

성경에 나오는 교회[1]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를 번역한 것이다. 이 표현은 백성을 소환하여 모이게 하는 관습에 의하여 모인 어떠한 모임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예수님 당시 널리 보급되어 있었던 히브리어 구약 성서의 헬라어 판인 70인 역은 '모임', '총회(assembly)', 혹은 '회중(congregation)'을 뜻했던 히브리어 **카할**(qahal)을 번역하는 데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다(신 9:10, 18:16; 삼상 17:47; 왕상 8:14; 대상 13:2).[2]

이러한 용법은 신약에서 더 확장되었다. 신약이 **교회**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목해 보라. (1) 예배드리기 위하여 특정 장소에 모인 신자들(고전 11:18, 14:19, 28), (2)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고전 16:1; 갈 1:2; 살전 2:14), (3) 한 개인의 가정에서 집회를 가지는 일단의 신자들(고전 16:19; 골 4:15; 몬 2), (4)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지역 내에 있는 일단의 회중들(행 9:31),[3] (5)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신자(마 16:18; 고전 10:32, 12:28; 엡 4:11~16 참조), (6) 하늘과 땅의 모든 충성스런 피조물(엡 1:20~22; 빌 2:9~11 참조).

교회의 본질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행 20:28; 고전 1:2)라 칭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로 묘사한다. 예수님은 교회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다(마 18:17, 18).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을, 구약의 뿌리들을 고찰해 봄

으로 그리고 신약이 그것에 관하여 사용하는 여러 은유를 고찰해 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 교회의 뿌리들. 구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직된 회중으로 묘사한다. 초기 시대부터 아담, 셋,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혈통의 가족들은 그분의 진리의 수호자들이었다.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 가정들은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 약속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가정이 점진적으로 한 국가로 자라났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만국에 축복이 되며(창 12:1~3)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의 연장(延長)에 불과하였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국가는 "광야 교회"(행 7:38) (혹은 "회중", RSV, NIV)로 불렸다. 그 구성원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출 19:6), 하나님의 "성민"(신 28:9; 레 26:12 참조) 즉 당신의 교회로 간주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의 주요 문명들의 중심지인 팔레스틴에 두셨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큰 대륙이 팔레스틴에서 만났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과 합류하도록 다른 국가를 초청하는 "종"이 되어야 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은 국가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그들을 불러 내셨다(사 56:7).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에 가장 큰 교회–세상 만국의 대표자들이 경배하러 와서 참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설립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고립주의, 민족주의, 교만 그리고 자아중심주의에 빠져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였다.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은 분수령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국가를 해방시킬 메시야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야는 고대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파산은 명백해졌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그들은 내부의 쇠퇴를 밖으로 드러내었다.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요 19:15)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하고 있

었던 것이다!

십자가에서 정반대의 두 사명이 절정에 도달했다. 첫째는,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어 결국 교회를 존재케 하신 바로 그분에 대해 눈멀게 된, 그리하여 실패로 돌아간 교회의 사명이요, 둘째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사명의 종언을 의미한 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교회와 그 사명–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출범시켰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여느 나라와 다를 바 없는 하나의 국가로 전락하였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다. 그들 대신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진척시킬 한 새 나라, 한 교회를 설립하셨다(마 21:41, 43).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신약 교회[4]는 회심한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 참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다(갈 3:26~29). 바울은 두 나무 즉 각각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뜻하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 다양한 백성들의 새로운 유기적 관계를 예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며(롬 9:6~8) 좋은 나무에서 꺾임을 당한 가지로 표상된 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계속 붙어 있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접붙인 바 된 가지들로 묘사했다(롬 11:17~25). 그는 이 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로부터 계승한 거룩한 유산을 존중하라고 교훈하였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롬 11:16~18).

신약 교회는 그에 대응되는 구약의 교회와는 현저히 다르다. 사도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와는 별개로 독립적 조직이 되었다. 국가적 경계는 철폐되었으며 그리하여 교회에 전 세계적 특성을 부여하였다. 한 민족적 교회가 되는 대신 그것은 그 창설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 즉 "모든 민족을 제

자로 삼"(마 28:19)으라는 명령 속에 새로 진술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선교사 교회가 되었다.

교회에 대한 은유적 묘사들. 신약의 교회에 대한 은유적 묘사는 교회의 본질을 조명해 준다.

1. 몸으로서의 교회. 몸의 은유는 교회의 통일성과 전체에 대한 각 교인들의 기능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십자가는 모든 신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엡 2:16)시킨다.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침례를 받아 한 몸"(고전 12:13) 즉 교회가 되었다. 한 몸으로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23). 그것은 그가 그의 충만함을 나누어 주시는 유기체이다. 신자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다(엡 5:30). 따라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진실한 각 신자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골 1:18), "교회의 머리"(엡 5:23)이시다.

당신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극히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지체에 적어도 하나의 영적 은사를 주셨다. 각 기관이 하는 일이 신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사명의 성공적 완수도 각 교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이 각각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달려 있다. 심장 없는 몸이 무슨 쓸모가 있으며 눈이나 다리가 없는 몸은 얼마나 더 비능률적이 되겠는가? 교회의 신자들이 그들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거나 눈멀거나 적어도 절름발이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이 특별한 은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본서 17장 참조).

2. 성전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초이시며 "모퉁잇 돌"(고전 3:9~16; 엡 2:20)이시다. 이 성전은 죽은 건축물이 아니다. 이것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심과 같이 신자들도 "신령한 집"을 구성하는 "산 돌"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했다(벧전 2:4~6).

그 건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새로운 산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엡 2:22)는 성전에 끊임없이 더해지고 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 성전이 심판날에 불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최선의 건축 자재들을 사용하여 그것을 건축

하라고 촉구한다(고전 3:12~15).

성전 은유는 개 교회 회중의 성결과 세계적 교회의 성결을 모두 강조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바울은 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전 3:17). 불신자들과의 친밀한 연맹은 그 거룩한 특성에 배치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 6:14, 16). (그의 권면은 사업과 결혼 관계 모두에 해당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3. 신부로서의 교회. 교회는 신부로, 주님은 신랑으로 표상되었다. 주님은 엄숙하게 서약하신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호 2:19). 다시 그분은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렘 3:14)고 보증하신다.

바울은 동일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고후 11:2). 그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깊고 항구적이어서 그분은 "교회를…위하여 자신을 주"(엡 5:25)셨다. 그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엡 5:26)기 위해 이러한 희생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요 17:17)과 침례가 주는 정결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완전한 의의 두루마기로 그들을 입히신다. 그같이 하여 그분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엡 5:27)는 당신의 신부가 되도록 교회를 준비시키실 수 있으시다. 교회의 충만한 영광과 광휘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이지 않을 것이다.

4.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성경은 예루살렘 도성을 시온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시 9:11).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나온다(시 14:7, 53:6). 그 도성은 "온 세계"(시 48:2)의 즐거움이 될 것이었다.

신약은 교회를, 지상 예루살렘에 대응하는 영적 예루살렘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 4:26)으로 본다. 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

다(빌 3: 20). 그들은 "성령을 따라"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해방시킨 자유를 만끽하는 "약속의 자녀들"이다(갈 4:28, 29, 5:1). 이 도시의 시민들은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애써 시도하는 예속 상태에 있지 않다(갈 4:22, 26, 31, 5:4).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열렬히 기다린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임을 깨닫는다(갈 5:5, 6).

이 영광스러운 무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히 12:22, 23)이다.

5. 한가족으로서의 교회.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는 한가족으로 간주되었다(엡 3:15). 어떻게 백성들이 이 가족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기술하기를 위해 두 가지 은유가 사용되었다. 양자 됨(롬 8:14~16; 엡 1:4~6)과 중생(요 3:8)이 그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종들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갈 3:26, 27). 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살아간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엡 2:19). "믿음의 가정들"(갈 6:10)에 속한다.

그의 가족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갈 4:6)로 부르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한다(약 2:15; 고전 8:11; 롬 16:1). 많은 사람을 교회 가족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 본다. 그는 "나는 복음을 통하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되었다"(고전 4:15, NIV)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인 사람을 "내 사랑하는 자녀"(고전 4:14; 엡 5:1 참조)라고 부른다.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한 특별한 특징은 교제이다. 그리스도인 교제(헬라어로 **코이노니아**, koinonia)는 단순히 사교적 회합이 아니라 "복음에서…교제함"(빌 1:5)이다. 그것은 신자들뿐 아니라(요일 1:3, 7)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과의 진정한 교제도 포함한다(요일 1:3; 고전 1:9; 고후 13:14).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어떤 사람과도 "교제의 악수"(갈 2:9)를 나눈다.

가족의 은유는 "백성들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곳, 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재능들이 증진되고 백성들이 성장하고 각인의 기대가 충족되는 곳"[5]인 돌보는 교회상을 계시하고 있

다. 그것은 또한 책임, 영적 부모에 대한 존경심, 영적 형제자매를 돌보고 지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각 신자 상호 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충성심을 일으키는 사랑을 서로를 향하여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가족의 일원이라는 신분은 본성과 기질이 서로 크게 다른 개인들이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게 해 준다. 교회 가족의 식구들은 그들의 개성을 잃지 않고 연합하여 사는 법을 배운다.

6. 진리의 기둥과 기초로서의 교회.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초"(딤전 3:15, NIV)이다. 그것은 진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진리의 보고이며 성체이다. 그러나 진리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다. 신자들이 새 빛–새 교리, 혹은 성서에 대한 신(新) 해석–을 가졌다고 주장할 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성경의 표준으로 새 가르침을 시험해야 한다(사 8:20). 새 빛이 이 표준에 맞으면,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맞지 않으면 배척해야 한다. 모든 신자는 이 성서에 기초된 판단에 굴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잠 11:14)기 때문이다.

진리를 전파함을 통하여 즉, 진리를 증거함을 통하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숨기우지 못할" "산 위에 있는 동리"와 "세상의 소금"(마 5:13~15)이 된다.

7. 싸우는 군대 그리고 승리를 거둔 군대로서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와 같다. 교회는 영적 어둠에 맞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악한 날에…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엡 6:13).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는 안팎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만 하였다(행 20:29, 30; 딤전 4:1). 교회는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룩하고 승리를 쟁취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승리한 교회는 아니다. 불행히도 교회는 여전히 큰 결함들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은 다른 은유를 사용하셔서 교회 내의 불완전함들을 설명하셨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마 13: 24, 25). 종들이 가라지를 뽑기 원했을 때 그 농부는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마 13:29. 30)고 말

했다. 곡식과 가라지가 둘 다 밭에서 무성하게 자랐다. 하나님께서 회심한 자들을 교회로 이끄시는 동안 사탄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들여보낸다. 이 두 그룹은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 한 부류는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류는 타락시키기 위하여 활동한다. 교회 내에서 그들 사이의 투쟁은 추수 때까지, 즉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교회의 외부적 전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환난과 투쟁이 앞에 놓여 있다. 사탄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분노를 발하며(계 12:12, 17),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을 교회에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며 그들 즉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단 12:1)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고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승리를 거둔 교회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에 그분은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엡 5:27)는, 당신의 피로 사신 바 된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아들이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시적(유형적) 교회와 비가시적(무형적) 교회. "가시적"이란 용어와 "비가시적"이라는 용어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두 국면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은유들은 특별히 가시적 교회에 적용된다.

1. 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부를 성취시키고(마 28:18~20)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킨다(살전 5:23; 엡 5:27).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증인으로서 세상을 비추고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눅 4:18, 19).

2. 비가시적 교회. 세계적 교회라고도 불리우는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구성된다. 거기에는 가시적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교회 조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

신 모든 빛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포함된다(요 1:9). 이 후자의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지만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고 "본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일을 행"(롬 2:14)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비가시적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고 말씀하셨다. 참된 예배의 영적인 본질 때문에 인간은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비가시적 교회에서 당신의 가시적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끄신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16).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교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시적 교회 내에서 뿐이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 신자들을 집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익케 하는 영적 은사들을 가시적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다(엡 4:4~6). 바울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가시적 교회와 접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교회의 사명을 주도해 나가도록 그를 임명하셨다(행 9:10~22). 그와 똑같이 오늘날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과 예수 믿음을 가진 것으로 특색을 이룬 당신의 가시적 교회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들이고자 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마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계 14: 12, 18:4; 마 24:14; 본서 13장 참조).

비가시적 교회의 개념은 또한 하늘과 땅의 연합된 교회(엡 1:22, 23)와 박해의 시대 동안 숨어 있었던 교회(계 12:6, 14)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교회의 조직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을 보양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새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심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사명 성취에 사용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만사가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대로" 행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고전 14:

33, 40) 교회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어야만 한다.

조직의 본질. 교인의 자격과 교회의 조직을 생각해 보자.

1. 교인의 자격. 소정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개심자는 새언약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교인이 되는 것은 타인과 국가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일을 포함한다.

1) 교인의 자격 요건. 그리스도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행 2:36~41, 4:10~12 참조). 그들은 중생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마 28:20을 보라).

2) 평등과 봉사. "너희는 다 형제니라"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 8, 11)는 그리스도의 선언에 일치되게 신자들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서로를 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면서 그들을 크신 주님께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3) 모든 신도의 제사장 직분.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로 레위족 제사장 직분의 효력은 끝났다. 이제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벧전 2:5)이 되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라고 말했다.

이 새 반차(order) 즉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은 몸된 교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행동하고 믿고 가르칠 권한을 각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각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책임이 있으며 어떤 인간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교회 신자들의 독립성 뿐 아니라 상호 의존성도 강조한다. 이 제사장 직분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어떤 질적인 구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기능상의 차이가 있음은 인정한다.

4)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충성. 성경은 정부의 설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정부 당국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행정권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한다(롬 13:4, 7).

국가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지도를 받고 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될 때 그들은 최고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린다.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라고 말했다.

2. 교회 조직의 주요 기능. 교회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가시적 교회만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많은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1) 예배와 권면. 인류 역사를 통하여 계속 교회는 안식일에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신자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은 이 예배 관습을 따랐으며, 성경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3:13 참조)라고 권고한다. 공중 예배는 경배자들에게 새로운 생기와 격려와 기쁨을 가져다준다.

2) 그리스도인 교제.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의 가장 깊은 교제에 대한 욕구가 온전히 충족된다. "복음(안)에서…교제"(빌 1:5)는 다른 모든 관계를 초월하는 데 이는 그것이 같은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요일 1:3, 6, 7).

3) 성경 말씀을 가르침.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마 16:19)를 교회에 주셨다. 이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모든 성경 말씀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열쇠에는 어떻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의 열쇠"(눅 11:52)도 들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영이요 생명이다(요 6:63). 그 말씀은 영생을 가져다준다(요 6:68).[6]

교회가 성경의 진리들을 선포할 때 이 구원의 열쇠들은 묶고, 풀고, 하늘을 여닫을 권세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백성들이 가납을 받거나 배척

되는, 구원을 받거나 잃어버림을 당하는 기준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교회의 복음 선포는 "생명의 향기" 혹은 "사망의 냄새"를 발산시킨다(고후 2:16, NIV).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마 4:4) 사는 것의 중요성을 아셨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교회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마 28:20)도록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다.

4)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함. 교회는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인 침례(본서 15장 참조)와 세족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하나님의 기구이다(본서 16장 참조).

5)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 교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선교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주님의 봉사에서 나타났듯이, 교회가 세상에 제공하는 최대의 봉사는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마 24:14)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완수에 헌신하는 데 있다.

이 사명에는 교회 자체(고전 1:7, 8; 벧후 3:14; 계 3:14~22, 14:5)와 교회 밖의 인류 모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는 기별의 선포가 포함된다(계 14:6~12, 18:4).

교회의 통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의 지도권은 사도들의 수중에 있었다. 다른 신자들과 협의 하에 그들이 행한 조직에 관한 첫 조치는 유다의 자리를 차지할 다른 사도를 선출하는 것이었다(행 1:15~26).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아울러 교회의 현세적 사무들을 함께 돌보는 일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회의 실무적 사무들을 교회가 임명한 일곱 명의 집사에게 넘겼다. 교회가 "말씀의 봉사"(난외주)와 "재정 출납"(난외주) 혹은 공궤를 구별했지만(행 6:1~4), 교회 사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분리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일곱 명 중 두 명 즉 스데반과 빌립은 매우 효율적인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로 알려졌다(행 8장과 9장).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팽창되어 조직에 있어서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수많은 교회의 설립과 더불어 안정된 지도 체계를 확

립하기 위하여 "각 교회"에 장로들이 임명되었다(행 14:23).

교회에 한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허용되었다. 이 총회의 결정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졌다(행 15:1~29). 이 사건은,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논쟁의 문제일 경우 그 지역 교회의 의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수준의 권고와 권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시한다. 이 경우에, 총회의 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대표들이 도출해 낸 합의에서 나왔다(행 15:22, 25).

신약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지도자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하나님의 지도와 교회와의 협의 하에, 그들은 교회의 지도 체계를 구성했다. 오늘날도 그것을 따른다면, 배도에서 교회를 지켜 주고 위대한 사명 완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교회 통치의 성서적 원칙들

1.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은 그분의 중보사업에 주로 기초되어 있다.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신 이래 그리스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바 되었다(마 28:18).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엡 1:22; 빌 2:10, 11 참조)다. 그러므로 그분은 "만 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계 17:14)이시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엡 1:23; 골 1:18).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엡 5: 30)이다. 그들은 그분과 밀접한 연결을 유지해야 하는바 이는 그분으로부터 교회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골 2:19)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다. 그리스도는 1) 그리스도 교회를 설립하시는 데 있어서(마 16:18), 2)교회가 시행해야 할 예식들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마 26:26~30, 28:19, 20; 고전 11:23~29; 요 13:1~17), 3)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신성한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시는 데 있어서(마 16:19, 18:15~18; 요 20:21~23), 4) 당신의 권위 아래서 당신의 교회를 지도하실 성령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요 15:26, 16:13~15), 5) 교회 내에 특별

한 은사들을 지정하여 개인들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목자)와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여 모든 사람이 신앙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반영할 때까지 봉사를 위하여 신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신다(엡 4:7~13).

3. 성경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지도하시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의 표준으로 삼고 그 표준에 의하여 활동한다. 교회의 모든 신자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바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법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전통, 관행, 문화적 관습은 성경의 권위에 종속된다(딤후 3:15~17).

4.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직책들.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와 교회에서 특별히 임명된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권능을 결코 이양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와 당신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독립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회중은 교회의 직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원이 백성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들의 선출은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부르심을 단순히 확증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선출된 직원들의 주요 임무는 예배, 교리, 규율 그리고 복음 선포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까닭에, 그들은 그들의 결정과 행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신약 교회의 직원들. 신약은 교회의 두 직책 즉,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 언급한다. 이 직분의 중요성은 그 직임을 담당할 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영적 자질에 의해 강조되었다. 교회는 안수식을 통해 지도자로 부르심의 신성성을 인정하였다(행 6:6, 13:2, 3; 딤전 4: 14, 5:22).

1. 장로

1) 장로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장로들"(헬라어로 프레스부테로스, presbuteros) 혹은 "**감독들**"(에피스코포스, episkopos)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원이다. **장로**라는 용어는 "연장자"를 뜻하는데, 위엄과 존경을 암시하고 있다. 그의 위치는 회당을 감독했던 자들이 차지했던 위치와 유사하다. "감

독"이라는 용어는 그 말대로 "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바울은 이 용어를 서로 혼용했으며 **장로**를 **감독자** 혹은 **감독**과 동일시하였다(행 20:17, 28; 딛 1:5, 7).

이 직책을 맡았던 사람은 새로 조직된 교회를 감독하였다. **장로**가 그 직책의 지위 혹은 신분을 언급한 반면 **감독**은 그 직분의 임무 또는 책임, 즉 "감독하는 자"[7]를 의미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또한 장로로 호칭했던 까닭에(벧전 5:1; 요이 1; 요삼 1), 지방 교회 장로들과 순회 장로들 혹은 전체를 관할하는 장로들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두 종류의 장로는 모두 회중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2) 자격. 장로의 직임을 맡을 자격을 갖추려면 그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딤전 3:2~7; 딛 1:5~9 참조).

그러므로 그 직분에 임명되기 전에 후보자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그의 지도자적 능력을 반드시 입증했어야 한다. "직분에 추천된 그 사람의 가족도 고려해 넣어야 한다. 그들이 복종하는가? 그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의 자녀들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가? 그가 자신의 가족을 다스리면서 집안에서 재치와 지혜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거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와 똑같은 거룩하지 못한 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8] 후보자가 기혼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집안"(딤전 3:15, NIV)의 지도자로서의 더 큰 책임을 위임받기 전에 가정에서 지도력을 입증해야 한다.

직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딤전 5: 22)라고 명하였다.

3) 장로의 책임과 권위. 장로는 의뜸가는, 수위(首位)를 차지하는 영적 지도자이다. 그는 "하나님(의)…교회를 치"(목양하)도록(행 20: 28) 선택된다.

그의 책임에는 연약한 신자를 붙들어 주고(행 20:35), 분열을 야기시킬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것 등이 포함된다(행 20:29~31). 장로는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일에 모본을 보여야 하며(히 13:7; 벧전 5:3) 관대함의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행 20:35).

4) 장로들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태도. 효율적인 교회 지도력은 교인들의 충성심에 크게 좌우된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살전 5:13)라고 권하였다. 그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딤전 5:17)고 말했다.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할 필요성을 명백히 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히 13:17; 벧전 5:5 참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들을 지도자들이 수행하는 것을 신자들이 어렵게 만들 때, 둘 다 슬픔을 겪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의 번영하는 기쁨을 상실할 것이다.

신자들은 지도자들의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 방식을 관찰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의 결과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을 모방하라"(히 13:7, NIV). 그들은 험담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딤전 5:19)라고 경고했다.

2. 남집사와 여집사. 집사(deacon)라는 이름은 "종" 혹은 "돕는 자"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diakonos)로부터 왔다. 집사의 직분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행 6:4)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집사들은 현세적인 일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었지만, 그들은 또한 복음 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었다(행 6:8, 8:5~13, 26~40).

같은 용어의 여성형이 로마서 16장 1절에 나타난다.[9]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종"(KJV, NIV)이나 "여집사"(RSV) 중 어느 하나로 번역하였다. "그 단어와 이 본문에서의 그 용례는 여집사 직분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 이미 교회 안에 확립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암시한다."[10]

장로와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도덕적, 영적 자격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선출한다(딤전 3:8~13).

교회의 규율. 그리스도는 교회에 그 신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으며 그렇게 하는 데 필요되는 적절한 원칙들을 마련해 주셨다. 그분은 교

회가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 높은 부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이 원칙들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신다(마 18:15~18; 벧전 2:5, 9 참조). 그러나 교회는 또한 잘못하는 신도들이 그들의 노선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깊이 깨닫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계 2:2)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이단과 부도덕을 용납한 것에 대해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다(계 2:14, 15, 20). 징계에 관한 다음의 성경적 권고를 주목해 보라.

1. 사적인 죄를 다룸. 한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마 18:15~17) 그리스도는 피해를 본 사람이 곁길로 간 양이 된 가해자에게 접근하여 그의 행위를 고치도록 설득하라고 권고하신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편견이 없는 한두 증인을 대동하고 두 번째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문제는 전 교회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잘못하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혜와 권위를 배척한다면, 그는 교회의 교제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죄를 범한 사람을 출교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는 다만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만일 성령의 지도 아래서 교회가 성서적 권고를 세심하게 따랐다면, 그 결정은 하늘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8)고 말씀하셨다.

2. 공적인 범죄를 취급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롬 3:23)였지만 교회에 치욕을 가져오는 극악하고 반역적인 범죄들은 그 범죄자를 출교시킴으로 즉각 처리되어야 한다.

출교 조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누룩과 같이 작용했을 악을 제거하여 교회의 순결을 회복시키고, 범죄자에게 되돌이키게 하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적 부도덕의 사례를 알고 난 후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전 5:4, 5, 7)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신

자라고 부르면서도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고전 5:11)는 사람과는 어느 누구와도 교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전 5:13).

3.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을 취급함.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롬 16:17) 신자, 성서적 권고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신자는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런 사람과의 교제를 피해야 한다. 바울은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했다(살후 3:6, 14, 15).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의 "두 번째 훈계"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은…아는 바와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딛 3:10, 11).

4. 범죄자의 회복. 교인들은 출교된 자를 멸시하거나 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회개와 중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교당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충분한 증거를 보일 때 재입교할 수 있다(고후 2:6~10).

하나님의 권세, 영광 그리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특히 죄인들을 교회로 회복시킴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은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시기를 갈망하신다. 우주의 "구경거리"인 하나님의 교회는 남녀들의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

오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고 말씀하신다.

참고 문헌

1. **교회**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하여 Berkhof는 이렇게 기록했다. "'교회', 'Kerk' 그리고 'Kirche'라는 명칭은 **에클레시아**(ekklesia)에서가 아닌 '주께 속한'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 **쿠리아케**(kuriake)에서 파생되었다. 그 단어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to kuriakon 혹은 he kuriake는 첫째로 교회가 모인 장소를 가리켰다. 이 장소는 주님께 속한 것으로 생각되어졌으며 그러므로 to kuriakon으로 불리웠다" (Systematic Theology, p. 557).

2. “Church, Nature of,” SDA Encyclopedia, rev. ed., p. 302; “Church,”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224.
3. Sinaiticus, Alexandrinus, Vaticanus와 Ephraemi Rescriptus 사본에 기초하여, 단수로 읽는 Tischendorf를 받아들이는 현대어 성경 번역에 따름.
4. 예수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제외하고는, 초기 교회의 신조들은 유대교의 신조와 매우 유사하였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안식일에 회당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구약 해설에 귀를 기울였다(행 13:42~44, 15:13, 14, 21). 성전 휘장의 찢김은 그 의식들이 원형을 만나서 성취되었음을 의미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표상**들로부터 표상의 기저를 이루는 실체에로 돌리려는 의도로 저술되었다. 즉,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그분의 하늘 제사장 직분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 등으로 신약 시대는 과도적인 시대였으며, 비록 사도들이 가끔 구약적인 의식들에 참여했을지라도 첫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그 의식들 가운데 구원을 위한 가치가 없음을 그들이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5. Charles E. Bradford, “What the Church Means to Me,” Adventist Review, Nov. 20, 1986, p. 15.
6.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5, p. 432 참조.
7.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p. 26, 38 참조.
8. White, Testimonies, vol. 5, p. 618.
9. Diakonos는 남성 명사도 되고 여성 명사도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성은 문맥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자매”인 뵈뵈도 또한 diakonos이기 때문에, 그 단어는 그것이 남성 명사로 철자되었지만 여성 명사임에 틀림없다.
10. “Deaconess,”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277. 신약 시대에 diakonos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뜻이 있었다. “이 용어는 어떤 직임을 맡았든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을 기술하는 데 여전히 사용되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자신(고전 3:5; 고후 3:6, 6:4, 11:23; 엡 3:7; 골 1:23 참조)과 디모데(딤전 4:6 참조)를 diakonoi(diakonos의 복수형)로 기술하였다”(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 300). 이런 경우 이 단어는 “집사들” 아닌 “사역자들” 혹은 “종들”로 번역되었다.

제13장

남은자손과 그 사명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계 12:17, 14:6~12, 18:1~4; 고후5:10; 유 3, 14절; 벧전 1:16~19; 벧후 3:10~14; 계 21:1~14)

큰 붉은 용이 기다리며 도사리고 있다. 이미 그는 하늘 천사들의 삼분의 일을 떨어뜨렸다(계 12 : 4, 7~9), 이제 막 태어나려는 아이를 삼켜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서 있는 여인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여자가 낳을 이 남자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 용은 그 남자 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반면에,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격노한 용은 그 어머니에 대하여 그의 진노를 쏟지만, 그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주어진

날개를 받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먼 곳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혹은 1,260 예언적 날들 동안 그 여인을 양육하신다(계 12:1~6, 13, 14).

성서 예언에서 순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를 표상한다.[1] 음행자 혹은 간음자로 묘사된 여인은 배도한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한다(겔 16장; 사 57:8; 렘 31:4, 5; 호 1~3; 계 17:1~5).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은 남자 아이, 즉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철천지원수인 예수와 맞서 싸울 때 사탄은 로마 제국을 그의 도구로 사용했다. 어떤 것도,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에게 인류의 구주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사탄을 꺾으셨다. 십자가에 못박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요 12:31)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승리의 찬가를 기술하고 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계 12:10~12).

하늘에서 추방된 사탄은 그의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더 이상 사탄은 하늘의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늘은 즐거워하지만, 지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계 12:12).

분풀이를 하기 위해 사탄은 여인 즉 교회(계 12:13)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극심한 환난을 겪었지만 그런데도 살아 남았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인 "광야"는 1260 예언적 날들 혹은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다(계 12:14~16; 본서 4장 44페이지의 연-일 원칙을 참조).[2]

이 광야의 경험이 끝난 후,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한다. 요한은 이 충성된 무리들의 신원을 "남은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계 12:17)로 밝힌다. 마귀

는 특별히 이 남은자손을 증오한다(계 12:17).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박해가 일어났는가? 언제 남은무리가 출현하기 시작했는가?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성경과 역사를 둘 다 연구해야 한다.

대배도

그리스도교의 박해는 맨처음 이교 로마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교회 내의 배도에 의하여 일어났다. 이 배도는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 요한은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던 것이다.

당신의 마지막 주요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쳐올 기만에 대하여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 24:4, 24)고 말씀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큰 환난"의 기간을 경험할 것이지만 살아 남을 것이다(마 24:21, 22). 천연계의 인상적인 징조들이 박해가 끝났음을 알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강림이 가까움을 알릴 것이다(마 24:29, 32, 33).

바울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행 20:29, 30)라고 경고하였다. 이 "이리들"은 교회를 "배도"로 혹은 "떨어져 나가게" 인도할 것이었다.

이 배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다. 그것은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아직은 임박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살후 2:3, 4)고 말하였다.

심지어 바울의 시대 동안에도 이 배도는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활동 방법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하는 사탄적인 것이었다(살후 2:9, 10). 첫 세기가 끝나기 전,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진술한다. 참으로,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1, 3)고 말했다.

이 배도한 조직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불법의 사람"의 지배권. "첫사랑"(계 2:4)을 떠났을 때, 교회는 그 교리의 순결성, 개인적 행위의 높은 표준 그리고 성령께서 마련하신 보이지 않는 연합의 결속을 상실했다. 예배에서 형식주의가 단순성을 대신했다.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기와 개인의 권세가 점점 더 중시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지방 교회 내에서 점점 더 세력을 확보하였고, 그러고 나서 이웃 교회들에게까지 그들의 권위를 확장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지방 교회의 행정은 한 사람의 임원 즉, 주교(감독)의 장악 하에 있는 교회의 권위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그에게 복종해야 하였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때 이후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대신 다스리는 것만을 생각했고, '가장 큰 자'는 더 이상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와 같이 점진적으로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사제의 성직자 계급 제도의 개념이 발전되었다."[3]

개인과 지방 교회의 중요성이 감소되면서, 로마의 주교는 기독교의 최고 권세로 부상했다. 황제의 도움을 받아 이 최고의 주교 혹은 교황은[4]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권세를 부여받은, 전 세계 교회의 가시적 수령으로 인정을 받았다.

교황권[5]의 지도 아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더 한층 깊은 배도에 빠져들었다. 교회 인기의 계속적인 상승이 타락을 가속화시켰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표준들이 낮아졌다. 진정한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가 명목상으로만 교회에 참여하였고 그들이 믿던 이교의 교리들과 우상들과 예배의 방식들과 의식과 축제들과 상징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

이 같은 이교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타협은 결국 "불법의 사람" 즉, 진리와 오류의 혼합체인 거대한 거짓 종교 제도의 형성을 가져왔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예언은 개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대 배도에 책임이 있는 그 종교 제도를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 내의 많은 신자는 하나님의 보편

적 교회에 속해 있는 바 이는 그들이 받은 모든 빛에 따라서 살기 때문이다.

고통당하는 교회. 영성의 쇠퇴와 더불어 로마교회는 황제의 정부와 더 밀접한 유대를 갖는 한층 더 세속적인 측면을 발전시켰다.

가장 영향력이 큰 교부 중 하나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하나님의 도성"(神國)에서 전 세계 국가를 다스리는 보편적 교회라는 가톨릭의 이상을 제시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중세 교황권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

서기 533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Justinian Code)에 포함된 한 편지에서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 황제는 로마의 주교를 모든 교회의 수령으로 선포했다.[6] 그는 또한 이단자들을 뿌리 뽑는 데 있어서 교황의 영향력을 인정했다.[7]

유스티니아누스의 장군 벨리사리우스(Belisarius)가 서기 538년에 로마를 해방시켰을 때 가톨릭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리아스주의를 신봉하던 동고트족(Ostrogoths)의 통제에서 로마 주교를 해방시켰다. 이제 비로소 그 주교는 서기 533년의 유스티니아누스의 포고령이 그에게 부여했던 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교황청"(Holy See)의 권세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성경에 예언한 대로 1260년간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단 7:25; 계 12:6, 14, 13:5~7).

비극적이게도 교회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 그의 교령(敎令)과 가르침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강요하려 했다. 많은 사람이 박해가 두려워 그들의 신념을 포기하였지만 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사람은 혹심한 박해를 겪었다. 그리스도교계는 하나의 전장(戰場)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투옥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을 당했다. 1260년간의 박해 기간에 수백만의 충성스러운 신도가 큰 고통을 겪었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충성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렀다.[8]

흘려진 핏방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점을 남겼다. 이 무모한 박해보다 그리스도교 사업에 더 해를 끼친 것은 없다. 교회가 취한 이러한 행위들과 연옥과 영원한 고통의 교리가 끼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매우 왜곡된 견해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도 한데 묶어 배척하도록 만들었다.

개신교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반대

자에 대한 교회의 무자비한 학살과 그 거만한 주장들과 타락시키는 부패상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였다. 개혁을 거부하는 교회의 태도는 16세기에 개신교 종교 개혁을 탄생시켰다. 그 성공은 로마 교회의 권위와 위신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교황권은 반(反) 종교 개혁을 통해 개신교 종교 개혁을 분쇄하려는 피비린내나는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사회적, 종교적 자유를 위해 분투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점차로 패배하였다.

마침내, 서기 538년으로부터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로마 가톨릭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계 13:3 참조).[9] 교황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탈리아에서 거둔 혁혁한 승리로 말미암아 로마교를 "공화국"의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간주하는 프랑스 혁명 정부의 처분만 바라는 속절없는 신세가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나폴레옹에게 교황을 사로잡도록 지시했다. 나폴레옹의 명령을 받은 베르띠에(Alexandre Berthier) 장군은 로마에 입성하여 교황권의 정치적 통치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베르띠에는 교황을 사로잡아 프랑스로 끌고 갔으며, 그는 유배 중에 사망했다.[10]

교황권의 전복은 그 점진적 쇠퇴와 연관되어 있는 일련의 긴 사건들의 절정이었다. 그 사건은 1,260년의 예언적 기간의 종언을 고했다. 많은 개신교도들은 이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해석했다.[11]

종교 개혁

유전에 기초된 비성서적 교리들, 반대자에 대한 잔인한 박해, 부패 그리고 많은 성직자의 영적인 타락 등은 백성들로 하여금 기성 교회 내에서 개혁을 부르짖도록 만든 주요 요인들 중 일부이다.

교리적 문제들. 개신교 종교 개혁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아직도 여전히 개신교와 가톨릭을 분리시키는 비성서적 교리의 표본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상의 교회의 수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이 교리는 로마 주교만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 혹은 대표자요 교회의 가시적 수령이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지도권에 대한 성서적 견해(본서 12장 참조)와는 달리 이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가시적 수령으로 삼으셨으며 교황은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가정에 기초되어 있다.[12]

2. 교회와 그 수령의 무오설. 로마 교회의 명성과 영향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교리는 다름 아닌 그 교회의 무오설에 관한 교리이다. 교회는 전혀 잘못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 교회는 성경상 아무 지지도 받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논증에 이 가르침의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교회는 신적인 것으로서, 그 본래의 속성 중 하나가 무오성이다. 부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적인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신앙과 교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오해야 한다.[13]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오류로부터 교회를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성(본서 7장 참조)을 부인하는 이러한 논리는 교회의 지도자 또한 무오해야 한다는 논리의 귀결을 낳는다.[14] 따라서, 가톨릭 문헌은 그 지도자가 신적인 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5]

3.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업을 가림. 교회의 영향력이 증대하자 신자들의 관심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계속적인 중보 사업, 즉 구약 성소 봉사의 계속적인 매일의 제사들의 원형(본서 4장, 24장 참조)으로부터 로마에 그 지도자를 둔 지상의 사제 직분으로 옮겨진 바 되었다.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대신에(본서 9장, 10장 참조) 신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교황과 사제와 고위 성직자들에게 두었다. 만일 사제직(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을 가르치는 신약 성서의 가르침과는 모순되게, 성직자들의 면죄의 성사는 이제 구원에 절대 필요한 것으로 신봉되기에 이르렀다.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당신의 속죄의 희생의 혜택을 끊임없이 적용하시는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는 그 교회가 성만찬을 미사로 대체했을 때 효과적으로 부정되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고 장차 올 당신의 왕국(본서 16장 참조)을 예표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예식인 성만찬과는 달리, 미사는 인간 제사장이 피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처럼 다시 드려진 바 되므로, 미사는 신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16]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채, 인간 사제 직분에 의하여 행해지는 미사밖에 모르는 많은 무리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축

복을 상실했다. 그같이 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는 약속과 초청은 말살되었다.

4. 선행의 공로적 본질. 선행을 함으로 사람은 구원을 얻는 데 절대 필요한 공로를 얻을 수 있고,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널리 퍼진 견해는 신약 성서의 가르침에 배치된다(본서 9, 10장 참조). 가톨릭 교회는, 죄인의 마음에 주입된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공로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각 개인은 구원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쳤다. 사실상 사람은(성자들의 경우에서처럼) 구원을 얻는 데 필요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행할 수 있으며, 그같이하여 여분의 공로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여분의 공로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다. 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주입된 의를 기초로 하여 의롭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에 선행은 개인의 칭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공로로 인정되는 선행의 교리는 또한 완전히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전에 연옥에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정결케 하는 일시적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옥의 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의 기도와 선행으로 살아 있는 신자들은 연옥에 있는 자들의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고통의 강도를 경감시켜 줄 수 있었다.

5. 고해 성사와 면죄의 교리. 고해 성사는 그리스도인이 세례(침례) 후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례전이다. 사제의 면죄를 통하여 이러한 죄들이 용서를 받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양심을 살피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제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부과하는 어떤 과제 즉 고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고해 성사는 죄인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현세에서 혹은 연옥에서 일시적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면죄부를 만들었다. 면죄부는 죄책이 면제된 후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되어 있는 일시적 형벌을 면제시켜 주었다. 산자와 연옥에 있는 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면죄부는 참회와 지시받은 선행(흔히 교회에 돈을 내는 형태로)을 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주어졌다.

면죄를 가능케 만든 것은 순교자들, 성인들,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여분의 공로 때문이다. 그들의 공로는 "공로의 보고"에

저장되었다가 공로가 모자라는 신자들에게도 양도될 수 있었다.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는 교황이 이 보고의 열쇠를 관장하고 있다가 이 보고로부터 백성들에게 저장된 공로를 나누어줌으로써 일시적 형벌을 면제시켜 줄 수 있었다.[17]

6. 최종적인 권위가 교회 내에 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기성 교회는 많은 이교의 신조들, 성일들 그리고 상징들을 채택했다.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을 때, 로마 교회는 성서를 해석하는 권한을 독차지했다. 성경이 아닌 교회가 최종적 권위가 되었다(본서 1장 참조). 그 교회는 신성한 진리의 두 근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첫째는 성서요, 둘째는 교부들의 저술들, 교회 공회들의 교령, 승인된 신경들 그리고 교회의 의식들로 구성된 가톨릭의 전통(유전)이 그것이다. 교회의 교리가 성서에 의해서는 뒷받침되지 않고 유전에 의하여는 뒷받침되었을 경우 언제나 유전이 성서보다 우위를 차지하였다. 일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서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교리들을 해석할 권위가 전혀 없었다. 그 권위는 오로지 가톨릭 교회 내에만 있었다.[18]

새 날의 동이 트다. 14세기에 요한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국 내에 교회의 개혁을 촉구했다. 성서의 사본이 몇 권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그는 최초로 성경 전서를 영어로 번역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서만이 무오하다는 그의 가르침은 개신교 종교 개혁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종교 개혁의 새벽별로서 그리스도 교회를 무지 가운데 묶어두고 있었던 이교주의의 속박에서 교회를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개인의 정신을 해방시키고 전 국가들을 종교적 오류의 독수(毒水)로부터 자유케 해 줄 운동을 출범시켰다. 위클리프의 저술들은 후쓰, 제롬, 루터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켰다.

열정적이고 충동적이며 타협을 모르는 마르틴 루터는 아마도 종교 개혁의 가장 강력한 인물일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그는 사람들을 성경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위대한 복음의 진리로 돌이키는 한편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맹렬히 비난했다.

신자들은 성서 이외에는 어떤 다른 권위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루터는 백성들의 눈을 위로 즉, 인간의 행위, 사제 그리고 고행으로부

터 그들의 유일의 중보자시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돌렸다. 그는 인간의 행위로 죄의 죄책을 경감시키거나 그 형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나님께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으로, 그분의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면죄(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구속주의 흘린 피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축적된 폐기물들 밑에 묻힌 보화를 캐내는 고고학적 탐사와 같이, 종교 개혁은 오래 잊혀졌던 진리들을 밝혀냈다. 복음의 위대한 원칙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는 재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희생과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분의 중보적 사제 직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말미암았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도 및 유물 숭배, 미사, 마리아 숭배, 연옥, 고행, 성수(聖水), 사제의 독신 제도, 묵주, 종교 재판소, 화체설, 종부 성사, 유전에의 의존 등은 배척되었고 포기되었다.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권을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그리고 재림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6, 14절과 13장 5절에 예언된 바대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참백성을 핍박하게 될 세력인 다니엘서의 "작은 뿔"로 보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19]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교훈의 유일한 규준이라는 교리는 개신교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개혁자들은 모든 인간의 유전들은 성서의 더 높은, 최종적 권위에 종속된다고 생각했다. 종교적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권위–교황, 공의회, 교부들, 왕 혹은 학자들–도 양심을 지배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참으로, 그리스도교 세계는 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많은 나라에서 종교 자유가 선포되었다.

촬기를 잃은 종교 개혁

그리스도 교회의 개혁은 16세기에 끝나지 않아야 했다. 개혁자들은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배도의 기간 중에 잃어버린 모든 빛들을 재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끌어냈지만 그리스도교는 여전히 그늘 아래 있었다. 그들이 중세 교회의 압제를 끊어버리고 성서를 세상에 배포하고 기본적 복음을 회복했지만 다른 중요한 교리들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다. 물에 잠금에 의한 침례, 의인의 부활 시 그리스도께서

수여하시는 선물로서의 불멸성, 성서의 안식일인 제칠일과 그 밖의 다른 진리들(본서 7, 15, 20, 26장 참조)은 그늘 속에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승자들은 개혁을 진전시키지 않고 그 개혁을 통해 성취된 것들을 통합시키는 데 그쳤다. 그들은 성경 대신에 개혁자들의 말과 견해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새 진리들을 발견한 사람이 몇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초기 개혁자들이 믿었던 것 너머로 전진하기를 거부했다. 그 결과 개신교 신앙은 형식주의와 스콜라 철학으로 전락되었고, 제거되어야 했을 오류들이 그대로 신봉되었다. 종교 개혁의 불꽃은 점차로 꺼져갔고, 개신교 교회 자체는 냉담하고 형식적이 되어 다시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종교 개혁 이후 시대는 신학적인 활동으로 법석을 떨었지만 영적인 진보는 거의 없었다. 프레데릭 W. 파라(Ferederic W. Farrar)는, 이 시기에 대하여 "자유는 예속으로, 보편적 원칙은 비천한 요소들로, 진리는 교조주의로, 독립은 유전으로, 종교는 제도로 바뀌었다. 성서에 대해 살아 있는 존경심은 영감에 대한 죽은 이론으로 대치되었다. 온화한 정통(正統)은 냉혹한 획일에, 그리고 살아 있는 사상은 논쟁적 변증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20]고 기록하였다. "종교 개혁이 구 스콜라 철학의 납으로 만든 무거운 왕홀(王笏)을 꺾었"지만 개신교회는 "철장을 가진 신 스콜라 철학을 도입하였다"[21] 로버트 M. 그랜트(Robert M. Grant)는 이 신 스콜라 철학을 "여느 중세 신학 구조 못지 않게 경직된 것"[22]으로 불렀다. 개신교는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제한으로 자신들을 사실상 결박했다."[23]

쟁론이 폭발하였다. "서로의 오류를 발견하는데 그처럼 열중했거나 서로를 그토록 많은 욕설적인 이름으로 불렀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24] 그와같이 복음은 말싸움이 되었다. "성경은 더 이상 마음에 말하지 않고 비평적인 지성에 말했다."[25] "교의는 정통적이었지만 영성은 소멸되어 버렸다. 신학은 승리했지만 사랑의 불은 꺼져버렸다."[26]

남은자손

1260년간의 배도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교회의 순결을 계속 간직해 왔던 얼마간의 신자들이 있었다. 1260년간의 압제가 서기 1798년에 끝났을 때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 분명해졌다. 이들에 대하여 사탄은 그의 파괴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요한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계 12:17) 서 있다고 말했다.

남은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은 여인과 그 여인의 자손들에 대한 용의 전쟁을 묘사하면서 "그 여자의 남은자손"(계 12:17)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표현은 "남아 있는 자들" 혹은 "남은무리"를 의미한다. 성경은 남은무리를, 재앙과 전쟁과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무리로 묘사하고 있다. 이 충성스러운 남은무리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가시적 교회를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근경(根莖)이었다(대하 30:6; 스 9:14, 15; 사 10:20~22; 렘 42:2; 겔 6:8, 14:2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산재한 당신의 흩어진 백성을 "성산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인도할 책임을 남은자손에게 위탁하셨다(사 37:31, 32, 66:20; 계 14:1 참조). 이렇게 하여 함께 모인 무리에 대하여 성경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계 14:4)들이라고 기술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선택된 계보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자손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시대에 사는 당신의 충성스런 증인들에 대한 묘사이다. 남은자손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남은자손의 특징들. 마지막 때의 남은자손에 대하여는 오해의 여지가 없다. 요한은 이 무리를 분명한 용어로 묘사한다. 1,260년간의 박해 후에 출현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계 12:17)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책임을 지고 있다(계 14:6~12). 이 기별 자체 내에 남은자손에 대한 묘사가 들어 있다. 남은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12)들이다. 이 특성들을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고찰해 보기로 하자.

1.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남은백성의 특징은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것과 유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반영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야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믿는다. 그들의 신앙은 성경의 모든 진리들, 즉 그리스도께서 믿으시고 가르치신 모든 진리를 망라한다.

그 밖에, 하나님의 남은자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세상에 경고하고 곧 강림하실 그들의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신성한 증거를 완수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사명에 참여할 것이다(계 14:6, 7, 10:11; 마 24:14).

2.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남은무리로 그분의 모본을 따르게 한다. 요한은 "저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6)고 말했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이다(요 15:10).

특별히 그들은 남은자손임으로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공언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공언은 무가치하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불변의 도덕률인 십계명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순종한다(출 20:1~17; 마 5:17~19, 19:17; 빌 4:13).

3. 예수의 증거.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예언의 신)"(계 19:10)으로 정의한다. 남은자손은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전달된 예수의 증거에 의하여 지도된다.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작용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은무리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예언적 인도는 남은무리를 예언적 기별을 선포하는 예언의 백성으로 만든다. 그들은 예언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친다. 남은무리에게 이르러온 진리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그들의 사명

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본서 18장 참조).

마지막 시대의 남은자손의 출현. 성경은 남은자손이 큰 박해의 시기 후에 세계 무대에 등장한다고 지적한다(계 12:4~17). 1,269년 기간의 끝(서기 1798년)에 교황을 사로잡히게 만든 프랑스 혁명의 지축을 뒤흔드는 사건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을 증거하는 세 우주적 징조들(본서 25장 참조)은 예언 연구의 일대 부흥을 가져왔다. 예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널리 퍼진 기대가 생겨났다. 세계 도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단 12:4).[27]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성서 예언의 성취는 재림소망에 그 중심을 둔 강력한 초교파 운동을 발생시켰다. 교회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활동했다.

재림소망은 그 소망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깊은 정신적 연합을 이루어 주었으며, 많은 사람이 함께 가담하여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세상에 경고하였다.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재림소망에 중심을 둔 참된, 성서적 초교파 운동이었다.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의 침체된 개혁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남은자손을 부르고 계시다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각자의 교회들 가운데서 개혁의 참 정신의 부재와 재림에 대한 연구와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에 흥미가 결여되어 있음을 통감했다. 그들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로 경험케 하셨던 시련과 실망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남은자손으로 결속시킨 깊이 있는 영적 체험, 정결케 하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그토록 큰 기쁨과 능력을 가져다 주었던 개혁 사업을 계속하도록 그들에게 위탁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탁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의 어떤 타고난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그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와 겸비한 자세로 그들의 사명을 받아들였다.

남은자손의 사명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남은자손의 사명의 윤곽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

다.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의 세 천사의 기별은 복음 진리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회복을 이룩할 남은자손의 선포 내용을 밝혀 준다.[28] 이 세 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전 세계를 휩쓸 엄청난 사탄의 기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다(계 13:3, 8, 14~16).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에 곧이어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시기 위해 돌아오신다(계 14:14~20).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 7).

첫째 천사는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남은자손을 상징한다. 이 복음은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하였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히 4:2). 남은자손이 제시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다. 심판에 비추어 그들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복음을 재확인한다.

이 기별은 세상에 회개를 촉구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혹은 경외하라), 그분께 "영광"(혹은 존귀)을 돌리라고 호소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께 존귀 혹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요 15:8).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운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대한 성서적 관심사를 새롭게 강조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전에 없이 그것은 우리 생애에 대한 신성한 청지기 직분에 관한 신약의 호소를 강조할 것이다.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우리의 체력과 도덕력과 영적 능력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당신의 피로 이것들을 사셨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20).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회개하라는 호소에 긴급성을 더해 준다(본서 24장 참조).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심판**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크리시스**(Krisis)를 번역한 것으로서 심판의 **언도**(**판결**, Krima)가 아니라 심판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심판의 전 과정을 지칭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백성들에 대한 심문, 생애의 기록들의 조사와 방면 및 유죄 판결 그리고 영생의 부여 혹은 사형선고 등을 포함한다(마 16: 27; 롬 6: 23; 계 22:12 참조). 심판의 때(시간)에 관한 기별은 또한 모든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단 7:9~11, 26; 계 17, 18).

심판의 시간에 관한 기별은 특별히 하늘 성소에서의 당신의 대제사장 봉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판 작업에 착수하시는 때를 가리킨다(본서 24장 참조).

이 기별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촉구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라는 명령과 대조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계 13:3, 8, 15). 즉, 각인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식(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혹은 우리의 방식(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명령함으로(계 14:7; 출 20:11) 이 기별은 넷째 계명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것은 당신의 창조의 기념물 즉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정하시고 십계명 가운데 재확인하신 여호와의 제칠일 안식일을 존귀케 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인 창조주께 대한 예배로 백성들을 인도한다(본서 20장 참조).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 창조주이시며 성경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므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표징 즉 당신의 대다수 피조물에 의해 소홀히 취급을 받고 있는 표징이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창조주 하나님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 기별의 선포가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1859)의 출판으로 진화론적 철학이 큰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역사의 무대에 울러퍼지도록 하셨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전파는 진화론의 파급을 막는 최대의 성채이다.

끝으로, 이것은 "불법의 사람"(살후 2:3)에 의해 짓밟혀 온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존귀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예배가 회복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을 생애에 실천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

"또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 14:8).

바벨론 성은 그 성의 역사의 시초부터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상징했다. 바벨탑은 배도의 기념물이요 반역의 중심지였다(창 11:1~9). 루스벨(사탄)은 그 성의 보이지 않는 왕(사 14:4, 12~14)이었고, 그는 바벨론을 인류를 통치하려는 그의 마스터 플랜을 시행할 매개자로 삼기를 원했던 것 같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사탄의 도성 바벨론 사이의 투쟁은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을 예시(例示)하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동안, 로마인들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압제하고 있었을 때 유대 및 그리스도인 문헌들은 로마 시를 **바벨론**으로 언급했다.[29] 많은 사람은 베드로가 **바벨론**을 로마의 가명으로 사용했다고 믿는다(벧전 5:13). 그 배도와 박해 때문에 종교 개혁과 개혁 이후 시대의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회를 영적 바벨론(계 17장) 즉, 하나님의 원수로 언급했다.[30]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사악한 여인, 음녀들의 어미 그리고 그의 불순결한 딸들을 가리킨다(계 17:5). 그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5~17절에 기술된 최후의 위기를 가져올 짐승과 그의 우상 사이의 배도한 대 종교 연맹을 지칭하지만 또한 모든 배도한 종교적 조직들과 그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의 배도와 그 강제하는 권세의 보편적 성격을 세상에 폭로한다. 곧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그의 이단적 가르침을 대표한다. 바벨론은 그의 거짓 종교적 가르침과 교령을 전 세계적으로 실시키 위하여 국가의 권세들에게 압력을 넣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 "음행"은 바벨론과 국가들 사이 즉 배도한 교회와 국가 권

력 사이의 불법적인 관계를 대표한다. 교회는 그의 주님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대신 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는 배우자를 버리고 영적 음행을 저지른다(겔 16:15; 약 4:4 참조).

이 불법적인 관계는 비극을 초래한다. 요한은 세상의 거민들이 거짓 가르침에 취했음과 바벨론 자신이 그의 비성서적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다(계 17:2, 6).

바벨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 즉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복음을 거절함으로 무너진다. 첫 몇 세기 동안에 로마 교회가 배도한 것처럼 많은 오늘날의 개신교도들은 종교 개혁의 위대한 성서 진리로부터 떠났다. 이 바벨론의 몰락에 관한 예언의 성취는 특히 종교 개혁을 한때 강력하게 추진시킨 원동력이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영원한 기별의 단순성과 순결로부터 대다수 개신교가 이탈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더 시의성 있는 기별이 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해온 다양한 종교 조직들이 연맹을 결성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바벨론의 몰락에 관한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반복되었는데, 그 기별은 바벨론의 몰락을 선언하고 바벨론을 구성하는 여러 종교 단체들에 아직도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와 분리되도록 호소한다. 천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31]고 말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9~12).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기별을 선포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참예배를 회복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천사는 인간이 창안한 모든 예배 형태에 대하여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복음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렇게 할 것이다)에 대하여 가장 엄숙한 경고를 선포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10절에 기술된 짐승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체이다. 그 짐승은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배했으며 바울에 의해 "불법의 사람"(살후 2:2~4)으로, 다니엘에 의해 "작은 뿔"(단 7:8, 20~25; 8:9~12)로 기술되었다. 짐승의 우상은 교회들이 종교 개혁의 참정신을 상실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고자 국가와 연합할 때 생겨날 그러한 배도한 종교 집단을 표상한다. 교회와 국가를 연합시킴으로써 그들은 1,260년 간 박해를 자행한 배도한 교회였던 짐승의 완전한 우상이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짐승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서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를 선포한다. 그것은 세상의 최후의 위기의 때에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 최후 투쟁의 시기 동안에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한 부류는 인간이 고안한 복음을 옹호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함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케 할 것이다. 그와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다른 부류는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다(계 14:9, 12). 최후 싸움의 계쟁점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에 관한 것이다. 이 계쟁점이 온 세상에 명확하게 제시될 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의 기념물인 성경의 안식일을 거절하고,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일이 아님을 명명 백백히 알면서도 그날(일요일)에 예배하고 그날을 존귀케 하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표는 반역의 표이다. 짐승은, 예배하는 날을 자신이 변경한 것이야말로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2]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관심을 영원한 기별과 참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결과에 돌린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백성들의 선택의 최후의 결과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선택은 쉽지 않다. 왜

냐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용의 진노를 경험할 것이다(계 12:17).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계 13:15). 반면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당할 것이며 마침내 "불 못"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계 15, 16장, 20:14, 15).

그러나 두 선택 모두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은 용의 가공할 진노를 피하여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계 14:1, 7:2, 4). 반면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진노를 받을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계 14:9, 10, 20:14).

각인은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형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한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짐승과 우상이 명령하는, 인간이 만든 예배 형태에 참여한 것이 입증될 것이다. 후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에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를 추구하며, 창조주요 구속주이며 재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함을 통하여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남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배도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킴으로써 당신의 참예배를 회복시킬 기별을 선포하신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그들에게 가담하게 될 것을 깨닫고 남은자손은 그들의 엄숙한 사명을 성취하기에 자신들이 아직 부적합하고 연약함을 인식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들의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강림과 그분을 맞기 위해 준비할 필요성에 비추어 하나님의 긴급하고 동정어린 호소는 우리 각자에게 큰 감명을 준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계 18:4, 5).

참고 문헌

1. 여러 주석가들에 따르면, 순결한 여인을 두르고 있는 태양의 눈부신 광휘는 초대 교회에 능력과 열정을 주었던 신약의 복음의 빛을 상징한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은 구약이 십자가와 오실 분을 예표했던 예언과 의식들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반영하는 것을 상징한다. 12별의 면류관은 구약 시대에 12지파의 부조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 신약에까지 뻗친 교회의 뿌리들을 대표한다.
2. 예언 기간을 산출해 내기 위해 년-일(年日)원칙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 9장의 메시야 예언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본서 4장을 보라.
3. SDA Bible Commentary. vol. 4, p. 835.
4. "교황"(pope)이라는 명칭은 "아버지", "주교(감독)"를 뜻하는 저(低) 라틴어(Low Latin) 파파(papa)와 저(低) 헬라어(Low Greek) 파파스(papas)와, 헬라어(Greek) 팝파스(pappas)에서 나왔다. 교황은 "로마의 감독이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령이다." (Webster's New Universal Unabridged Dictionary, 2nd ed.[New York, NY : Simon & Schuster, 1979]).
5. 교황권은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은 교권 계급 통치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6. Letter, Justinian to Pope John, quoted in Letter, Pope John to Justinian, in Codex Justinianus(Code of Justinian), Book I, title 1, 8, Corpus Juris Civilis, comp., Paulus Krueger, 12th ed. (Berlin : Weidmannsche Verlaglsbuchhandlung, 1959), vol. 2, p. 11, in The Civil Law, ed. and trans. S.P. Scott (Cincinnati, OH : Central Trust Comp., 1932), vol. 12, pp. 11~13. Cf. Justiniani Novellae(Justinian's New Constitutions), 13lst New Constitution, Chap. 2, Corpus Juris Civils, Comps. Rudolfus schoell and Guilelmus kroll, 7th ed., vol. 3, p. 665, in Civil Law, vol. 17, p. 125. 또한 Don Neufeld and Julia Neuffer, eds., Seventh-day Adventist Bible Student's Source Book(Washington, D.C. : Review and Herald, 1962), pp. 684, 685도 보라.
7. Letter, Justinian to Archbishop Epiphanius of Constantinople, March 26, 533, in Codex Justinianus, Book I, title 1, 7, Corpus Juris Civilis, Krueger ; s ed., vol. 2, p. 8 as quoted in Source Book, p. 685.
8. 예컨대 "Persecution,"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ed. James Hastings (New York, NY : Charles Scribner's Sons, 1917), vol. 9, pp. 749~757 ; John Dowling, The History of Romanism : From the Earliest Corruptions of Christianity to the Present Time, 10th ed. (New York, NY : Edward Walker, 1846), pp. 237~616을 보라.
9. 이 타격으로 교황권의 위신은 크게 손상되었지만 그 영향력이 끝장난 것은 아니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은 교황권의 영향력의 부흥 즉 "죽게 되었던 상처"의 나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마지막 시대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10. George Trevor, Rome "From the Fall of the Western Empire(London :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868), pp. 439, 440 ; John Adolphus, The History of France From the Year 1790 to the Peace Concluded at Amiens in 1802 (London

:George Keasey, 1803), vol. 2, pp. 364~369. Source Book, pp. 701, 702도 참조하라.

11. LeRoy E.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Washington, D.C.:Review and Herald, 1948), vol. 2, pp. 765~782.
12. Peter Geiermann, The Convert's Catechism of Catholic Doctrine(St. Louis, MO :B. Herder Book Co., 1957), pp. 27, 28.
13. Ibid., p. 27.
14. 후기에 교황 무오설의 교리는 다음의 가설에 기초되었다. (1) "신성한 교회의 한 속성으로서의 무오성은 그 교회의 수령에게서 필연적으로 완전히 발견된다." (2) 베드로는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오하였다. (3) 교황은 베드로로부터 신성한 교회의 속성들을 상속받았다. **엑스 카데드라**(ex cathedra)로 말할 때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무오한 교사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Geiermann, p. 29). 라틴어 단어 ex cathedra의 문자적 의미는 "의자로부터"이다. 그 말이 교황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 선포한 그의 공식 선언들을 지칭한다.
15. 교황권을 위해 말해진 주장들을 참조하려면 예컨대 Source Book, p. 680에 인용된 바, Lucius Ferraris, "Papa," art. 2, in Prompta Bibliotheca(Venice ;Gasper Storti, 1772), vol. 6, pp. 25~29를 참조하라. 교황권 자체의 주장을 참고하려면, 예컨대 Pope Leo XIII, Encyclical Letter, Jan. 10, 1890 and June 20, 1894 in The Encyclical Letters of Pope Leo XIII(New York, NY:Benziger Brothers, 1903), pp. 193, 304. Source Book, pp. 683, 684도 참조하라.
16. Catechism of the Council of Trent for Paris Priests, trans. by John A McHugh and Charles J. Callan(New York, NY:Joseph F. Wagner, Inc., 1958, reprint), pp. 258, 259. Source Book, p. 614도 참조하라.
17. SDA Bible Commentary, vol. 7. pp. 47, 48.
18. The Creeds of Christendom. ed. Philip Schaff, 6th ed., rev. (Grand Rapids, MI :Baker, 1983), vol. 2, pp. 79~83에 인용된 바 Council of Trent, Session IV(April 8, 1546)을 참조하라.
19.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2, pp. 528~531.
20. Ibid.
21. Ibid.
22. Robert M. Grant, A Short History of Interpretations of the Bible (Philadelphia, PA:Fortress Press, 1984), p. 97.
23. Farrar, p. 361.
24. Ibid., p. 363.
25. Grant, p. 97.
26. Farrar, p. 365.
27. 남은자손의 기원을 참조하려면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4와 P. Gerard Dam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Grand Rapids, MI:Wm. B. Eerdmans, 1977)을 참조하라.
28. Cf. Damsteegt, "A Theology of Resto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Centennial

Conference on Evangelism, Andrews University, May 4, 1974).

29. Midrash Rabbah on Canticles I. 6, 4 ; Tertullian, Against Marcion, III, 13 ; Tertullian, Answer to the Jew, 9를 참조하라.
30.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2, pp. 531, 787.
31. SDA Bible Commentary, vol. 7, pp. 828~31.
32. 가톨릭 교회는 예배일을 변경할 권세를 주장한다.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그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한다"(Geiermann, p. 50). Source Book, p. 886도 참조하라. 이 교리문답은 1910년 1월 25일 교황 피우스 10세(Pius X)의 "사도적 축복"을 받았다(ibid).

제14장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의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분열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간을 하나의 친교에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편견 없이 솔직하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롬 12:4, 5; 고전 12:12~14; 마 28:19, 20; 시 133:1, 2; 고후 5:16, 17; 행 17:26, 27; 갈 3:27, 29; 골 3:10~15; 엡 4:14~16, 4:1~6; 요 17:20~23)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끝마치신 예수님은(요 17 : 4) 운명하시기 전날 밤에도 당신의 제자들의 상태 때문에 계속 고뇌하셨다.

질투심 때문에 누가 가장 크며,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겸손이야말로 당신의 왕국의

진수이며 당신의 참된 추종자들은 감사의 표시조차도 기대하지 말고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 귀에 경 읽기였다(눅 17:10). 발 씻겨 주는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이셨던 모본까지도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본서 16장을 보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대중들이 그분을 계속 따른 것은 그분의 동정심 때문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이러한 무아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유대인, 여인들,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강한 편견으로 가득 찼었다. 그러한 편견은 이 천대받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이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발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은 누르러 추수하게 된 밭에 추수를 기다리는 온갖 종류의 곡식들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 여론, 혹은 가정의 통제조차도 그리스도를 흔들어 놓을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에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나와 이지러진 인간성을 회복시켰다. 부주의한 대중과 그들을 구별시켜 줄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그들이 참제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분께서 사랑하신 대로 그들도 사랑해야 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공언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시 때문에 언제나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요 13:34, 35 참조).

그와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의 주요 관심사는 "세상 중에서"(요 17:6) 나온 자들인 당신의 교회의 연합이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일치와 유사한 연합이 교회 내에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셨다. 내가 기도하옵는 바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이러한 연합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의 도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무아적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상 연합과 교회

오늘날의 가시적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종류의 연합을 염두에 두셨는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과 연합이 가능할까? 그 기초는 무엇이며 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획일성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다양성을 허용하는가? 연합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가?

성령의 연합. 성령은 교회 연합의 배후에 있는 원동력이다. 그분을 통하여 신자들은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고전 12:13)이 된다. 이 침례 받은 교인들은 바울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엡 4:3)으로 기술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사도는 성령의 하나됨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열거했다. 그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4~6). **하나**라는 낱말의 7중 반복은 바울이 마음속에 그린 완전한 연합을 강조한다.

성령께서는 각 나라와 인종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침례를 통해 그들을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만드신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때, 문화적 차이점들은 더 이상 분열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 성령은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사이의 장벽을 허무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존경하며 받든다.

이 연합은 집합적 수준에도 해당된다. 즉, 어떤 교회는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과 선교사를 지원받고 있을지라도 전세계의 각 지역 교회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적 연합에는 어떤 계급 제도도 없다. 본방인이건 선교사이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연합된 교회는 한 소망 즉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실현될 구원의 "복스러운 소망"(딛 2:13)이 있다. 이 소망은 평화와 기쁨의 근원이며 연합하여 증거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마 24:14). 이 소망은 변화로 인도한다. 왜냐하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요일 3:3)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신앙–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몸의 한 부분(지체)이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한 침례(롬 6:3~6)는 이 믿음을 완전하게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음을 증거한다.

끝으로, 성경은 한 성령, 한 주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있음을 가르친다. 교회 연합의 모든 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서 그 기초를 발견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고전 12:4~6)다.

연합의 범위. 신자들은 정신과 견해의 일치를 경험한다. 다음의 권고에 주의해 보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롬 15:5, 6).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후 13:11).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감정과 사상과 행동의 일치를 그려내야 한다. 이 말은 각 교인이 동일한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성서가 말하는 일치는 획일성을 의미하는가?

다양성 속의 일치. 성서가 말하는 일치는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체에 대한 성서의 은유는, 교회의 일치가 다양성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몸에는 많은 기관이 있다. 모든 기관은 신체가 최적으로 활동하는 데 기여한다. 각 기관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같이 필수적인 임무를 완수한다.

이 동일한 원칙이 교회 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들을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전 12:11)사 회중에게 유익을 주는 건전한 다양성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신자가 똑같은 생각을 품거나 같은 일을 할 자격을 부여받지도 않는다. 그러나 모두는 한 성령의 지도 아래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들을 최선껏 활용하여 교회를 강

화시킨다.

교회가 그 사명을 성취하려면 모든 선물의 기여가 필요된다. 그것들이 합쳐졌을 때 총력 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교회의 성공은 각 신자들이 모두 같은, 동일한 일들을 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달려 있다.

천연계 가운데,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보여 주는 좋은 실례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신자들의 연합을 묘사하는 데 포도나무의 은유를 사용하셨다(요 15:1~6). 즉 신자들을 대표하는 가지들은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연장(延長)들이다. 가지나 잎사귀 그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다. 그런데도 일체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자양분을 동일한 근원인 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으며,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각 가지는 그들이 같은 원줄기에 붙어 있는 한 다른 가지들과 상통하게 된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동일한 자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주는 동일한 원소들을 흡수한다.

그와같이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데 달려 있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활력 있게 만드는 능력은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분은 교회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분께 연결됨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취미와 습관과 생활 방식을 꼴짓는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신자는 상호간에 연결되며 공동의 사명에 참여한다. 신자들이 그분 안에 거할 때 이기심은 쫓겨가고 그리스도인 연합이 확립되어, 그들로 그분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준다. 그와같이 교회 안에는 기질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한 머리 아래서 일한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오직 하나이시다.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조화된 행동이 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6).

믿음의 일치. 그러나 은사의 다양성이 신조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복음의 강령을 함께 나누는 백성들,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준수하는 것으로 특징을 이루는 사람으로 구성될 것이다(계 14:12). 그들은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선포할 것이다.

교회의 연합은 얼마나 중요한가?

연합은 교회에 필수 불가결하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그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연합은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불화와 다툼으로 찢긴 세상에서, 개성과 기질과 성격이 각기 다른 교인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과 연합은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게 교회의 기별을 증거한다. 이러한 연합은 하늘과 그들이 연결된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들의 신임장의 유효성에 대한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요 13:35).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증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의 알력은 불신자들 가운데 혐오감을 일으키며 아마도 그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신자들 간의 진정한 연합은 이러한 태도를 방지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야말로 그분께서 그들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한 주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다(요 17:23).

연합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를 보여 준다. 참으로 연합된 이 땅의 교회는 그 신자들이 하늘에서 함께 살게 될 날을 진지하게 고대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지상에서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실재를 증명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다음의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연합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 준다. 연합은 능력을 가져오고 분열은 연약을 초래한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피차간에 연합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조화롭게 일하는 교회는 참으로 번영하고 강력하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만 그들은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이다.

그리스도인 연합은 사랑이 없는 이기심에 의해 찢기고 날로 분열되어가는 세상에 도전한다. 하나됨을 이룩한 교회는 문화, 인종, 성 그리고 국적에 의해 분열된 사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참으로, 흑암의 권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대로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데는 무력하다.

하나됨을 이룩한 교회의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결과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비교할 수 있다. 지휘자가 등장하기 조금 전, 연주자들이 그들의 악기를 조율하고 몸을 풀고 있을 때 불협화음이 연출된다. 그러나 지휘자가 나타날 때 혼잡한 소음이 그치고 모든 시선은 그에게 집중된다. 관현악단의 각 단원은 그가 지시하는 대로 연주할 태세를 갖추고 앉아 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관현악단은 아름답고 조화된 음악을 연주해낸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은 거룩한 지휘자 즉 하나님의 지휘봉 아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관현악단 내에서 나의 생애의 악기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자의 원래 악보에 맞춰 그분의 지휘에 따라, 우리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할 특권이 있다."[1]

연합의 성취

교회가 연합을 경험하려면, 신성과 신자들 모두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 관여해야 한다. 연합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 신자들은 그 일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연합의 근원. 성경은 연합의 근원이 (1) 아버지의 보존시키는 능력과(요 17 : 11), (2)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영광(요 17 : 22)과, (3)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요 17 : 23)이라고 지적한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각 지체들의 연합을 유지시키는 결합력이요 실재이시다.

바퀴통과 바퀴살처럼 교인들(바퀴살)이 그리스도(바퀴통)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들 상호간에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진정한 연합의 비결은 수완이나 경영 능력이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정한 연합의 비결이다."[2]

연합시키는 분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연합을 이루신다.

1. 연합의 초점.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들어가실 때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문화, 인종, 성, 피부색, 국적 그리고 신분에 대한 인간의 편견을 초월시키신

다(갈 3:26~28 참조). 그분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오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신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그들의 연합은 그들 가운데 연합의 결속을 확립시키는데, 그것은 내재하시는 성령의 열매이다. 그때에 그들은 그들의 의견 차이와 불화를 최소화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사명을 수행할 것이다.

2. 연합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영적 은사들의 역할. 교회 연합의 목표는 얼마나 달성이 가능한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아버지 곁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연합시키려는 목적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셨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신자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연합"을 확립시키고자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다.

이 은사들을 논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했다. 이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엡 4:11~13)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주어졌다.

이 특수한 은사들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에 하나"(엡 4:3, 13)가 되도록 발전시켜 신자들이 성숙하고 견고하여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엡 4:14) 되도록 의도되었다(본서 17장 참조).

이 선물을 통하여 신자들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의 역동적 연합을 발전시키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성장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고 말했다.

3. 연합의 기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진리의 영"(요 15:26)으로서이다. 그분의 임무는 신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요 16:13).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적 진리가 연합의 기초인 것이 분명하다.

성령의 사명은 신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러

한 학문은 하나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학문만으로는 참연합을 이루어 내는 데 충분치 못하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믿고 실천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참연합을 이루어낸다. 교제와 영적 은사들과 사랑은 모두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들의 진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라고 말씀하신 분을 통해서만 발휘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연합을 경험하려면 신자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비춰나오는 빛을 받아야 한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마음에 거할 때 그것은 생애를 품위 있게 만들고, 고양시키고 정결케 한다. 그리고 모든 편견과 알력을 제거한다.

그리스도의 새 계명.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신자들도 피차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다른 이들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다(마 22:39 참조).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원칙을 갈바리에서 최고도로 실천하셨다. 운명하시기 직전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명령을 확대시키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 13:34 비교).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대들이 응분의 몫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도록 요청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데 그것이 필요되는 일이라면 그대들의 웃옷을 벗어 등을 채찍에 내어주고, 그대의 다른 편 뺨도 돌려 대고 거짓 고소와 모욕과 조롱을 감수하고 상하고 꺾이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매장되는 것도 불사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불가능한 가능성.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불가능한 것을 성취시킬 수 있으시다. 그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은 성육신적인 것으로서 육신이 되신 말씀(그리스도)을 통한 하나님과 신자들과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상호관계이다. 즉 포도나무의 공동 뿌리를 통한 신자들의 연합이다. 끝으로, 그것은 십자가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즉 신자들 속에 떠오르는 갈바리의 사랑에 뿌리를 박고 있다.

2. 십자가에서의 연합. 교회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할 필요를 인정하게 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신 분을 믿게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상의 각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그가 모든 나라 사람들, 인종, 피부색 그리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연합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인간의 좁은 소견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다. 십자가는 인간의 무지를 타파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격표를 붙인다. 십자가는 무가치한 사람은 전혀 없음을 보여 준다. 모두가 소중하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못박힘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그분은 최대의 고난자이신 당신의 자석과 같은 인력이 당신의 몸, 즉 교회에 연합을 가져다줄 것을 의미하신 것이었다. 하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 놓인 심연, 그리스도께서 건너신 심연은 보잘것없는 한 형제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거리나 촌락을 가로질러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한다.

갈바리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 6:2)를 의미한다. 그는 전 인류의 모든 짐을 지셨는 바, 그 짐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서로 돕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끊었다.

연합에 이르는 단계들. 연합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는다. 연합을 이룩하려면 신자들이 몇 계단을 밟아야 한다.

1. 가정에서의 연합. 교회에서의 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이상적인 훈련장

은 가정이다(본서 23장 참조). 가정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경영, 친절, 온유, 인내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합을 목표로 삼으라. 우리가 성실하게, 의식적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연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미 달성했다고 자부할 수 없다. 우리는 날마다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심하게 그것을 배양해야 한다.

우리는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을 삼가야 한다. 우리는 분열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가 피차 동의하는 많은 고귀한 진리에 관해 말해야 한다. 연합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연합과 조화를 실천할 수 있다.

3.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라. 교회는 한 단위로서 함께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관여하기 전까지는 연합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명의 수행은 조화를 배우는 이상적인 훈련이 된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대한 권속의 일원이며 전체의 복리는 신자들 개개인의 안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봉사 사업을 통하여 영혼의 회복과 신체의 회복을 함께 결부시키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분은 같은 내용을 강조하셨다. 말씀의 전파와 치료가 그것이다(눅 9:2, 10:9).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도(말씀의 선포)와 의료 선교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업의 국면들 중 그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어느 하나에만 완전히 치우쳐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균형, 즉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일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사업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교회 사업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복음의 초청을 세상에 보내기를 소망한다면 서로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연합이란 효율성을 위한 통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의 은유는 크든 작든 각 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경쟁이 아닌 협동이 당신의 전 세계적인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와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장엄하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아적 사랑에 대한 증거이다.

4. 전 세계적인 안목을 계발하라. 교회가 세계 각 곳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연합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국가적, 문화적, 혹은 지역적 고립주의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판단과 목적과 행동의 연합을 성취하기 위해 국적이 다른 신자들이 함께 섞이고 함께 봉사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의 연합된, 전 세계적인 전도사업에 저해 요인이 될 별도의 국수주의적 관심사를 조장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의 지도자는 세계 다른 지역 사업의 발전을 희생시켜 가면서 어느 한 지역에 재정이 공급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발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평등과 연합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5. 분열시키는 태도를 피하라. 이기심, 교만, 자기 과신, 자만, 우월감, 편견, 비평, 비난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의 흠찾기는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리스도인 경험에서의 첫사랑의 상실이 흔히 이런 태도를 유발시킨다. 갈바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될 수 있다(요일 4:9~11). 성령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분열의 근원을 정복할 수 있다. 신약 시대에 한 교회에서 분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갈 5:16)고 그 교회에 권면하였다.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연합으로 이끄실 성령의 지도를 구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의 행위는 분열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인 성령의 열매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다(갈 5:22, 23).

야고보는 분열의 또 다른 뿌리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는 강력한 어조로 부나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책망하였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약 2:9).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므로(행 10:34), 우리는 지위나 부나 재능 때문에 어떤 교인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장 비천한 하나님의 자녀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더 귀중한 인물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시

각을 교정해 준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그분은 가장 유복한 신자들뿐 아니라 낮은 자로도 대표되셨다. 모두가 당신의 자녀인 까닭에 그분께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인자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형제가 되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정신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계 14:6)에서 나온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구속적(救贖的)인 방법으로 대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참고 문헌

1. Benjamin F. Reaves, "What Unity Means to Me," Adventist Review, December 4, 1986, p. 20.
2. White, The Adventist Home(Nashville, TN: Southern Publishing Assn., 1952), p. 179.

제15장

침 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인정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 우리 죄의 용서, 성령을 받아들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예식은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된다.(롬 6:1~6; 골 2:12, 13; 행 16:30~33, 22:16, 2:38; 마 28:19, 20)

중앙 아프리카에 살았던 니앙위라(Nyangwira)는 침례를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사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 여인은 1년 이상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망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그동안 배운 진리를 남편에게 소개했다. 남편은 격노하여 "우리 집에 이따위 종교는 필요 없어. 계속 공부하면 죽여버릴 테야."라고 소리쳤다. 낙담은 되었지만 니앙위라는 성경을 계속 공부했고 침례 받을 준비를 끝냈다.

침례식에 가기 위해 출발하면서 니앙위라는 남편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오늘 침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의 사냥칼을 집어들며 "네

가 침례 받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침례 받는 날이 곧 네가 죽는 날인 줄 알아라."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단호히 결심한 니앙위라는 남편의 위협이 귀에 쟁쟁히 울리는 가운데 떠났다.

물에 들어가기 전 그는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오늘 또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생애를 그의 주님께 드렸다. 침례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찼다.

집에 돌아온 그는 칼을 남편에게 가져 왔다.

"너 침례 받았느냐?"라고 남편이 화를 내며 물었다.

"네."라고 그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여기 칼이 있어요."

"죽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네, 되어 있어요."

그의 용기에 놀란 남편은 더 이상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1]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가?

침례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침례를 요구하시는가? 구원은 침례를 받는 여부에 달려 있는가?

예수님의 모본.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공소를 떠나시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시고 그의 친척 요한이 설교하고 있던 요단강으로 갔다. 그분은 요한에게 가까이 가셔서 침례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셨다. 요한은 놀라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말하면서 만류했다.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 3:15)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의 침례로 이 예식[2]은 영원히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마 3:13~17, 21:25 참조). 침례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의의 한 부분이다. 무죄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으므로 죄인인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의 명령. 당신의 공생애 끝에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므

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 20)고 명령하셨다.

이 분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적 왕국, 즉 당신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침례 받기를 명백히 요구하셨다. 제자들의 봉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실 때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들의 침례는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갔음과 그의 은혜의 왕국의 원칙들에 조화되는 생애를 살기로 약속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베풀라는 당신의 명령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보증으로 끝맺으셨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사도들은 침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선포했다(행 2:38, 10:48, 22:16). 이에 호응한 무리들이 침례를 받았으며, 그들이 신약의 교회를 형성했고(행 2:41, 47, 8:12)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세를 받아들였다.

침례와 구원. 그리스도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막 16:16)이라고 가르치셨다. 사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곧 침례를 베풀었다. 그것은 새신자의 믿음에 대한 확인이었다(행 8:12, 16:30~34 참조).

베드로는 침례와 구원의 관계를 예시하기 위해 홍수 시 겪은 노아의 경험을 사용했다. 홍수 이전 시대에 죄는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회개하든지 멸망을 당하든지 선택하라고 세상에 경고하셨다. 단 여덟 사람만 믿고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벧전 3:20, 21)고 말했다.

베드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침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물론 홍수의 물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신자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침례의 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이다. "그러나 침례는 방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노아의] 순종

처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찾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다."[3]

그러나 침례는 구원과 매우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는다.[4]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을 침례의 한 상징적 표상으로 간주했다.[5]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할 때 위의 구름과 양편의 물로 말미암아 "물 속에 잠김으로" 상징적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전 10:1~5). 그와 같이 오늘날도, 침례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1, 12).

"침례도 하나이요"

그리스도 교계에서 침례를 시행하는 방법은 각양 각색이다. 어떤 이들은 **물에 잠금**(immersion), 혹은 **담금**(dipping)으로 하고 다른 이들은 **성수 살포**(aspersion) 혹은 또 다른 이들은 **관수식**(affusion, 灌水式), 혹은 **물붓기**(pouring) 방식으로 한다. 성령께서 교회에 가져다주시는 일치성의 특색은 "침례도 하나"(엡 4:5)이다.[6] 성경은 "침례 주다"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그 관습 자체 그리고 그 영적 의미에 관하여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가?

"침례를 베풀다"라는 단어의 의미. **"침례를 베풀다"**(baptize)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 동사 **밥티조**(baptizo)로부터 왔으며 그 의미는 물에 잠금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에 담그다 혹은 밑에 담그다"[7]를 의미하는 동사 **밥토**(bapto)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침례를 베풀다"**라는 동사가 물의 침례를 지칭할 때 그것은 물 속에 한 사람을 잠금 혹은 담금의 개념을 담고 있다.[8]

신약에서 "침례를 베풀다"라는 동사는 (1) 물의 침례를 지칭하기 위하여(예컨대, 마 3:6; 막 1:9; 행 2:41), (2)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은유로(마 20:22, 23; 막 10:38, 39; 눅 12:50), (3)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마 3:

11;막 1:8;눅 3:16;요 1:33;행 1:5, 11:16), 그리고 (4) 목욕(ablutions) 혹은 손을 의식적(儀式的)으로 씻는 일(막 7:3, 4;눅 11:38) 등에 사용되었다. 이 네 번째 용례는 단순히 의식상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한 씻음을 의미하며 물붓기에 의한 침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9] 성경은 물 침례와 그리스도의 죽음 모두에 대하여 침례라는 명사를 사용한다(마 3:7, 22:20).

하워드(J. K. Howard)는, 신약에는 "물 뿌림이 사도적 관습이 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모든 증거를 취합해 볼 때 그것이 후기에 도입된 것임이 명백해진다."[10]고 말하였다.

신약의 침례. 신약에 기록된 물로 침례를 베푼 사례는 물에 잠금이 수반되었다. 우리는 요한이 요단강 (안)에서(마 3:6, 막 1:5 참조) 그리고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요 3:23)는 말씀을 읽는다. "많은 물"은 물에 잠금으로 시행하는 침례 때만 필요된다.

요한은 예수님을 물 속에 잠갔다. 피는 "요단강(안)에서" 예수께 침례를 베풀었으며, 침례 후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 오"(막 1:9, 10;마 3:16 참조)셨다.[11]

사도 교회도 물에 잠금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전도자 빌립이 구스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 둘 다 "물에 내려"갔고 "물에서 올라"(행 8:38, 39 참조)왔다.

역사 가운데 나타난 침례. 그리스도 이전 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방인 개종자들을 물에 잠금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쿰란의 에세네파(the Essenes)는 그들의 단원들과 회심자들을 모두 물에 잠그는 관습을 따랐다.[12]

지하 동굴이나 교회의 그림이나 벽화, 바닥, 벽, 천장의 모자이크, 조각된 부조 그리고 고대 신약 시대의 그림들이 제공하는 증거들은 "물에 잠금이 첫 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정상적인 침례 방식임을 압도적으로 증명한다."[13] 북아프리카,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고대 성당, 교회 그리고 폐허 등에서 발견되는 침례탕들은 아직도 이 관습이 옛적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임을 증거한다.[14]

침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는 그 시행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플러머(Alfred Plummer)는 "침례가 물에 잠금에 의해 시행되었을 때에만 그 예식의 충만한 의미가 나타난다"[15]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 물로 덮이는 것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상징했듯이(시 42:7, 69:2, 124:4, 5) 예수님의 물 침례는 그분의 고통, 죽음 그리고 장사지냄에 대한 예언적 실연(實演)을 상징했으며(막 10:38;눅 12:50), 그분께서 물에서부터 올라오심은 그분의 뒤이은 부활을 상징했다(롬 6:3~5).

"사도 교회가 물에 잠금이 아닌 다른 침례 방식으로 침례를 베풀었다면, 침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물에 잠금에 의한 침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신학적인 것이다."[16]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한 상징. 침례로 신자들은 우리 주님의 수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3, 4)고 말하였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의 밀접성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등의 표현을 통해 드러났다. 호와드는 이렇게 주석하였다. "침례라는 상징적 행위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며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그분의 부활이 그의 부활이 된다."[17]

1. 죄에 대하여 죽음. 침례로 신자들은 "그(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롬 6:5)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갈 2:20)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음이니라"(롬 6:6, 7)를 의미한다.

신자들은 그들의 옛 생활 방식을 포기하였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이전 것은 지나갔"(고후 5:17)다는 것과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바 되었다는 것을 확증한다. 침례는 옛 생활 방식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죽음뿐 아니라 장사지냄도 상징한다. 우리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골 2:12)되었다. 사람이 죽은 후 장례가 뒤따르듯이 신자가 물 무덤으로 내려질 때, 그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끝나버린 옛 생활은 장사지낸 바 된다.

침례로 신자들은 세상을 포기하였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후 6:17)는 명령에 순종하여 후보자들은 사탄을 섬기기를 포기한 것과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 가운데로 영접하였음을 공표한다.

사도 교회에서 회개에로의 초청에는 침례로의 초청이 포함되었다(행 2:38). 그와 같이 침례는 또한 참회개를 표시했다. 신자들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얻는다. 침례 예식은 내적 정결케 함, 즉 고백된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을 표현한다.

2. 하나님께 대하여 삶.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살아 움직인다. 그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롬 6:4), 즉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롬 6:11)로 행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는 옛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성령의 역동적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생명을 제공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증거한다. 이 새 생명은 차원 높은 인생살이의 경지로 우리를 끌어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초점을 둔 새 가치관,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는 우리 구주의 새 제자들이며 침례는 우리의 제자된 증거의 표징이다.

언약 관계의 상징. 구약 시대의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관계를 표시했다(창 17:1~7).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가지 면, 즉 영적인 면과 국가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다. 할례는 민족적 동일성의 표였다.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가족 중 태어난 지 8일 이상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했다(창 17:10~14, 25~27). 할례받지 않은 남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는데 이는

그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다(창 17:14).

그 언약이 하나님과 성인(成人)인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졌다는 사실은 그것의 영적인 차원을 드러낸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그의 이전의 경험을 의미했고 또 확증했다. 그의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롬 4:11)이다.

그러나 할례 그 자체만으로는 그 언약의 참된 영적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했다. 자주 하나님의 대변자들은 참으로 영적인 할례만이 그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신 10:16, 30:6; 렘 4:4 참조).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형벌을 받을 것이었다(렘 9:25, 26).

유대인들이 예수의 메시야 되심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으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특별한 신분에 종지부를 찍었다(단 9:24~27; 본서 4장 참조).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약속들은 변동이 없었지만 그분은 한 새 백성을 선택하셨다. 영적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를 대체했다(갈 3:27~29, 6:15, 16).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을 비준했다. 백성들은 영적 할례, 즉 예수의 속죄의 죽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이 언약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인들은 "무할례자에게 복음"(갈 2:7)을 가지고 있다.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려는 자들에게 "내적 믿음"을 요구하며 "외적 의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새로남을 통해서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 5:6). 중요한 것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롬 2:29) 것이다.

예수와 맺은 구원하는 관계의 표징인 침례는 이 영적 할례를 대표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11, 12).

"'육의 몸'이 예수가 행하신 영적 할례를 통하여 제거된 후에 침례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그 결과 그는

언약의 약속들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18]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7~29).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는 하나님의 보증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상징.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당신의 기름부음 혹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에의 헌신을 상징하는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을 받았다(마 3:13~17; 행 10:38 참조). 그분의 경험은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합일하는 것이며, 성령을 받음이 없는 침례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도 교회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은 대체로 물의 침례에 뒤따랐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헌신케 되고, 성별 되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늘의 세 위대한 권세들과 연합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마 3:11)이라고 선언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사 4:4)으로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으실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사 1:25)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그분께 굴복하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소멸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성령은 당신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분의 은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들로서 침례 시 주어지며, 신자들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9] 성령의 침례는 초대 교회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행 1:5, 8). 그리고 그 동일한 침례만이 교회가 영원한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마 24:14; 계 14:6).

교회에 입교하는 상징. 사람의 중생 혹은 거듭남(요 3:3, 5)의 한 표징으로서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

다.[20] 침례는 새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침례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에 새 제자들을 더하신다(행 2:41, 47; 고전 12:13).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다. 교회 가족에 가입함이 없이 침례를 받을 수는 없다.

침례 받을 자격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한다. 결혼에서 쌍방은 거기에 수반되는 책임과 서약을 잘 알아야 한다. 침례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침례의 의미와 침례 후의 영적 관계의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믿음, 회개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21]

믿음. 침례의 선행 조건 중 하나는 예수의 속죄 희생을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으로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막 16:16)이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사도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행 8:12, 36, 37, 18:8).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롬 10:17)음으로 가르침은 침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부는 이러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확증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 20). 제자가 되는 데는 철저한 가르침이 필요된다.

회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행 2:38)으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믿음뿐 아니라 회개와 회심도 유발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인식하고 그들의 죄악 됨을 고백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의 새 생활에 자신들을 헌신한다. 회개를 통해서만 그들은 침례의 선행 조건인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회개의 열매들. 침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앙을 공언해야 하고 경험해

야 한다. 그러나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마 3:8)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성서적 침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생활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증명해야 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침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들은 이미 그릇된 신조와 관습들을 당연히 포기했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리고 그들이 그분 속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요 15:1~8).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직 교회에 입교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22]

후보자 심사. 교회의 일원이 되는 데는 영적 계단을 밟는 일이 수반된다. 이것은 단순히 녹명책에 이름을 올려놓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침례를 시행하는 자들은 후보자들이 침례 받을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들을 후보자들이 이해하여 새로 남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23]

그러나 그들은 침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의 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되기 위하여 지망할 때 우리는 그의 생애에 나타난 열매를 시험해야 하되, 그의 동기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24]

어떤 사람들은 산 채로 침례의 물 속에 장사되었다. 자아는 죽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 입교한 사람은 연약함과 배도의 씨앗들을 들여왔다. 그들의 "성화되지 못한" 영향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의 증거 활동을 위태롭게 만든다.

유아들과 아이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침례는 "거듭남"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새 신자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입교시킨다. 그들의 회심은 그들에게 침례와 교인됨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다. 입교는 "아이의 출생" 때가 아니라 "새로 남"(중생) 때에 일어난다. 그것은 왜 믿는 자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침례를 받았는지를 설명해 준다(행 8:12, 13, 29~38, 9:17, 18; 고전 1:14). 칼 바르트(Karl Barth)는 "신약 성서 그 어느 곳에서도 유아 세례(침례)

는 허용되지도 않았고 명령되지도 않았다."[25]고 인정하였다. 비슬리-머레이(G. R. Beasley-Murray)는 "나는 분명히 유아 세례 가운데서 신약교회의 침례를 인정할 수 없다."[26]고 고백하였다.

유아들과 어린이들은 회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 이것은 그들이 새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의 왕국에서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마 19:14, 15)셨다. 믿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도하여 마침내 그들이 침례 받도록 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축복하여 주심을 바라고 그분께 자녀를 데려온 어머니들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반응이 어린이 봉헌을 행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예식을 위하여 부모들은 하나님께 바치거나 봉헌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녀를 데려온다.

몇 살이 되어야 침례를 받을 준비가 갖추어질까? 각 개인은 그들이 (1) 침례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성숙되고, (2)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회심하였으며, (3) 그리스도교의 기본 원칙들을 이해하고, (4)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서 성령의 감동을 거절할 때에만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영적 성숙에 도달하는 연령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어린 나이에 침례 받을 태세가 갖추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 가능한 최연소 연령을 고정적으로 못박을 수 없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어린 나이에 침례 받는 것에 동의할 때 그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품성을 발전시킬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침례의 열매

침례가 맺혀주는 탁월한 열매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 생애이다. 목표와 포부는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 3:1, 2).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가시키는 계획에 따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될 그리스도인 은혜들을 습득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벧후 1:2). 우리가 우리의 침례 서약을 충성스럽게 준수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침례 후 살아가면서 맞을지도 모를 모든 비상 사태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증하신다.

둘째 열매는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산 생애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산 돌들인 우리들로 구성된다(벧전 2:2~5).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매일의 은혜를 받는다(엡 4:16). 우리는 언약 공동체 내에서 책임들을 맡으며, 그 구성원들은 새로 침례 받은 자들을 위하여 책임을 진다(고전 12:12~26). 이 새 교인들은 교회뿐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봉사생활에 참여해야 한다(엡 4:12).

마지막 열매는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산 생애이다. 침례 받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빌 3:20).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태어났다. 우리의 침례 언약에 대한 충실성에는 이들을 은혜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포함된다.[27]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활로 들어가기를 몹시 고대하신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행 22:16).

참고 문헌

1. S. M. Samuel, "A Brave African Wife," Review and Herald, February 14, 1963, p. 19.
2. 예식이란, 복음의 중심 진리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준수할 의무가 보편적이고 영속적

이며 확립된 상징적인 종교 의식 혹은 그 준수이다. 그리스도는 두 예식 즉 침례와 성만찬을 명하셨다. 예식은 opus operatum 즉,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의식 자체가 은혜를 나누어주고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성례전이 아니다. 침례와 성만찬은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지휘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서약인 sacramentum과 같은 의미에서만 성례전이다. 이 의식들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포함한다. Strong, Systematic Theology(Philadelphia, PA：Judson Press, 1954), p. 930; "Baptism," SDA Encyclopedia, rev. ed., pp. 128, 129를 참조하라.

3. Jemison, Christian Beliefs, p. 244.
4. "그들의 역사의 시초부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그들의 개신교 유산과 공통으로, 침례를 opus operatum 즉,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의식 자체가 은혜를 나누어주고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는 행위로 보는 견해는 어떤 것이든지 배척했다"("Baptism," SDA Encyclopedia, rev. ed., p. 128).
5.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 740.
6. 물에 잠금에 의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왕왕 재침례를 받아야겠다는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원은 "한 침례"(엡 4：5)밖에 없다는 바울의 주장과 상충되는가? 바울의 관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에베소를 방문한 그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여러 제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회개를 경험하였고 오시는 메시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표시했다(행 19：1~5).

   이 제자들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심각한 오류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명확한 빛을 받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였다. 이 전진하는 발걸음으로 그들의 의무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이 더 순결한 믿음을 받았으므로, 그들의 생애와 품성에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의 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인정의 표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재침례를 받았다.

   "많은 그리스도의 진실한 추종자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는 사람을 그분께 대한 새 관계에 진입시킨다. 새 의무를 깨닫게 되었다. 전에는 순진무구했고 칭송받을만 했던 것처럼 보였던 많은 것이 이제는 죄악적인 것으로 보인다…그의 이전 침례는 이제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정죄 된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는 죄에 대하여 새로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장사 지낸 바 되기를 소원한다. 이런 과정은 유대인 회심자들에게 침례를 베푼 바울의 모본과 일치된다. 그 사례는 교회를 위한 교훈적 공과로서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다." (White, Sketches from the Life of Paul[Battle Creek, MI：Review and Herald, 1883], pp. 1`32, 133 ；또한 Seventh-day Adventist Church Manual [Washington, D.C.：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1986], rev. ed., p.50：White, Evangelism, pp. 372~375 참조).

   성경은 중대한 죄, 혹은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서 재회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재침례를 베풀기

를 거부해야 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Seventh-day Adventist Church Manual, pp. 51, 162 ; White, Evangelism, p. 375 참조).

7. Ablrecht Oepke, "Bapto, Baptizo,"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Gerhard Kittel, trans. Geoffrey W. Bromiley(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 Co., 1964), vol. 1, p. 529 참조. Vine은 Bapto는 "헬라인들 가운데서 옷의 염색 혹은 다른 그릇에 그릇을 담그어 물을 뜨는 것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석하였다.(W. E. Vine, An Expository Dictionary of Biblical Words [New York, NY: Thomas Nelson, 1985], p. 50. "담그다"라는 말은 신약에 3번 사용되었는데, 매 경우 "물 속에 잠그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가 그의 손가락 끝을 찬물 속에 **담그어**(dip) 그의 혀를 축일 한 방울의 물을 가져오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했다(눅 16:24).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한 조각을 찍으신 다음(dipped, 담그신 다음) 그것을 유다에게 주심으로 그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셨다(요 13:26)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말을 타고 나오시는 것을 이상 가운데서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요한의 눈에 피 뿌린(dipped in blood, 피속에 담갔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았다(계 19:13).
8. George E. Rice, "Baptism: Union With Christ," Ministry, May 1982, p. 20.
9. Albercht Oepke, "Bapto, Baptizo,"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p. 535 참조. Arndt and Gingrich,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p. 131 참조.
10. J. K. Howard, New Testament Baptism (London: Pickering & Inglis Ltd., 1970), p. 48.
11. Italics Supplied.
12. Matthew Black, The Scrolls and Christian Origi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1), pp. 96~98. 또한 "Baptiam,"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p. 118, 119.
13. G. E. Rice, "Baptism in the Early Church," Ministry, March, 1981, p. 22. Henry F. Brown, Baptism Through the Centuries(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1965) ; William L. Lampkin, A History of Immersion (Nashville: Broadman Press, 1962) ; Wolfred N. Cotte, The Archeology of Baptism (London: Yates and Alexander, 1876) 참조.
14. Brown, Baptism Through the Centuries, pp. 49~90.
15.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 Luke,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 Samuel R. Driver, et al., 5th ed. (Edinburgh: T. PT. Clark, 1981, reprint), p. 88.
16. "Baptism," SDA Encyclopedia, rev. ed., p. 128.
17. Howard, New Testament Baptism, p. 69.
18. G. E. Rice, "Baptism: Union With Christ," Ministry, May 1982, p. 21.

19. Gottfried Oosterwal, "Every Member a Minister? From Baptism to a Theological Base," Ministry, Feb. 1980, pp. 4~7. 또한 Rex D. Edwards, "Baptism as Ordination," Ministry, Aug. 1983, pp. 4~6.
20. White in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 1075.
21. 침례에 자격 요건이 있다면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다음의 해석들은 성서적 기별의 조화를 보존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아무 부활도 없다는 관념을 배척한다. 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신자의 믿음은 헛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전 15:14, 17). 그 같은 논법으로 그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고전 15:29)고 논한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신자들이 대리 침례를 받는다는 언급으로 해석해 왔다. 성서적인 침례 자격 요건에 비추어 우리는 이런 견해를 견지할 수 없다. 니콜(W. Robertson Nicoll)은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험, 즉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생존자들을 회심하도록 이끌며 그들은 우선 첫째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사랑하던 죽은 자들) 그리고 그들과의 재회의 소망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바울은 이런 회심자들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로 기록했다. "가족에 대한 애정과 우정과 결부된 미래에 있을 복락에 대한 희망은 기독교의 초기 확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요인 중 하나였다."(W. Robertson Nicoll, ed., The Expositor's Greek Testament[Grand Rapids, MI:Wm. B. Eerdmans, 1956], vol. 2, p. 931. 래더(M. Raeder)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의 표현 가운데 있는 전치사 "위하여"(헬라어로는 huper)는 목적격 전치사라고 지적한다. 즉, 그것은 이 침례는 "재림 때 죽은 그리스도인 친척들과 재연합할 목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혹은 "때문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M. Raeder, "Vikariatstaufe in 1 k. 15:29?" Zeitschrift für die neutesamentlicke Wissenschaft, 45(1955), pp. 258~260 quoted by Harold Resenfeld, "Huper,"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8, p. 513]. Howard, New Testament Baptism, pp. 108, 109).

    하워드(Howard)는 고전 15:29의 문맥 내에서 바울의 논증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멸망했을 것이며 아무 희망도 없는 속절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재회할 것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진술한다(Howard, "Baptism for the Dead:A Study of 1 Corinthians 15:29," Evangelical Quaterly, ed. F. F. Bruce [Exter, Eng.: Paternoster Press], July–September, 1965, p. 141).
22. Damsteegt, "Reaping the Harvest," Adventist Review, October 22, 1987, p. 15 참조.
23. SDA Church Manual, p. 41.

24. White, Evangelism, p. 313.
25. Karl Barth, Church Dogmatics, trans. G. W. Bromiley(Edinburgh : T. & T. Clark, 1969), vol. 4/4, p. 179.
26. G. R. Beasley-Murray, Baptism in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MI, : Wm. B. Eerdmans, 1973), p. 392.
27. Edwards, "Baptism." 참조.

제16장

성만찬

성만찬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성만찬에 참여하신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성만찬 예식의 준비에는 자기 성찰, 회개, 고백이 포함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정결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기꺼이 서로 섬기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도록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성만찬 예식에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전 10:16, 17, 11:23~30; 마 26:17~30; 계 3:20; 요 6:48~63, 13:1~17)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해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발은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누군가 발 씻는 관습을 위해 물그릇과 대야와 수건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 천한 일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비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눅 22:15, 16).

제자들이 피차에 대하여 품고 있었던 증오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슬

픔으로 가득 찼다. 그분은 그들이 누가 당신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여전히 다투고 있는 것을 아셨다(눅 22:24; 마 18:1, 20:21).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종의 역할을 대행하고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막은 것은 감투를 위한 그들의 책략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참된 위대함은 겸비와 사랑의 봉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이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저녁 먹는 중"(요 13:2, 4)[1]에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종의 수건을 취하시고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다. 종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 제자들은 무언의 견책을 받고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예수님은 발을 다 씻기시고 그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4~17).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유월절 대신 당신의 큰 희생을 기념하게 될 예식인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그는 무교병을 취하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마 26:26),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그분은 축복의 잔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7, 28).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마 26:26~28; 고전 11:25, 26, 10:16 참조)고 말씀하셨다.

성찬 예배는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자 이 두 예식을 제정하셨다.

세족 예식

유월절을 경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가정은 모든 누룩, 즉 죄를 무교 주

일의 첫날 전에 가정에서 제거해 버리는 관습을 지켰다(출 12:15, 19, 20). 그와 같이 신자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가장 심오한 수준의 교제를 갖기 전에 교만, 경쟁심, 질투심, 적개심 그리고 이기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족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분은 모범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그들도 그분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7). 성만찬 예식 전에 거행하는 이 예식은 모든 사람이 "합당치 않게"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고전 11:27~29).

이 예식의 의미.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경험에 모두 큰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1. 그리스도의 자아 겸비에 대한 기념. 세족 예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봉사 생애에서의 겸비를 기념한다.[2] 그분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빌 2:7)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처럼 무아적으로, 그토록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건만 당신께서 구원하러 오신 자들의 대다수에 의해 배척을 받으신 것은 굴욕적인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전체에 걸쳐서 사탄은 언제나 그분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죄하신 그분께 얼마나 큰 치욕을 가져왔겠는가!

그리스도는 무아적인 봉사의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마 20:28) 오셨다. 발을 씻기는 행위를 통하여 그분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천한 일도 개의치 않고 행하실 용의가 있음을 보여 주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당신의 봉사의 생애와 온유함을 인상 깊게 새겨 주셨다.

이 준비의 의식을 한 거룩한 예식으로 만드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감동을 줄 부드러움과 사랑의 상태로 신자들을 이끌고자 의도하셨다. 이 예식은 그 예식의 의미를 깊이 명상하는 자들에게 다른 이들을 겸비하고 사려 깊게 취급하기를 촉구한다. 발을 씻김으로, 그리스도의 모본

을 따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따르기로 천명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일이지만 결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리스도 앞에 허리를 숙이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바로 그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말씀하셨다.

2. 더 높은 정결케 함의 표상. 발 씻음은 그들의 발을 깨끗케 한 것 이상을 성취했다. 그것은 더 높은 정결 곧 마음을 정결케 함을 상징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전신을 다 씻겨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요 13:10)고 말씀하셨다.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 그러나 맨발로 샌들을 신은 발은 곧 더러워져서 다시 씻을 필요가 생긴다. 제자들도 그러하였다. 그들의 죄는 침례로 씻어졌지만 그들은 유혹을 받아 마음에 교만, 질투 그리고 악을 품었었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거나 그분께서 그들과 맺으실 새 언약을 받아들일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발 씻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갖추어지기를 갈망하셨다. 배반자 유다를 제외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정결케 되었고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무아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겸비하게 되었고 온순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또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의 발이 더러워진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 와서 그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그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침례 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요 13:10)기 때문이다.[3] 하나의 예식으로서 발 씻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결케 함을 받을 필요가 있음과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발 씻음 그 자체는 죄로부터 정결케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으시다.

3. 용서의 친교. 참석자들 사이에 생기는 용서의 태도는 이 예식이 상징하고 있는 정결케 함이 효력을 발휘했음을 나타낸다. 우리가 용서해 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 15).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다른 사람에 의해 기꺼이 씻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영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예식이 끝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가 씻김을 당했으므로 우리가 정결하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 누구에 의해서인가?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봉사의 상징들을 우리에게 시행해 주는 사람은 동료 신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용서의 교제가 된다.[4]

4.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관계. 이 세족 예식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요 13:1)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베드로가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요 13:8)고 대답하셨다. 씻김이 없으면 교제도 없다.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34절)고 말씀하셨다. 그 예식의 기별은 명백하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낫게 여김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최고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빌 2:3). 이것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명령한다. 그것은 우월감이나 편파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준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동료 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반영할 것이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인해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이 예식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강력한 증언이 될 것이다.

한 불교 승려가 한 선교사에게 그리스도교를 대표할 만한 한 장면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미술가들이 세계의 주요 종교들을 묘사한 벽화들과 조각으로 사원의 경내에 있는 한 홀을 장식할 예정이었다. 잠시 생각한 후에 그 선교사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내가 읽을 때 그 승려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를 묘사한 성경절을 읽을 때 이상한 경외심을 자아내는 조용함과 능력을 느꼈다."고 나중에 그 선교사는 술회했다. 그 문화권에서는 발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공적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실례(失禮)로 간주되고 있었다.

"내가 낭독을 끝냈을 때 한순간 침묵이 감돌았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 종교의 창시자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씀인가요?'라고 물었다.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눈썹과 머리를 삭발한, 대체로 침착한 둥근 얼굴의 이 승려는 놀람과 경탄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할 말을 잊었으며 나 또한 그러하였다. 나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매우 힘들게 침을 여러 번 삼켰다. 그리고 우리 둘은 그 장면의 드라마에 넋을 잃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표현되었던 믿기 어렵다는 표정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예수님은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고 씻기셨던 것이다! 몇 순간 후에 그는 평정을 되찾고 일어서며 '이제사 그리스도교의 진수를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다."[5]

성만찬의 거행

개신교 가운데 성찬예식(Communion Service)을 일컫는 가장 흔한 명칭은 "주의 만찬"(고전 11:20)이다. 또 다른 명칭은 "주의 상"(고전 10:21), "떡을 떼는 것"(행 20:7, 2:42 참조)[6] 그리고 그 예식의 감사와 축복의 국면들을 언급하는 "주의 잔치"(Eucharist)이다(마 26:26, 27; 고전 10:16, 11:24).

성만찬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먼저 행하는 세족 예식은 자아 성찰과 죄의 고백과 불화의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제공한다. 구주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는 보증을 얻은 후 신자들은 그들의 주님과 특별한 교제에 참여할 준비가 갖추어진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이 아니라 구원의 빛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승리를 경축할 태세를 갖

추고 기쁨으로 그분의 상(床)에 나아간다.

성만찬의 의미. 성만찬은 옛 언약 시대의 유월절 축제를 대체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을 때 성취되었다. 돌아가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대체물, 즉 새 언약 아래 있는 영적 이스라엘의 큰 축제를 제정하셨다. 그 같이 하여 성만찬 상징물의 대부분의 뿌리는 유월절 의식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 죄로부터의 구출에 대한 기념. 유월절 절기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받음을 기념했듯이 성만찬은 영적 애굽, 즉 죄의 예속에서의 구출을 기념한다.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유월절 양의 피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보호했다. 그 고기가 제공한 자양분은 애굽에서 도피할 기력을 그들에게 주었다(출 12:3~8).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온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다(요 6:54). 성만찬은,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용서의 길을 준비했고 영생을 보장했음을 선포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고 말씀하셨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적 차원을 강조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고전 11:24; 사 53:4~12 참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무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범죄자를 대신하셨고, 의로우신 그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관대한 행위는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회개하는 죄인에게 용서와 평화와 영생의 보증을 마련해 주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죄를 해제시켰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와 죄를 정복할 능력을 마련해 주었다.

1) 떡과 포도나무의 열매.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여러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많은 은유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나는 양의 문이라"(요 10:7), "내가 곧 길이요"(요 14:6), "나는 참 포도나무요"(요 15:1).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요 6:35)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표현들 중 어느 것도 문자적으로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모든 문이나 길이나 포도나무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그것들은 더 깊은 진리를 예시하고 있다.

기적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의 더 깊은 의

미를 드러내셨다. 참떡으로서 그분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들이 이르되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2~35)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갈망의 배고픔과 기갈을 해소시켜 주시고자 당신의 살과 피를 제공하셨다(요 6:50~54).

예수께서 잡수신 유월절 떡은 무교병이었으며 포도나무의 열매는 발효되지 않은 것이었다.[7] 발효를 일으켜 빵을 부풀리는 누룩(이스트, 효모)은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고전 5:7, 8). 그러므로 그것은 "흠 없고 점 없는"(벧전 1:19) 하나님의 어린양을 대표하기에 부적합하였다.[8] 무교병 혹은 "발효되지 아니한" 떡만이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의 변질되지 않은 열매,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만이 구주의 정결케 하는 피의 더렵혀지지 않은 완전을 적절히 상징한다.[9]

2) 먹고 마심.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요 6:53, 54).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이며, 그것을 통하여 신자들은 하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말씀하신다.

신자들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먹음"으로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이다. 그 말씀[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능력이 나온다. 성찬 예식에서 우리는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말씀의 강론을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때문에 성만찬은 단순한 기념적인 식사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성찬 예식(Communion Service)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지탱시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생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그 상징은 "육체적 생명이 음식과 음료에 의존하듯이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께 의존한다"[10]는 것을 보여 준다.

성만찬 예식 중에 우리는 그 잔을 "축복"(고전 10:16)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잔을 위하여 "감사기도"(마 26:27)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피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2. 그리스도와의 단체적 교제. 우리가 투쟁과 불화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러한 예식에 단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안전성에 기여하며 그리스도와 그리고 상호간에 존재하는 참교제를 증명해 준다. 바울은 이러한 교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 17)고 말하였다.

"이것은 성찬떡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신자들에 의해 먹혀진다는 것과, 모든 조각이 같은 빵에서 나온 것이듯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숴진 떡에 의해 표상된 바 몸이 부수어진 그분 안에서 연합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연합되었음과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는 한 대가족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보이는 것이다."[11]

모든 교인은 이 신성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고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저들에게 활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그 예식을 집전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거룩한 특권의 기회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고 말해짐이 마땅할 것이다."[12]

우리는 주의 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장벽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통의 바탕 위에서 만난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회 가운데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연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성만찬의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위탁하셨다. 그분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7, 28;눅 22:20 참조)고 말씀하셨다. 옛 언약이 동물 희생제물들의 피로 비준되었듯이(출 24:8),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다. 이 예식에서 신자들은 그들의 주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의 서약을 새롭게 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신을 인류에서 붙들어매신 놀라운 계약의 한 부분임을 새롭게 인식한다. 이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그들은 경축할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이 성만찬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인침에 대한 기념물이요 감사 예식이다. 받는 복들은 참석자들의 믿음에 비례한다.

3. 재림에 대한 고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성만찬 예식은 갈바리와 재림의 사이의 시기에 걸쳐 있다. 그것은 십자가와 그 왕국을 연결시킨다. 그것은 신약 세계관의 정수인 "이미"와 "아직"을 결합시킨다. 그것은 구주의 희생과 그의 재강림, 즉 준비된 구원과 성취된 구원을 함께 결합시킨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성령을 통해 임재하신다는 것을 선포한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마 26:29)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맹세는 예언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미래에 우리 구주와 함께 나눌 천국 만찬으로 향하게 한다. 그 예식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계 19:9)의 대축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때를 위한 한 준비로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눅 12:35~37).

당신의 추종자들을 연회장에 모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셨듯이 천국 만찬을 집전하실 것이다. 오랫동안 그분은 이때가 오기를 기다려 오셨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는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수종드시기 위해 걸어나오신다. 모든 사람의 눈이 놀라움으로 가득 찬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수종을 받는 영예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수종들겠습니다."라고 사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들을 앉히신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위치를 취하시고 자신을 겸비하게 하셨을 때보다 지상에서 더 위대하신 적은 없었다. 그가 성도들을 섬기실 때만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위대하신 때는 결코 없을 것이다.[13] 바로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개인적 교제를 통한 미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최고의 기대이다.

참석 자격. 두 큰 예식, 즉 침례와 성만찬은 그리스도인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교회에 입교하는 문이며 후자는 교인들에게 유익을 준다.[14] 예수님은 신앙을 공언하는 당신의 추종자들에게만 성만찬을 거행하셨다.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15]

성경은 주님께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라고 명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전 11:27)기 때문이다. 이 "합당치 않게"은 태도에는 "무질서한 행동"(21절 참조)이나, 혹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적극적인, 생동감 있는 믿음의 부족 등이 해당된다."[16] 이러한 행동은 주님께 대한 불경을 보여 주며 구주를 거절하는 것으로 그리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는 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정당한 참여는 하나님의 불쾌를 초래한다. 합당치 않은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고전 11:29)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들은 보통의 음식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상징하는 성별된 표상물을 구별하지 못한다. "신자들은 이 예식을 역사의 한 사건을 기념하는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했는지, 인간이 구주께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기물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증거해야 할 신자의 의무를 마음에 항상 생생하게 간직시켜 주는 한 수단이다."[17] 이런 가르침에 비추어,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고 권고한다(고전 11:28). 참석하기 전에 신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회고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단절된 관계들을 회복시켜야 한다.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경험은 이와 같이 자신들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재림운동의 초기에 신자들의 수가 적었을 때 예식들을 거행하는 일은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금요일이 되기 전에 모든 교인은 자기 형제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분리시킨 모든 거리끼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였다. 심령을 엄밀히 살폈으며 하나님께 숨은 죄를 깨닫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사업상 저지른 부정직한 거래들을 자복하였고 성급하게 말한 무분별한 말들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죄들을 자복하였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임하셨으며 우리는 크게 힘과 용기를 얻었다."[18]

이런 살피는 일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무도 타인의 마음을 읽거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는 성만찬 때의 배타주의를 배척하셨다. 공개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참석하는 데서 제외당하지만(고전 5:11)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는 공언하는 추종자였지만 내적으로는 도적이요 반역자였던 유다와 만찬을 함께하셨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특징짓는 것은 마음의 상태, 즉 어느 특정 교회에 소속됨이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그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이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새 언약의 대잔치를 자주 경축하도록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참석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을 증거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다.[19]

참고 문헌

1. Robert Odom, "The First Celebration of the Ordinance of the Lord's House," Ministry, Jan. 1953, p. 20; White, The Desire of Ages, pp. 643~646을 보라.
2. Ibid., p. 650.
3. 침례와 성만찬은 관계가 있다. 침례는 교회의 교인됨에 선행하지만, 세족 예식은 이미 교인된 자들에게 해당된다. 이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침례 서약들을 적절하게 명상할 수 있다.
4. C. Mervyn Maxwell, "A Fellowship of Forgiveness," Review and Herald, June 29, 1961, pp. 6, 7을 보라.
5. Jon Dybdahl, Missions: A Two Way Street (Boise, ID: Pacific Press, 1986), p. 28.
6.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이 표현이 성만찬 예식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간

주하고 있지만 반드시 성만찬 예식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이것은 보통의 일상의 식사를 지칭한다.

7. 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가을의 포도 수확기로부터 봄의 유월절까지 이스라엘의 무더운 기후에서 장기간에 걸쳐 포도즙을 보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발효된 포도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경축했다는 것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부당하다. 고대 세계 전역에 걸쳐서 즙들은 자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기간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졌다. 한 가지 방법은 그 즙을 끓여서 시럽으로 농축시키는 것이었다. 신선한 장소에 보관된 이 농축물은 발효되지 않았다. 물을 섞어 묽게 함으로 간단히 비알코올성 "단 포도주"가 된다. William Patton, Bible Wines–Laws of Fermentation (Oklahoma City, OK : Sane Press, n. d.), pp. 24~41을 보라. 또한 C. A. Christoforides, "More on Unfermented Wine, Ministry, April 1955, p. 34 : Lael O. Caesar, "The Meaning of Yayin in the Old Testament"(Unpublished M. A. Thesis, Andrews University, 1986), pp. 74~77 ; White, The Desire of Ages, p. 653을 보라. 유월절 포도즙은 건포도로도 만들 수 있었다(F. C. Gilbert, Practical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Israel for the Church of Today[Nashiville, TN : Southern Publ. Assn., 1972 ed.], pp. 240, 241).
8. 이러한 빛에서,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지칭하는 헬라어 **오이노스(oinos)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포도나무의 열매)"(막 14 : 25)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오이노스**는 발효되지 않은 것뿐 아니라 발효된 상태의 포도주를 모두를 지칭할 수 있지만 포도나무에서 난 것(포도나무의 열매)은 자신을 "참포도나무"(요 15 : 1)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적절한 상징인 순수한 즙을 지칭한다.
9. 효모(누룩)도 포도즙을 발효시킨다. 공기나 곤충을 통하여 쉽게 운반되어지는 누룩의 포자는 포도 껍질의 밀초 외피에 달라붙는다. 포도가 터졌을 때 그 포자들은 즙과 섞인다. 실내 온도에서 그 누룩 세포들은 급속히 번식하여 포도즙을 발효시킨다(Martin S. Peterson, Arnold H. Johnson, eds., Encyclopedia of Food Technology [Westport, CT. : Avi Publishing Co., 1974], vol. 2, pp. 61~69 : idem, Encyclopedia of Food Science [Westport, CT. : Avi Publishing Co., 1978], vol. 3, p. 878을 보라).
10. R. Rice, Reign of God, p. 303.
11.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 746.
12. White, The Desire of Ages, p. 656 ; p. 661 참조.
13. M. L. Andreasen, "The Ordinances of the Lord's House," Ministry, Jan. 1947, pp. 44, 46.
14. White, Evangelism (Washington, D.C. : Review and Herald, 1946), p. 273 참조.
15. 예컨대, Frank Holbrook, "For Members Only?" Ministry, Feb. 1987, p. 13을 보라.
16.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 765.
17. Ibid.
18. White, Evangelism, p. 274 ;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 765.
19. 성경은 성만찬 예식의 거행 빈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전 11 : 25,

26 참조). 재림교인들은 1년에 4차례 이 예식을 거행하는 많은 개신교인들의 관습을 따라왔다. 분기별 계획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초기 재림신도들은 그 예식을 더 빈번히 행하는 데는 형식주의의 위험과 그 예식의 엄숙성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너무 자주 거행하는 것과 1년 1차처럼 너무 긴 기간만에 거행하는 것 사이에 중용을 취하는 입장인 것 같다(W. E. Read, "Frequency of the Lord's Supper," Ministry, April 1955, p. 43).

제17장

영적 은사와 봉사의 직무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케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일에 특히 필요한 목회 사업과 복음전도 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인정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감화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 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게 된다.(롬 12:4~8; 고전 12:9~11, 27, 28; 엡 4:8, 11~16; 행 6:1~7; 딤전 3:1~13; 벧전 4:10, 11)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모든 만민에게? 제자들은 틀림없이 그것이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무력감을 감지하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보증하셨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오랫동안 그들이 품었었던 불화와 질투를 화목과 겸비가 대신했다. 제자들은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와의 그들의 밀접한 교통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연합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였다. 예수께서 성령의 특별한 기름부음을 받으심으로 봉사 사업을 행할 능력을 얻으신 것처럼(행 10:38) 제자들도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증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행 1:5). 그 결과는 엄청났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날에 그들은 3천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행 2:41 참조).

성령의 은사들

그리스도께서는 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예시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마 25:14, 15).

먼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은 하늘로 떠나신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그 사람의 "종들"은 그분의 추종자들로서 "값으로 산 것이"(고전 6:20) 된 자들 즉,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벧전 1:19)로 산 것이 된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봉사하도록 그들을 속량하셨으며 그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고후 5:15) 산다.

그분은 각 인의 능력에 따라 각기 재물을 주셨으며 "각각 사무를 맡"(막 13:34)기셨다. 다른 은사들과 재능들과 아울러(본서 21장 참조) 이 재물들

은 성령께서 나눠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표상한다.[1]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적 은사들을 오순절 때 그의 교회에 주셨다. 바울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와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엡 4:8, 7)다. 성령은 교회로 그 맡겨진 사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이 은사들을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고전 12:11) 나눠주시는 분이다.

영적 은사들의 목적

성령은 각 교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사 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는 데 조력할 수 있게 하신다.

교회 내에서의 조화. 고린도교회는 영적 은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전 1:4, 7). 불행히도 그들은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한 지에 대해 어린이들처럼 말다툼을 벌였다.

그들 교회의 분열을 염려한 바울은 (1) 이 은사들의 참본질에 관하여, 그것들이 (2)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는지에 대해 고린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낸다. 그는 영적 은사들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그것은 여러 가지 직임과 여러 가지 역사(役事)로 이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강조하였다(고전 12:4~6).

성령은 각 신자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들을 나눠주신다. 주의 사업의 필요가 성령께서 무엇을 나누어주실지를 결정한다.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전 12:11). 교회 내에서 은사의 작용에 대한 감사는 그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닌, 그 시여자에게 돌려져야 한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개인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자는 그 은사들을 자신의 사적 소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은사들을 나누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어떤 신자도 특별한 지위나 직무를 맡고 있다고 하여 거만 떨 권리가 없으며 비천한 직책을 할당받았다 하여 열등감을 느껴서도 안 된다.

1. 은사의 작용 모델.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의 조화를 예시하는 데 인체를 비유로 사용하였다. 신체에는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공헌하는 많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고전 12:18)다.

신체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에게 "나는 네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고전 12:22~24)신다.

어떤 기관의 고장도 전 신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체에 뇌가 없으면 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위가 없다면 뇌는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와같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듯한 어느 신자 하나가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고통을 당한다.

구조적으로 더 약한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사람은 손이나 발이 없어도 살 수 있으나 간, 심장 혹은 폐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는 보통 얼굴과 손은 노출시키지만 다른 부분들은 단정함 혹은 예절을 위해 옷으로 가린다. 열등한 은사들을 경시하기는커녕 교회의 건강이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로 그들을 취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몸 가운데서 분쟁"을 막고 조화와 상호 의존의 정신을 이루어내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도록 교회 안에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자 하셨다(25, 26절 참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26절). 그와같이 한 신자가 고통을 당하면 전 교회에 그것을 알려야 하며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에 조력해야 한다. 그 사람이 회복될 때에만 교회의 건강이 확보된다.

각 은사들의 가치를 논한 후 바울은 그것들을 다수 열거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사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28절; 엡 4:11 참조). 은사를 모두 다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그는 교회에 가장 유용한 그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모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31절)고 권하였다.[2]

2. 필수불가결한 차원.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은 그 자체로는 충분치 못하다. "가장 좋은 길"(31절)이 있다.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소멸되어 버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영원하다. 그것은 사랑, 화평, 양선 그리고 사랑이 가져다주는 의의 영원한 미덕으로 구성되었다(갈 5:22, 23; 엡 5:9).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은 사라질 것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3]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헬라어로 **아가페**, agape)은 자아를 희생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다(고전 13:4~8). 그것은 "더 높은 형태의 사랑이다. 그것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대상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랑, 감정이 아닌 원칙에 기초된 사랑, 그 대상의 바람직한 자질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4]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교회 내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길은 각 개인이 영적 은사들과 함께 이 전적으로 무아적인 사랑도 아울러 소유하는 것이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전 14:1)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삶.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도 영적 은사들에 관해 말했다. 그의 편지에서도 영적 은사들에 관해 말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각 신자들에게 요구하면서(롬 11:36~12:2), 바울은 또다시 교회에 함께 참여한 신자들을 특징짓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예시하기 위해 신체의 각 부분들을 사용했다(3~6).

믿음과 영적 은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그 근원이 있음을 인식하고 신자들은 겸비해야 한다. 신자에게 더 많은 은사들이 주어질수록, 그의 영적 영향력이 더 클수록, 하나님께 더욱 더 의존해야 한다.

이 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은사들을 나열했다. 예언(영감 받은 말씀, 선포), 섬기는 일(봉사), 가르치는 일, 권위(격려), 구제함(나누어줌), 다스림 그리고 긍휼(동정심), 고린도전서 12장에서처럼 그는 그의 논의를 그리스도교

의 가장 위대한 원칙인 사랑으로 끝맺는다(9절).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벧전 4:7)다는 배경에서 영적 은사의 주제들을 제시했다. 때의 긴박성은, 신자들이 은사들을 활용해야 할 것을 명령한다. 그는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10절)고 말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은사들은 자기를 영화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11절)이라고 가르쳤다. 그 또한 사랑을 은사와 연합시켰다(8절).

교회의 성장. 영적 은사들에 대한 그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논의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1~3)고 촉구했다.

영적 은사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연합을 조성하는 데 공헌한다. 각 신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엡 4:7)를 받았다.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은사들은 봉사를 목표로 하는 직무들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엡 4:11~13)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다.

영적 은사들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은사에 적합한 각종 형태의 봉사를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도록 교회를 육성시킨다.

이 직무들은 영적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거짓 교리들에 대한 교회의 방어를 강화시켜서 신자들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엡 4:14, 15)라게 될 것이다.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은사들은 교회의 연합과 번영을 가져다준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

우느니라"(엡 4:16). 교회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성장을 경험하도록 각 신자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은사들을 활용해야 한다.

그 결과로 교회는 이중의 성장, 즉 신도 수의 증가와 개인적인 영적 은사들의 증가를 경험한다. 다시, 사랑은 이러한 부르심의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 가운데서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이러한 덕목과 성장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은사들에 함축된 의미

공동 봉사. 성경은, 평신도가 교회 좌석에 앉아서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목회자만 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목회 교역자와 평신도 모두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인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한다. 함께 그들은 교회의 안녕과 번영에 책임이 있다. 그들은 각각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의 특별한 은사들에 따라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은사들의 다양함은 다양한 봉사를 유발시키며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세상으로 그들의 구주를 만날 준비를 하도록 증거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마 28:18~20; 계 14:6~12).

성직자의 역할. 영적 은사의 교리는 회중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목사의 어깨에 지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봉사를 위해 준비시키도록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임명하셨다. "목사들은 교회에 속한 일들을 자신이 다하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5]

훈련시키는 은사를 가지지 못한 목사들은 목회 봉사에 종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의 다른 부분에 종사해야 한다.[6]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도록 교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담임 목사의 열성과 능력에 달려 있다.

은사들과 사명.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받는 개인들이 아닌, 몸 전체에 유익을 주시려고 그것들을 주신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신을 위해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님과 같이 교회도 교회 자체만을 온갖 은사들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은사들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당신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함이다.

영적 은사들은 일을 잘 수행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도구들이다. 선천적 재능만을 영적 은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선천적 재능에 적합한 은사들을 주신다. 사람에게 성령으로 활기를 돋우는 데는 새로남이 필요된다. 우리는 영적 은사들을 부여받기 위해 거듭나야만 한다.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속의 연합. 모든 다른 신자들을 자신과 같이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영적 은사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은사들이 보완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진보는 각 신자에게 달려 있음을 지적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교회가 닦아 놓은 기초 위에 현재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교회 내의 모든 은사들과 직무들과 활동들이 모두 혼합되기를 의도하신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엡 2:21)간다.

은사들을 주신 목적인 복음 전도. 신자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 그것은 각자가 개별적인 직무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각 신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증거하고 믿음을 나누어주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각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유자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실패함. 자신이 소유한 영적 은사들을 활용하기를 거절하는 신자들은 그 은사들이 위축될 뿐 아니라 자신의 영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사랑의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종은 영원한 상급을 상실한, 참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엄숙하게 경고하셨다(마 25:26~30).[7] 불성실한 종은 그의 실패가 고의적이며 계획적이라고 솔직히 인정하였다. 그와 같이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하였다. "마지막 심판의 큰 날에 기회들을 피하

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조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대재판관에 의해 악을 행하는 자로 분류될 것이다."[8]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일

교인들이 교회의 사명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려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은사들을 이해해야 한다. 은사는 그 소유자를 봉사와 풍성한 생활을 누리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나침반 기능을 한다(요 10:10).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활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혹은 단순히 소홀히 할 때) 교회는 성취할 수 있었던 것보다 못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될 것이다."[9]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는 과정[10]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녀야 할 것이다.

영적인 준비. 사도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말을 할 수 있는 적합성을 달라고 열렬히 간구했다. 그들은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의견의 차이와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의욕을 다 버렸다. 죄의 고백과 회개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밀접히 교제하도록 인도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써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성령의 침례는 한 번 있고 말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11]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능력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굴복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우리의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약 1:5)

성경을 연구함. 영적 은사들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특정의 봉사를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봉사에 사용하도록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섭리의 인도하심을 위해 마음을 엶.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빌 2:13)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제시하는 어떤 방면의 봉사 사업에서 자원하여 일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실 기회를 드려야 한다. 그같이 우리는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의 필요에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달란트와 경험을 솔직히 알려야 한다.

교회로부터의 확인. 하나님께서 몸(교회)을 세우시기 위해 이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에 대한 최종적 확인은 우리 자신의 느낌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흔히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자신의 은사를 깨닫는 것이 훨씬 어렵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찾아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정하신 직위나 봉사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고무적이고 성취감을 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스도는 당신의 은사들을 나누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생애에서 그분의 은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White, Christ's Object Lessons, pp. 327, 328 참조. 우리는 초자연적인 재능과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재능을 항상 쉽게 구별할 수는 없다. 이 재능들은 자주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들 안에 함께 섞여 있다.
2. Richard Hammill, "Spiritual Gifts in the Church Today," Ministry, July, 1982, pp. 15, 16.
3.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

들은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요 1:17).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지만(갈 5:22),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일부의 신자에게만 나누어 주셨다는 의미에서의 영적 은사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따라 구"(고전 14:1)해야 한다.

4.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 778.
5. White, "Appeals for Our Missions," in Historical Sketches of the Foreign Miss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s(Basel, Switzerland:Imprimerie Polyglotte, 1886), p. 291. Rex D. Edwards, A New Frontier-Every Believer a Minister (Mountain View, CA:Pacific Press, 1979), pp. 58~73 참조.
6. J. David Newman, "Seminar in Spiritual Gifts," Unpublished MS, p. 3 참조.
7. 이러한 상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White, "Home Discipline," Review and Herald, June 13, 1882, p. [1]을 보라.
8.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5, p. 511.
9. Don Jacobsen, "What Spirtual Gifts Mean to Me," Adventist Review, December 25, 1986, p. 12.
10. Roy C. Naden, Discovering Your Spiritual Gifts(Berrien Springs, MI:Institute of Church Ministry, 1982) ;Mark A. Finley, The Way to Adventist Church Growth(Siloam Springs, AR:Concemed Communications, 1982) ;C. Peter Wagner, Your Spiritual Gifts Can Help Your Church Grow(Glendale, CA ;Regal Books, 1979)를 보라.
11. White, The Acts of the Apostles, p. 50 ;White, Counsels to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Mountain View, CA:Pacific Press, 1943), p. 131 참조.

제18장

예언의 선물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잇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에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욜 2:28, 29; 행 2:14~21; 히 1:1~3; 계 12:17, 19:10)

유다 왕 여호사밧은 비탄에 빠졌다. 원수의 군대가 접근해오고 있었고 전망은 절망적으로 보였다. "여호사밧이…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대하 20:3).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간청하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여호사밧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상황을 일변시켜 달라고 탄원했다. 그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대하 20:6)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해 주지 않으셨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셨던가? 그와 같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탄원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 하시나이까…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대하 20:12).

온 유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다. 그

의 기별은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두려워 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대하 20:15~17). 아침에 여호사밧 왕은 그의 군대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대하 20:20)고 말했다.[1]

이와 같이 이 왕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 야하시엘을 온전히 믿고 그의 군대의 최선봉에 여호와와 성결의 미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내세웠다. 믿음의 성가가 공중에 울려퍼질 때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침공하는 연합군들 가운데 대혼란을 일으키셨다. 살육이 매우 컸으므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대하 20:24)었다.

야하시엘은 바로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대변자였다.

선지자들은 신구약 시대 모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성경 정경의 완성과 더불어 예언의 기능은 끝나지 않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예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연구해 보자.

성서 시대의 예언적 선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없는 교신은 끝났지만(사 59:2) 하나님은 인류와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신의 방법을 개발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격려와 경고와 견책의 말씀을 보내기 시작하셨다.[2]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 그 내용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3]이다. 선지자들은 자진하여 예언하지는 않았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나비**(nabi)를 번역한 것이다. 그 의미는 출애굽기 7장 1, 2절에 표현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나비**)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게 하라. 바로와 모세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와 같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말을 바로에게 전달했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므로 **선지자**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임명하신 대변자를 가리킨다. 히브리어의 **나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페테스**(prophetes)이며, 그 단어로부터 영어의 **프로펫**(prophet, **선지자**)이 유래되었다.

히브리어 **로에**(roeh)[사 30:10] 혹은 **호제**(chozeh)(삼하 24:11; 왕하 17:13)를 번역한 말인 "선견자"(seer)는 예언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용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성경은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삼상 9:9)고 설명한다. 선견자라는 칭호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음**을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정보들을 선지자들의 "눈" 또는 마음에 공개하셨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선물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 대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히 1:1 참조).

신약에서의 예언적 선물의 기능. 신약은 성령의 선물들 가운데서 예언에 탁월한 위치를 부여한다. 예언은 교회에 가장 유용한 봉사들 가운데 한 번은 첫째로, 두 번은 둘째로 그 등급이 매겨졌다(롬 12:6; 고전 12:28; 엡 4:11 참조). 이 사실은 신자들에게 특별히 이 은사를 갈망하도록 격려해 준다(고전 14:1, 39).

신약은 선지자들의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시한다.[4]

1. 그들은 교회 설립에 조력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엡 2:20, 21)다.

2. 그들은 교회의 선교 활동을 주도했다. 성령께서 그들의 첫 선교 여행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시고(행 13:1, 2), 선교사들이 어느 곳에서 활약해야 할지에 대한 지시를 주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였다(행 16:6~10).

3. 그들은 교회의 덕을 세웠다. 바울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했다. 예언들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고전 14:4, 3)이다. 다른 선물들과 함께, 하나님은 신자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엡 4:12)게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

4. 그들은 교회를 연합시키고 보호했다. 선지자들은 "믿음의 일치"를 이룩해 주었으며 거짓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어 신자들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엡 4:13, 14)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5. 그들은 미래의 어려운 때에 대해 경고하였다. 한 신약 선지자는 다가오는 기근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 경고에 호응하여 교회는 그 기근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구호 계획을 시작하였다(행 11:27~30). 다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체포와 투옥에 대해 경고하였다(행 20:23, 21:4, 10~14).

6. 그들은 논쟁의 때에 신앙을 확립시켜 주었다. 첫 교회 총회 때 성령께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다루는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교회를 지도하셨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은 참 교리를 신자들에게 재확인시키셨다. 교인들에게 총회의 결정을 통보한 후 "선지자"였던 "유다와 실라(는)…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행 15:32)였다.

마지막 때의 예언적 선물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언의 은사가 사도시대의 종결과 더불어 끝났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의 위기 동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그것은 신약시대 이후에 예언적 은사에 대한 계속적인 필요와 그 은사를 마련해 놓았음을 증언한다.

영적 선물들의 연속성.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 즉 바울이 지적한 대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엡 4:13)게 하는 영적 은사들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기 이전에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리라는 아무런 성서적 증거가 없다. 교회가 아직 이 경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성령의 모든 은사가 필요하다. 예언의 은사를 포함하여 이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작용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치 말"(살전 5:19, 20)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전 14:1)고 권면했다.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항상 풍부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5] 사도들이 죽은 후 선지자들은 서기 300년까지는 많은 집단에서 존경을 받았다.[6] 그러나 교회의 영성의 쇠퇴와 그 결과로써 생긴 배도(본서 13장 참조)로 인해 성령의 임재와 은사들 모두가 점점 감소되었다.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예언의 선물에 대한 신뢰심이 상실되었다.[7]

교회사의 어느 특정 시기에 예언의 선물이 쇠퇴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영구적으로 거두어 들이셨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 때, 이 은사가 나타나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교회를 돕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경은 그뿐 아니라 이 은사의 활동이 증가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예언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선포하도록 침례 요한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인이 구주를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재림을 선포하도록 다시 예언의 선물을 보내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징조의 하나로 거짓 선지자들의 일어남을 언급하신다(마 24:11, 24). 마지막 때 동안 참선지자가 전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물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그분의 경고는 또한 참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선지자 요엘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예언의 선물이 특별히 부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욜 2:28~31).

첫 오순절 때 성령의 현저한 나타나심이 있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복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행 2:2~21). 그러나 우리는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 때 그 최종적인 성취를 보았는지 혹은 또 다른, 더 완전한 성취가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것인지 질문할 수 있다. 우리는 요엘이 말한 바 해, 달에 나타날 현상이 오순절 성령 부어주심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를 밝혀 주는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현상들은 많은 세기가 지난 후에야 발생했다(본서 25장 참조).

그러므로 오순절은 재림 전에 있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맛보기인 것이다. 곡식을 심은 지 얼마 안 있어 가을에 내린 팔레스틴의 이른비처럼 오순절 때에 성령의 부어주심은 성령의 시대를 열었다. 요엘의 예언의 완전한, 최종적인 성취는 봄에 내려 곡식을 익게 한 늦은비에 해당한다(욜 2:23).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최종적 부어주심은 해, 달, 별에 관하여 예언된 징조들이 성취된 후 재림 직전에 발생할 것이다(마 24:29; 계 6:12~17; 욜 2:31 참조). 늦은비와 같이 이 성령의 마지막 부어주심은 지상의 곡식을 익게 할 것이며(마 13:30, 39),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욜 2:32).

남은교회 가운데 있는 예언의 선물. 요한계시록 12장은 두 주요 박해 기간을 드러낸다. 서기 538~1798년까지 미친 첫 박해 기간(계 12:6, 14; 본서 13장 참조)에 충성된 신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다시 재림 직전에 사탄은 "그 여자의 남은자손", 곧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남은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남은교회를 구성할 충성된 신자들의 특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계 12:17)로 묘사한다.

"예수의 증거"라는 구절이 예언적 계시를 언급한 것임은 천사와 요한 사이의 뒤이은 대화를 볼 때 분명해진다.[8]

그 책의 끝부분 가까이에서 천사는 자신을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계 19:10),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함께 된 종"(계 22:9)이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힌다. 이 평행 구절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준다.[9] 이것은 "예수

의 증언은 예언의 영(예언의 신, 구역)"(계 19:10)이라는 천사의 진술을 설명해 준다.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제임스 모팻(James Moffatt)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예수의(즉, 예수가 전달한) 증거 혹은 증언은 예언의 영(예언의 신)이다(을 구성한다).' 이것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형제들이 예언적 영감의 소유자들임을 특별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예수의 증거는 증거하시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같은 뜻이다(계 22:20). 그리스도인 선지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계 1:1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기인하는)이다.[10]

그러므로 **대언의 영**이라는 표현은 (1)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성령, (2) 예언의 선물의 활동, (3) 예언 자체의 매개를 지칭할 수 있다.

예언의 선물, 즉 "예언의 매개를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증거"[11]는 남은교회의 독특한 특징이다. 예레미야는 이 선물의 종식(終息)을 불법과 연결시켰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애 2:9).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교회의 독특한 특징은 이 두 가지를 소유한 것이라고 확인한다.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계 12:17) 곧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조직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 시의 "교회"에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행 7:38).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호 12:13) 하셨다. 그러므로 궁극적 출애굽, 즉 죄로 오염된 혹성으로부터 하늘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일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선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 된다. 재림에 뒤따를 이 출애굽(탈출)은 이사야 11장 11절의 최종적인, 완전한 성취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백성을…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최후의 위기 때의 도움. 성경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이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단말마적으로 발악할 때 악마적인 용의 권세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계 12:17). 이때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단 12:1)이다. 각 시대의 쟁투 중 가장 극심한 이 환난에서 살아남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홀로 있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셨다.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예언의 신)은 그들의 최종 목적 즉 재림 때 그들의 구주와의 연합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다음의 예증은 성경 시대와 성경 시대 이후의 예언의 선물의 역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항해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선주는 우리에게 안내 책자를 주면서 그 속에는 전체 항해에 충분한 안내 사항이 실려 있으며, 그것에 유의하면 목적하는 항구에 무사히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 그 책을 펼친다. 우리는 그 저자가 항법에 관한 일반 원칙들을 제시하고, 마지막 때까지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 뜻하지 않은 사고를 예상하여 가능한 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의 여행의 후반부가 특별히 위험할 것과 해변의 모습들은 유사(流砂)와 폭풍우로 말미암아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는 '그러나 이때의 항해를 위해 나는 한 항해사를 마련해 놓았다. 그는 그때에 주위 환경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시를 그대들에게 줄 것이다. 그대들은 그의 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후 우리는 선주가 말한 위험의 때에 도달한다. 약속된 대로 그 항해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근무를 시작할 때 몇몇 선원들이 그에게 반기를 든다. '우리는 안내서 원본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오직 그것만 따르면 되니 그 이상은 필요 없소.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제 그 안내서 원본에 유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키잡이를 배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책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그대들이 판단해 보라."[12]

성경 시대 이후의 예언자들과 성경

성경 그 자체가 예언의 선물의 산물이다. 성경 시대 이후에 그것은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의 정경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예언의 선물은 사도 시대에서처럼 마지막 때에도 기능을 발휘한다. 그 선물의 취지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기초로 높이고 그 가르침들을 설명하고

그 원칙들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관여되어 있으며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예언의 선물은 개인과 교회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지도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치된 성경 진리들을 믿게 해준다.

성서 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은 나단, 갓, 아삽, 스마야, 아사랴, 엘리에셀, 아히야 그리고 오벳, 미리암, 드보라, 훌다, 시므온, 침례 요한, 아가보, 실라, 안나, 빌립의 네 딸 등 성서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증언이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선지자들과 많은 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행한다. 그들의 저술들이 성경에 수록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이 남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들의 기별은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와 모순되지 않는다.

예언의 선물을 시험함.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시험해야 한다.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0~22; 요일 4:1 참조)고 말했다.

성경은 참예언의 선물과 가짜를 분간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해 준다.

1. 그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사 8:20)리라. 이 구절은 여하한 선지자도 그의 기별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 전반의 증언들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나중에 나온 선지자는 이전의 선지자들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은 앞서 주신 당신의 증언을 결코 모순되게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약 1:17)기 때문이다.

2. 예언이 성취되는가?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

지니라"(신 18:21, 22; 렘 28:9 참조). 미래에 대한 예언이 비교적 예언적 기별의 적은 부분을 형성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확히 성취되어야 한다.

3.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정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일 4:2, 3)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참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 그의 처녀 탄생, 참인성, 죄 없는 생애, 속죄의 희생, 부활, 승천, 중보의 봉사 그리고 재림을 믿어야 한다.

4. 그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나쁜 열매를 맺는가? 예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때 이르러 온다(벧후 1:21).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식별해 낼 수 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8~20)고 말씀하셨다.

이 권면은 선지자라는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다. 그것은 먼저 선지자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말한다. 선지자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약 5:17)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지자의 생애는 육신의 행위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특징지어져야 한다(갈 5:19~23).

둘째로, 이 원칙은 다른 이들에게 끼친 선지자들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의 생애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그들의 기별은 사명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의 믿음의 일치를 가져왔는가(엡 4:12~16).

예언의 선물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성경적 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가 이 표준에 맞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내에서의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창설자의 한 사람인 엘렌 G. 화잇(Ellen G. White)의 봉사 활동 가운데 나타났다. 화잇 여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감받은 교훈을 주었다. 엘렌 화잇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기 시작했던 19세기 초의 세계는 남성들의 세계였다. 예언자적 소명을 받자 그녀는 비평적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성서적 시험을 통과한 그녀는 자신의 영적인 선물들을 통하여 70년간 봉사 활동을 했다. 17세 때인 1844년부터 1915년에 운명할 때까지 그녀는 2,000번 이상 계시를 받았다. 그 기간 그녀는 미국, 유럽 그리고 호주에서 살면서 일하고, 상담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립시키고 전도하고 저술했다.

엘렌 화잇은 여선지자라는 직함을 결코 쓴 적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그녀를 그 직함으로 불렀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의 청년 시절에 '당신은 선지자입니까?'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때마다 '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많은 사람이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런 직함을 주장해 본 적이 없다 … 왜 내가 선지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이 시대에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업에 치욕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며, 나의 사업은 '선지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여선지자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칭호로 부른다면, 나는 그들과 아무런 논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사업은 너무도 많은 방면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나는 자신을 사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13]

예언을 시험하는 시금석을 적용함. 엘렌 화잇의 봉사 활동은 선지자를 시험하는 성경의 시금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1. 성경과의 일치. 그녀의 풍부한 저술들은 자주 상세한 강해가 곁들여진 수만 개의 성경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녀의 저술들을 세심히 연구해 본 결과, 그의 저술들은 한결같으며 정확하고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 예언의 정확성. 엘렌 화잇의 저술들은 비교적 적은 수의 예언을 담고 있다. 어떤 것은 성취되는 중에 있으며 다른 것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그녀의 예언적 통찰을 입증해 주는 두 실례를 들어본다.

1) 현대 심령주의(강신술)의 출현. 영계와 사자(死者)와의 교통을 주장하

는 운동인 강신술이 출현한 직후인 1850년 엘렌 화잇은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한 기만임을 간파했으며 그 운동이 성장할 것을 예언했다. 그 당시 그 운동은 결정적으로 반그리스도교적이었지만 그녀는 이러한 적대감이 변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것이 존중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14] 그때 이래로 강신술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수백만 명의 신봉자를 얻었다. 그것의 반그리스도교적 자세는 변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 심령주의자라고 부르며 그들은 참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심령주의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선물들을 활용하고 있는 유일의 독실한 신자들로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병자를 고치며 의식(意識)이 있고 점점 더 향상하는 사후(死後)의 삶이 있음을 증명한다."[15]고 주장한다. 그들은 심지어 심령술(강신술)은 "그대들에게 모든 위대한 종교 조직체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더욱이 그대들에게 모든 주석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준다. 성경은 하나의 강신술 책이다."[16]라고 주장한다.

2)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밀접한 협동. 엘렌 화잇의 생전에는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어떤 협동도 차단하는 듯이 보이는 큰 구렁이 놓여 있었다. 반가톨릭주의가 개신교회들 가운데 맹위를 떨쳤다. 그녀는 개신교 내의 주요 변화들이 종교 개혁의 신앙으로부터 그들을 이탈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결과로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차이점은 점점 줄어들어 둘을 분리시키고 있는 심연에 다리를 놓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17]

그녀의 사후에 종교 연합 운동이 일어나고 기독교 세계 공의회(W.C.C)가 설립되었으며, 가톨릭은 제2회 바티칸 공회(Vatican II)를 개최했고 예언적 해석에 대한 종교 개혁 사상에 대한 개신교회의 무지 내지는 공공연한 배척이 일어났다.[18] 이 주요 변화들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장벽들을 허물어 버렸으며, 점점 더 둘 사이의 협동은 증가되고 있다.

3.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인정. 엘렌 화잇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광범위한 저술을 남겼다. 주님과 구세주로서의 그의 역할, 그의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희생 그리고 현재까지의 중보의 봉사 등이 그녀의 저술의 가장 큰 주제들이었다. 그녀의 책 "시대의 소망"(The Desire of Ages)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영적인 책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정로의 계단"(Steps to Christ)은 그의 책 중 가장 광범위하게 배포되었으며 수백만의 사람을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였다.

그의 저술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이신 분, 참으로 인간이신 분으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녀의 균형 잡힌 강해는 성서적 견해와 전적으로 일치하며 기독교 전 역사에 걸쳐 수많은 논쟁들을 유발시켰던 문제인,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어느 한 본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세심하게 피하였다.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대한 그녀의 전반적인 취급은 매우 실제적이었다. 어떤 국면을 다루든지 간에 그녀의 주요 관심사는 독자들을 구주와 더 밀접한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4. 그녀의 봉사가 끼친 영향. 엘렌 화잇이 예언의 선물을 받은 지 1세기 이상이 흘러갔다. 그녀의 교회와, 그녀의 가르침에 유의했던 사람들의 생애는 그녀의 생애와 기별이 끼친 영향을 드러낸다.

"그녀는 결코 공식적 직분을 차지한 적도 없었고,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었고, 남편이 죽기까지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영향은 성경을 빼놓고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도 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꼴지웠다."[19] 그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개신교 선교 조직체의 하나로 만든 교회의 출판 사업, 교육 사업, 의료 선교 사업, 전 세계 선교 운동의 설립 배후에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80권의 책과 200권의 소책자와 팸플릿 그리고 4,600쪽에 달하는 정기 간행물 기사를 저술했다. 설교들, 일기, 특별 증언, 서신들은 또 다른 6,000쪽에 달하는 원고 재료를 구성한다.

이 저술들이 취급하고 있는 영역은 놀라울 정도이다. 엘렌 화잇의 전문적 지도는 몇몇 좁은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다. 주님은 그에게 건강, 교육, 가족생활, 절제, 복음 전도, 출판 사업, 올바른 식사, 의료 사업 그리고 많은 다른 분야에 관한 권면을 주셨다. 아마도 건강 분야에 관한 그녀의 저술은 가장 놀라운 것일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은 1세기 이전에 주어진 건강 문제에 대한 그녀의 통찰이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저술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높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고수한다.

그녀의 저술들 중 많은 것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또한 많은 부분들이 재림교회 밖의 더 광범위한 청중들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그녀의 인기 있는 책 "정로의 계단"은 1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800만 권 이상이 보급되었다. 그녀의 최대의 저술은 죄

의 시작부터 죄가 우주에서 뿌리 뽑히는 때까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를 상술하고 있는, 5권으로 된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로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개인에게 끼친 그녀의 저술의 영향은 지대하다. 최근에 앤드루스 대학교 교회 전도 연구소는 그녀의 책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재림교인들의 그리스도인적 태도와 행동을 비교 연구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 그녀의 저술들이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그들의 영적 은사들을 더 잘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공중 전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찬성하고 지역 선교 복음화 계획에 더욱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들은 전도하는 일을 위해 더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며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일과 외방 선교 계획에 더 많이 참여한다. 그들은 더욱더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특정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친교 모임에 참석하고 매일 가족 예배를 잘 드린다. 그들은 교회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20]

예언의 신과 성경. 엘렌 화잇의 저술들은 성경의 대체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일 수 없다. 그것은 성경과 견줄 수 없다. 성경은 그것에 의해 그녀의 모든 저술들과 다른 모든 저술이 판단을 받고 그것에 종속되어야 하는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1. 최고의 표준인 성경.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성경이 그 자체의 해석자이며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초라는 종교개혁의 원칙, 즉 **오직 성경만이**(Sola Scriptura)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재림교회의 창시자들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 기본 신조들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엘렌 화잇의 이상을 통해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교리들의 발전기 동안 그녀의 주요 역할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제공하고 성경 연구를 통해서 도달한 결론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었다.[21]

엘렌 G. 화잇 자신이 몸소 성경이 교회의 최종적 규범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1851년에 출판된 그녀의 첫 책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추천합니다."[22]

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견해를 결코 바꾸지 않았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23] 1909년 본교회 대총회에서 행한 그녀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녀는 성경을 펴서 회중 앞에 높이 치켜들면서 "형제 자매들이시여, 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24]라고 말했다.

자신의 저술을 성경의 일부로 간주하는 신자들에 대하여 그녀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는 귀한 성경책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여러 권의 **교회증언**으로 그 주위를 둘렀다.…그대들은 성경에 정통하지 못하다.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인 완전에 도달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더라면, 그대들은 **증언들**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언의 말씀으로 그대들에게 접근하셔서, 그대들의 관심을 그대들이 순종하기를 소홀히 해온 영감의 말씀으로 돌리고 성경의 순결하고 고상한 가르침에 일치하게 그대의 생애를 형성시키도록 촉구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그대들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책 성경에 정통하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25]

2. 성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백성들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성경에 별반 유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빛을 통해 남녀들을 더 큰 빛으로 인도하게 하셨다."[26]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어두워진 사람의 정신도 일깨우기에 충분하며 그것을 이해하려는 소망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능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과제로 삼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은 성경의 가장 명확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남녀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명백하고 솔직한 증언들을 주셔서 그들이 따르기를 소홀히 해왔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신다."[27]

3.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안내자. 엘렌 화잇은 그의 저술을 성경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간주했다. "부가적인 진리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언들을 통하여 이미 주어진 진리들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셨고 모든 사람이 핑계치 못하도록 당신께서 선택하신 방

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시기 위해 그것들을 그들 앞에 내놓으셨다." "기록된 증언들은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들을 마음에 생생하게 새기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28]

4. 성경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안내자. 그의 저술의 많은 부분은 성경의 권면들을 일상 생활에 적용시킨다. 엘렌 화잇은, 자신은 "연설이나 저술을 통해 일반적 원칙들을 이끌어내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동시에, 모든 사람이 경고와 책망과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개인들의 위험이나 오류나 죄들을 상술하도록 지시를 받았다."[29]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에 이러한 예언적 인도를 약속하셨다. 엘렌 화잇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사실이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지도를 불필요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 주고,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해 주기 위함이었다."[30]고 기록하였다.

신자들에 대한 도전. "예수의 증거"가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언의 신"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무관심이나 불신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명령하는 탐구를 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많은 것을 얻느냐 잃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다. 여호사밧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대하 20:20)고 말했다. 그의 말은 오늘날도 여전히 진리이다.

참고 문헌

1. Italics Supplied.
2. 여선지자들에 대한 성서의 예를 찾으려면 출 15:20; 삿 4:4; 왕하 22:14; 눅 2:36; 행 21:9을 보라.
3. Frank B. Holbrook, "The Bible Basis For a Modern Prophet," p. 1(Shelf document, Ellen G. White Estate Inc.,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6840 Eastern-Ave. NW, Washington, D.C. 20012). Cf. Jemison, A

Prophet Among You(Mountain View, CA : Pacific Press, 1955), pp. 52~55 참조.

4. Holbrook, "Modern Prophet," pp. 3~5를 보라.
5. 불행히도 그리스도교 시대 전체에 걸쳐 발생한 일들에 대한 완전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6. Gerhard Friedrich, "Prophets and Prophecies in the New Testament"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6, p. 859.
7. Friedrich, pp. 860, 861 참조.
8.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은 목적격적 소유격이 아닌 주격적 소유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1) 예수에 관한(목적격적 소유격) 증거(증언)=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관해 증거하는 것.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는 자' (RSV), (2) 예수로부터 온 혹은 예수에 의한(주격적 소유격) 증거(증언)+예수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기별.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이 사용된 용례의 증거들을 취합해 볼 때 그것은 주격적 소유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즉, 예수로부터 온 혹은 예수에 의해 주어진 기별) 그리고 이 증거가 예언적 계시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Holbrook, "Modern Prophet" p. 7). 그 증거 중 하나로 홀브루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인용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러한 문맥에서 '예수의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혹은 예수님에 의해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를 지칭한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이러한 증거/증언을 기록한다. 두 소유격 표현 모두 주격적 소유격의 문맥에서 가장 뜻이 잘 통하며 그 책에 있는 그리스도의 끝맺음 말씀과도 일치한다. '**이것들을 증거(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22 : 20) (ibid, pp. 7, 8).
9. SDA Bible Commmentary, rev. ed., vol. 7. p. 812 ; T. H. Blincoe, "The Prophets Were Until John," Ministry, Supplement, July 1977, p. 24 L ; Holbrook, " Modern Prophet," p. 8을 보라.
10. James Moffatt in Expositor's Greek Testament, ed., W. Robertson Nicoll, vol. 5, p. 465.
11. "Spirit of Prophecy," SDA Bible Encyclopedia, rev. ed., p. 1412. 바울은,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확증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전 1 : 6, 7).
12. Uriah Smith, "Do We Discard the Bible by Endorsing the Visions?" Review and Herald, Jan. 13, 1863, p. 52. 1977년 12월 1일자 Review and Herald 지에 인용됨.
13. White, "A Messenger," Review and Herld, July 26, 1906, p. 8. "하나님의 사자"라는 직함은 영감에 의해 그녀에게 주어졌다(ibid).
14. White, Early Writings, p, 59.
15. J. M. Peebles, "The Word Spiritualism Misunderstood," in Centennial Book of Modern Spiritualism in America(Chicago, IL : National Spiritualist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48), p. 34.

16. B. F. Austin, "A Few Helpful Thoughts," Centennial Books of Modern Spiritualism, p. 44.
17. White, 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Mountain View, CA : Pacific Press, 1950), pp. 571, 588.
18. 종교 개혁 시대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개신교에 풍미했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에 대한 역사주의 견해를 참조하려면,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s. 2~4를 보라. 또한 본서 12장도 참조하라.
19. Richard Hammill, "Spiritual Gifts in the Church Today," Ministry, July 1982, p. 17.
20. Roger L. Dudley and Des Cummings, Jr., "A Comparison of the Christian Attitudes and Behaviors Between Those Adventist Church Members woh Regularly Read Ellen White Books and Those who Do Not," 1982, pp. 41, 42. A research report of the Institute of Church Ministry, Andrews University, Berrien Springs, Michigan. 이 연구는 미국의 193개 교회에 출석하는 8,2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조사했다.
21. Jemison, Prophet Among You, pp. 208~210 ; Froom, Movement of Destiny (Washington. D.C. : Review and Herald, 1971), pp. 91~132 ; Dam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pp. 103~293.
22. White, Early Writings, p. 78.
23.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 vii.
24. William A. Spicer, The Spirit of Prophecy in the Advent Movement(Washington, D.C. : Review and Herald, 1937), p. 30.
25. White, Testimonies, vol. 5, pp. 664, 665.
26. White, "An Open Letter," Review and Herald, Jan. 20, 1903, p. 15 in White, Colporteur Ministry(Mountain View, CA : Pacific Press, 1953), p. 125.
27. White, Testimonies, vol. 5, p. 663.
28. Ibid, p. 665.
29. Ibid, p. 660.
30.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 vii.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예시되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이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하며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계발시켜 주며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힘있게 해 준다.(출 20:1~17; 시 40:7, 8; 마 22:36~40; 신 28:1~14; 마 5:17~20; 히 8:8~10; 요 15:7~10; 엡 2:8~10; 요일 5:3; 롬 8:3, 4; 시 19:7~14)

모든 사람의 시선이 산(山)에 집중되었다. 산꼭대기는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으며, 구름은 더욱 짙어지면서 산 아래로 내려와 마침내 온 산을 신비 속에 감싸이게 했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치며 천둥소리는 계속해서

울려났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출 19 : 18, 19).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같은 장엄한 계시는 너무도 엄청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떨었다.

갑자기 천둥과 나팔소리가 그치고 두려운 적막에 휩싸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산에 서셨을 때 당신을 두른 짙은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깊은 사랑에 감동되어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모세는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신 33 : 2, 3).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당신 자신을 위엄 있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구속주로 나타내셨다(출 20 : 2).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 저희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전 12 : 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

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3~17).

율법의 본질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자의 성품을 반영. 성경은 그분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시 19:7, 8).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롬 7:12).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시 119:151, 152). 참으로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시 119:172)롭다.

도덕적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행동 양식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와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는 것을 죄라고 부른다(요일 3:4).

신령한 율법. "율법은 신령"(롬 7:14)하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요 15:4; 갈 5:22, 23).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다(행 1:8; 시 51:

10~12).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이 될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받게 된다(요 15:5).

인간의 법은 명백한 범행에 대해서만 논하나, 십계명은 "심히 넓"(시 119:96)어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욕망과 질투, 시기, 욕정 및 야심과 같은 정서까지 취급한다. 산상보훈에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이 같은 신령한 차원을 강조하시고 범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나타내셨다(마 5:21, 22, 27, 28; 막 7:21~23).

긍정적인 율법. 십계명은 짤막한 일련의 금지 조항을 나타내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원대한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뿐 아니라 해야 할 일까지 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악한 행동과 생각들을 삼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을 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적인 금지 조항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 계명은 "생명을 증진시킬지니라"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리와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더 심원(深遠)한 의미에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복음은 여섯째 계명에 구현되어 있는 긍정적인 원칙에 기초되어 있다."[1]

십계명은 "자비의 측면보다 금지의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 십계명의 금지 사항들은 순종할 경우 행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줄 품성의 순결을 이루어준다. 그것은 순종할 때에 보호벽이 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의의 불변하는 원칙들을 인간에게 계시하심으로 그들을 범법의 결과인 악으로부터 지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2]

단순한 율법. 십계명은 심오하면서도 단순하게 이해된다. 그것들은 너무도 간단해서 아이일지라도 재빨리 암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포괄적이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망라한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모호한 점이 없다. 모든 사람은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저능한 자라도 이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무지한 자라도 생활을 조절함으로 거룩한 표준을 좇아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3]

원칙적인 율법. 십계명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모든 올바른 원칙들의 요약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고 말한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십계명–열 가지 말 또는 십계명(출 34:28)–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위에 기록하신 두 돌판에 나타나 있다(신 4:13). 처음 네 계명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4]

이 같은 이중 구분은 하나님의 왕국이 그것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두 가지 큰 기본 원칙에서 유래한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 10:27; 신 6:4, 5; 레 19:18 참조). 이 원칙들을 따라 사는 자들은 십계명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이 원칙들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계명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지시한다.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한다.[5] 셋째 계명은 불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거짓 맹세함을 금한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의 준수를 촉구하며 참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인정한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이 당신의 계시된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들인 그들의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신 4:6~9, 6:1~7 참조). 여섯째 계명은 생명을 신성한 것으로 보호한다. 일곱째 계명은 순결을 요구하며 결혼 관계를 보호한다. 여덟째 계명은 재산을 보호한다. 아홉째 계명은 진실을 수호하며 위증을 금한다. 그리고 열째 계명은 타인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말도록 함으로써 모든 인간 관계의 핵심에 이른다.[6]

독특한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신 5:22).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인간의 잊기 쉬운 정신에 맡기지 않고, 당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새기셔서 성막

의 증거궤 안에 두어 보존하게 하셨다(출 31:18; 신 10: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에 대한 그들의 관계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상술하는 부가적인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 부가적인 율법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의 민사 업무(민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다른 것들은 성소 봉사의 의식들(의식법)을 규정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이 부가적인 율법들을 백성에게 전달하셨으며, 모세는 그것들을 "율법책"에 기록하여 "언약 궤 곁"(신 31:25, 26)에 두되,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인 십계명의 경우처럼 언약궤 안에 두지는 않았다. 이 부가적인 율법들은 "모세의 율법책"(수 8:31; 느 8:1; 대하 25:4), 또는 단순히 "모세의 율법"(왕하 23:25; 대하 23:18)으로 알려졌다.[7]

즐거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에게 활력소가 된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을 때에라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라고 하였다(시 119:97, 127, 143).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일 5:3)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율법을 괴로운 멍에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죄 된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롬 8:7) 없기 때문이다.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제공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당신과 구원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에 언급한 특별한 목적들을 주목하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의 표현으로써, 십계명은 인간을 위한 그분이 뜻과 목적을 계시한다.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약 2:10)기 때문이다. 생애의 법칙인 율법에의 순종은 우

리의 구원에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 19:17)고 말씀하셨다. 이 같은 순종은 오직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이다. 모세는 십계명을 다른 설명적인 율법들과 함께 언약서라고 불리워지는 책에다 기록하였다(출 20:1~24:8).[8] 나중에 그는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영원한 언약의 기초로서의 율법의 중요성을 지적해 준다(신 9:9, 4:13 참조. 언약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면, 본서 7장을 참조하라).

심판의 표준이 된다. 하나님처럼, 그분의 "모든 계명이 의"(시 119:172)롭다. 그런고로 율법은 의의 표준을 제시한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전 12:13, 14; 약 2:12 참조).

인간의 양심은 변한다. 어떤 양심들은 "약하"고, 다른 양심들은 "더럽"고 "악하"며 "화인(火印) 맞"았다(고전 8:7, 12; 딛 1:15; 히 10:22; 딤전 4:2). 시계처럼, 그것들이 아무리 잘 작동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표준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양심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이 올바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대한 표준–그분의 율법–에 맞추어져 있는 양심만이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9]

죄를 지적한다. 사람들은 십계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그들 자신의 죄도, 회개해야 할 필요성도 정확하게 볼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상태도,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보혈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율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상태를 볼 수 있도록 거울과 같은 구실을 한다(약 1:23~25). 그것을 들여다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품성에 비추

어 자신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율법은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롬 3:19)이므로 그분께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나타낸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롬 3:20)음은 "죄는 불법이"(요일 3:4)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롬 7:7)리라고 말했다.

죄인들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으며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것은 그들로 자신들이 전적으로 무력함을 깨닫게 한다.

회개케 하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시 19:7). 우리가 자신의 참품성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죄인이며 죽음의 대열에 서 있는 소망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때, 복음의 좋은 소식은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지적해 준다.[10] 바울은 이 같은 빛 가운데서 도덕적인 율법과 의문(儀文)의 율법 둘 다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갈 3:24)라고 언급하였다.[11]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반면에,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물이 더러운 얼굴을 깨끗게 하는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발견한 다음에는 "죄와 더러움"(슥 13:1)을 씻도록 열려 있는 샘으로 가서 "어린양의 피"(계 7:14)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짐에 눌려 죽어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범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우리에게) 보여 주신다."[12]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소망이 가득 차게 되며,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요 3:16) 우리 구주께 손을 내뻗는다.

참된 자유를 제공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 8:34)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러나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보장해 준다.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죄에 수반되는 것, 즉 계속적인 근심, 양심의 가책 및 생애의 활력을 시들게 하는 점증되는 죄의식과 후회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의미한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시 119:45)라고 말하였다. 야고보는 십계명을 "최고의 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약 2:8, 1:25)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가 이 같은 자유를 얻도록, 예수께서는 죄의 짐을 진 채 당신께 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들 대신에 메기 쉬운 당신의 멍에(마 11:29, 30)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멍에 자체는 율법이다. 곧 "에덴에서 계시되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을 통하여 심령에 기록된 위대한 사랑의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맨다."[13]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멜 때, 그분은 무거운 짐을 져주시며 순종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일에 성공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율법은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우리는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므로 자유롭게 된다.

만일 율법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 없이 제시된다면, 죄로부터의 자유란 없다. 그러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후 3:17)기 때문이다.

악을 방지하며 축복들을 가져다준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범죄와 폭력과 부도덕과 사악의 증가는 십계명을 무시한 결과이다.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를 방지하며 올바른 행위를 촉진하고,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된다. 그들의 법에 십계명의 원칙들을 포함시킨 나라들은 큰 축복을 경험하였다. 한편, 그 원칙들을 무시하게 되면 꾸준한 쇠퇴를 초래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순종에 비례하여 국가와 개인들을 축복하셨다. 성경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잠 14:34, 16:12)고 말한다. 하

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재난을 당하였다(시 89:31, 32).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잠 3:33; 레 26장; 신 28장 참조). 그 동일한 원칙은 오늘날도 동일하다.[14]

율법의 영속성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일시적이거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인간에게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 수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속적인 효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의 영속성을 굳건히 지지하였다.[15]

시내산 이전의 율법.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오래전에 존재하였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내산 이전에는 아무런 죄도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죄는 불법"(요일 3:4)이기 때문이다.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은 창조 이전일지라도 율법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벧후 2:4).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도덕적인 원칙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셔서 그들이 당신의 뜻을 당연히 행하도록 하셨다. 그들의 범죄는 인간 가족에게 죄를 가져왔다(롬 5:12).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창 26:4, 5)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이전에 하나님의 율례와 그분의 율법을 가르쳤다(출 16장, 18:16). 창세기를 연구하면 십계명이 시내산 이전에도 잘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 준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그것이 금하는 행동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한다.[16] 도덕적인 율법에 대한 이 같은 일반적인 이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신 것이 틀림없음을 보여 준다.

시내산에서의 율법. 참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라(출 5:2)인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과 도덕적인 원칙들에 대한 이해력을 많이 상실하였다. 그들의 노예 신분은 예배드리는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시 105:43~45) 할 나라로 인도해 들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쇠 풀무불"(신 4:20)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이 해방된 다음에, 그분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정부의 표준이 되는 도덕적인 율법과 구원의 길은 구주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의문(儀文)의 율법을 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분명하고 단순한 용어로 된 율법을 직접 주셨는데, 이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갈 3:19), "죄로 심히 죄되게 하"(롬 7:13)시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에 예리하게 초점을 맞춤으로써만 그들의 범과를 인식하고 무력함을 깨달으며 구원의 필요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리스도 재림 전의 율법.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탄의 공격의 표적이며 그것에 대항하는 그의 싸움은 재림 직전에 그 절정에 달할 것임을 밝혀 준다. 예언은 사탄이 무수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지적한다(계 12:9). "짐승"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므로, 그는 세상의 이목을 하나님 대신에 짐승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계 13:3; 이러한 예언에 대해 더 알고자 하면 본서 13장을 참조하라).

1. 공격받고 있는 율법. 다니엘서 7장은 이 동일한 세력을 작은 뿔로 묘사한다. 이 장은 네 큰 짐승에 대해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시대 이래 성경 주석가들은 그것들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및 로마 등 세계 강국들로 해석하였다. 넷째 짐승의 열 뿔은 그것이 멸망할 당시(서기 476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분열을 나타낸다.[17]

다니엘의 이상은 열 뿔 사이에서 나오는 무섭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인 작은 뿔에 집중되는데, 이는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에 일어나는 두려운 세력을 의미한다. 이 세력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시도할 것이며(단 7:25),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본서 20장 참조). 이 같은 공격은 그 자체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율법의 계속적인

중요성을 말해 주는 증거가 된다. 이 이상은 이 세력이 율법을 근절시키는 일에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그것은 심판으로써 작은 뿔이 멸망될 것이기 때문이다(단 7:11, 26~28).

2. 성도들이 율법을 옹호함. 순종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을 이룬다. 최후의 대쟁투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드높이기 위하여 다시 모인다. 성경은 그들을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계 12:17, 14:12)고 있으며 인내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한다.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촉구한다(계 14:6, 7).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요일 5:3)고 요한이 말했듯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3.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재앙의 심판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계 15:5)의 성전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인들은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모세가 세운 증거막(혹은 증거의 장막)(민 1:50, 53, 17:8, 18:2)을 가리켰다. 이렇게 불리워진 것은 증거의 장막에 "증거궤"(출 26:34)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거기에는 "증거판 둘"(출 31:18)이 들어 있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증거"(출 34:28, 29)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5장 5절은 "**하늘에**(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에 대해 언급한다. 모세의 것은 단지 하늘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였다(출 25:8, 40; 히 8:1~5 참조). 십계명의 원본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십계명의 영속성에 대한 증거를 더해 준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하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계 11:19)를 보여 준다. **언약궤**라는 말은 지상 성소에 있던 궤를 가리켰는데, 거기에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가 보관되어 있었다(출 34:28; 민 10:33; 신 9:9 참조). 하늘 성소의 언약궤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의 원본을 간직하고 있는 원형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계 11:18)의 시기는 십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증거궤가 초점이 되는 하

늘 성전이 열리는 일과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표준임을 강조하는 적절한 표현이다.

율법과 복음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러오는 선물이다(엡 2:8). "율법의 그 어떤 행위도,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노력이나 선한 행위도–그것이 많든 적든, 희생적이든 아니든 간에–결코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딛 3:5; 롬 3:20).[18]

성경 전편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다. 각각은 서로를 지지한다.

시내산 이전의 율법과 복음.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을 때, 죄와 두려움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창 3:10).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을 무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대신 그들을 당신과의 교제와 순종에로 회복시켜 줄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이 복음은 여자의 후손인 구주를 통한 구속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분은 언젠가 오셔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이었다(창 3:15).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희생 제도는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곧 용서는 피흘림–구주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동물의 희생은 그들을 위한 구주의 속죄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19] 그들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 복음의 약속은 인간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의 중심이었다(창 12:1~3, 15:4, 5, 17:1~9).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창 18:18, 19, 26:4, 5).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은 당신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은 복음의 초점으로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계 13:8, 구역)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시 103:17, 18)고 하였다.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복음. 십계명과 복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례로, 율법의 서언(序言)은 하나님을 구속주로서 나타낸다(출 20:1). 그리고 십계명을 반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을 세우고 당신의 구원하는 은혜를 나타낼 희생 제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셨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 건축에 관계되는 의문의 율법의 대부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당신의 복들을 나눠주시기 위해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었다(출 24:9~31:18). 시내산 이전에 존재했던 단순한 희생 제도를 이같이 확대한 것은 죄인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와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예시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지상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 상부 속죄소 위였다. 성소 봉사의 모든 국면은 구주를 상징하였다. 피 흘리는 희생제물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켰다(본서 4장과 9장 참조).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놓여져 있었던 반면에, 의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민사 법률과 더불어 "율법책"에 기록되어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언약궤 곁에 두었다(신 31:26).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증거"는 그들의 행위를 정죄하였으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필요되는 세밀한 요구 사항들을 제공하였다. 시내산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십계명을 범한 자들은 의문의 율법이 정하는 성소봉사를 통해 묘사된 복음 안에서 소망과 용서와 믿음으로 정결케 됨을 경험하였다.

십자가 후의 율법과 복음. 많은 그리스도인이 관찰해온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문의 율법을 폐지한 반면, 도덕적인 율법의 계속적인 유효성을 확증해 준다.[20] 그 증거를 주목하라.

1. 의문의 율법.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희생 제도의 예언적 상징을 성취시키셨다. 모형은 원형과 만났으며 의문의 율법은 종지부를 찍었다. 수세기 전에 다니엘은 메시야의 죽음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단 9:27; 본서 4장 참조).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졌으며(마 27:51), 그것은 성전 봉사의 영적 의미가 끝났음을 가리켰다.

비록 의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지라도,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히 10:1)에 불과함으로 많은 면에서 불충분하였다. 그것은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개혁할 때"(히 9:10; 갈 3:19 참조)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과되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어린양으로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셨을 때, 의문의 율법의 효력은 끝났다. 그분의 속죄의 희생은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를 제공하였다. 이 행위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골 2:14; 신 31:26 참조)셨다. 그때, 어떤 경우든 죄를 없이하거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는 세밀한 의식들을 행하는 일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히 10:4, 9:9, 14). 소제와 전제, 각종 절기 의식(유월절, 오순절 등), 월삭 또는 절기 안식일들에 관한 복잡한 요구 사항들과 더불어 의문의 율법에 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골 2:16; 히 9:10 참조). 그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골 2:17)에 불과하였다.[21]

예수님의 죽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의 반영일 뿐인 그림자를 더 이상 취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구주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몸(실체)은 그리스도의 것이"(골 2:17)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해석대로, 의문의 율법은 그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장벽이 되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비추어야 할 그들의 사명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며, "십자가로… 한 몸"이 된 믿는 자들의 새로운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엡 2:14~16).

2. 십계명과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문의 율법의 효력을 종식시킨 반면에, 십계명의 권위를 확립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사실이 율법의 폐지를 뜻하거나 우리에게 율법의 원칙들을 범할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율법의 영속성에 관한 성경의 많은 증거들은 그 같은 견해를 반대한다.

칼빈은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애를 위한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처럼 불변해야 한다."[22]

바울은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과 순종 간의 관계를 묘사하였다.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호소하면서, 그는 그들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촉구하였다. 이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 6:13, 1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죄에 더욱더 깊이 사로잡힌다는 사실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한 그는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나 죄의 세력, 그 어느 것에서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정죄에서 놓여날 뿐 아니라(롬 8:1) 그것을 정복할 힘을 얻게 된다(롬 6:4). 그리하여 죄는 더 이상 그들 위에 군림하지 못할 것이다."[23]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고 첨언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분은 의를 얻는 방편으로서의 율법의 끝이 되심을 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의 입혀 주시는 의를 통해서 의인이다.[24]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롬 6:1)할 허가증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은혜는 순종과 죄에 대한 승리를 가능케 하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롬 8:1, 4)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확대시켰으며 그것의 보편적인 권위를 드높였다. 만일 십계명이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과하는 형벌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이 요구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요구를 충족시키셨으며 당신의 놀라운 희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가능하게 하셨다.

율법에 대한 순종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열매이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비록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회개한 죄인으로 하여금 반응하도록 일깨우는데, 그것은 그처럼 풍부하게 주어진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사랑으로 하는 순종 가운데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과 순종의 축복들을 이해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크게 고무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스도께서는 십계명으로 된 율법에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셨다. "스스로 있는" 위대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도덕적인 율법을 시내산으로부터 친히 선포하셨다(요 8:58; 출 3:14; 본서 4장 참조). 세상에서 그분께서 행하실 사명의 일부는 "교훈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사 42:21)는 것이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 준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 히 10:5, 7 참조).

그분의 복음은 십계명의 유효성을 굳게 세우는 믿음을 가져다주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장엄함과 영광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며 그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는지에 대하여 실례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와 거룩함을 옹호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랑에서 우러나는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써 당신을 따르는 자들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그분은 영생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 19:17)고 대답하셨다. 그분은 또한 이 원칙을 범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23)고

하셨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폐지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친히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 그분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마 5:18)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숭고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크게 강조하셨다.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마 22:37, 39)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듯이 이기적이거나 감상적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 계명"(요 13:34)을 주셨다. 이 새 계명은 율법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전에 세상에서 결코 목격되어진 바가 없는 그와 같은 비이기적인 사랑이 진정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그분의 계명은 새 계명으로 묘사되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고 촉구하였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어떻게 크게 하셨는지 그에 대한 증거를 하나 더 갖게 된다."[25]

순종은 그 같은 사랑을 드러낸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요일 2:3)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드릴 수가 있다. 그분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 5)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고 바울이 기록한 바를 경험해야 한다.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으시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히 8:10).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들. 순종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계발시켜 주며 신자들을 "갓난 아기들"처럼 자라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함으로써 행복감을 갖게 한다(벧전 2:2; 고후 3:18 참조). 이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거한다.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시 119:1)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시 1:2) 모든 자들을 "복되다"고 선언한다. 순종의 축복들은 많다. (1) 명철과 지혜(시 119:98, 99), (2) 평안(시 119:165; 사 48:18), (3) 의로움(신 6:25; 사 48:18), (4) 순결하고 도덕적인 생애(잠 7:1~5), (5) 진리의 지식(요 7:17), (6) 질병에 대한 보호(출 15:26), (7) 장수(잠 3:1, 2, 4:10, 22), (8)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요일 3:22; 시 66:18 참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도록 초청하시며 많은 복을 약속하신다(레 26:3~10; 신 28:1~12). 우리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보화"–"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출 19:5, 6; 벧전 2:5, 9 참조)이 되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신 28:1, 13).

참고 문헌

1. Holbrook, "What God's Law Means to Me," Adventist Review, Jan. 15, 1987. p. 16.
2. White, Selected Messages, Book 1, p. 235.
3. Ibid., p. 218.
4. C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 D. 1647, Chapter XIX, in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pp. 640~644.
5. See, Taylor G. Bunch, The Ten Commandments(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44), pp. 35, 36.
6. "Ten Commandments,"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1106.
7.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성경의 처음 다섯 책들–으로 불리는 구약의 일부를 언급할

수도 있다(눅 24:44; 행 28:23).

8. 언약의 책에는 어떤 민사적(民事的) 및 의식적(儀式的)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사에 관한 교훈들은 십계명의 교훈에 부가되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그것의 보편적인 원칙들의 특별한 적용에 불과하였다. 의식적인 교훈들은 죄인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배하는 것은 십계명이다. 렘 7:21~23; Francis D. Nichol, Answers to Objection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52), pp. 62~68 참조.
9. Arnold V. Wallenkampf, "Is Conscience a Safe Guide?" Review and Herald, April 11, 1983, p. 6.
10. 혹자는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바울의 진술은 율법의 목적 또는 목표는 우리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용서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마침"으로 번역한 헬라어 **텔로스**[telos]는 살전 1:5; 약 5:11 및 벧전 1:9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본 참고 문헌란의 23번을 참조하라.
11. Cf.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 961; White, Selected Messages, book 1, 233. 의문의 율법은 또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양하였다. 그들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성소 봉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공하게 될 죄의 용서를 죄인들에게 가리켜 주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기 위한 것인 동시에, 희생제물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예증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12. Ibid., p. 213.
13. White, The Desire of Ages, p. 329.
14. Cf. White, Education, pp. 173~184.
15. 하나님의 율법의 유효성을 지지한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은 다음과 같다: The Waldensean Catechism, c. AD 1500; Luther's Small Catechism, AD 1592; the Anglican Catechism, AD 1549 and 1662; the Scottish Confession of Faith, AD 1560(Reformed); the heidelberg Catechism, AD 1563(Reformed);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AD 1566(Reformed); the Thirty-Nine Articles of Religion, AD 1571(Church of England); the Formula of Concord, AD 1576(Lutheran); the Irish Articles of Faith, AD 1615(Irish Episcopal Church); the Westerminster Confession of Faith, AD 1647; the Westermister Shorter Catechism, AD 1647; the Confession of the Waldenses, AD 1655; the Savoy Declaration, AD 1658(Congregational); the Confession of the Society of Friend, AD 1675(Quakers); the Philadelphia Confession, AD 1688(Bapist); the Twenty-five Articles of Religion, AD 1784(Methodist); the New Hampshire Conference AD 1833(Baptist); the Longer Catechism of the Orthodex, Catholic, Eastern Church, AD 1839(Greek-Russian Church), as quoted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ed., Philip Schaff, rev. by David S. Schaff(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vols, 1~3.

16. 첫째와 둘째 계명에 대한 참조는 창 35:1~4, 넷째 계명은 창 2:1~3, 다섯째 계명은 창 18:29, 여섯째 계명은 창 4:8~11, 일곱째 계명은 창 39:7~9, 19:1~10, 여덟째 계명은 창 44:8, 아홉째 계명은 창 12:11~20, 20:1~10, 그리고 열째 계명은 창세기 27장을 볼 것.
17.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1, pp. 456, 894; vol. 2, pp. 528, 784; vol. 3, pp. 252, 744; vol. 4, pp.392, 846.
18. Questions on Doctrine, p. 142.
19. 가인과 아벨은 희생 제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창 4:3~5; 히 11:4).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첫 의복을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가죽에서 얻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창 3:21).
20. 다음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을 참조하라: The Wester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e Irish Articles of Religion; the Savoy Declaration, the Philadelphia Confession, and the Methodist Articles of Religion.
21. Cf. the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 204;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365.
22. Calvin, Commenting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trans. by William Pringle(Grand Rapids: Wm. B. Eerdmans, 1949), vol. 1, p. 277.
23. The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p. 541, 542.
24.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나 목적(갈 3:24 비교), 또는 율법의 완성(마 5:17 비교)이라는 의미에서 그분을 율법의 마침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구원의 수단(롬 6:14 참조)으로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견해가 롬 10:4의 내용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 같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와 대조시키고 있다. 복음의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이다" (The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6, p. 595). White, Selected Messages, book 1, p. 394 참조.
25. Nichol, Answers to Objections, pp. 100, 101.

제20장

안식일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후 쉬셨으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이 제칠일 안식일을 쉼과 예배와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실천에 조화되게 봉사하는 날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인간상호간에 교제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며 우리의 성화의 표징이요 우리의 충성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영구한 표징이다. 이 거룩한 시간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즐겁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창 2:1~3; 출 20:8~11; 눅 4:16; 사56:5, 6; 58:13, 14; 마 12:1~12; 출 31:13~17; 겔 20:12, 20; 신 5:12~15; 히 4:1~11; 레 23:32; 막 1:32)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의 낙원의 가정을 답사하였다. 풍경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창조의 여섯째 날인 그 금요일에 해가 천천히 기울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창 2:1)의 창조 사업을 마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방금 완성하신 세상이 한없이 아름다웠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부부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그분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 곧 특별한 축복과 교제의 날이요 그들의 창조주와 교통하는 한 날을 제정해 주셨다.

성경 전편에 나타난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다. 창조의 기념인 그날은 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준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이다. "그런고로 안식일은 바로 거룩한 예배의 기저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감동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며 다른 제도로서는 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제칠일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예배의 참된 근거는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들 사이의 구별에서 발견된다. 이 위대한 진리는 결코 폐물이 될 수 없으며 결코 잊혀져서도 안 된다."[1]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같은 진리를 인류 앞에서 영원토록 간직하기 위함이었다.

창조 시의 안식일. 안식일은 죄 없는 세계로부터 우리에게로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서 하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세 특수한 행위로 안식일을 제정하였다.

1.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출 31:17)셨다. 그러나 그분은 휴식이 필요해서 쉬신 것이 아니었다(사 40:28). "쉬셨다"고 하는 동사 **사바트**(shabath)는 실제적으로 노동이나 활동으로부터 쉬는 것을 의미한다(창 8:22 비교). "하나님의 쉼은 피로나 노고의 결과가 아니라 전에 하시던 일을 그치는 것이다."[2]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따라 쉬도록 하기 위해 쉬셨다. 즉 그분은 인간이 본받도록 모본을 보이셨다(출 20:11).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 사업을 다 이루었다(창 2:1)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당신의 일을 마쳤다"(창 2:2)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무

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의 창조 사업을 마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아직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그것을 제정하시는 일은 안식일에 쉬심으로써였다. 안식일은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는 그분의 끝손질이었다.

2.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축복하셨다.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는 의미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대상으로 선언되었다는 의미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날이 되었음을 의미하였다."[3]

3.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거룩하게 혹은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을 성별하는 것이다. 사람, 장소(성소, 성전 또는 교회와 같은) 및 시간(거룩한 날들)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날이 거룩하며 그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부요하게 하는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그날을 구별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제칠일 안식일을 축복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당신께서 이날에 당신의 모든 일로부터 떠나 쉬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하게 하심을 가져오신다.

시내산에서의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의 사건들은 그들이 대부분 안식일을 잊어버렸음을 보여 준다. 노예 생활의 엄격한 요구 사항들은 안식일 준수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유를 얻은 직후에 만나의 기적과 십계명의 반포를 통하여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그들의 의무를 강하게 상기시켜 주셨다.

1. 안식일과 만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기 한 달 전에, 만일 그들이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출 15:26; 창 26:5 참조)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이 같은 약속을 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신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셨다.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그들이 제칠일

에 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인 용어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매 주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을 위한 그들의 필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만나를 공급하셨다. 그들은 다음날까지 조금도 남겨 놓아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상해서 못쓰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출 16:4, 16~19). 그들은 여섯째 날에는 그날과 안식일 양일간 그들의 필요에 충분하도록 평상시의 두 배를 거두어야 하였다. 여섯째 날은 예비하는 날이 되어야 함과 안식일이 어떻게 준수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출 16:23). 오직 제칠일에만 만나가 상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다(출 16:24). 모세는 넷째 계명의 그것과 유사한 말로써,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출 16:26)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던 사십 년 동안에, 또는 2000번 이상이나 매주마다 계속되는 안식일에 만나의 기적은 그들에게 일하는 육일간과 쉬는 제칠일이라는 이 같은 본보기를 상기시켜 주었다.

2. 안식일과 율법.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십계명의 중간에 놓으셨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중요하며 어느 하나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약 2:1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하셨다. 안식일에 대하여, 그분은 그 중요성을 잊어버릴 위험성을 인간에게 경고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다.

안식일 계명을 시작하는 말들–"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은 안식일이 시내산에서 최초로 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 말은 그것이

보다 더 일찍이–그 계명의 나머지 부분이 말해 주듯이 실제로는 창조 시에–기원되었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당신의 창조의 기념일로 준수하기를 의도하셨다. 그것은 안식과 예배를 위한 시간을 규정하며 우리로 하나님과 그분의 솜씨를 숙고하게 한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 준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해독제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그것은 그분을 모든 신들과 구별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표–우리가 창조주와 왕으로서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가 된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4] 일반적으로 인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그 인의 소유자의 이름과 그의 직함과 관할권이 그것이다. 공식적인 인들은 대단히 중요한 증서들의 유효성을 인증하는 데 사용된다. 증서는 그 위에 찍힌 인의 주인인 관리의 권위를 지닌다. 인은 관리 자신이 그 법령 제정을 승인했으며 그의 모든 직권으로 그것을 보증한다는 의미이다.

십계명 가운데서 인의 중요한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 계명이다. 그분의 이름: "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직함: 만드신 분–창조주 그리고 그분의 영토[관할권]: "하늘과 땅"(출 20:11)을 말해 줌으로써 십계명 가운데서 참하나님을 확인시켜 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넷째 계명만이 십계명이 누구의 권위로 주어졌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의 확실성과 구속력에 대한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부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을 포함한다."[5]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죄와 반역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또는 그것들에 대한 표징으로서 제정하셨다.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는 명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영원한 개인적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였다."[6]

이 계명은 주일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6일을 주셔서 그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셨다(출 20:9, 10). "'6일간'은 일하는 날이나 '일곱째날'은 쉬는 날이라고 명령한다. '일곱째날'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라는 사실은 '안식[쉬는]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의 서두에서 명백

해진다."[7]

인간은 자신의 몸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육체적인 휴식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라는 당신의 명령을 당신의 모본에 기초하신다. 그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첫 주간의 활동으로부터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쉬어야 한다.

3. 안식일과 언약.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의 중심이었던(출 34:27) 것처럼, 그 율법의 중심에 위치한 안식일은 그분의 언약 가운데서 탁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라(겔 20:12, 20:20; 출 31:17 참조)고 선언하셨다. 그런고로 안식일 준수는 영원한 언약이라(출 31:16)고 말씀하셨다. "언약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된 것과 마찬가지로(신 7:7, 8), 그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다."[8]

4. 연례 안식일들. 매주 안식일(레 23:3)에 추가하여, 이스라엘의 종교력에는 일곱 개의 연례 절기 안식일들이 있었다. 이 연례 안식일들은 제칠일 안식일 또는 주일의 주기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레 23:38), 이 연례 안식일들은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었다(레 23:7, 8, 21, 24, 25, 27, 28, 35, 36 참조).

이 연례 안식일들의 계산은 태음력(太陰曆)에 기초한 성력(聖曆)의 일자에 달렸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일 중 어느 날에나 해당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매주 안식일과 겹칠 때에는 "큰 날"(요 19:31)로 불리워졌다. "매주 안식일(weekly Sabbath)이 온 인류를 위한 창조주일의 마지막에 제정된 반면에, 연례 안식일들(the annual sabbaths)은 시내 산에서 제정된 유대인의 의식(儀式) 제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다.…그런데 그것들은 메시야의 오심을 예시하는 것이었으므로, 그것들을 준수하는 일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 종결되었다."[9]

안식일과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창조주였음을 밝혀 준다(고전 8:6; 히 1:1, 2; 요 1:3 참조). 그러므로 그분이야말로 일곱째날을 인간을 위하여 쉬는 날로 따로 구별하신 분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당신의 창조 사업뿐 아니라 구속 사업과도 관련

시키셨다. "스스로 있는"(요 8:58; 출 3:14) 위대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안식일을 창조주와 약정한 이 매주일의 예배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는 요소로서 십계명 가운데 포함시키셨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구속이라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첨가시키셨다(신 5:14, 15).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을 구별되게 한다.

창조주와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이중 역할은 어떻게 그분께서 인자로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8)고 주장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 준다. 그 같은 권위로 그분은 원하셨더라면 안식일을 폐하실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와는 반대로, 그분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막 2:27)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온 인류에게 적용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 생애를 통하여 충성된 안식일 준수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자기(예수님의) 규례"(눅 4:16)였다. 그분께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실은 당신께서 그날을 예배일로 인정하신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신성성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셨으므로, 당신의 승천 후에 일어날 박해 때를 대비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충고하셨다. 그분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마 24:20)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가 기록한 대로,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10]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창조 사업–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분의 최초의 위대한 행위–을 마치셨을 때,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 쉼은 완전과 완성을 의미하였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세상 사업을 마치실 때에도, 곧 역사상 두 번째의 위대한 일을 완수하셨을 때에도 거의 동일한 일을 행하셨다. 여섯째 날인 금요일 오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의 당신의 구속사업을 마치셨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요 19:30)는 것이었다. 성경은 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눅 23:54)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상징으로 그분께서는 운명하신 후에 무덤에서 쉬셨다.[11]

그와 같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사업을 증거한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날을 지킴으로 인간을 위해 그분께서 성취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과 함께 즐거워한다.[12]

안식일과 사도들. 사도들은 안식일을 크게 존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분명하였다. 안식일이 당도하였을 때, 그들은 장례 행사를 중지하고 "첫날", 곧 일요일에 그 일을 계속할 계획을 세우고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었다(눅 23:56, 24:1).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로, 사도들도 제칠일 안식일에 예배하였다. 그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출석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행 13:14, 17:1, 2, 18:4), 이방인들까지도 그를 초청하여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였다(행 13:42, 44).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안식일 예배를 위해 기도처를 찾았다(행 16:13).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신 사실이 그분께서 일곱째날을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로 받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듯이, 바울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매주 안식일 준수는 연례 의식(儀式) 안식일에 대한 그의 태도와는 현저하게 대조적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에(본서 18장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연례 안식일들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6, 17)고 말했다. 이 성경절의 "문맥이 의식(儀式)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안식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의 '그림자'나 모형이 되는 유대인의 연례 절기들에 해당하는 의식(儀式) 안식일들이다."[13]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의문의 율법의 요구를 준수하는 일에 대하여 충고한다. 그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갈 4:10, 11)고 말했다.

많은 사람은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계 1:10)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일요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언급된 유일한 날은 안식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일곱째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출 20:10)이라고 말씀하셨다. 후에는 그날을 "내 성일(聖日)"(사 58:13)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막 2:28)이라고 부르셨다. 성경에서, 주께

서 당신의 것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요한이 언급한 주일이 안식일이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확실히 요한이 주일을 주일 중 첫날, 또는 일요일에 적용시켰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상 선례는 없다.[14]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일이 아닌 다른 어떤 날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다른 날도 복되거나 거룩하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신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른 어떤 날로 변경시켰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성경은 당신의 백성이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보여 준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사 66:22, 23).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깊고도 풍부한 영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1.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 우리가 이미 연구한대로, 십계명이 안식일에 부여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안식일이 세상의 창조를 기념하는(출 20:11, 12) 날이라는 사실이다. 제칠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라는 명령은 "창조의 행위와 안식일 제도와 그날을 창조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지키도록 한 명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더욱이 전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때문에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전 인류에게 지워져 있다."[15] 스트롱(Strong)은 안식일을, "당신의 창조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념일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한다.[16]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서 준수한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요 정당한 주권자이며,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지은 창조물이요 그분의 지배 하에 있는 신민(臣民)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그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그것에는 모호한 점이 전혀 없으며 어떤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았다."[17]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의 표징

과 기념일로서의 구실을 다할 것이다.

2. 구속의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을 때, 이미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도 되었다(신 5:15). "주께서는 만일 정당하게 준수될 것 같으면, 매주 안식일의 쉼이 어떤 나라나 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항상 자유케 해 주도록 계획하셨다. 오늘날 사람들은 탐욕으로부터, 이득과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그리고 죄와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예속에서 도피할 필요가 있다."[18]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안식일의 쉼은 구속의 특별한 상징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지도 하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출애굽한 기념일이다. 우리가 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불순종의 죄책이다. 안식일의 쉼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신 사실을 지적해 줌으로써, 곧 죄에 대한 승리의 쉼을 말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평화와 쉼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제공한다."[19]

3. 성화의 표징. 안식일은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표이며 거룩함 또는 성화의 표징이다. 주께서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출 31:13; 겔 20:20 참조)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또한 거룩케 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될 때(히 13:12), 안식일은 또한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 그분의 보혈을 받아들인다는 표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즉 당신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구별하셨다. 그들은 그날에 그분과 교통함으로 거룩함에 이른다.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의 수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만물을 창조한 능력은 영혼을 당신 자신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그것은 성화의 표징이다. 참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곧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그러한 원칙들에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순종의 표이다. 진정으로, 성실하게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된다."[20]

4. 충성의 표. 아담과 하와의 충성심이 에덴동산의 중앙에 있던 선악과에 의하여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인간의 충성심은 십계명의 한 가운데 놓인 넷째 계명에 의하여 시험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재림 전에 온 세상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임을 밝혀 준다. 충성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계 14:12, 9) 자들로 나누어진다. 그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앞에 크게 드러날 것이며 성경의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창조주께 대한 충성의 증거임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될 것이다.

5.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창 1:24, 25).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교제를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서로에게 주셨다(창 2:18~2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인간에게 제공되는 최상의 교제의 선물, 곧 당신과의 교제를 주셨다. 인간은 단순히 동물들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다른 인간들과만 교제하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안식일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안식일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끝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매일이 똑같으며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 바쳐질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의 도래는 소망과 기쁨과 의미와 용기를 가져다준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찬미와 말씀에 대한 연구와 명상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계몽된 양심의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이해하도록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롬 2:14~16). 이것은 넷째 계명 외에 다른 아홉 계명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교 밖에서도 시행되어 온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은 매주일의 휴일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왜 주일 중 다른 날에는 해도 괜찮고 또 권장할 만한 일이 일곱째날에 하게 되면 죄가 되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천연계는 일곱

째날을 지키는 데 대한 어떤 근거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마치 모든 날이 동일한 것처럼 혹성(惑星)들은 제 궤도를 돌며, 식물들은 자라고, 비와 햇빛은 번갈아 내리고 비치며 짐승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분주하게 활동한다. 그러면 왜 인간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이다."[21]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기초할 때에만 일곱째날 준수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곱째날을 지키는 자들은 믿음과 일곱째날의 준수를 명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우러나 그렇게 한다.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들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일곱째날을 지킴에 있어서, 신자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의 결과로서 안식일을 준수한다.[22] 안식일 준수는 그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으며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칭의와 성화를 통해 나타나는 그분의 의의 산물이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힘으로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먼저 사과나무여야 한다. 그러면 사과는 자연적인 결과로서 열리게 된다. 그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도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거나 다른 아홉 가지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의의 자연적인 결실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곱째날의 외적인 준수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신자의 내적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참된 안식일 준수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그분과의) 좀 더 밀접한 교제를 위하여 안식일을 가장 중요시하길 원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들을 자제한다."[23]

안식일 준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기를 그쳤으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음을 나타낸다. 진정으로 "참된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조성하고 계시는, 창조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것은 올바른 날을 올바른 방법으로 준수하는 것을 믿음으

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으로 삼는다."[24]

7. 그리스도 안에서 쉼에 대한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지상 가나안의 안식으로 인도하신 일에 대한 기념일인 안식일은 그 당시의 구속받은 자들을 주변 나라의 백성들과 구별시켰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에로의 구원에 대한 표징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세상과 분리시킨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히 4:10)었다. "이 안식은 우리 '자신의 일'에서 놓여나는, 죄를 그만두는 영적 안식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 안식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신다. 안식일과 가나안은 둘 다 이 안식에 대한 상징들이다."[25]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을 때,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 안에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비록 그들이 실패하였을지라도, 인간에게 그 같은 안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타락한 후에도, 안식일은 그 같은 안식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제칠일 안식일의 준수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거민들을 위하여 본래 의도하셨던 저 영원한 '안식'에 남녀들로 하여금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증거한다."[26]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안식을 실제적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이 그것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히 4:9).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적 '안식', 곧 죄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일에서 벗어나는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27]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믿음의 이 안식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다리지 말라고 호소한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것에 들어갈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히 4:7, 3:13). 이 안식–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는 모든 노력을 그쳤다. 이와 같이 일곱째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신자가 복음의 안식에 들어감을 상징한다.

예배일을 변경코자 하는 시도들

안식일이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 신성한 제도를 뒤엎고자 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한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만드셨고 시내 산에서 재차 말씀하신 예배일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그리스도인들, 즉 일요일 준수자들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톨릭 추기경인 제임스 기본스(James Gibbons)는 한때 "그대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볼지라도 일요일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단 한 줄의 글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토요일을 신성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28]고 기록하였다.

신교도인 링컨(A. T. Lincoln)은 인정하기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지정하셨다고 하는 신념을 신약 자체가 보증해 준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29]고 하였다. 그는 또한 "온 십계명이 도덕적인 율법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유일한 언행 일치는 제칠일 안식일 준수자가 되는 것"[30]임을 인정하였다.

만일 그리스도나 그분의 제자들이 예배일을 일곱째날로부터 변경시켰다고 하는 아무런 성경상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그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제칠일 대신에 일요일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일요일 준수의 기원. 안식일에서 일요일 예배에로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2세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2세기 중엽쯤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임의로 일요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일로 준수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31]

주로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롬 11:13)는 일요일 예배로 기울어졌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는 반 유대인 감정이 일어났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감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과 구별시키고자 하였다. 그들은 유대인과 공통되는 어떤 습관들을 버렸으며 안식일 예배로부터 떠나 일요일만을 준수하는 쪽으로 옮아가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32]

2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일요일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던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칠일 안식일을 계속해서 준

수하였다. 5세기의 역사가 소크라테스(Socrates)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매주 안식일에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한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대의 전통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였다."[33]

4세기와 5세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안식일과 일요일 양일에 예배를 드렸다. 그 당시의 또 다른 역사가인 소조멘(Sozomen)은 "콘스탄티노플과 거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주일 중 첫 날 뿐 아니라 안식일에도 함께 모였는데, 그 같은 관습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결코 준수되지 않았다."[34] 이러한 기록들은 안식일 준수를 경시하는 일에 로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제칠일 예배로부터 돌아서고 있던 자들은 왜 주일 중 다른 날이 아닌 일요일을 택하였던가? 주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그분이 그날에 드리는 예배에 정당성을 부여하셨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2세기와 3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도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준수의 근거로서 단 한 줄의 성경절도 인용한 일이 없다.** 바르나바스, 이그나티우스, 유스티노스, 이레나이우스, 테르툴리아누스, 로타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키프리아누스, 빅토리누스 그리고 예수께서 사셨던 시대에 가깝게 살았던 어떤 다른 저자도 예수님이나 성경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그와 같은 지시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았다."[35]

이교 로마의 태양 숭배가 일요일에 더해 준 인기와 영향력이 의심할 바 없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점차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태양 숭배는 고대 세계의 도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로마 종교의 가장 오래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기원 후 2세기 초엽부터 있어 온" 동방교회의 태양 숭배 때문에 "로마와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태양신 인빅투스(Sol Invictus)에 대한 숭배가 지배적이었다."[36]

이 인기 있는 종교는 새로운 개종자들을 통하여 초기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이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태양 숭배에 매력을 느꼈다. 이러한 사실은 그런 행위가 교부들에 의해 자주 비난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예배 의식에 태양 숭배의 내용이 깊이 반영되어 있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타난다."[37] 일요일 법령(Sunday laws)은 4세기에 출현하였다. 처음에는

민사적 성격의 일요일 법령이 발해지고, 다음에는 종교적 성격의 일요일 법령이 생겼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원 후 321년 3월 7일에 민사적인 일요일 휴업을 포고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이 이교의 태양 숭배자들 사이에 인기가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날을 존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듦으로써 그의 정부를 위해 이들 두 부류의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38]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법령은 태양 숭배자로서의 그의 배경을 나타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venerabili die Solis)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백성들은 쉬도록 하며 모든 작업장은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39]

수십년이 지난 후, 교회는 그의 모본을 따랐다. 전 세계적인 회의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회의였던 라오디게아 종교회의(c. AD 364)는 최초의 교회적인 일요일 법령을 발포하였다. 교회 법규 29조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존중하여 "가능한 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헬라어로 **사바톤**(sabbaton), 'the Sabbath']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일하라."[40]고 지시함으로써 안식일에 쉬는 관습을 탄핵하였다.

1260년간의 예언(본서 13장 참조)이 시작되는 해인, 기원 후 538년에 오를레앙(Orleans)에서 개최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3차 종교회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법령보다 훨씬 더 가혹한 한 법을 발포하였다. 그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교회 법규 28조는, 일요일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농사일까지도 제쳐 놓아야 한다."[41]고 규정하고 있다.

예언된 변경 기도(企圖). 성경은 그리스도 교회의 한 제도로서 일요일 준수는 그 기원이 "불법의 비밀"(살후 2:7)에 근거하였음을 밝혀주는데, 그것은 이미 바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다(본서 13장 참조). 다니엘 7장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지로 예배일을 변경하려는 기도가 있을 것을 보여 주셨다.

다니엘의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공격을 묘사한다. 작은 뿔(계 13:1~10에서는 짐승)로 표상되는 공격 세력은 그리스도 교회 내

에 큰 배교를 가져온다(본서 13장 참조). 넷째 짐승으로부터 일어나서 로마의 몰락(본서 19장 참조) 후에 주요한 박해 세력으로 등장하는 작은 뿔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단 7:25) 기도한다. 이 배교의 세력은 세상의 대부분을 미혹하는 데 매우 성공하나 최후의 심판은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단 7:11, 22, 26). 최후의 환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단 12:1~3).

이 예언은 그리스도교 내에서 오직 한 세력에 딱 들어맞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는 대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종교조직이 하나 있다. 역사를 통하여 로마 가톨릭 당국이 주장해 온 바를 주목하라.

기원 후 1400년경에 앙카라노의 페트루스(Petrus de Ancharano)는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권세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그의 양들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가장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기 때문이다."[42]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놀라운 주장의 영향은 종교개혁 시대 동안에 나타났다. 루터는 교회의 유전이 아닌 거룩한 성경이 인생에 있어서 그의 안내자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슬로건은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성경, 오직 성경만이"였다. 로마 가톨릭 신앙의 가장 뛰어난 수호자 가운데 하나인 존 에크(John Eck)는 교회의 권위는 성경 위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점에 대하여 루터를 공격하였다. 그는 성경상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하는 일에 대하여 루터에게 도전하였다. 에크는 말하기를,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신의 권위에 따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 그것에 대해서 그대[루터]는 아무런 성경상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43]고 하였다.

신교에 대항하기 위하여 교황이 소집한 트렌트 종교회의(1545~1563)에서 레기오(Reggio)의 대주교인 포쏘의 가스파레(Gaspare de Fosso)는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 의하여 가장 분명하게 예증된다. 왜냐하면 그(교회)가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추천하고 거룩하다고 선언하며, 그것들을 읽도록 우리에게 제공하는 반면에…다른 한편으로는 주께서 가르치신 성경의 합법적인 교훈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에 의하여 중지된 것이 아니라(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변경되었다."[44] 천주교회는 아직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개종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문답집**(The Convert's Catechism of Catholic Doctrine) 1977년도 판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문답을 싣고 있다.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45]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학자인 존 A. 오브리엔(John A. O'Brien)은 그의 베스트 셀러인 〈**백만인의 신앙**(The Faith of Millions: 1974)〉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성경에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을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비 가톨릭 교도들이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까? 물론이다. 그것은 한결같지 못한 행동이다. 그는 말하기를, 일요일 준수의 관습은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다. 그 같은 일요일 준수는 비 가톨릭 종파들에게, 마치 집을 뛰쳐나가는 소년이 여전히 그의 호주머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망쳐 나온 모교회(Mother Church)를 상기시켜 주는 요소로서 남아 있다."[46]

이 같은 대권을 가졌노라고 하는 주장은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며 작은 뿔로 상징된 세력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준다.

안식일의 회복. 이사야 56장과 5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신다. 이방인들을 당신의 우리로 모아들이는 미래의 영광(사 56:8)을 계시하면서, 그분은 이 구원 사업의 성공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일(사 56:1, 2, 6, 7)과 연결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해야 할 특별한 사업을 주의 깊게 개괄하신다. 비록 그들의 사명이 세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특별히 믿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교훈에서 떠난(사 58:1, 2) 한 부류의

백성에게 집중된다. 그분은 믿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신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사 58:12~14).

영적 이스라엘의 사명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명과 유사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작은 뿔의 세력이 안식일을 변경시켰을 때, 무너졌다(파괴되었다). 유린된 안식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일 제도는 회복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성벽에 생긴 균열은 보수되어야 한다.[47]

영원한 복음과 관련된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의 기별 선포를 통해 율법을 회복시키고 창대케 하는 이 사업이 성취된다. 그러므로 이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재림 전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다(본서 13장 참조). 이 기별은 세상을 일깨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계 14:7)인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권고의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의 넷째 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다. 이 마지막 경고에 포함된 의미는 널리 잊혀진 당신의 안식일을 재림 전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확증해 준다.

이 기별의 전파는 전 세계적인 충돌을 촉발시킬 것이다. 중심적인 논쟁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안식일의 준수일 것이다. 이 충돌에 직면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생겨나게 할 것이다.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마침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계 14:9, 12; 본서 13장 참조).

하나님의 율법을 창대케 하고 무시된 하나님의 안식일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일관되고 충성스러운 모본을 제시해야 한다.

안식일의 준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출 20:8)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으로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주중 활력을 너무 소모해서 안식일에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창조와 구속에서 나타난 그분의 은혜로운 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념하도록 초청을 받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특별히 교통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거룩한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그쳐야 한다고 말한다(출 20:10).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과 모든 사업상 거래를 피해야 한다(느 13:15~22).

우리는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사 58:13)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세속적인 관심사와 대화와 사상에 몰두하거나 스포츠에 참여함으로 이날을 우리 자신의 쾌락에 바치는 일은 창조주와의 교제를 손상시키며 안식일의 신성성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48]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들도 안식일의 축복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의 권한 하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방문객들과 짐승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출 20:10).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질 때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 해 질 때에 마쳐진다(창 1:5; 막 1:32 참조).[49] 성경은 안식일 전 날(금요일)을 안식일의 신성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는 날–예비일(막 15:42)–이라고 부른다.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동안 저들도 수고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출 16:23; 민 11:8 참조) 이날에 안식일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이 다가올 때, 가족이나 신자의 무리가 금요일 저녁 해 지기 직전에 함께 모여 찬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므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환영받는 손님으로 초청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갈 무렵에는 계속되는 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에 참석함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마감해야 한다.

주께서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도록(사 58:13) 당신의 백성을 초청하

신다.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때에만 그들은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날에 저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규적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셨으며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교훈들을 말씀해 주셨다(막 1:21, 3:1~4;눅 4:16~27, 13:10). 그러나 그분은 예배만 드리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셨으며(막 1:29~31;눅 14:1), 옥외에서 시간을 보내시고(막 2:23), 거룩하고 자비로운 일을 행하며 다니셨다.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병자와 고통 당하는 자들을 고치셨다(막 1:21~31, 3:1~5;눅 13:10~17, 14:2~4;요 5:1~15, 9:1~14).

고통을 덜어 주는 일로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마 12:12)고 대답하셨다. 그분의 치료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행위는 영적 활력과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킨 번거로운 규제들을 제거하였다.[50]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적 부요를 위하여 안식일을 고안하셨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진작시키는 활동들은 정당하나 그 같은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며 안식일을 공휴일화시키는 활동들은 온당치 못하다.

안식일의 주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따르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다.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쁨과 영적 축제-하늘을 미리 맛보는-로써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안식일이 영적인 낙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매주 안식일은 우리의 양심에 위안을 주며 우리의 미진한 품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다. 그분께서 갈바리에서 성취하신 일은 우리의 속전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다."[51]

참고 문헌

1. John N. Andrews, History of the Sabbath, 2nd ed., enl.(Battle Creek, MI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n., 1873). 3rd ed., enl., p. 575.
2.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1, p. 220.

3. Ibid.
4. J. L. Shuler, God's Everlasting Sign(Nashville：Southern Pub. Assn., 1972), pp. 114~116 ；M. L. Andreasen, The Sabbath(Washington, D.C.：Review and Herald, 1942), p. 248 ；Wallenkampf, "The Baptism, Seal, and Fullness of the Holy Spirit"(unpublished manuscript), p. 48；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307；The Great Controversy, pp. 613, 640.
5.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307.
6. Wallenkampf, "Baptism, Seal, and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p. 48.
7.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1, p. 605.
8. "Sabbath," SDA Encyclopedia, rev. ed., p. 1239.
9. "Sabbath, Annual," ibid., p. 1265.
10.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President Edwards(New York：Leavitt & Allen, 1852, repr. of the Worcester ed.), vol. 4, p. 622. 청교도들은 일요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생각하였음.
11. 흥미롭게도, 예수께서는 "큰날"에 무덤에서 쉬셨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주일의 일곱째날이면서 동시에 무교절의 첫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구속의 정점에 이른 얼마나 놀라운 날인가! 창조 사업의 "좋았더라"는 말과 구속 사업의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시자요 마침이 되시는 분께서 다시 한번 일을 완성하신 가운데 쉬실 때서로 합치된다.
12. Samuele Bacchiocchi, Rest for Modern Man(Nashville：Southern Pub. Assn., 1976), pp. 8, 9.
13. "Sabbath," SDA Encyclopedia, rev. ed., p. 1244. 또한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p.205, 206도 보라. cf. White, "The Australia Camp Meeting," Review and Herald, Jan. 7. 1896, p. 2.
14. See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p. 735, 736. cf. White, Acts of the Apostles (Mountain View, CA：Pacific Press, 1911), p. 581.
15. "Sabbath," SDA Encyclopedia, p. 1237.
16. A. H. Strong, Systematic Theology, p. 408.
17.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48.
18. Bacchiocchi, Rest for Modern Man, p. 15.
19. Ibid., p. 19.
20. White, Testimonies, vol. 6, p. 350.
21. Andreasen, Sabbath, p. 25.
22. 율법주의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서 율법이나 어떤 의식을 준행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롬 3：20)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Shuler, God's Everlasting Sign, p. 90). Shuler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식일 준수를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다음의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

다: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일을 삼가고 첫째와 셋째 계명이 명하는 대로 경배를 드린다면, 그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인가? 일곱째, 여덟째 및 아홉째 계명이 요구하는 순결과 정직과 신실한 삶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반대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다. 그처럼 새롭게 된 영혼이 제칠일을 준수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며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배치되지도 않는다. 사실상, 안식일 계명은 죄에서의 구원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성화의 표로서 율법 가운데 나타나는 유일한 교훈이다."(ibid.).

23. Ibid., p. 89.
24. Ibid., p. 94.
25. Andreasen, Sabbath, p. 105.
26.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 420.
27. Ibid.
28. James Gibbons, The Faith of Our Fathers, 47th rev. enl. ed. (Baltimore: John Murphy & Co., 1895), pp. 111, 112. 회중교회 교인인 데일(R. W. Dale)은 "우리가 아무리 엄격하고 경건하게 일요일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안식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위에 기초되었다. 우리는 그 같은 명령을 일요일을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이유로서 내세울 수 없다"(R. W. Dale, The Ten Commandments, 4th e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84], p. 100).
29. Andrew T. Lincoln, "From Sabbath to Lord's Day: A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 in From Sabbath to Lord's Day: A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ed. D. A. Carson(Grand Rapids: Zondervan, 1982), p. 386.
30. Ibid., p. 392.
31. See Justin Martyr, First Apology, in Ante-Nicene Fathers(Grand Rapids : Wm. B. Eerdmans, 1979), vol. 1, p. 186; Maxwell, God Cares(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1981), vol. 1, p. 130.
32. 예컨대 Bacchiocchi, "The Rise of Sunday Observance in Early Christianity", in The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ed. Kenneth A. Strand(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82), p. 137;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Rome: Pontifical Gregorian University Press, 1977), pp. 223~232을 보라.
33. Socrates, Ecclesiastical History, book 5, chap. 22, trans.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2nd series(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9), vol. 2, p. 132.
34. Sozomen, Ecclesiastical History, book 7, chap. 19, trans.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2nd series, vol. 2, p. 390.
35. Maxwell, God Cares, vol. 1, p. 131.
36. Gaston H. Halsberghe, The Cult of Sol Invictus(Leiden: E. J. Brill, 1972), pp. 26, 44. 또한 Bacchiocchi, "Rise of Sunday Observance,"

p. 139도 보라.

37. Bacchiocchi, "Rise of Sunday Observance," p. 140. 또한 Bacchiocchi, From Sabbath to Sunday, pp. 252, 253도 보라.
38. 예컨대 Maxwell, God Cares, Vol. 1, p. 129 ; H. G. Heggtveit, Illustreret Kirkehistorie(Christiania[Oslo]:Cammermeyers Bogandel, 1891~1895), p. 202, as trans. in SDA Bible Students' Source Book, rev. ed., p. 1000을 보라.
39. Codex Justinianus, book 3, title 12, 3, trans. in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th ed. (New York:Charles Scribner, 1902), vol. 3, p. 380, note 1.
40. Council of Laodicea, Canon 29, in Charles J. Hefele, A History of the Councils of the Church from the Orginal Documents, trans. and ed. by Henry N. Oxenham (Edinburgh:T. and T. Clark, 1876), vol. 2, p. 316 또한 SDA Bible Students' Sourse Book, rev. ed., p. 885도 보라.
41. Giovanni Domenico Mansi, ed., Sacrorum Conciliorum, vol. 9, col. 919, as quoted by Maxwell, God Cares, vol. 1, p. 129. Cited in part in Andrews, History of the Sabbath and First Dary of the Week, p. 374.
42. Lucius Ferrais, "Papa," art. 2, Prompta Bibliotheca(Venetiis[Venice]:Caspa Storti, 1772), vol. 6, p. 29, as trans. in SDA Bible Students' Source Book, rev. ed., p. 680.
43. John Eck, Enchiridion of Commonplaces Against Luther and Other Enemies of the Church, trans. Ford L. Battles, 3rd ed. (Grand Rapids:Baker, 1979), p. 13.
44. Gaspare [Ricciulli] de Fosso, Address in the 17th Session of the Council of Trent, Jan. 18, 1562, in Mansi, Sacrorum Conciliorum, vol. 33, cols. 529, 530, as trans. in SDA Bible Students' Source Book, rev. ed., p. 887.
45. Peter Geiermann, The Convert's Catechism of Catholic Doctrine (Rockford, IL :Tan Books and Publishers, 1977), p. 50.
46. John A. O'Brien, The Faith of Millions, rev. ed. (Huntington, IN:Our Sunday Visitor Inc., 1974), pp. 400, 401.
47. Cf.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p. 451~453.
48. White, Selected Messages, book 3, p. 258.
49. 창조 이야기가 분명히 밝혀 주는 대로, 성경에는 날들이 해 질 때로부터 해 질 때까지로 표시되었다. 레 23:32 참조.
50. 그리스도의 모본은 그리스도교 병원들이 그 직원들에게 아무런 안식일 휴식도 제공하지 않고 7일 동안 개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병원 직원들의 필요를 깨달은 엘렌 G. 화잇은 이렇게 말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이날에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옳은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러나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불필요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인 치료와 기다릴 수 있는 수술은 다음 날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사들도 한 날은 휴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Medical Ministry[Mountain View, CA:Pacific Press, 1963],

p. 214).

안식일에 행하는 이 같은 의료 활동에 대한 보수는 자선 사업을 위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엘렌 G. 화잇은 "거룩한 안식일 시간까지라도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바쳐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같은 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의술이 필요되나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도움이 요구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주님의 창고에 드려져야 한다."고 기록하였다(Ibid., p. 216).

51. George E. Vandeman, When God Made Rest (Boise, ID : Pacific Press, 1987), p. 21.

제21장

청지기 직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을 그분께 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십일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청지기 직분은 자애로운 품성을 계발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청지기는 자신의 충성됨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오는 축복들을 즐거워한다.(창 1:26~28, 2:15; 대상 29:14; 학 1:3~11; 말 3:8~12; 고전 9:9~14; 마 23:23; 고후 8:1~15; 롬 15:26, 27)

그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생애를 산다는 것은 굴복 곧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어떻게 굴복하셨으며 자신을 포기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부르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헌신했다고, 곧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얕은지를 보여 주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생애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할 때, 우리의 헌신은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항상 매우 부드럽게 우리의 주의를 자아가 굴

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영역으로 이끄신다. 그리하여 생애는 우리의 자아와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 속으로 점점 더 심화되는 일련의 그리스도인 재헌신을 계속한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됨과 모든 소유를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고전 3:21~4:2)께 바칠 때, 그분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나 도로 우리에게 맡겨 주시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로, 또는 관리자로 삼으신다. 그러므로 안락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주께서 헐벗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로 사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쳐"라는 그분의 항구적인 명령은 교회의 활동들–나누어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침례 주는–을 우리에게 좀 더 귀한 것이 되게 한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고자한다.

청지기 직분이란 무엇인가?

"너희 몸은…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20). 우리는 비싼 값으로 산 바 되고 구속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되찾은 것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창조하"(창 1:1)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부터 그분께 속하였다.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시 24:1)이라고 분명히 진술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당신의 소유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계속해서 세계와 그 거민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시 24:1)의 참된 소유주가 되신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는 인간이 타락 시에 사탄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당신의 소유로 되찾으셨다(고전 6:19, 20).

청지기는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청지기 직분은 "청지기의 지위나 의무, 또는 봉사"를 말한다.[1]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생명, 육체, 시간, 재능 및 능력, 물질적인 소유,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사용을 의미한다."[2]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봉사하며 생애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세에서의 영원한

사물에 대해 좀 더 높은 청지기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법을 배우는"[3] 거룩한 기회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청지기 직분은 "생애를 현명하고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4]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

생애는 네 가지 기본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몸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적인 소유를 주셨다. 그것에 부가하여,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눅 10:27).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능력과 기회를 최선껏 활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계발할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좀 더 큰 축복이 됨을 증명할 수 있다(본서 22장 참조).

능력에 대한 청지기 직분. 각 사람은 특별한 소질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음악 분야에, 다른 사람은 재봉이나 자동 기계를 다루는 것과 같은 손으로 하는 일에 재능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친구를 사귀며 남과 잘 어울리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천성적으로 좀 더 고독한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모든 재능은 그 소유자나 혹은 본래 그것을 시여하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능을 부지런히 연마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재능들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재능들(마태복음 25장)을 계발해야 한다. 선한 청지기는 그들의 주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한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3, 24).

성경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5, 16)고 우리에게 훈계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눅 2:49).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매순간은 귀중하다. 그것은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도록 주어진다. 시간에 대한 충성된 청지기 직분은 주님을 알고 동료 인간을 도우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분은 제칠일 안식일을 당신과 교통하기 위한 거룩한 시간으로 떼어 놓으셨다. 그러나 엿새는 인간 가족들이 유용한 일에 종사하도록 제공되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땅을 개간하고 동물계를 다스리며 에덴동산을 돌보는 책임을 맡겨 주셨다(창 1:28, 2:15).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것으로 즐길 뿐 아니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제한이 가해졌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유주로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이 제한을 존중함으써, 첫 부부는 그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충성심을 나타내었다.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약 1:17)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임(신 8:18)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요소를 여전히 필요로 하였다. 당신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

결국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부양하는 재정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를 지원하기 위한 건전하고도 성서적인 방법으로서 레위족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는 당신의 백성들의 노력과 헌금에 의

존해야 한다고 규정하셨다. 그분은 당신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림으로써 당신과 함께 일하는 이타적인 동역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1. 십일조. 우리 시간의 칠분의 일(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얻은 모든 물질의 십분의 일도 그분께 속한다. 성경은 십일조는 "여호와께 성물"로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레 27:30, 32)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분의 것이므로 그분께 돌려드려져야 한다.

십일조 제도는 그 단순성이 뛰어난다. 그 공평성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균등하게 요구하는 사실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맡겨 주신 데 비례해서, 그분께 십일조를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요구하실 때(말 3:10), 그분은 감사의 정신이나 관대함에 호소하지 아니하신다. 비록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갖 표현 가운데 일부가 되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십일조를 드린다. 십일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당신께 돌려주도록 요구하신다.

1) 십일조를 바침에 대한 예. 십일조를 바치는 일은 성경 전편에 결쳐 인정된 행위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주었다(창 14:20). 그와 같이 함으로써, 그는 멜기세덱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였으며 이 신성한 제도를 익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십일조를 드림에 대한 이 같은 간략한 실례는 그것이 이미 그 같은 초창기에도 확립된 관습이었음을 나타낸다.

분명히, 야곱도 십일조를 드리라는 요구를 이해하였다. 유랑자요 탈주자로서 그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 28:22)라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건국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의존되어 있는 거룩한 제도로서 십일조에 관한 법을 재확인하셨다(레 27:30~32; 민 18:24, 26, 28; 신 12:6, 11, 17).

신약성경은 이 제도를 폐지하기는 커녕 그 타당성을 당연시한다. 예수께서는 십일조를 인정하셨으며 그 정신을 위반하는 자들을 정죄하셨다(마 23:23).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제물들을 규정하는 의문의 율법은 그분의 죽음으로 끝났을지라도, 십일조 제도는 끝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십일조

헌납에 대한 모본이다.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히 5:9, 10, 7:1~22)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5]

2) 십일조의 사용. 십일조는 신성하다. 그러므로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소나 양의 십일조는…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레 27:30~32)라고 명령하셨다. 그분은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말 3:10)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경우 십일조는 종족의 기업을 배당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장려하고 성소에서 봉사하며 여호와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훈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만 했던 레위 족속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민 18:21, 24).

십자가 이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레위 족속의 제사장 직분의 역할이 끝났을 때, 십일조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였다. 바울은 레위 족속의 봉사와 새롭게 수립된 복음 사업과의 유사성을 끌어냄으로써 이것의 이면에 있는 원칙을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11~14).

그러므로 교인들은 기어이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말 3:10)해야 한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목사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충분한 자금이 있도록 해야 한다."[6, 7]

2. 헌금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십일조에 한정시킬 수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 성소와 훗날의 성전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곧 자진하는 마음에서 바친 헌물로 건축되었다(출 36:2~7; 대상 29:14 비교). 그리고 특별한 헌물들은 이들 예배 장소의 유지비로

충당되었다(출 30:12~16; 왕하 12:4, 5; 대하 24:4~13; 느 10:32, 33).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의 수입의 사분지 일 내지는 삼분지 일 정도의 많은 액수를 종교적·자선적인 목적에 바쳤을 것이다. 그 같은 관대한 헌신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던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성됨에 따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말 3:10~12).[8]

오늘날도 역시 주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신 대로 관대하게 바치도록 호소하신다. 헌금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일과 복음의 실제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의료 선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이 바쳐야 할까? 아니면 그들의 헌신의 모본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일까?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청지기 직분의 원칙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은 우리가 누린 빛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 12:48)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내보내셨을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 10:8)고 말씀하셨다. 이 원칙은 재정적인 축복을 나눠주는 일에도 적용된다.

신약성경의 그 어디에도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곳은 없다. 우리의 특권과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몫은 분명히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감사는, 구원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좀 더 관대한 정신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9]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면 될수록 그것을 지원하는 일이 더 크게 필요된다.

3. 현존하는 원칙. 청지기 직분의 원칙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에도 적용된다. 십일조는 세속적인 물질적 소유에 따르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대인 반면에,[10] 현존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

물질에 대한 사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 준다. 돈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수중에 있을 때,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벗은 자에게는 의복을 제공할 수 있다(마 25:34~40).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은 그것이 생애의 필요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의 사업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될 때 크게 가치가 있다.

4. 십일조와 헌금에 대한 불충성.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은 청지기 직분의 거룩한 원칙에 대해서 무지하며 또한 그것을 무시한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까지도 소수만이 청지기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스라엘의 불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분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간주하시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통찰력을 준다. 그들이 십일조와 헌물을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 그분께서는 그것은 결국 도적질과 같은 것이며(말 3:8)그들이 번영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불충성된 회계(會計) 때문이라고 경고하셨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 3:9).

주께서는 은혜의 제공과 더불어 미리 경고하심으로써 당신의 인내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셨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말 3:7).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복을 베푸셨으며 당신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보도록 그들에게 촉구하셨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 3:10~12).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 현대 과학은 지구를 연구와 실험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었다. 그와 같은 연구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생산해 낸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또한 공기와 물과 땅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기술은 자연을 현명하게 관리하기보다는 교묘하게 조작하였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청지기들이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균형을 본래대로 유지시킴으로써 모든 면에서 생명을 보존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시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계 11:18) 것이다. 이 같은 견지에서, 그리스도인 청지기들은 그들 자신의 소유뿐 아니라 주변의 세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

올바른 청지기 정신은 사심 없이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봉사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잔혹함과 당신의 친 백성에 의해 거절당하는 더욱 처절한 고통과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나락 같은 상황을 견디어내셨다. 이 같은 선물에 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칠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분의 소유물–비록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실지라도–가운데서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것이 청지기 정신이다. 그 같은 가장 큰 선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아로부터 벗어나 그분처럼 되게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신자의 교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돌보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청지기 직분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다.

청지기 직분의 축복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다.

개인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시간, 재능, 몸 및 물질적 소유–를 당신께 끊임없이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과 품성 계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항상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과 감사는 성숙하게 된다.

충성된 청지기 직분은 또한 우리로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도록 도와준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 가운데 하나인 탐욕은 십계명에서 정죄되고 있다. 예수께서도 그것에 대해 경고하셨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규칙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생애에서 탐욕과 이기심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청지기 직분은 절약과 능률의 습관을 계발하도록 이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갈 5:24)음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청지기 직분의 원칙이 생애를

지배하게 될 때, 심령은 밝아지며 목적은 확고해지고 불건전한 양상의 사교적인 기쁨은 제거되며 사업적인 활동은 황금률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과 충성의 생애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들이다."[11]

그윽한 만족과 기쁨은, 그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된 모든 것 위에 주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는 말을 기록하신다는 확신에서 이르러온다. "너무 귀중해서 우리가 예수께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관리 하에 맡겨 주신 재물의 달란트를 그분께 돌려드린다면, 그분께서는 우리 손에 더욱더 많이 맡겨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은 그분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12]

타인에 대한 축복. 참된 청지기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 그들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바울의 명령을 실행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딤전 6:18, 19).

청지기 직분은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포함하며,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베푸신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정신이다. 이것은 "더 이상 인생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돈이나, 우리가 획득한 직함이나, 우리가 아는 중요한 인물이나, 우리가 사는 집과 이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위와 영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13]는 사실을 의미한다.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분과 같은 자애롭고 관대한 특성을 계발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신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진정 주는 것이 진정 사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축복. 청지기 직분에 대한 성경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 교인들을 주는 일에 계속적으로 참여시키는 일은 운동과 같다. 그것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복들을 나눠주는 일에 참여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필요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할 준비를 하게 한다. 교회는 목사를 부양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근에 확장하며 세상의 오지(奧地)까지 넓히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갖게 될 것이다. 교회는 그분의 축복을 인해 사랑과 감사의 정신으로 기꺼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마 24:14) 선포될 때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보증에 비추어, 모든 사람은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와 청지기가 되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증거는 세상에 대하여 강력한 축복이 될 것이며 교회의 충성된 청지기들은 복음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뻗어 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Webster's New Universal Unabridged Dictionary, 2nd ed., 1979, p. 1786
2. SDA Encyclopedia, rev. ed., p. 1425.
3. Ibid.
4. Paul G. Smith, Managing God's Goods(Nashville : Southern Pub. Assn., 1973), p. 21.
5. Sec C. G. Tuland, "Tithing in the New Testament," Ministry, October 1961, p. 12.
6. 예컨대 출 27:20에서, 주께서는 등불을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제공해야 한다는 특별한 지시를 하셨다.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위해 기름을 공급하는 일은 계속해야 할 의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운영 비용은 십일조에서 충당되지 않았다. 또한 White, Counsels on Stewardship(Washington, D.C. : Review and Herald, 1940), pp. 102, 103을 보라. 엘렌 G. 화잇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성경 교사들의 봉급은 십일조에서 지불해야 하나, 다른 "교육 목적들"이나 학자금 대여 또는 문서 전도자들을 부양하는 일에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White, Tesimonies, vol. 9, pp. 248, 249 ; White, Selected Messages, book 2, p. 209)고 말한다. 이러한 분야의 하나님의 사업은 헌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7. T. H. Jemison은 십일조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매우 실질적인 제안들을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봉급의 십일조는 계산이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봉급에서는 공제해야 할 '사업 비용'–즉 수입을 내는 데 드는 실제적인 비용–이 없다. 봉급의 10%가 십일조이다.…
   사업상 수입에 대한 십일조는 봉급에 대한 십일조와는 다르다. 도매상이나 소매상은 십

일조를 계산하기 전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할 것이다. 여기에는 인건비, 난방비, 전기료, 보험료, 임대료 또는 재산세 및 유사한 항목의 비용이 포함된다. 물론 이 공제액에는 개인적인 잡비나 가족의 생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농부는 품삯, 비료 대금, 보수비, 이자 세금 및 유산한 경비들을 공제한다. 그러나 농부는 그의 수입에서 가족들에 의해 사용된 농산물은 가족의 생계비를 그만큼 감소시켰으므로 수입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조업자, 투자가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도 유사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오늘날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필요되는 정확한 회계는 사업을 통해 증가된 금액이나 수익에 대해 십일조를 계산하는 일을 용이하게 해 준다. 어떤 사업가들은 그들의 정규 부기 제도 내에 십일조 계산을 포함시킨다.

그의 남편이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아닌 부인은 때때로 어떤 방법으로 십일조를 바쳐야 할지 난처해 한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비로 주어지는 돈에 대해서 십일조를 바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이 같은 일이 금지된다. 그러한 경우, 그는 자신이 벌거나 선사받는 여분의 돈에 대해서만 십일조를 바칠 수 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후 8:12)"(Christian Beliefs, p. 267).

8. 어떤 성경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다양한 헌물에 부가해서 적어도 십이조(어떤 사람들은 십삼조라고 생각함)를 바쳤다고 믿는다. 첫 번째 십일조에 관하여 주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민 18:21)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두 번째 십일조에 대해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신 14:23)고 하셨다. 삼 년 중 이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일조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성소로 가져가야 하였다. 거기서 그것은 종교적 축제를 기념하며 또한 레위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공궤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매 삼 년째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두 번째 십일조를 가정에서 사용해야 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십일조는 자선과 접대를 위해 사용되었다(신 14:27~29, 26:12). White, Patriachs and Prophets, p. 530; "Tithe," SDA Bible Dictionary, rev., p. 1127.
9. Cf. White, Testimonies, vol. 3, p. 392.
10. 성경적 입장에서, 소유는 소유권이 아니다. 십일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관리자에 불과함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또는 우리가 소유주인 체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11. Froom, "Stewardship in Its Larger Aspects," Ministry, p. 20.
12. White, Testimonies, vol. 4, p. 19.
13. P. G. Smith, p. 72.

제22장

그리스도인의 품행

우리는 하늘의 원칙들과 조화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건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의 품성을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과 건강과 기쁨을 낳게 될 일들에만 관계한다. 이것은 우리의 오락과 여흥이 그리스도인의 취향과 아름다움의 최고 표준에 맞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적인 차이점들은 인정할지라도, 우리의 의복은 단순하고 정숙하고 산뜻해야 하며, 그들의 참된 미가 외양을 꾸미는 데 있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부드럽고 유순한 정신을 가꾸는 데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돌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적절한 운동 및 휴식과 더불어 가능한 한 건강에 가장 유익한 음식을 취해야 하며 성경에 명시된 부정한 식품들을 삼가야 한다. 주정 음료, 담배 및 마약과 마취제의 무책임한 사용은 신체에 해가 되므로, 우리는 그것들도 삼가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육체가 우리의 건강과 기쁨과 선량함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훈육에 부합되게 하는 일에는 무슨 일에나 참여해야 한다.(롬 12:1, 2; 요일 2:6; 엡 5:1~21; 빌 4:8; 고후 10:5, 6:14~7:1; 벧전 3:1~4; 고전 6:19, 20, 10:31; 레 11:1~47; 요삼 2절)

그리스도인의 품행, 곧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활 양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 : 1, 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정신적·육체적·영적 능력들을 자진해서 보호하고 계발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요 17 : 15, 16)라고 기도하셨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 거하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얼마나 달라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활 양식을 지녀야 한다. 그것은 다르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칙에 따라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들이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생활 양식은 그분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케 만듦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피조물로서 충만한 가능성에 도달하게 한다. 세상과 다름은 또한 그들의 사명을 촉진시킨다. 곧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일–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일을 촉진시킨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빛이 어두움과 다르지 않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생활하셨으므로 그런 분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마 11 : 19)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칙들을 생애에 실천하셨으므로 아무도 그분을 죄로 책잡을 수 없었다(요 8 : 46).

품행과 구원

합당한 품행이 무엇인가를 결정함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첫째는 구원의 수단으로서 규칙들을 받아들이고 원칙들을 적용하는 것

이다. 바울은 이 같은 극단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갈 5:4)라는 말로써 요약한다.

정반대의 극단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한다. 바울은 이 같은 극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갈 5:13)라. 각 교인들이 그 자신의 양심을 따를 때는, "마태복음 18장과 갈라디아서 6장 1, 2절의 말씀에 따라 동료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바로잡는 일이 없게 된다. 그 안에 상호 간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고 원자로 된 개인들의 집합체가 되며, 각자는 그의 동료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갖거나 피들을 위한 어떤 관심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신의 길로 행한다."[1]

한편, 우리의 품행과 영성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올바른 품행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품행은 구원의 자연적인 결과이며,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기초되어 있다.

성령의 전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인은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전(殿)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1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육체의 사령부인 정신, 곧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호하기 위하여 좋은 건강 습관을 실천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지난 100여 년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 그리고 이 같은 강조는 성과를 가져왔다. 최근의 연구 결과, 재림교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거의 모든 주요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다.[3]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간 생활의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 다 관심을 가진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마 4:23)셨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의 단위로 본다(7장).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분리는 성경적이 아니다."[4]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의 부르심도 포함한다. 감리교회 창설자의 어머니인 스잔나 웨슬리는 이 같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요약하였다. "그대의 이성을 약화시키고 부드러운 양심을 손상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의 힘과 권위를 감소시킨다. 그러한 일은, 그것이 그 자체로서는 아무리 무구한 것일지라도 나쁜 것이다."[5]

건강의 법칙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생을 최선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원수 사탄은 우리의 건강과 즐거움과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마침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한다(요 10:10 참조).

완전한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건강을 획득하는 일은 오히려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몇몇 원칙들을 실천하는 데 달려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명백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감한다. 올바른 식사와 같은 원칙들은 우리의 생활양식에 매우 기본적인 적응과 습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오해되고 있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거절되고 있는 그러한 원칙들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6]

운동의 축복. 규칙적인 운동은 활력을 증진시키며 튼튼한 신체, 긴장 완화, 건강한 피부, 자신감, 효과적인 체중 조절, 소화 작용의 개선, 우울증 및 심장병과 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이다. 운동은 해도 되고 안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최적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이다.[7]

유용한 활동은 번영을 가져오나 무기력과 게으름은 역경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잠 6:6~13, 14:23).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남녀를 위해서 활동, 곧 옥외에서 그들의 가정 정원(家庭庭園)을 돌보는 일을 처방하셨다(창 2:5, 15, 3:19).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육체적인 활동에 대한 모본을 세우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대부분의 생애 동안 목수와 같은, 손으로 하는 노동에 종

사하셨으며, 공중 봉사 기간에는 팔레스틴의 길거리를 걸어 다니셨다.[8]

햇빛의 축복. 햇빛은 생명체에 필수적이다(창 1:3). 그것은 우리의 몸에 자양분과 활력을 주는 영양분을 생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산소를 방출하는 작용을 촉진한다. 햇빛은 건강과 치료를 증진한다.

물의 축복. 인간의 몸은 75퍼센트가 물이나, 이 중요한 액체는 내쉬는 숨과 땀과 배설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다. 깨끗한 물을 하루에 6컵 내지 8컵 마시게 되면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그것이 제공하는 이완 작용이다.

신선한 공기의 축복. 가정의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불결한 공기 때문에 혈액은 모든 세포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요구되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이것은 기민하지 못하고 반응이 무딘 사람이 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제, 즉 마약과 흥분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의 축복. 마약은 그것이 자극을 주고 긴장과 고통으로부터 해방감을 준다는 구실로 우리 사회에 침투하였다. 그리스도인도 마약 사용을 부추기는 유혹들에 둘러싸여 있다. 청정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음료까지도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커피, 차 및 콜라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며,[9] 과일 맛이 나는 주정 청량음료들에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결과는 비교적 순한 마약의 사용이 점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더 강한 마약을 사용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건강에 해로운 모든 것을 삼가며 오직 유익한 것만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1. 담배. 어떤 형태로든 담배는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완만한 독약이다. 처음에는 그 영향이 거의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흥분시킨 다음, 신경을 마비시키며 뇌를 약화시키고 흐리게 한다.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자살을 감행하고 있으며,[10] "살인하지

말라"(출 20:13)는 여섯째 계명을 범하고 있다.

2. 주정 음료들. 알코올은 지구성(地球星)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약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 사람을 파멸시켰다.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고로 인한 죽음과 가난을 초래함으로 사회 전반에 그 대가를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만 우리와 교통하시기 때문에, 알코올은 정신의 모든 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체내에 알코올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자는 조정 능력 상실, 정신의 혼란, 방향 감각 상실, 마비, 무감각증, 혼수 상태 그리고 죽음으로 발전해 간다. 정규적으로 주정 음료를 마시게 되면 결국은 돈을 잃고 판단력과 학습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11]

주정 음료의 사용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의 사용을 인정하신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혼, 일부 다처 및 노예 제도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 관습–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인하지 않으신–에 참여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성경절들을 해석함에서, 하나님께서 용인하셨다 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지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모세가 왜 이혼을 허락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같은 해석 원칙을 지적해 준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 19:8)[12]고 말씀하셨다. 에덴은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거룩한 모델이다. 이 같은 다른 관습들과 마찬가지로, 알코올의 사용도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다.[13]

3. 다른 마약들과 마취제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인간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많은 다른 해로운 마약들과 마취제들이 있다.[14]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소유물임을 앎으로써 그들의 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휴식의 축복. 적당한 휴식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친 제자들에게 하셨던 동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도 하신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막 6:31). 휴식 기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필요되는 많은 고요함을 제공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시 46:10). 하나님께서는 주일 중 일곱째날을 쉬는 날로 떼어놓으심으로써(출 20:10)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셨다.

휴식은 잠을 자거나 정규적인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이다. 그것에는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포함된다. 피로는 반드시 긴장이나 과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이 환경이나 질병 또는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나치게 자극을 받음으로 피곤해질 수 있다.

휴양은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 재창조이다. 그것은 정신과 육체에 힘을 주고 튼튼하게 하며 새롭게 한다. 그리하여 신자들로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그들의 일터로 되돌아가도록 준비시킨다. 최선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를 강화시켜 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형태의 휴양과 오락만을 추구해야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유익한 휴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다음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5, 16).

1.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및 비디오. 이러한 매체들은 위대한 교육적인 도구들이 될 수 있다. 그것들은 "현 세계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었으며 온 세계의 생활과 사상과 활동에 손쉽게 접촉하도록 만들었다."[15] 그리스도인은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개인의 생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비디오와 텔레비전은 거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장된 연기로써 가정에 건전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못한 영향을 끼친다. 만일 우리가 식별력이 없고 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가정을 극장이나 값싸고 천박한 가수들의 쇼 무대로 변화시킬 것이다."[16]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불건전하고 폭력적이며 감각적인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시청각 매체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짙은 사악성을 묘사하는 동일한 도구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많은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도 방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관계와 생애의 책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무엇을 시청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원칙들을 세우도록 할 뿐 아니라 시청하는 일에서도 시간적인 제한을 둘 것이다. 만일 우리가 대중 매체들을 선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해서 정신을 오염시키거나 과도한 시간을 소모케 하느니보다는 아예 그것들을 없애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마 5:29, 30 참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관하여, 성경의 중요한 원칙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고후 3:18)른다고 말한다. 바라봄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칙이 또한 부정적인 면으로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죄와 범죄들—살인, 간음, 강도 및 다른 타락한 행위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은 오늘날의 도덕의 붕괴에 일조를 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기록된 바울의 충고는 가치 있는 오락의 형태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을 제시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2. 독서와 음악. 이와 동일한 높은 표준은 그리스도인의 독서와 음악에도 적용된다. 음악은 순결하고 고상하고 숭고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좋은 음악은 품성을 가장 훌륭하게 향상시킨다.

이와 반대로 타락한 음악은 "영혼의 리듬을 파괴하며 도덕성을 분쇄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재즈, 록 음악 또는 이와 관련된 변형된 형태의 멜로디나 어리석고 유치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어떤 언어도 피할 것이다."[17] 그리스도인들은 외설적인 시나 멜로디로 된 음악을 듣지 않는다(롬 13:11~14; 벧전 2:11).[18]

독서 가치 있는 많은 것을 제공한다. 정신을 계발시키고 넓혀 주는 훌륭한 문학이 풍부하다. 그러나 "종종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나 정신과 도덕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문학이 홍수를 이루기도 한다. 난잡한 모험과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하는 이야기들은 그것이 실화이든 허구든 간에" 신자들에

게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고상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생활 방식을 싫어하게 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도모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19]

3. 용납할 수 없는 활동들. 재림교회는 도박, 카드놀이, 극장 출입 및 춤추는 일을 피하도록 가르친다(요일 2:15~17). 그들은 광포한 운동 경기를 관전하느라 낭비하는 시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빌 4:8).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며 우리로 영원한 관심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영혼을 사탄의 사슬에 얽매이게 만든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육체적·정신적·영적 성질을 진정으로 새롭게 해 줄 그 같은 건전한 형태의 여가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영양분이 있는 음악의 축복. 창조주께서는 최초의 부부에게 이상적인 음식을 제공하셨다.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창 1:29).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식에 "밭의 채소"(창 3:18)를 더하셨다.

오늘날 건강 문제는 퇴행성 질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은 음식 및 생활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로 이루어지는 음식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

1. 본래의 음식물. 성경은 정결한 동물들을 먹는 일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의 음식물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계획하시지 않았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진 채식이 최선의 음식이라는 사실–이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한다–때문이다.[20]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21] 매년 미국에서만 검사 과정에서 살모넬라균과 다른 미생물에 의한 오염 상태를 발견치 못함으로 수백만 명이 가금(家禽) 식품 중독으로 고통을 당한다.[22] 몇몇 전문가들은 "박테리아에 의한 오염이 식품 속의 화학 첨가제나 방부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며 질병의 발생 빈도도 이 같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증가된다고 생각한다.[23]

더욱이 최근에 실시된 연구 결과는, 증가되는 육류 소비가 동맥경화, 암,

신부전(腎不全), 골다공증(骨多孔症), 선모충병(旋毛蟲病)을 일으키며 평균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24]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정하신 음식인 채식은 이상적인 음식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같은 이상적인 식물(食物)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환경이나 여건에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2. 정하고 부정한 육류들. 오직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식품으로 소개하셨다. 모든 채소가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되 고기를 피째 먹지 말도록 규정하셨다(창 9:3~5).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으로 암시되고 있는 또 다른 규정은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로 규정한 것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정한 짐승은 각 종류대로 오직 한 쌍인데 반하여 정결한 짐승은 각 종류대로 일곱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지시하신(창 7:2, 3)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음식뿐 아니라 희생을 위해서(창 8:20) 정결한 동물이 필요되었기 때문이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은 정결한 식품과 부정한 식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설명해 준다.[25]

본질적으로, 부정한 동물들은 최선의 식물이 되지 않는다. 사자와 돼지로부터 독수리와 해저에 서식하는 흡판이 있는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물이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거나 육식 동물들이다. 그들의 습성 때문에, 그것들은 질병의 중개자가 되기에 더 적합하다.

연구 결과 "돼지고기와 조개는 상당량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중독시키는 많은 독소와 오염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26]

부정한 식품을 삼가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주변의 타락하고 부정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감사함을 나타내었다(레 20:24~26; 신 14:12)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몸에 부정한 어떤 것을 들여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이상에 못 미치는 일이다.

신약은 정하고 부정한 육식의 구분을 철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물 금기 조항이 레위기서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단지 의문(儀文)이나 의식에 불과하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구별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오래전인 노아의 시대로 거슬로 올라간다. 이 음식물 금기 조항은 건강의 원칙으로서

계속적인 의무를 수반한다.[27]

3. 규칙성과 단순성과 균형. 성공적인 음식물 개혁은 점진적으로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우리는 고지방 식품이나 설탕이 함유된 음식물은 제거하거나 아주 적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가장 단순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며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한다. 혼합된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 못 된다. 많은 조미료와 양념들은 소화 기관을 자극하며,[28]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할 경우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29]

그리스도인 의복에 따르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최초의 의복을 준비하셨으며, 오늘날 우리가 적합한 의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마 6:25~33). 우리의 의복 선택은 단순성과 단정함과 실용성과 건강과 활동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1. 단순성.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바 이것은 우리 생애의 다른 모든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옷 입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도인 증인에게는 단순성이 요구된다. 구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법으로 정한 요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옷 입는 방법은 세상에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나타낸다."[30]

2. 높은 도덕성.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정욕"(요일 2:16)을 일으키는 몸차림으로써 품성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를 강조함으로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고 단정한 옷차림과 행동을 할 것이다. 단정함은 도덕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3. 실용성 및 경제성.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돈에 대한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딤전 2:9)을 피하고 절약할 것이다. 그러나 절약은 반드시 가장 값싼 의복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종종 고가품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일 수 있다.

4. 건강적일 것.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압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옷차림은 피할 것이다.

5. 우아함과 자연미의 특징이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생의 자랑"(요일 2:16)에 대한 경고를 이해한다. 백합화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 6:29)고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그분은 하늘이 인정하는 아름다움은 우아함과 단순성과 순결과 자연미로 특징지어진다고 설명하셨다. 일시적인 유행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적인 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딤전 2:9).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들처럼 행동함으로가 아니라, 매력적으로 신선한 차이점을 보여 줌으로써 비신자들을 구원한다. 베드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양을 꾸미는 대신에 믿는 자들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계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면한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벧전 3:1~4).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1) 품성은 그 사람의 참된 미를 타나낸다. 베드로와 바울은 둘 다 단장하는 일에서 그리스도인 남녀들을 지도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너희의 단장은…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벧전 3:3)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딤전 2:9, 10).

2) 단순성은 개혁과 부흥에 조화된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그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넘겨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들을 땅에 묻었다(창 35:2, 4).[31]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배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회개하는 가운데 "그 장신구를 떼어 내"었다

(출 33:5, 6). 바울은 성경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 배교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고전 10:11).

3) 선한 청지기 직분은 희생적인 생활을 요구한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 반면에, 물질주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값비싼 의복과 자동차와 보석에서부터 호화스러운 집에 이르기까지 유혹의 올무를 놓는다. 생활 방식과 외모의 단순성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해서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20세기의 사회에서 이방인들의 탐욕과 물질주의와 화려함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게 한다.

앞서 열거한 이 같은 성경의 교훈과 원칙들에 비추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석으로 단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것이 반지, 귀고리, 목걸이, 팔찌, 화려한 넥타이 핀, 커플링 및 장식핀과 그리고 그 주요 기능이 과시하는 데 있는 어떤 유형의 보석이든지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며 성경이 요구하는 단장의 단순성과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32]

성경은 화려한 화장도 이교주의 및 배교와 관련짓는다(왕하 9:30; 렘 4:30). 그러므로 우리는 화장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상태의 건강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옷 입는 방법에서 구주를 높일 것 같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자석처럼 될 것이다.[33]

그리스도인 표준의 원칙

그 모든 표명에서,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서 사신 대로 생애하려고 한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하지 말라"는 것의 목록으로 간주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구원의 구조 속에서 활동하는 일련의 긍정적인 원칙들로 이해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도록 당신께서 오셨다고 강조하셨다. 우리를 충만한 생애로 인도하는 원칙들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개인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요 3:8). 성령께서는 생애에 최초의 변화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성령의 영향은 계속적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갈 5:22, 23). 그리스도교의 정당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삶.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간에, 우리는 온갖 상황하에서도 그리스도의 뜻과 정신에 조화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전 2:16).

엘렌 G. 화잇은 그리스도와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생애하는 삶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는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 자신과 완전히 일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화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나 다름없이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를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34]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이다.

시편은 영적 생애의 이 같은 면을 크게 강조한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시 63:2~5)리라.

그리스도인에게 그와 같은 찬양의 태도는 생애의 다른 문제들도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사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를 바라봄으로, 오직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요일 3:22; 엡 5:10과 비교) 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마음속에 유발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고후 5:15) 산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다. 그는 그의 구주 앞에 다른 아무 신(神)도 두지 않는다(고전 10:31).

모본이 되기 위하여 삶. 바울은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전 10:32)라고 말했다. "이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행 24:16). 만일 우리의 그릇된 모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6).

봉사하기 위하여 삶.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현재 사는 방식대로 사는 주요한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전 10:33, NIV; 마 20:28과 비교).

요구 조건들과 지침들

사람의 생활 방식이 그의 영적 경험과 전도(傳道)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체로서 우리는 신자가 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들로서 일정한 생활 양식을 표준으로서 제시한다. 이러한 표준들 가운데는 담배, 술, 정신을 착란시키는 화학 물질 및 부정한 육식을 삼가는 일과, 의복과 여가의 활용과 같은 문제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험의 증거가 포함된다. 이러한 최소한의 표준들은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이상(理想)을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단순히 성숙해 가는 빛나는 그리스도인 경험을 계발함에서 필수적인 첫 단계들을 의미한다. 그러한 표준들은 신자들의 공동체 내에 연합을 가져오는 데 필수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인 품행의 계발–"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점진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일생 동안의 연합을 포함한다. 거룩한 생활이란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지배에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며,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교훈들을 계시하실 때 날마다 그것들에 일치시키는 삶인 것이다. 우리 각자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판

단하는 일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롬 14:1, 15:1).

구주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처럼 풍성한 계획을 마련하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참고 문헌

1. L. A. King, "Legalism or Permissiveness: An Inescapable Dilemma?" The Christian Century, April 16, 1980, p. 436.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내에서의 건강 생활에 대한 성경상 기초의 발달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Dam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pp. 221~240; Damsteegt, "Health Reforms and the Bible in Early Sabbatarian Adventism," Adventist Heritage, Winter 1978, pp. 13~21.
3. See Lewis R. Walton, Jo Ellen Walton, John A. Scharffenberg, How You Can Live Six Extra Years(Santa Barbara, CA: Woodbridge Press, 1981), p. 4; D.C. Nieman and H. J. Stanton, "The Adventist Lifestyle-A Better Way to Live," Vibrant Life, March/April 1988, pp. 14~18.
4. J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Grand Rapids, MI: Zondervan 1975), vol. 1, p. 884
5. C. B. Haynes, "Church Standards- No. 5," Review and Herald, Oct. 30, 1941, p. 7.
6. 이 간단한 건강 법칙들의 좀 더 완전한 치료법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V. W. Foster, New Start! (Santa Barbara, CA: Woodbridge Press, 1988).
7. 예컨대 Kenneth H. Cooper, Aerobics Program for Total Well Being(New York: M. Evans, 1982); Physical Fitness Education Syllabus(Loma Linda, CA: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School of Health, Loma Linda University, 1976~1977); John Dignam, "Walking Into Shape," Signs of the Times, July 1987, p. 16; B E. Baldwin, "Exercise," Journal of Health and Healing 11, No. 4(1987): 20~23; Jeannne Wiesseman, Physical Fitness, Abundant Living Health Serrice, vol. 5(Loma Linda, CA: School of Health, Loma Linda University, n. d.), pp. 21, 37, 38, 45을 보라. 또한 Dianne-Jo Moore, "Walk Your Tensions Away," Your Life and Health, No 4(1984): 12, 13도 참조하라.
8. 여러 형태의 운동 가운데서 걷기는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의 하나다. J. A. Scharffenberg, "Adventist Responsibility in Exercise" (unpublished manuscript); White, Testimonies, vol. 3, p. 78; White, "Temperance," Health Reformer, April

1872, p. 122; Dignam, "Walking Into Shape," pp. 16, 17을 보라.

9. 카페인은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고혈압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심장질환, 당뇨병, 결장암, 방광암 및 췌장암과 관계가 있다. 임신 중의 과도한 사용은 출산 결함 및 체중 미달아를 증가시킨다. See Robert O'Brien and Sidney Cohen, "Caffeine," Encyclopedia of Drug Abuse(New York: Facts on File, 1984), pp. 50, 51; Marjorie V. Baldwin, "Caffeine on Trial," Life and Health, October 1973, pp. 10~13; E. D. Gorham, L. F. Garland, F. C. Garland, et al, "Coffee and Pancreatic Cancer in Rural California County," Western Journal of Medicine, January 1988, pp. 48~53; B. K. Jacobsen, and D. S. Thelle, "The Tromso" Heart Study: Is Coffee Drinking and Indicator of a Lifestyle with High Risk for Ischemic Heart Disease?" Acta Medica Scandinavia 222, No. 3(1987), 215~221; J. D. Curb, D. M. Reed, J. A. Kautz, and K. Yano, "Coffee, Caffeine and Serum Cholesterol in Japanese Living in Hawaii,"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April 1986, pp. 648~655를 보라. 커피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들은 또한 "종교적인 일에 덜 활발하다"(B. S. Victor, M. Lubetsky, and J. F. Greden, "Somatic Manifestations of Caffeinism,"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May 1981, p. 186). 다양한 음료들 속에 든 카페인의 함량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The Latest Caffeine Scoreboard," FDA Consumer, March 1984, pp. 14~16; Bosley, "Caffeine : Is It So Harmless?" Ministry, August 1986, p. 28; Winston J. Craig and Thuy T. Nguyen, "Caffeine and Theobromine Levels in Cocoa and Carob Products," Journal of Food Science, January–February, 1984, pp. 302, 303, 305.

10. 순환기 계통에 관하여, 담배는 심장병, 고혈압 및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을 수 없는 버거 씨 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호흡기 계통에 관해서는, 폐암, 만성 기관지염 및 폐기종(肺氣腫)의 결과로 사망자 수를 증가시킨다. 그것은 폐와 불결한 기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기관지의 섬모를 마비시키며, 후두, 구강, 식도, 방광, 신장 및 췌장암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또한 십이지장 궤양 및 궤양으로 인한 다른 병발증으로 생기는 사망과도 관계가 있다. 예컨대 Smoking and Health;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79)를 보라.

11. 예컨대 Galen C. Bosley, "The Effects of Small Quantities of Alcohol," Ministry, May 1986, pp. 24~27을 보라. 사교적인 음주자 가운데서도, 알코올은 도덕적 분별력을 중심부인 전두엽(前頭葉)의 축소를 초래한다(L. A. Cala, B. Jones, P. Burns, et al, "Results of Computerized Tomography, Psychometic Testing and Dietary Studies in Social Drinkers, With Emphasis on Reversibility After Abstinenc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Sept. 17, 1983, pp. 264~269)를 보라. Cf. Bosley, "Why a Health Message," Adventist Review, July 30, 1987, p. 15. 사교적인 음주자에 대한 심리학적인 테스트는 그들의 정신 능력과 지적 수행력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음을 보여주었다(D. A. Paker, E. S. Paker, J. A. Brody, and R. Schoenberg, "Alcohol Use and Cognitive Loss Among Employed Men and

Wo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May 1983, pp. 521~526).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회 참석자가 줄어든다(A. M Eward, R. Wolfe, P. Moll, and E. Harburg, "Psychosocial and Behavioral Factors Differentiating Past Drinkers and Lifelong Abstain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January 1986, p. 69).

12. 성만찬 시 사용되는 포도즙의 논의를 참조하려면 15장의 각주 8을 보라.
13. 구약에서 포도주에 사용된 일반적인 용어는 **야윈**(yayin)이다. 이 용어는 비록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는 충분히 묵힌 포도주를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될지라도,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효된 상태로 전이되는 그 모든 단계에서의 포도즙을 가리킨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말은 **티로쉬**(tirosh)이다. 그것은 자주 "새 포도주"로 번역되는데, 신선하게 짜낸 포도즙이다. 구약의 헬라어 칠십인 역(LXX)에서 두 용어는 **오이노스**(oinos)로 번역된다. **오이노스**는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포도주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문맥에 따라 발효된 포도주나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둘 다 언급한다. 그 문제에 대한 구약의 용례를 참조하려면 Robert P. Teachout, "The Use of 'Wine' in the Old Testament"(Th. D. dissertation, 1979, available through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Ann Arbor, MI); Lael O. Caesar, "The Meaning of Yayin"(unpublished M. A. thesis, Andrews university, Berrien Springs, MI, 1986 ; William Patton, Bible Wines(Oklahoma City, OK: Sane Press, n. d.), pp. 54~64을 보라.

    "독주"[히브리어로 **쉐카**(Shekar)]라는 표현은 대개 발효된 달콤한 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포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에는 맥주(보리나 기장이나 밀로써 만들어지는)와 같은 제품 그리고 대추야자나 종려로 빚은 술이 포함된다. 그러한 표현은 증류된 술을 나타내지 않는데, 그것은 증류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Patton, pp. 57, 58, 62).

    발효된 포도주. 성경은 알코올이 든 포도주는 비난하는데, 이는 그것이 폭력, 불행 및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잠 4:17, 23:29, 35).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로 압제자가 되게 하며(사 56:10~12)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사 28:7)과 벨사살 왕(단 5:1~30)의 왜곡된 판단력과도 관계가 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성경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나 즙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말하며 큰 축복이라고 천거한다. 그것은 헌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였다(민 18:12, 13; 느 10:37~39, 13:12, 13).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들 가운데 하나이며[창 27:28, "새 술"(NIV); 신 7:13, 11:14; 잠 3:10; 사 65:8; 욜 13:18]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삿 9:13)이며, 영적 축복들을 상징한다(사 55:1, 2; 잠 9:2, 3). 그것은 또한 건강에 유익한 음료이다(딤전 5:23).
14. 예컨대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rugs of Abuse, 3rd ed.(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n. d.); Dan Sperling, "Drug Roundup," Adventist Review, Apr. 9. 1987, pp. 12, 13를 보라.
15. SDA Church Manual, p. 147.
16. Ibid.
17. Ibid. p. 148. 많은 현대 음악과 오락 가운데 나타난 타락의 실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을 참조하라. Tipper Gore, Raising PG Kids in an X-rated Society,(Nashville, TN : Abingdon Press, 1987).

18. "악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형태의 오락은 사교적인 춤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오락을 위한 춤은 타락의 학교이며 사회에 무서운 저주가 된다.'" - Messages to Young People, p. 399(p. 192도 참조하라). (고후 6:15~18; 요일 2:15~17; 약 4:4; 딤후 2:19~22; 엡 5:8~11; 골 3:5~10 참조). 죄 짓게 하는 이 같은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딤후 3:4)는 세속적이고 부주의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연합함으로 상업화된 오락을 후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SDA Church Manual, p. 148).
19. Ibid, pp. 146, 147.
20. 채식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 Havala, J Dwyer, "Position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Vegetarian Diets-Technical Support Paper,"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March 1988, pp. 352~355; Terry D. Shultz, Winston J. Craig, et al, "Vegetarianism and Health" in Nutrition Update, vol. 2, 1985, pp. 131~141; U. D. Register and L. M. Sonnenberg, "The Vegetarian Diet,"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March 1973, pp. 253~261.
21. Committee on the Scientific Basis of the Nation's Meat and Poultry Inspection Program, Meat and Poultry Inspec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85), pp. 21~42; John A. Scharffenberg, Problems With Meat(Santa Barbara, CA: Woodbridge Press, 1979), pp. 32~35를 보라.
22. 예컨대 Committee on Meat and Poultry Inspection, Meat and Poultry Inspection, pp. 68~123; Robert M. Andrews, "Meat Inspector: 'Eat at Own Risk,'" Washongton Post, May 16, 1987.
23. Frank Young, Commissioner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Sanford Miller, Director of the FDA's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as quoted by Carole Sugarman, "Rising Fears Over Food Safety," Washington Post, July 23, 1986.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46), pp. 384, 385 비교.
24. Scharffenberg, Problems With Meat, pp. 12~58.
25. Shea, "Clean and Unclean Meats,"(unpublished manuscript, Biblical Research Institute, General Conference of SDA)을 보라.
26. Winston J. Craig, "Pork and Shellfish-How Safe Are They?" Health and Healing 12, No. 1(1988): 10~12.
27. 거룩함에 대한 신약의 관심은 구약의 그것과 일치한다. 사람들의 복리에 대한 영적인 관심사뿐 아니라 육체적인 관심사가 나타나 있다(마 4:23; 살전 5:23; 벧전 1:15, 16). 예수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막 7:19)고 선언하셨다는 마가의 진술은 그분께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물의 구분을 철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의 논쟁은 음식물의 종류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과 관계가 있다. 논쟁은 식사 전에 의식적(儀式的)인 손씻음이 필요하냐 아니

냐였다(막 7:2~5). 사실상, 예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씀하셨다(막 7:20~23).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막 7:19)고 선언하셨다. 여기에 사용된, 음식물을 뜻하는 헬라어 **브로마타**(bromata)는 음식물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즉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음식물을 언급한다. 그것은 육식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동물들에 대한 베드로의 환상은 부정한 동물이 음식물로서 적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부정하지 않으며 그가 그들과 교제할지라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베드로 자신도 그 환상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였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행 10:28).

로마인들과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롬 14장; 고전 8:4~13, 10:25~28)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방 세계에 만연된, 우상에게 육류를 바치는 행습에 관하여 암시하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대두된 문제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물을 먹는 것이 경배의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먹었다. 그러나 그 같은 강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채소만 사용했는데, 그것들은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았다. 바울은 아무도 채소를 먹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음식물로서 적합한 "모든 것을 먹"(롬 14:2)는 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곧—결혼과 식물(食物)에 신자들이 참여하는 일을 금하게 될 미래의 이설(異說)에 대해서 경고하였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신 모든 음식물들이다. 또한 바울이 한 말을 부정한 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딤전 4:3)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8. 후추, 양념, 겨자, 절인 것 및 유사한 물질들은 위를 상하게 한다. 그것들은, 처음에는 위의 내벽을 자극하고 다음에는 점액질을 분비하는 벽을 파괴하여 손상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하게 한다. 위에 가해지는 자극은 뇌에 영향을 주며, 그것은 결국 기질에 영향을 주어 종종 성급하게 만든다. Cf. M. A. Schneider et al. "The Effect of Spice Ingestion on the Stomach," American Journal of Gastronterology 26 (1956): 722, as quoted in "Physiological Effects of Spices and Condiments,"(Loma Linda, CA: Department of Nutrition, School of Health, Loma Linda University [mimeographed]).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pp. 339~345.
29. 조미료와 양념은 식도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소장과 결장의 점액질 벽을 파괴할 수도 있다. 그것들은 신장을 자극하며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것들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Kenneth I. Burke and Ann Burke, "How Nice Is Spice?" Adventist Review, Jan. 8, 1987, pp. 14, 15; Department of Nutrition, "Spices and

Condiments"; Marjorie V. Baldwin and Bernell E. Baldwin, "Spices–Recipe for Trouble," Wildwood Echoes, Winter 1978~1979, pp. 8~11을 보라.

30. William G. Johnsson, "On Behalf of Simplicity," Adventist Review, March 20, 1986, p. 4.
31. The SDA Bible Commentary, vol. 1, p. 417.
32. Year–End Meeting Actions of the North American Division of Seventh–day Adventists(1986), pp. 23~25을 보라.
33. 화장품의 사용은 전적으로 무해하지 않다. 조제 시에 사용된 어떤 화학물질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혈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화학물질과 그 사람의 민감성에 따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N. Shafer, R. W. Shafer, "Potential Carcinogenic Effect of Hair Dyes,"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March 1976, pp. 394~396 ; Samuel J. Taub, "Cosmetic Allergies: What Goes on Under Your Makeup," Eye, Ear, Nose, and Throat, April 1976, pp. 131, 132; S. J. Taub, "Contaminated Cosmetics and Cause of Eye Infections," Eye, Ear, Nose, and Throat, Feb. 1975. pp. 81, 82를 보라. White, "Words to Christian Mothers," Review and Herald, Oct. 17, 1871 비교.
34. White, The Desire of Ages, 668.

제23장

결혼과 가정

결혼 제도는 에덴에서 신성하게 제정되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의 교제로 맺어지는 평생 동안의 연합임을 예수님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 서약은 배우자에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서약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신앙을 가진 남녀간에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간의 사랑과 신의와 존경과 책임은 결혼 관계의 바탕이 되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혼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음행 외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비록 어떤 가족 관계가 이상에 못 미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배우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훈육을 통하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와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부모는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본과 말로써, 그리스도는 그들로 당신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언제나 자애롭고 관심을 베푸시는 사랑의 훈육자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족 간의 유대를 향상시키는 것이 마지막 복음 기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창 2:18~25; 마 19:3~9; 요 2:1~11; 고후 6:14; 엡 5:21~33; 마 5:31,

32; 막 10:11, 12; 눅 16:18; 고전 7:10, 11; 출 20:12; 엡 6:1~4; 신 6:5~9; 잠 22:6; 말 4:5, 6)

가정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소속감과 사랑과 친밀함에 대한 서로 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자신들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동질성이 확립되며 개인의 가치에 대한 지각이 계발된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교의 원칙이 실현되며 그 가치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가정은 크나큰 행복이 깃드는 곳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심한 상처를 입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조화된 가정 생활은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면서 진정으로 체득된 그리스도교의 원칙들을 나타낸다. 불행하게도, 이 같은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대의 가정은 너무도 희귀하다. 대신에 많은 가정이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과 의도들–다툼, 거역, 경쟁, 분노, 부정 및 심지어 잔인성까지 드러낸다. 그러나 이 같은 특성들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 19:8)고 말씀하셨다.

태초부터

안식일과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다. 그것들은 시간과 장소와 문화에 관계없이 휴식과 소속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 두 제도의 수립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것들은 창조 시에 그분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종적이며 가장 뛰어난 선물들이었다.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휴식과 재생의 시간을 주셨으며 당신과 교제하는 시간도 주셨다. 최초의 가정을 세우심에서, 그분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구성 단위를 마련하셨으며, 그들에게 소속감을 주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원만한 인간으로서 계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6, 27절은 이 세상에 거주하게 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기술한다. "하나님이 이르시

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란 용어는 여기서(히브리어와 영어 모두에서) 총칭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구약에 500번 이상이나 나온다. 이 용어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한다. 성경 본문은 남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여자는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1] 반대로,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람**을 구성한다. 그리고 삼위 신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지라도, 그들은 기능에서 동일하지 않다. 그들은 본질과 가치에서는 동일하나 인격에서는 동일하지 않다(요 10:30; 고전 11:3과 비교). 그들의 체격은 보완적이며, 기능은 협력적이다.

양성(兩性)은 다 좋은 것이므로(창 1:31) 그들의 상이한 역할도 좋은 것이다. 가족과 가정은 성적(性的)으로 다르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성 생식을 하는 어떤 동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지 않고도 세상이 인생들로 편만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형태와 특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각자 자신 속에 상대방에게는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를 보완해 주는 두 개체"를 만드셨다.[2] 남성 혹은 여성만으로 구성된 세계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참된 충족은 남성과 여성이 공히 존재하는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동등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둘 다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처음 태어났으므로 인류의 머리[3]가 된 아담은, 그의 생애의 첫날에 그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지각하였다.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창 2:20)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부족을 감지하시고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겟**(ne-ged)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 "앞에, 전면에, 맞은편에, 조화되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전치사와 관련되는 명사이다. 이 경우 아담 앞에 서야 했던 사람은 그의 상대자로서 그와 조화되면서 그를 보완해 주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창 2:21) 그의 반려자를 만드셨다.[4]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담은 이 특별한 창조 행위가 가져다준 밀접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즉시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여기에 내 자신과 본질이 같은–내 뼈에서 취하고 내 살에서 취한 한 사람이 있도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창 2:23, TEV; 고전 11:8 참조)고 외쳤다.

결혼.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양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통일성을 가져오셨다. 그 최초의 금요일에 그분께서는 최초의 결혼을 집례하시고, 당신의 형상의 전형인 그 두 사람을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그 후 줄곧 결혼은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되었다.

성경은 결혼을 분리와 결합을 모두 나타내는 결정적인 행위로 묘사한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1. 떠나감. 결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의 근본적인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다. 결혼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대신해야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사람이 그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떠남"으로 다른 사람과 "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결혼을 위한 굳건한 기초가 놓이지 않는다.

2. 연합함. "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집착하다, 고정시키다, 결합하다, 꼭 붙잡다"는 뜻의 말에서 유래한다. 명사로서 그것은 심지어 땜질과 납땜(사 41:7)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같은 결합의 밀접함과 단단함은 결혼 유대의 특성을 예증해 준다. 이 같은 연합을 깨뜨리고자 하는 시도는 어떤 것이라도 이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개인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이 같은 인간의 결합이 밀접한 결합이라는 사실은, 동일한 동사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로도 강조된다.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연합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신 10:20).

3. 맹약함. 성경에서 이 맹세, 곧 그것에 의해 혼인한 부부가 한데 묶이게 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엄숙하고도 구속력 있는 협정에 사용되는 용어인 '언약(covenant)'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말 2:14; 잠 2:16, 17).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당신의 백성, 곧 교회와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엡 5:21~33). 상대방에 대한 그들의 서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되는 충성과 인내에 기초되어야 한다(시 89:34; 애 3:23).

하나님과 양가의 가족과 친구들과 지역 사회는 그들이 서로 맺는 언약에 대한 증인이다. 그 언약은 하늘에서 비준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 그리스도인 부부는, 결혼 시에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서로에게 충성되기로 언약하였음을 안다.[5]

4. 한 몸이 됨.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결합하기로 한 언약은 연합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신비이다. 여기에 충만한 의미에서 하나됨이 있다. 곧 결혼한 남녀는 함께 걷고, 함께 서며, 깊은 친교를 나눈다. 최초에는 이 같은 하나됨이 결혼으로 인한 육체적인 연합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은 상호 관계에서 육체적인 면을 단단히 묶어 주는 정신과 감정의 밀접한 연합을 나타낸다.

1) 함께 걸음.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암 3:3)느냐고 물으신다. 그 같은 질문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물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 나라의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도록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신 7:4; 수 23:11~13 참조)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교훈을 무시하였을 때,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당했다(삿 14~16; 왕상 11:1~10; 스 9, 10).

바울은 이 원칙을 명백한 말로 반복하였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후 6:14~16, 17, 18 참조).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 끼리만 결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그보다 더 확대된다. 참된 하나됨은 신앙과 행위에서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종교적인 경험의 차이는 생활 방식에 차이를 가져와 심한 긴장과 결혼생활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한다.[6]

2) 함께 섬. 한 몫이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충성해야 한

다. 사람이 결혼할 때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배우자에게 수반되는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인다. 결혼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책임을 자진해서 나눠 지며 모든 일에 대해서 배우자와 함께 대처할 것을 선언한다. 결혼은 끊어지지 않을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사랑을 요구한다.

"두 사람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한다. 곧 그들의 육체와 물질적 소유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기쁨과 고통과 희망과 공포와 성공과 실패까지도 공유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다른 두 사람으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7]

3) 친밀성. 한 몸이 되는 것은 성적인 연합을 포함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창 4:1)했다. 연합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 곧 아담과 하와의 때 이후로 모든 남자와 여자가 느껴 온 욕구를 가지고, 모든 결혼한 남녀는 최초의 사랑 이야기를 재연한다. 성적 친교의 행위는 그들에게 가능한 육체적 연합에서 가장 가까운 행위이다. 그것은 또한 한 쌍의 남녀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함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애정은 따뜻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징지워져야 한다(잠 5:18, 19).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히 13:4). "성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에서 우러나는 즐거운 성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고 분명히 말해 준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더러운 것이 아니며 죄 된 것도, 불결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영예로운 장소—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밀히 만나는 지성소이다. 그것은 신성하고도 심히 유쾌하게 됨을 의미하는 시간이다."[8]

5. 성서적 의미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부분—육체적·정서적·지적·영적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호 성장하도록 격려해 주는,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다정하며 친밀한 헌신이다. 결혼 생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작용한다. 즉 낭만적이고 정열적인 때가 있으며, 매우 감상적인 때가 있고, 기분 좋은 때가 있으며, 사교적이고 소속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참되고 지속적인 부부간의 사랑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신약에 묘사된 **아가페** 사랑—비이기적인, 순전히 남을 위한 사랑—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죄의식과 결과들을 받아들이셨을 때, 이 같은 사랑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그분은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었다.

이 사랑을 묘사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고전 13:4~8)한다.

에드 휘트(Ed Wheat)는 이 성경절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능력의 근원에 플러그가 꽂혀 있으므로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이 실패할 때에도 그것은 계속 작동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은 계속해서 꽃필 수 있다. **아가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이다. 그것은 의지의 자의적인 선택에 기초한 정신적인 태도이다"[9]

6. 개인적인 영적 책임. 비록 결혼한 배우자가 서로에게 맹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한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후 5:10). 그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행한 일에 대하여 상대방을 결코 비난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의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각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에게 힘과 격려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혼 생활에 미친 인간 타락의 영향

죄가 가져온,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간의 왜곡된 반영은 그것이 인간 생활의 다른 부분에 미친 것처럼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때 완전한 사랑과 연합이 지배하던 곳에 이기주의가 끼어들었다. 이기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움직이는 주요 동기이다. 복음이 나타내는 굴복과 복종심과 헌신의 모든 원칙들을 반대함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갖 실패의 공통 분모가 된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저들의 창조 목적을 위반하였다. 그들은 범

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살았다. 그러나 범죄한 후로는,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대신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그분을 피했으며 자신들에 관한 사실을 숨기고자 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자기 행위의 합리화를 통해서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죄책감에 압도되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눈을 바로 볼 수 없었다. 그때 이후로, 이 같은 회피와 자기 정당화를 앞세운 부인(否認)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꼴짓는 통상적인 유형이 되었다.

그들로 하여금 숨도록 만든 공포심은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도 왜곡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들은 둘 다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그들의 비난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세우신 사랑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을 증거한다.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동등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이 같은 원칙이 첫 부부와 이후로 계속될 부부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작정하셨다.[10]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원칙은 왜곡되었다. 그 후로 힘과 속임수와 개성의 말살을 통한 지배가 모든 세대를 통하여 결혼 생활의 특징이 되었다. 자아중심주의는 서로에 대한 관용과 이해의 결여를 낳았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타락 이전의 결혼 생활의 특징인 자아를 부정하는 조화인데, 이러한 조화가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 남편과 아내의 애정은 서로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 각자는 상대방의 행복을 계발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지만, 그들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소유인 그의 개성을 상실함이 없어야 한다.[11]

하나님의 이상(理想)에서 벗어남

일부 다처제(또는 일처 다부제). 한 남자(또는 여자)가 여러 명의 배우자를 거느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최초의 결혼식과 더불어 정하신 하나됨과 연합의 정신과는 반대된다. 일부 다처제에서 다른 모든 사람의 포기란 없다. 비록 성경이 복수의 결혼 생활을 부조들 당시의 문화적인 현실로 묘사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러한 결혼이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

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그 같은 결혼생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위 가족들은 자녀들을 감정의 무기로 이용하여 가족 내의 다른 식구들을 상해함으로써 세력 다툼과 쓰라린 원한과 이간에 연루되었다(창 16장 참조, 29:16~30:24과 비교).

일부 일처제 결혼은 부부에게 그들 간의 친밀함과 결합을 강화해 주는 소속감을 준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며 그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참견할 수 없음을 안다. 일부 일처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반영한다.[12]

음행과 간음. 현대의 사조와 행습은 두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성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하리라는 지속적인 서약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다. 그러나 성경은 혼인 외에 이루어지는 여하한 성적 관계든 다 죄로 간주한다. 일곱째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며 변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말라"(출 20:14). 여기서는 자격자나 무자격자나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 계명은 결혼 관계를 방심함 없이 지켜 주는 원칙이다.

음행과 간음에 대한 성경상 견해의 완전한 의미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 "승락하는 어른들"이 나타내는 오늘날의 관용과는 전적으로 반대된다. 신약과 구약의 많은 성경절은 그 같은 행위들을 정죄한다(레 20:10~12; 잠 6:24~32, 7:6~27; 고전 6:9, 13, 18; 갈 5:19; 엡 5:3; 살전 4:3 등).

그 같은 간통은 파급 효과가 크고 매우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들은 합법적인 배우자를 속이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다. 그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며, 자녀가 있을 경우 특별히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러한 사통은 성병을 전염시키며 사생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사건들 위에 드리워지는 거짓과 부정직의 구름은 신뢰심을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파괴시킨다. 이 같은 형태의 부도덕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그만두고라도,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일련의 불행한 결과들은 그 같은 일에 빠지는 일에 대하여 충분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불순한 생각. 죄란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고 방식

에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마음의 문제이다. 만일 샘이 오염될 것 같으면, 강물은 쉽게 깨끗해지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들어 있는 것이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아셨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마 15:19)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분께서는 불성실한 행위의 근원은 생각과 감정임을 밝히셨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 28).

상상력의 도착(倒錯)을 통하여 돈을 벌려는 산업이 발달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선정적인 영화와 책들은 그리스도인 생활과는 도무지 부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불법적인 관계들을 조장할 뿐 아니라 남녀를 단순한 성적 대상물로 저하시키며, 그리하여 성의 참된 의미를 곡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흐려 버린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생각을 하고 순수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순결한 사회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친상간. 어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에 대한 건전한 애정의 표현을 구분짓는 경계선을 넘어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과 너무 친밀하게 된다. 종종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시되고 자녀 중 하나가 배우자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같이 경계를 침범해서 더럽히는 일은 형제 자매들과 다른 가족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다.

구약에서 근친 상간은 금지되었으며(레 18:6~29; 신 27:20~23) 신약에서는 정죄되었다(고전 5:1~5). 이 같은 유의 성적 남용은 자녀의 성적 발달을 손상시키며 훗날의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치와 죄의식의 부당한 짐을 지우게 된다. 부모들이 그러한 경계선을 침범하게 될 때, 그들은 자녀의 신뢰심의 계발–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매우 중대한–에 손상을 입힌다.

이혼. 예수께서 하신 다음의 진술은 이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요약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 막 10:7~9). 결혼은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궁극적으로 남편

과 아내를 연합시켜 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나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이 그들의 연합에 날인하신 분은 그분이다. 그러므로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는 성경상 근거 위에 기초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진술은 이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를 단단히 규정짓는 기본적인 성경상 원칙들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도록 의도하셨다. 바리새인들이 결혼 생활의 불화가 이혼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를 그분께 문의했을 때, 그분은 에덴의 모범적인 결혼은, 영구적인 연합임을 확증하셨다. 그들이 이혼에 관한 모세의 법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대답을 재촉했을 때, 그분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 19:8)고 대답하셨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혼의 유일한 합법적 사유는 음행뿐이라고 규정하셨다(마 5:32, 19:9).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분의 대답은, 예수께서는 성실성에 대해 그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계셨음을 분명히 한다. 그분은 말씀하신 바와 구약과 신약에서 결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원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영구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

한쪽 배우자가 불성실하다고 해서 결혼이 반드시 이혼으로 끝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쓴 뿌리를 없애 버림으로 깊은 회개와 용서를 촉구하는 것이다. 간음을 했을 경우에라도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상처를 받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본래 의도하셨던 목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간음이 다른 어떤 죄보다도 그대들의 결혼 생활에 더 파괴적인 요소가 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대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꺼이 그대들을 고쳐 주실 것이며 서로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13]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사랑의 영구한 연합이 한쪽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배우자나 아이들에 대한 육체적인 학대와 같은 행위 때문에 합법적인 별거가 필요되기도 한다. "어떤 민사 재판권에서는 그와 같은 별거가 이혼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데, 이 같은 환경 하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 서약에 대한 불성실'이 게재되

지 않은 그와 같은 별거나 이혼의 경우, 그 기간에 상대방이 재혼했거나 간음이나 간통을 했거나 또는 죽어서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어느 쪽에도 재혼할 수 있는 성경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14]

결혼은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혼을 방지하며, 혹 이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할 특별하고도 엄숙한 책임이 있다.

동성애.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이 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창조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의 성적 감정이 이성(理性)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사람의 특징을 이루는, 차이나게 하면서도 연결시키는 힘은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두 성을 서로에게 끌어당기는 매력을 통해서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죄가 이 같은 기본적인 성적 경향에까지 영향을 미쳐 성도착이라는 현상까지 일으킨다. 그럴 경우, 이성에 이끌리는 자연적인 성적 경향은 도착(倒錯)되어 기본적인 성적 경향이 동성의 사람에게로 이끌리는 현상을 나타낸다.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부정적인 말로써 강력하게 비난한다(창 19:4~10; 유 7, 8; 레 18:22, 20:13; 롬 1:26~28; 딤전 1:8~10 참조). 이 같은 행위는 남녀에게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롬 3:23)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무질서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구속적(救贖的)인 태도로 취급할 것이다. 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 동성애의 경향을 지닌 자들뿐 아니라 불안과 수치와 죄의식을 일으키는 행동이나 관계에 빠져든 모든 사람은 잘 훈련되고 경험 있는 그리스도인 카운슬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있지는 않다.[15]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지배권을 주셨다(창 1:26, 2:15). 그들은 첫 가정과 첫 교회를 이루었으

며, 사회의 효시가 되었다. 그와 같이 사회는 결혼과 가정을 기초로 건설되었다. 그들은 땅에 거하는 유일한 인간 거주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세계의 인구 통계가 가리키는 바로는 더 이상 사람으로 채워지고 정복되어야 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없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세상에 내보내고자 하는 결혼한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주님의 양육 방법과 훈계로 저희 자녀들을 길러야 할 의무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결혼한 부부는 그 일에 착수하기 전에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을 숙고해야 한다.

부모

1. 아버지. 성경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가정의 머리와 제사장이 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골 3:18~21; 벧전 3:1~8).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엡 5:23~28).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남편과 아내를 인도하심에 따라 "양자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양심의 문제가 아닌 바에는 '남편에게 판단의 우선권을 부여한다.'"[16] 동시에 그는 아내의 개성을 최고로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부드러운 통치자의 정신을 나타내셨듯이 남편도 희생적으로 가정을 인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혜와 사랑의 통치이다.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사용하시는 것과 똑같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남편을 지배하실 때, 아내의 복종은 오직 안식과 유익만을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될 것만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 된 자들로 하여금 아내의 복종이 얼마나 완전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순결하고 세련되며, 그의 가정의 주(主)가 되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라."[17]

아브라함처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는 하루가 시작될 때, 가족들을 주위에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길 것이다. 저녁에는 가족들로 하여금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에 대하여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 예배는 붙들어매는 끈이 되며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시간이 될 것이다.[18]

현명한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도의 중요성, 타인에 대한 사랑, 일하는 방법, 겸손, 자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물에 대한 사랑과 같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집에 없다면, 자녀는 이 같은 특권과 기쁨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2. 어머니. 어머니가 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일이다. "보좌에 앉은 임금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성을 꼴 지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구할 수 없으니 대개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의 직무의 가치를 인식하여 세상의 표준을 따르려는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라. 그의 직무는 현세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다."[19]

가족 내의 누군가가 자녀의 품성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자녀를 훈련하는 일은 아무렇게나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길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녀에 대하여 그의 부모와 똑같은 심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창조하시되, 자신의 몸 안에 아이를 배고 젖을 빨리며 아이를 양육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거나 홀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20] 만일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될 것 같으면, 그는 온종일 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어머니는 영원을 위해 품성을 꼴 짓는 일에서 창조주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상호 관계의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가정을 천직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와 아내가 되는 것을 천직이요 매우 보람된 과업으로 여기는 일이 20세기에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희귀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일은 노력의 낭비인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인가? 볼품 없는 노예인가? 아니다 그것은 조류(潮流)를 되돌이키며 종족(種族)을 이어 주고 역사에 영향을 미치며 끊임없이 확산되는 파문이 되어 감지되고 칭송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가장 보람찬 일이다."[21]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이름이 그 이름의 주인공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었다.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받았다(창 3:20). 그는 모든 인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히브리어로 **하와**(chawwah)]은 '삶'[히브리어로 **하이**(chay)]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그것은 그가 인간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놀랄 만큼 영예로운 지위를 나타낸다.

출산이 아담이나 하와 둘 중에 누구 혼자서 누릴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아닌 것처럼, 양육하는 일도 그러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하였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는 일에서뿐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일은 지금도 부모 둘 다의 책임이다. 부모 양편은 각각 일정한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은 주님께 하듯이 실천되어야 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자녀

1. 우선적인 일. 주님과 그들의 배우자에게 한 서약 외에는 저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자녀들에 대해서보다도 부모가 더 크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진보와 안락보다는 저희 자녀들의 유익을 앞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오고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출발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부모의 감화력이 자녀의 영적·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이 출산 전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한다.[22]

2. 사랑.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어야 한다. 비록 부모의 사랑이 완전히 보답되지는 못할지라도, 자녀들은 일생을 통해 훌륭한 자화상

과 건강한 정서를 갖겠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사랑을 획득해야 하거나 자신이 거부되고 중요치 않게 취급된다고 느끼는 자녀는 깊이 스며들어 습관이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쓸 것이다."[23]

부모의 사랑 가운데 염려 없이 자라는 자녀들은 구김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들은 받는 법뿐 아니라 주는 법과 자신 외에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3. 봉헌.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가능한 한 생애의 초기에 저희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주님께 바친(눅 2:22~39) 것과 매우 흡사하게 회중 앞에서 기도로써 저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예식으로써 그와 같이 봉헌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는 확장된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애를 시작한다. 회중들은 어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참여한다.

부모는 또한 이 같은 예식을 통해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주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스스로 헌신한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부모는 어린 자녀가 생애의 초기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저희 자녀들을 안식일학교와 교회에 정규적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런 다음, 자녀가 학령기에 달하면 부모와 교회는 주님에 대한 자녀의 사랑을 더욱 심화시켜 줄 그리스도인 교육을 그가 받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4. 부단성. 부모들이 가르치는 영적 교훈은 자녀의 생애의 모든 국면과 관계가 있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7~9, 11:18).

자녀는 가정 전체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는 가정 예배만으로는 영성을 전달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그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의복과 심지어는 가정의

장식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을 자애로운 부모로 인식하는 것은 자녀의 그리스도인 성장에 중요하다.

5. 순종을 배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이 같은 훈육에는 무엇이 수반되는가? 훈육에는 처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포함된다. 처벌은 대개 지난 일을 취급하지만, 훈육은 미래 지향적이다. 훈육은 어린 자녀가 훈련과 지도와 모본을 통해 어른이 되는 견습을 받는 제자가 되는 과정이다. 그것은 충성, 진실, 공평, 일관성, 인내, 질서, 자비, 관대함 및 직업과 같은 중요한 원칙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이 일찍부터 저희 부모들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일생 동안 권위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의 순종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참된 순종은 단순히 그것이 요구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서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순종의 비결은 새로남에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만 의무감으로만–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시니까–지키는 자는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사실상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의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의(忠義)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다."[24]

6. 사회화와 언어 개발. 자녀는 가정에서 그것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과 특권과 더불어 인간의 일원으로서 사회화된다. 사회화는 자녀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다. 의사소통의 온갖 뉘앙스를 지닌 언어는 자녀가 배우는 첫 번째 기능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도록 조심스럽게 조정되어야 한다. 자녀는 가족 가운데서 즐거운 나머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애정의 표현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자주 들어야 한다.

7. 성의 정체성.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활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가족 제도의 골간이 되는 남성과

여성의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이다. 어른들은 올바르고 적절한 정보를 통해 성(性)의 계발에 따르는 아름다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을 성의 남용에서 보호하는 일 또한 그들의 책임이다.

8. 가치관을 배움. 사회성을 계발시키는 가정의 기본적인 기능은 가족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동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족의 가치관과 종교적 개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들이 어떤 종교적 원칙들을 고수하도록 주장할 수 있으나, 그들이 자녀 앞에 예시하는 가치관들은 그 같은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일관성은 중요하다.

교회 가족.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결혼은 배타적이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다. 고도의 이동 사회에서는 대가족–조부모와 형제 자매와 사촌들이 모두 가까이 살고 있는–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교회 가족은 친척들과 떨어져 있거나 친척이 없는 사람이 가치와 소속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홀로 된 부모는 이곳에서 저희 자녀를 사랑과 부드러운 애정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안락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에서 결핍될 수 있는 적절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회중 가운데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 자녀들은 존경심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사랑하고 귀여워할 수 있는 어린 자녀를 갖는 만족감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18).

하나님께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 16:31),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사 46:4)고 말씀하심으로써 나이든 사람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독신자들은 교회에서 사랑과 존중히 여김을 받고 또한 그들의 사랑과 활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 교회의 봉사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된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렘 31:3).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한 부분이다(약 1:27; 출 22:22; 신 24:17, 26:12; 잠 23:10; 사 1:

17). 교회 가족은 가족이 없는 자에게 안식처와 피난처와 소속감을 주는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다. 교회 가족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교 자체의 표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연합(요 17:20~23)으로 각 교인들을 포용할 수 있다.

돌이킴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자체가 주님을 위해 가족들을 구원하고 붙드는 도구가 될 것이다. 구약의 바로 마지막 말씀은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 4:5, 6). 오늘날 많은 세력이 가족을 가정으로부터 끌어내려고 꾀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재연합과 재단결과 돌이킴과 회복을 호소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호소에 응하는 가정은 참그리스도교를 드러낼 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가정들로 구성된 교회는 성장할 것이며, 그들의 젊은이들은 떠나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참고 문헌

1. Cf. White, Education, p. 20.
2. A. W. Spalding, Makers of the Home(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1928), p. 58.
3. 아담이 지구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비록 그가 최초로 범죄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창 3:9 ff)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그에게 책임을 지게 하신 점에서 명백하다. 신약도 두 '아담'을 비교하면서 죄와 죽음이 초래된 일(롬 5:12 ff; 고전 15:22 ;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 647 참조)에 대하여 첫째 아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4.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그에게 적합한 조력자–을 준비하셨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그 여자가 머리로서 그를 지배하지 말 것이며 열등하여 그의 발 아래 짓밟히지도 말 것이며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였다"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46).

5. 결혼의 언약적인 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arriage as Covenant" in Covenant and Marriage: Partnership and Commitment (Lader's Notebook) (Nashiville: Family Ministry Department, Sunday School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1987), pp. 51~60.
6. SDA Church Manual, pp. 150, 151; F. M. Wilcox, "Marrying Unbelievers," Review and Herald, July 2, 1914, pp. 9, 10; G. B. Thompson, "Marrying Unbelievers; 'Can Two Walk Together, Except They Be Agreed?'" Review and Herald, May 4, 1944, pp. 1~4; White, Testimonies, vol. 4, pp. 503~508을 보라.
7. Walter Trobisch, I Married you (New York, N. Y.: Harper and Row, 1971), p. 18.
8. Ed Wheat, Love Life for Every Married Couple(Grand Rapids: Jondervan, 1980), p. 72.
9. Ibid., p. 62.
10.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p. 58, 59.
11. 예컨대 White, The Ministry of Healing, p. 361; White, Messages to Young People(Nashville: Southern Pub. Assn., 1930), p. 451을 보라.
12. 또한 White, Patriachs and Prophets, pp. 145, 208, 337, 338; White, Spiritual Gifts, vol. 3, pp. 104, 105; vol. 4a, p. 86을 보라.
13. Wheat, Love Life for Every Married Couple, p. 202. 또한 "The Divorce Court or the Cross," in Roy Hession, Forgotten Factors…An Aid to Deeper Repentance of the Forgotten Factors of Sexual Misbehavior(For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76): Wheat, "How to Save Your Marriage Alone," in Love Life; and Gary Chapman, Hope for the Separated: Wounded Marriages Can Be Healed (Chicago: Moody Press, 1982)을 보라.
14. SDA Church Manual, p. 175.
15. Hession, Forgotten Factors를 보라.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줌에 있어서, 이 훌륭한 책은 성적 부도덕에 따르는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16. White, Testimonies, vol. 1, p. 307.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남편은 우리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과 견해와 사고는 최대한 그의 것과 일치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양심의 문제가 아닌 한 남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우리는 머리에 복종해야 한다"(E. G. White Letter 5, 1861).
17. E. G. White manuscript 17, 1891. Larry Christenson, The Christian Family(Minneapolis, MN: Bethany Fellowship, 1970).
18. 활기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ohn and Millie Youngberg, Heart Tuning: A Guide to Better Family Worship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85) ; Christenson, The Christian Family, pp. 157~197.
19. White, The Adventist Home, pp. 231, 232.

20. 자녀를 다른 사람의 보호에 맡겨야 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완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과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사귀게 될 다른 어린이들을 주의깊이 관찰해야 한다. 그들은 저희 자녀가 그러한 아이들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어린이들은 많은 것을 매우 쉽게 배우며 그것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녀를 돌보는 일에 따르는 모든 국면들은 주의 깊이 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1. Edith Schaefer, What Is a Family?(Old Tappan, N J: Fleming H. Revell Co., 1975), p. 47.
22. White, The Desire of Ages, p. 512: White, The Adventist Home, pp. 255~259를 보라.
23. Gary Smalley and John Trent, The Blessing(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저자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느냐 또는 쏟지 않느냐가 어떻게 성장하는 자녀의 정서적. 육체적 건강에 열쇠가 되는지를 주의 깊이 묘사한다.
24. White, Christ's Object Lessons, p. 97.

제24장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하늘에는 성소, 곧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참장막이 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당신의 속죄의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분은 승천하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분은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되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 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 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히 8:1~5, 4

:14~16, 9:11~28, 10:19~22, 1:3, 2:16, 17; 단 7:9~27, 8:13, 14, 9:24~27; 민 14:34; 겔 4:6; 레 16장; 계 14:6, 7, 20:12, 14:12, 22:12)

저녁 제사 시간이 되자,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서서 희생제물인 어린양을 드릴 준비를 갖추고 서 있다. 그가 희생물을 죽이고자 칼을 들자 땅이 진동한다. 그는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고 어린양은 도망친다. 지진의 소음 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요란한 소리를 듣는다.

마을 저편에서는 검은 구름이 십자가를 둘러싼다. 하나님의 유월절 양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시고 세상 죄를 위하여 운명하신다.

표상은 실체를 만났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성전의 봉사가 가리켜온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완성하셨다. 그러나 표상이 실체와 만났기 때문에 이 희생을 예표하는 의식들은 폐지되었다. 그래서 휘장은 찢어지고, 칼은 떨어지고, 어린양은 도망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 역사(歷史)에 있어서 다른 과정이 더 있다. 그것은 십자가가 사건 너머까지 미친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분께서 더 이상 어린양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로 우리의 주목을 이끈다.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희생이 드려졌다(히 9:28). 이제 그분은 이 속죄의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하늘의 성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상에 거하실 장소(출 25:8)로서 첫(옛) 언약(히 9:1) 아래 기능을 발휘한 첫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배운 장소였다. 약 400년 후에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의 영구적인 성전이 모세의 이동식 성막을 대신했다.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을 파괴한 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귀향인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대왕이 그것을 아름답게 중창하였고, 로마인들이 주후 70년에 파괴했다.

신약성경은 새 언약에도 성소, 곧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이 성소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것이 아니"(히 8:1, 2)다.[1]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늘 성소의 "모양", 사본, 축소판 모델을 보았다(출 25:9, 40).[2] 성경은 모세가 지은 성소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혹은 "참 것의 그림자"(히 9:23, 24)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지상 성소와 그 의식들은 하늘 성소의 역할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우리에게 준다.

성경 전편을 통하여 하늘 성소, 혹은 하늘 성전의 존재가 알려져 있다(시 11:4, 102:19; 미 1:2, 3 참조).[3] 계시자 요한은 이상 가운데 하늘 성소를 보았다. 그는 그것을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계 15:5), 혹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계 11:19)이라고 묘사한다. 거기서 그는 지상 성소의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의 원형인 일곱 금촛대(계 1:12), "금단(분향단)"(계 8:3)과 같은 기구들을 보았다. 그는 또한 지상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흡사한 언약궤를 거기서 보았다(계 11:19).

하늘의 분향단은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계 8:3, 9:13, 4:2, 7:15, 16:17).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실 장면은(단 7:9, 10) 하늘 성전 혹은 성소 안에 있다.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계 15:5~8).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 성소가 실제적인 곳이요(히 8:2) 비유나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 준다.[4] 하늘 성소는 하나님의 주(主) 거처이다.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

성소의 기별은 구원의 기별이었다. 하나님은 그 의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다(히 4:2). 지상 성소의 봉사는 "현재까지의 비유", 곧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비유였다(히 9:9, 10). "표상과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비유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상의 구속주, 곧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희생과 그의 제사장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의도하셨다"(갈 3:23; 요 1:29).[5]

성소는 그리스도의 봉사의 세 단계, 즉 (1) 대속적 희생, (2) 제사장 중보, (3) 마지막 심판을 예증했다.

대속적 희생. 성소의 모든 희생제사는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나타내었으며(히 9:22) 죄의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표상했다. 그 희생제사들은 다음의 진리들을 예시(例示)했다.

1.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는 선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모든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반역이기 때문에, 결코 등한히 여겨질 수 없다. "죄의 삯은 사망이"(롬 6:23)다.

2.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고전 15:3)셨다.

3.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속죄의 희생. 그 희생은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롬 3:24, 25).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를 받으신 것은 아무 공이 없는 우리가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채찍에…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도다'(사 53:5).[6]

지상 성소의 희생제사는 반복적이었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구속의 이 같은 의식적 비유는 반복되고 또 해마다 반복되어졌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실체, 곧 우리 주님의 실제적 속죄의 죽음은 갈바리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히 9:26~28, 10:10~14).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 값은 충분히 지불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다. 법적 견지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회복되었다(롬 5:18). 속죄, 혹은 화목은 희생제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회개한 신자는 우리 주님의 이 완성된 사업을 신뢰할 수 있다.[7]

제사장 중보. 희생제사가 죄를 속했다면 왜 제사장이 필요했는가? 제사장의 직무는 죄인들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의 필요를 주목하게 했다.

제사장 중보는 죄의 심각성과 그것이 죄 없는 하나님과 죄 많은 피조물 사이에 만들어 놓은 분리를 보여 준다. "마치 모든 희생제사가 그리스도의 죽

음을 예표했던 것처럼 모든 제사장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예표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8]

1. 중보자와 속죄. 제사장이 중보 봉사를 하면서 행하는 속죄의 피의 적용은 속죄의 한 형식으로 나타났다(레 4:35). '**속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atonement)는 사이가 버그러진 양편을 화목시킨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처럼, 그분의 중보, 혹은 그분의 죄 없는 생애와 대속적 죽음의 공로의 적용은 신자에게 화목 혹은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실현시킨다.

레위족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 이후에 계속 수행해 오신 구원의 봉사를 예시(例示)한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서 봉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로서의 직무를 행하신다(히 8:1, 2).

하늘 성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제사장 봉사를 하시는 위대한 지휘 본부이다.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히 4:16) 용기를 얻는다.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은 두 가지 별개의 봉사를 했는데, 그것은 성소 혹은 첫째 칸에서의 매일의 봉사(본서 4장 참조)와 지성소 혹은 둘째 칸에서의 연례적 봉사였다. 그 봉사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를 예시했다.[9]

2. 성소에서의 봉사. 성전 안의 성소에서의 제사장 봉사는 중보와 용서와 화목과 회복의 봉사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계속적인 그 봉사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접근하는 길을 제공했다.[10] 그것은 회개한 죄인이 중재자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상징했다(엡 2:18; 히 4:14~16, 7:25, 9:24, 10:19~22).

회개한 죄인이[11]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왔을 때, 그는 죄 없는 동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죄를 고백했다. 이 행동은 상징적으로 그의 죄와 그 형벌을 희생물에게로 옮겼다. 그 결과로, 그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12] 유대 백과 사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치(代置)와 전가(轉嫁)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반적인 의식이다. 모든 제사에는 대치의 사상이 있다. 희생물이 인간 죄인을 대신한다."[13]

속죄제물의 피는 다음의 두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1) 성소 안으로 가져왔을 때는 성소 안 휘장 앞에 뿌려지고, 분향단 뿔에도 발려졌다(레 4:6, 7, 17, 18). 2) 그러나 성소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을 때, 그것은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발려졌다(레 4:25, 30). 그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의 고기의 일부를 먹었다(레 6:25, 26, 30). 어떤 경우에서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형벌이 성소와 제사장에게로 옮겨진 것을 깨달았다.[14]

"이 의식적(儀式的) 예증에서 **성소**는, 회개한 자가 속죄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실수를 고백할 때 **그의 범죄와 형벌을** 적어도 한동안 **담당했다.** 그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확신하면서 돌아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형적(原型的) 경험에서도 죄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죄와 형벌을 떠맡으신다.** 그는 값없이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그의 보증인이시다."[15]

표상과 원형에서 성소의 봉사는 주로 개인에게 중심을 둔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는 죄인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제공한다(히 7:25).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아들의 의로운 품성과 순종을 입혀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그분의 자녀들 중 하나로 기록하신다(엡 4:32; 요일 1:9; 고후 5:21; 롬 3:24; 눅 10:20).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적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의하여 그에게 전달됨으로써 그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미덕과 덕성이 계발된다(벧후 3:18; 갈 5:22, 23)."[16]

성소의 봉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심판. 대속죄일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세 국면을 설명한다. 그것은 (1)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불리는 "천년기 전 심판"(혹은 조사 심판), (2) "천년기의 심판", (3) 천년기 끝에 이루어지는 "집행 심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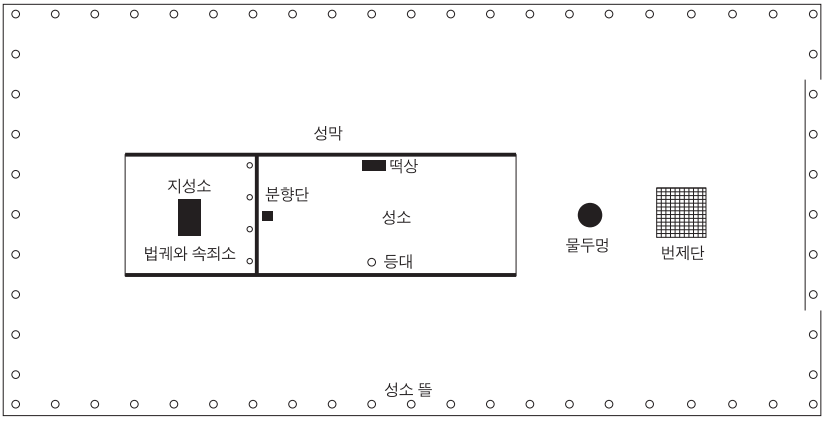
1. 지성소에서의 봉사. 제사장 봉사의 두 번째 부분은 주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을 근간으로 하는데,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지성소에 초점을 둔 봉사, 오직 대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고 일년에 단 하루에만 국한된 봉사로 이루어진다.

성소의 정결에는 두 염소가 필요했다. 하나는 여호와께 드릴 염소요 다른 하나는 아사셀(히브리어로 Azazel)을 위한 것이었다. 여호와께 드릴 염소를 바침으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와 회막(성소)과 단(뜰의)"을 위하여 속죄했다(레 16:20, 16:16~18 참조).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져간 대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그것을 직접 뿌렸다.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불하셔야 했던 무한한 값을 표상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 자신과 화목시키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를 나타냈다(고후 5:19 참조). 그리고 그는 이 피를, 일년 중 매일 고백한 죄를 나타내는 피가 뿌려져 온 분향단과 번제단에도 뿌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은, 백성은 물론이요 성소를 위한 속죄를 이루고, 그 둘을 다 같이 정결케 했다(레 16:16~20, 30~33).

그러고 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성소를 더렵혀왔던 죄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 있는 염소, 곧 아사셀에게로 그 죄들

히브리 성소의 평면도



을 옮겼으며, 그 염소는 하나님 백성의 진영에서 떠나보냈다. 이 행동은 상징적으로 매일의 용서의 의식에 사용된 희생제물의 피나 고기를 통하여 회개한 신자들에게서 성소로 옮겨진 백성들의 죄를 제거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소는 정결함을 받고 다음 한 해의 봉사 사업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레 16:20, 30~33).[17] 이리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모두 바로잡히게 되었다.[18]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죄의 박멸을 취급하는 심판 과정을 예시한다. 그날에 이루어진 속죄는, "죄의 존재를 영원히 도말하고 우주가 하나님의 조화로운 지배 아래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공로의 최종 적용을 예표했다."[19]

2. 아사셀 염소. "히브리어 **아사셀**(azazel)을 영어로 '스케입고웃'(scapegoat)(쫓겨난 염소, escape goat)로 번역한 것은 불가타역(Vulgate)의 **카페르 에미사리우스**(caper emissarius), 곧 '보내 버린 염소'에서 유래된다"(레 16:8, RSV, KJV 난외 주).[20] 레위기 16장을 주의 깊이 살펴보면, 아사셀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나타낸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아사셀은 희생제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히 9:22). (2) 성소는 아사셀이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의 피에 의하여 완전히 정결해졌다(레 16:20). (3) 성경 기록은 아사셀을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되고 상반되는 존재로 취급한다. (레위기 16장 8절은 글자 그대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소 비유의 배경에서 보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아사셀은 사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21]

3. 심판의 다른 국면들. 대속죄일의 아사셀 의식은 갈바리를 넘어서 죄악 문제의 마지막 종결, 곧 죄와 사탄의 추방을 나타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은 죄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탄에게로 넘겨질 것이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들은 완전히 파멸되어 우주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에 의한 속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완전히 화목해지고 조화롭게 될 것이다(엡 1:10).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제사장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국면에서 성취되어야 할 목표이다."[22] 이 심판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최종적으로 옹호하게 될 것이다.[23]

대속죄일은 마지막 심판의 세 국면들을 묘사했다.

1) 성소에서의 죄의 도말은 첫 번째 혹은, 재림 전 조사 심판의 국면과 관련된다. 그것은 "대속죄일이 회개한 자가 고백한 죄를 성소에서 도말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에 초점을 둔다.

거짓 신자들은 체질을 당하여 떨어져 나갈 것이며, 참신자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충성된 우주 앞에서 재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기록들은 도말될 것이다."[24]

2) 아사셀의 광야 추방은 황폐된 이 지구에서의 사탄의 1000년 동안의 감금을 표상하는데, 그것은 재림 시에 시작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두 번째 국면과 부합된다(계 20:4; 고전 6:1~3). 이 천년기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살펴봄으로써 죄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깨닫게 됨으로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관하여 품을 수도 있는 모든 의문을 풀어 줄 것이다(본서 27장 참조).

3) 정결해진 진영은 불이 악인들을 소멸하고 지구를 정하게 할 때, 곧 세 번째의 심판 혹은, 집행 심판의 결과를 표상한다(계 20:11~15; 마 25:31~46; 벧후 3:7~13; 본서 27장 참조).

예언상의 하늘 성소

위에서 우리는 표상과 원형의 관점에서 성소를 살펴보았다. 이제 예언 가운데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하늘 성소의 기름부음. 다니엘 9장의 70주일의 예언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의 시작을 가리켰다. 490년 기간에 이루어질 마지막 사건들 중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는 것이었다(단 9:24; 본서 4장 참조).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쉬 코데쉼**(qodesh qodeshim)'은 사실상 지성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성소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지상 성소의 시작에서, 성소가 그 봉사를 위하여 바쳐지도록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은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시작에서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위하여 그것을 봉헌하도록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 직후에 승천하심으로(단 9:27)[25]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하늘 성소의 정결. 하늘 성소의 정결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지상의 성소)은 이런 것들(짐승들의 피)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하늘의 성소)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히 9:22, 23), 곧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 주석가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간파했다. 헨리 알포드(Henry Alford)는 "**하늘 그 자체가 정결이 필요했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정결을 얻었다."[26]고 말했다.

웨스트코트(B. F. Westcott)는 "하늘에 있는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인류의 미래의 생애의 상태를 구체화하는 한(限) 인류의 타락으로 무엇인가 오염되었으므로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상 성소의 하늘 원형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했다.[27]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속죄제물 위에 놓여지고 상징적으로 지상의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 아래서는 회개한 자들이 고백한 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놓여진다.[28]

그러므로 표상적인 대속죄일 동안에 지상 성소의 정결이 거기에 축적되었던 죄를 제거한 것처럼 하늘의 성소는 하늘 책에 있는 죄의 기록을 최종적으로 도말함으로써 정결해진다. 그러나 기록들이 최종적으로 깨끗해지기 전에 누가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 혹은 심판[29]의 사업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심판날로서의 대속죄일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한다.[30]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누가 잃어버린 바 될 것인가의 결정을 실증하는 이 심판은 재림 전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림 때에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계 22:12) 줄 상급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또한 사탄의 비난에 대한 대답도 이루어질 것이다(계 12:10 참조).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피를 주장한 모든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 이 심판 때에 그들의 이름을 불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의 죄가 도말된 것이 확인되고, 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함을 인정받는다(눅 20:35).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고 말씀하셨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조사 심판의 성격을 알려 준다. 작은 뿔로 표상된 배교의 세력이 하나님께 참람된 일과 지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단 7:8, 20, 21, 25), 왕좌가 놓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주재하신다. 이 심판은 하늘 성소의 보좌실에서 이루어지고 수많은 하늘 증인들이 배석한다. 심판을 베풀 때, 책들이 펴지고 조사하는 절차가 시작된다(단 7:9, 10). 이 심판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배교의 세력이 멸망을 당한다(단 7:11).[31]

심판의 시기.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가 다같이 조사 심판에 관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인자"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그분 앞에 서신다(단 7:13).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래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직임을 수행해 오셨다(단 7:25). 그러나 이때에 그분은 나라를 받기 위하여 오신다(단 7:14).

1.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가 가려짐. 다니엘 8장은, 선악의 대쟁투와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 준다. 이 장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의 시작과 하늘 성소의 정결 사이에서, 하나님 지상 세력이 그리스도의 봉사를 방해할 것을 알려 준다.

이 이상에 나타난 수양은 메대 바사(Medo-Persia)제국을 나타냈고(단 8:2), 그 두 뿔 중에 나중에 나온 뿔이 더 큰 것은 분명히 그 제국의 두 국면을 묘사하는데, 그 나라의 더욱 우세한 왕조인 바사가 나중에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다니엘이 묘사한 바와 같이, 이 동방의 왕국은 그 세력을,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단 8:4) 크게 확장하였다.

서편에서부터 오는 숫염소는 헬라를 표상했고, 그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냈다(단 8:21). 서편에서 온 알렉산더는 신속히 바사

(Persia)를 정복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몇 년 후에 그의 왕국은 카산더(Cassander), 리시마쿠스(Lysimachus), 셀류쿠스(Seleucus), 프톨레미(Ptolemy)의 "네 나라"로 분열되었다(단 8:8, 22).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단 8:23), 다른 말로 하면 분열된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에 "작은 뿔 하나가"(단 8:9)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전 2세기에 짧은 기간 팔레스틴을 지배한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가 예언의 이 부분의 성취라고 생각한다. 많은 개혁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이 작은 뿔을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를 막론한 로마로 규명했다. 이 후자의 해석이, 다니엘이 자세히 설명한 바와 꼭 맞으며, 전자의 해석은 부합되지 않는다.[32] 다음의 점들을 생각해 보라.

1) 작은 뿔의 세력은 헬라 제국의 멸망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된다(단 8:17). 법왕 로마와 이교 로마를 포함한 로마인이 이 기간에 꼭 해당된다.

2) 다니엘 2, 7, 8장의 예언들은 서로 일치한다(이 장 마지막에 있는 예언적 평행 도표를 참조하라). 다니엘 2장의 신상의 네 금속과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동일한 세계 제국, 곧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를 나타낸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넷째 짐승의 열 뿔은 다같이 로마의 분열을 나타내는데, 그 나라들은 재림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두 예언이 모두 로마를 헬라의 후계자요 재림과 마지막 심판 전에 존재할 마지막 제국으로 지칭했음을 주목하라. 다니엘 8장의 작은 뿔도 동일한 위치에 부합된다. 그것은 헬라의 뒤를 이어 등장했고,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멸망되거나 혹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단 8:25, 2:34)진다.[33]

3) 메대 바사는 "강하여졌더라"고 일컬어졌고, 헬라는 "심히 강대하여 가더라"고 묘사되었고, 또한 작은 뿔은 "심히 커지더"라고 서술되었다(단 8:4, 8, 9). 가장 큰 세계 제국들 중 하나인 로마는 이런 설명에 부합된다.

4) 오직 로마만이 예언에 묘사된 그대로 그 제국을 남편(애굽)과 동편(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과 "영화로운 땅"(팔레스틴)으로 확장했다(단 8:9).

5) 로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군대의 주재", "만왕의 왕"을 대적하여 일어섰다(단 8:11, 25). 그리스도의 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대항하여 로마의 세력은 가장 무서운 전쟁을 했다. 이 묘사는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에게 다같이 해당된다. 이교 로마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했는가 하면, 법왕 로마는 인간들의 중보를 통

하여 용서를 제공하고자 의도된 사제직분으로 대치함으로써 하늘 성소에서의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와 중보 봉사(히 8:1, 2)를 효과적으로 흐려 버렸다.[34](본서 13장 참조). 이 배교의 세력은 꽤 성공을 거두어 왔다.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단 8:12)였기 때문이다.

2. 회복과 정결과 심판의 시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에 관한 진리가 무한정 가려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들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부흥시키셨다. 종교개혁 때에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발견하자 그리스도계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에 관한 더 많은 진리가 계시되어야 했다.

다니엘의 이상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무가 그분의 계속적인 중보 사업에 부가해서 정결과 심판을 위한 특별한 업무를 시작하실 때인(히 7:25)[35] "정한 때 끝"(단 8:17)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니엘의 이상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 의식의 원형(原型)에 해당하는 봉사, 곧 조사 심판과(7장) 성전의 정결 사업을 언제 시작하실지를 명시했다.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단 8:14).[36] 이 이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에 말하는 성소는 지상의 성소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상 성소는 주후 70년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늘에 있는 새 언약의 성소–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장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300일, 혹은 "이천삼백주야"는 히브리 원어상으로 볼 때 무엇을 말하는가?[37]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주야"는 하루이다. 본서 4장과 1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징적 예언의 기간은 역시 상징적이다. 즉 예언상 하루는 1년이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세기를 통하여 믿어온 바와 같이, 다니엘 8장의 2300일은 2300년에 해당된다.[38]

1) 다니엘 9장은 다니엘 8장을 풀이하는 열쇠가 됨.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하"도록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셨다(단 8:16).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앓게 되었고 가브리엘은 설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장의 끝에서 다니엘은,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단 8:27)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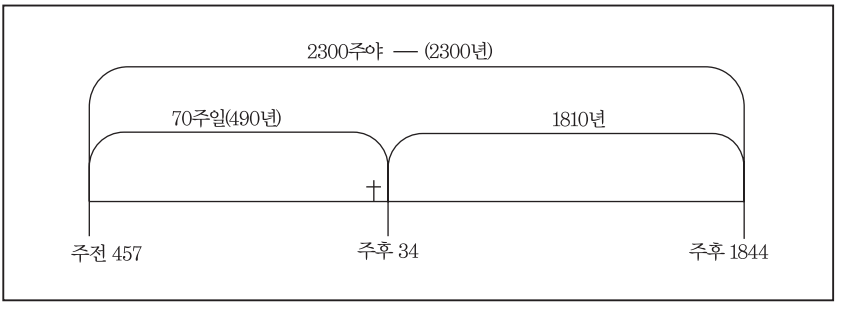
이런 장애 때문에, 가브리엘은 그 기간, 곧 그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이상의 부분에 관한 설명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니엘 9장은, 그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과 9장은 서로 연결되며, 후자는 2300주야의 비밀을 풀어 주는 열쇠가 된다.[39]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단 9:23). 여기에서 그는 2300주야의 이상으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다니엘 8장의 이상을 구성하는 시간적 요소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왜 그가 70주일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하는지를 밝혀 준다.

70이레 혹은 490년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정해졌다"(단 9:24). 기본이 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타크**(chathak)이다. 비록 이 동사가 성경에 단 한 번만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의미는 다른 히브리어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40] 게세니우스(Gesenius)가 쓴 유명한 히브리어–영어 사전은 그것이 "끊어내다", "분리하다"는 의미라고 적절히 서술했다.[41]

이런 배경에서, 가브리엘의 설명은 매우 뜻 깊은 것이다. 그는 490년이 보다 긴 2300년의 기간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다니엘에게 말한다. 가브리엘은 490년의 기산점(起算點)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단 9:25)라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기원전 457년, 곧 아닥사스다(Artaxerxes)왕 제 7년에 해당한다(4장 참조).[42]

490년은 주후 34년에 끝났다. 그리고 2300년에서 490년을 끊어 내면 1810년이 남는다. 2300년은 주후 34년 이후 1810년이 지나야 하므로 1844년까지 이르게 된다.[43]

2)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좀 더 완전한 이해. 19세기 초기에 침례교, 장



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감독교, 회중교 등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니엘 8장의 예언을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44] 이 모든 성경학자는 2300년의 끝에 매우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작은 뿔의 세력과 성소에 관한 그들의 이해에 따라 그들은 이 예언의 기간이 교회의 정결,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의 해방, 유대인의 복귀, 터키나 모슬렘 세력의 몰락, 법왕권의 붕괴, 참예배의 회복, 복천년의 시작, 심판의 날, 불로 말미암는 지상의 정결, 재림 등으로 끝날 것으로 기대했다.[45]

그러나 이런 예언들 중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고, 그것들을 믿는 자들은 모두 실망했다. 그리고 그들의 실망의 쓰라림의 강도는 예상된 사건의 성격과 비례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오실 것으로 기대했던 자들의 실망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바라보던 자들의 실망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이었다.[46]

실망의 결과로 많은 사람은 예언의 연구를 포기하거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 방법에서 돌아섰다.[47]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기도와 열성으로 이 예언과 성소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연구는 그분의 그 같은 봉사에 대한 풍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음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들은 초기 교회와 종교 개혁 당시의 예언적 신앙이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발견했다. 예언적 시간 계산은 정말로 옳았다. 2300년은 1844년에 끝났다. 그들의 실수와 그 당시의 모든 해석자의 실수는 그 예언 기간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관한 오해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에서 오는 새 빛은 그들의 실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었다.[48]

성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이 연구함에 따라,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으로 나아오셔서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대제사장 봉사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봉사는 다니엘 7장이 재림 전 조사 심판으로 묘사하는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의 원형이었다.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에 대한 이 같은 새로운 통찰은 "역사적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로 그 신앙의 논리적 귀결이요 필연적 완성이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그 증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영원한 복음을 특징짓는 예언된 강조점의 마지막 때 모습이자 성취이다."[49]

대쟁투에서의 의미

다니엘 7장과 8장의 예언들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결과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 작은 뿔의 활동을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했다. 그 세력의 활동은 하늘의 성소, 곧 하나님의 정부의 심장부를 훼손하고 짓밟아 왔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상은 하나님이 작은 뿔과 사탄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게 해 주는 재림 전 심판을 가리킨다. 갈바리의 빛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도전은 반박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과, 그분이 죄악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것이다. 그분의 품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고, 그분의 사랑의 정부는 재확인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옹호. 그 심판은 배교적인 작은 뿔의 세력을 정죄하는 반면,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단 7:22)한 것이 된다. 진실로 이 심판은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옹호할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도 옹호한다. 비록 성도들이 여러 세기를 통하여 겪어온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멸시를 받고 핍박을 당해 왔을지라도 이 심판은 그런 것을 바로 잡아 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마 10:32; 눅 12:8, 9; 계 3:5 참조).

심판과 구원. 조사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진실한 신자들은 그분을 중보자로 신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롬 8:34). 그들의 보증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는 말로 약속되어 있다.

그러면 재림 전 심판은 왜 있는가? 이 심판은 삼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하여 있다. 곧 사탄의 송사에 대답을 해 주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만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록책들을 펴시고 편견없이 살펴보게 하신다(단 7:9, 10).

인간은 다음에 열거하는 세 부류 중 하나에 속한다. (1)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악인, (2)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진실한 신자, (3) 진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은 첫째 부류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진실한 신자이며, 누가 진실하지 않은 신자인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껏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눅 10:20; 빌 4:3; 단 12:1; 계 21:27). 교회 자체도 참신자와 거짓 신자, 곧 알곡과 가라지를 다 수용하고 있다(마 13:28~30).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전지하지 않다. 그들은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진실한 자들을 거짓된 자들에게서 분리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주에게 신실한 신자를 구원하는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심판이 필요하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주와의 문제이지 하나님과 진실한 자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므로 기록책을 펴서 믿음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공개되어야 한다."[50]

그리스도께서는, 관대한 복음의 초청에 응한 혼인 잔치의 손님들의 비유를 통하여 이 심판을 묘사하셨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택하는 사람 모두가 진실한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손님을 살펴보고 누가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살피러 나온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소유하게 될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이다.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교회에 주어진다(계 19:8; 엡 5:27). 성경은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계 19:8)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 곧 그분의 흠 없는 품성인데,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51] 임금이 손님들을 살펴볼 때, 복음의 초청을 통하여 그처럼 너그럽게 제공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진실한 신자로 가납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공언하면서 불순종의 생애를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이다(출 32:33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이 조사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관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

바울은 어느 날인가 자신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 3:9)라는 소망을 나타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은 구원이 보장된다. 재림 전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진실한 신자들,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들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동을 했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만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장하실 수 없다(마 7:21~23 참조). 그러므로 하늘의 기록들은 단순히 진실한 자들을 거짓된 자들에게서 골라내는 자료 이상의 것이다. 그것들은 또한 천사들 앞에서 진실한 신자들을 확증하는 근거도 되는 것이다.

"성소의 교리는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보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떠받쳐 준다. 그것은 신자의 마음에 구원의 계획을 예증해 주고 분명히 설명해 준다. 회개하는 그의 마음은 성소의 희생 제도를 통하여 표상된 바대로 그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즐거워한다. 더 나아가서 그의 믿음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의 제사장적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의 의미를 발견한다."[52]

준비해야 할 시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마지막 봉사에 대한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계에 전해지기를 바라신다. 이 기별의 중심은 "그의(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계 14:7)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이다. 이 호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경고한다.

오늘 우리는 원형적(原型的)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날에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도록 요구받은 것처럼(레 23:27), 하나님은 그 분의 모든 백성이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를 경험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

(계 14:7).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는 사라져가고 있다.[53]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막 13:33)고 말씀하셨다.

비록 우리가 원형적 대속죄일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희생제물과 제사장의 이중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4~16).

참고 문헌

1. 히브리서는 하늘에 있는 참성소를 계시한다. 히브리 8장 2절에 나온 "성소"라는 말은 헬라어 **타 하기아**(ta hagia)곧 거룩한 장소(물건)의 복수형의 역어이다. 이 복수형의 사용 용례는 히브리 9:8, 12, 24, 25, 10:19, 13:11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소(sanctuary)가 아니라 지성소(the Most Holy Place) 혹은 성소(the holy place)에서 봉사하신다는 인상을 준다(KJV, NKJV, NIV, NASB 참조). 이것은 번역자들이, **타 하기아**를 단수로 번역할 수 있는, 강조를 위한 복수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0인역과 조세푸스는, **타 하기아**라는 말이 시종일관 '거룩한 사물' 혹은 '거룩한 장소' 즉 성소 자체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밝혀 준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holy and Most Holy places)를 포함한 전체 성소(the entire sanctuary)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된 일반적인 말이다.
   히브리서에서 전체 성소를 가리키기 위하여 **타 하기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편지서 자체 내에서 강력한 해석학적 지지를 받고 있다. **타 하기아**가 히브리서에 처음 사용된 것은 8장 2절인데 그것은 "참장막"과 동격으로 되어 있다. 히브리 8장 5절에 의하면 "장막"이 전체적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히브리 8장 2절의 **타 하기아** 역시 전체적 하늘 성소를 가리켜야 한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복수 **타 하기아**를 지성소로 번역할 이유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그 문맥에서 볼 때 **타 하기아**는 "성소"로 번역함이 합당하다("Christ and His High Priestly Ministry," Ministry, October 1980, p. 49).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지상 성소와 **타 하기아**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하늘 성소 역시 두 칸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견해는 성소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었다(Damsteegt, "The Historical Developement of th Sanctuary Doctrine in Early Adventist Thought" [unpublished manuscript, Biblical Research Institute of the General Cou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 1983] : Cf,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p. 413~415, 423~432).

2. The SDA Bible Commentary, rev. ed., Ellen G. White Comments, vol. 6, p. 1082 참조.
3. 고대의 유대 문서들에 의하면 몇몇 랍비들 역시 하늘의 참성소를 믿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주석하면서 한 랍비는, "(지상에 위치한) 성소는 하늘 성소의 위치와 일치하고 법궤(의 위치)도 하늘 보좌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말했다(Midrash Rabbah, Numbers, repr, ed. [London, Soncino Press, 1961], vol. 1, chap. 4, sec. 13, p. 110. Brackets in Original). 다른 랍비는 "하늘 성소와 지상 성전"에 관하여 말한 바벨론의 탈무드를 인용했다(Sanhedrin, 99b, I. Epstein, ed. [London : Soncino Press, 1969]. 또 다른 랍비는,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데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Leon Nemoy, ed., The Midrash on Psalms, trans, by William G. Braude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1959], Psalm 30, Sec. 1, p. 386).
4. 히브리서는 하늘에 있는 참성소를 묘사한다. "하늘 성소의 실체는 히브리 8장 2절에 있는 '참'이라는 형용사에서 더욱 잘 이해된다. 하늘 성소는 '참'으로 있는 것이요 더 좋은 표현을 쓰자면 '실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와, 또 하늘 성소에 적용되는 9장 24절에 사용된 헬라어는 **알레디노스**(alethinos)이다. 이 헬라어 형용사는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과는 반대되는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거짓'과 반대인 '참'을 의미하는 헬라어 형용사 **알레데스**(alethes)와 근본적인 구별을 위하여, 하늘 성소에 관하여 두 번 사용되고 있는 형용사 **알레디노스**는, 외관상으로도 분명하게 하늘에 있는 성소의 실체를 가리킨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으로, 그리고 한 결같이 바울도 예컨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알레디노스**를 사용하여 "실제적" 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실재들도 그분의 실재와 관련되어 있는 한 실제적이다. 하늘의 성소가 하나님의 실재와 관련되어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이 실재하시는 것처럼 실재하는 것이다"(Hasel, "Christ's Atoning Ministry in Heaven," Ministry, January 1976, Special insert, p. 21c).
5. Holbrook, "Sanctuary of Salvation," Ministry January 1983, p.14.
6. White, The Desire of Ages, p. 25.
7. Holbrook, "Light in the Shadows," Journal of Advantist Education, October-November 1983, p. 27.
8. Ibid. p. 28.
9. 그리스도의 봉사가 두 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특정한 기간을 점유하여 하늘 성소에서 구분된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표상적 봉사도 매일의 봉사와 연례 봉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각각의 봉사를 위하여 장막의 칸도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357.).

10. 매일 아침과 저녁의 희생제사에서 제사장은 온 민족을 대표한다.
11. 가정의 아버지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대표했다.
12. 예컨대 Angel M. Rodriguez, "Sacrificial Substitution and the Old Testament Sacrifices," in Sanctuary and the Atonement, pp. 134~156; A. M. Rodriguez, "Transfer of Sin in Leviticus," in 70 Weeks, Leviticus, and the Nature of Prophecy, ed. F. B. Holbrook (Washington, D.C.: Biblical Research Institute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 1986), pp. 169~197.
13. "Atonement, Day of" in The Jewish Encyclopedia, ed. Isidore Singer (New York: Funk and Wagnalls Co., 1903), p. 286를 보라. 또한 Hasel, "Studlies in Biblical Atonement I; Continual Sacrifice, Defilement/ Cleansing and Sanctuary," in Sanctuary and the Atonement, pp. 97~99 참조.
14. Hasel, "Studies in Biblical Atonement I," pp. 99~107; Alberto R. Treiyer, "The Day of Atonement as Related to the Contamination and Purification of the Sanctuary," 70 Weeks, Leviticus, and the Nature of Prophecy, p. 253.
15. Holbrook, "Light in the Shadows," p. 27.
16. Ibid, p. 29.
17. Hasel, "Studies in Biblical Atonement II: The Day of Atonement," in Sanctuary and Atonement, pp. 115~125 참조.
18. Hasel, "The 'Little Horn', the Saints, and the Sanctuary in Daniel 8," in Sanctuary and Atonement, pp. 206, 207; Treiyer, "Day of Atonement," pp. 252, 253 참조.
19. Holbrook, 'Light in the Shadows," p. 29.
20. "Azazel,"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102 참조.
21. Holbrook, "Sanctuary of Salvation," p. 16. 수세기를 통하여 성경 주석가들은 유사한 결론을 내려왔다. 70인역에는 악신(惡神)을 말하는 헬라어 **아포폼파이오스** (apopompaios)를 써서 아사셀을 나타낸다. 고대의 유대 저술가들과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그를 마귀로 표현한다(SDA Encyclopedia, rev. ed., pp. 1291, 1292). 장로교의 Samuel M. Zwemer, William Milligan, James Hastings, William Smith, 루터교의 E. W. Hergstenberg, Elmer Flach, H. C. Alleman, 회중교의 William Jenks, Charles Beecher, F. N. PaLoubet, 감리교의 John
M'Clintock, James Strong, 개혁감독교의 James M. Gray, 그리스도의 제자(Disciples of Christ)교의 George A. Barton 등을 포함한 19세기와 20세기의 성경 주석가들이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다른 많은 사람이 또한 유사한 견해를 말했다(Questions on Doctrine, pp. 394, 395).
만일 아사셀이 사탄을 대표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그를 속죄와 관련시킬 수 있을까?(레 16:10 참조). 마치 대제사장이 성소를 정결케 하고 아사셀에게 죄를 옮긴 후에 그를 하나님 백성에게서 영원히 떠나 보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신 후 그분의 백성이 고백하고 용서받을 죄를 사탄에게 옮겨서 그를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영원히 떠나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취급하시는 드라마의 최종적인 처사가 모든 죄와 범법을 창시하여, 지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의 생애에

그처럼 큰 비극을 한때 가져다주었던 사탄의 머리로 그것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 이렇게 완전한 한 바퀴가 끝나고, 드라마도 끝난다. 오직 모든 죄의 창시자가 되는 사탄이 최종적으로 제거될 때에야 죄가 하나님의 우주에서 영원히 도말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아사셀이 속죄에 있어서 한몫을 담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레 16:10). 의인들이 구원을 얻고, 악인들이 끊어지고, 사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야 비로소, 죄가 들어오기 전과 같은 완전한 조화의 상태가 우주에 있게 될 것이다"(The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1, p. 778).

22. Holbrook, "Sanctuary of Salvation," p. 16.
23. Treiyer, "Day of Atonement," p. 245.
24. Holbrook, "Light in the Shadows," p. 30.
25. 제4장 참조.
26. Henry Alford, The Greek Testament, 3rd ed. (London: Deighton, Bell and Co., 1864), vol. 4, p. 179.
27. B. F. Westcott, Epistle to the Hebrews, pp. 272, 271.
28. 이 고백한 죄를 그리스도께 옮김으로써 죄가 "실제적으로 하늘 성소로 옮겨졌다"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 421).
29. 이 심판은 하나님을 따르노라고 공언한 자들을 다룬다. "표상적 봉사에 있어서는 고백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속죄와 조사 심판의 큰 날에 있어서도 고려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언한 자들뿐이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며, 그 후의 기간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벧전 4:17)" (Ibid, p. 480).
30. 유대의 전통은 **욤 킵푸르**(Yom Kippur)를 심판의 날,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로 오랫동안 묘사해왔다. 기록책들이 펼쳐지고, 각 사람이 그분 앞을 지나가고,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Atonement, Day of," The Jewish Encyclopedia, Morris Silverman, comp. and ed., High Holyday Prayer Book (Hartford, Conn.: Prayer Book Press, 1951), pp. 147, 164 참조. 욤 킵푸르는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보증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미래의 심판에 대해 무섭게 생각되었던 날에, 회개와 겸비로 그분께 돌아오는 자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는 날"이기 때문이다(William W. Simpson, Jewish Prayer and Worship [New Tork: Seabury Press, 1965], pp. 57. 58).
31. Arthur J. Ferch, "The Judgment Scene in Daniel 7," in Sanctuary and Atonement, p. 163~166, 169 참조.
32. 다니엘서 해석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안티오쿠스 문제에 관하여서는 W. H. Shea, Selected Studies on Prophetic Interpretation, pp. 25~55를 참조할 것.
33. Shea, "Unity of Daniel," in Symposium on Daniel, ed. F. B. Holbrook (Washington, D.C.: Biblical Research Institute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 1986), pp. 165~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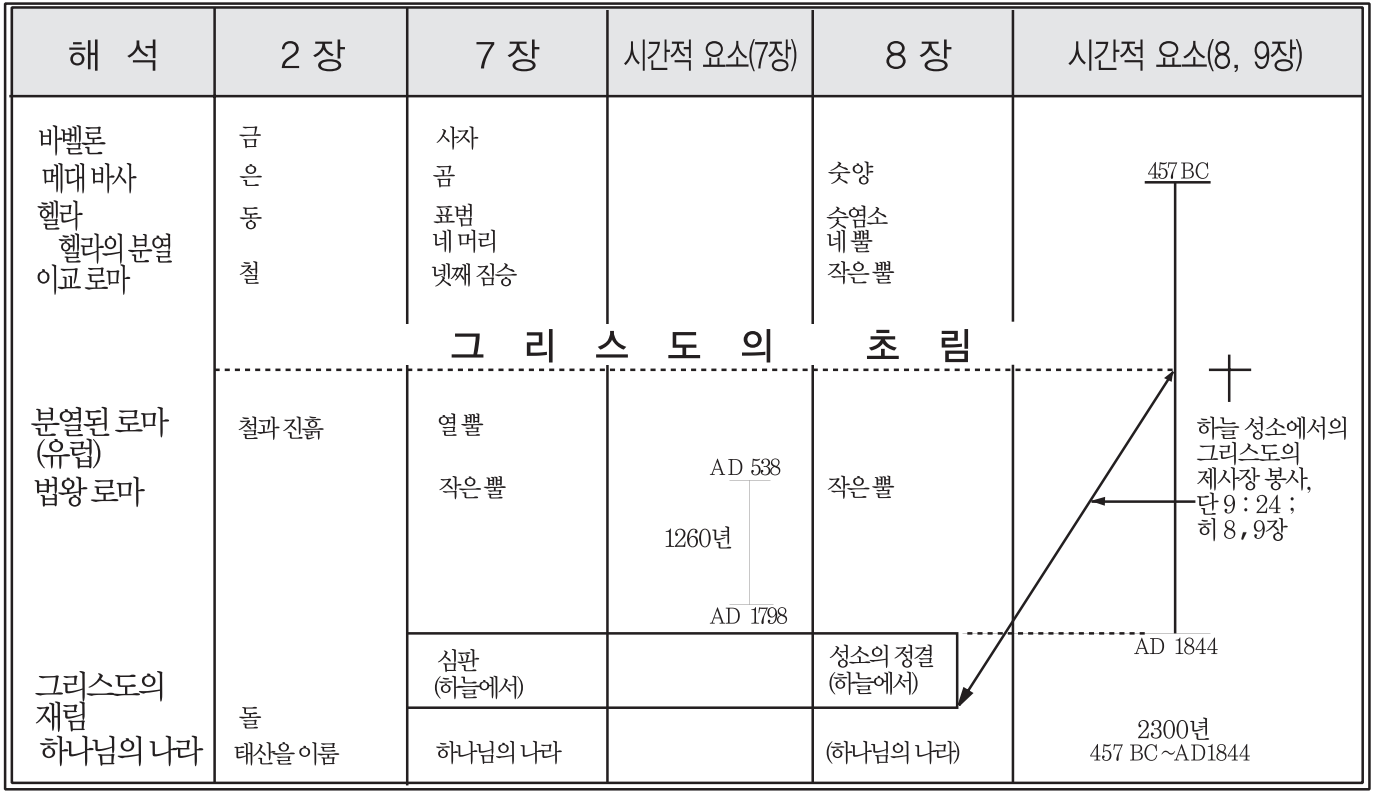
34. "The Amazing Prophecies of Daniel and Revelation," These Times, April 1979, p. 18. Maxwell, God Cares, vol. I, pp. 166~173과 제12장 참조.
35. 지상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첫째 칸에서의 그의 봉사를 그치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첫째 칸에서의 그분의 봉사를 그치셨다. 그러나 첫째 칸에서의 봉사가 끝났을 때, 둘째 칸에서의 봉사는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일의 한 부분만을 마치시고 또 다른 부분의 일을 착수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간구하셨다."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p. 428, 429).
36. KJV와 NKJV는 히비르이 **니츠다크**(nitsdaq)를 "shall be cleansed"로 번역했다. The New American Bible 에서는 그것을 "shall be purified"로 번역했다. "cleansed"라는 단어는 비숍 성경(the Bishop's Bible, A. D. 1566), 제네바 성경(the Geneva Bible, A. D. 1560), 태버너 성경(Taverner Bible, A. D. 1551), 그레이트 성경(Great Bible, A. D. 1539), 매튜 성경(Matthew Bible, A. D. 1537), 커버데일(Coverdale, A. D. 1537) 성경(A. D. 1537), 위클리프 성경(Wycliffe, A. D. 1382) 등과 같은 가장 초기의 영어 번역에서도 발견된다. 이 번역은, 라틴어 불가타(Vulgate) 성경의 **문다비투르**(mundabitur) 즉 "cleansed"에서 유래되었고 또한 가장 초기의 헬라어 역 구약인 70인역과 데오도시온(Theodotion) 역의 katharisthesetai 즉 "shall be cleansed"에 근거한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의 개역들은 이런 전통적 번역을 반영하지 않는다. nitsdaq는 '바로 잡다', '바르게 되다', '의롭다', '의로워지다', '옹호되다' 등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진 **챠다크**(tsadaq)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은, tsadaq를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다"(RSV), "바르게 회복되다(NASB), "재봉헌되다"(NIV), "회복되다"(TEV) 등으로 번역했다. 구약의 시적 대구는 tsadaq가 다음에 열거한 단어들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타헤르**(taher) :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다"(욥 4 : 17, 17 : 9, NIV), **자카**(zakah) : "정결하고 깨끗하다"(욥 15 : 14, 25 : 4), **보르**(bor) : "정결"(시 18 : 20). 그러므로 nitsdaq는, "그 어의(語義)의 범위 안에 '정결하게 하다, 옹호하다, 의롭게 하다, 바르게 하다, 회복하다"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 히브리어를 현대적 언어로 어떻게 번역하더라도 "성소의 '정결'은, 옹호하는, 의롭게 하는, 회복시키는 행위와 함께 실제적으로 정결케 함을 포함한다." (Hasel, "'Little Horn,' the Heavenly Sanctuary and the Time of the End : A Study of Daniel 8 : 9~14," in Symposium on Daniel, p. 453). Ibid., pp. 448~458 참조 ; Hasel, "The 'little Horn,' the Saints, and the Sanctuary in Daniel 8," Sanctuary and Atonement, pp. 203~208 ; Niels-Erik Andreasen, "Translation of Nisdaq/Katharisthesetai in Daniel 8 : 14," in Symposium on Daniel, pp. 476~496 ; Maxwell, God Cares, vol. 1, p. 175 ; "Christ and His High Priestly Ministry," Ministry, October 1980, pp. 34, 35.
37. 어떤 사람들은 "2300주야"를 다만 실제적인 1150일로 해석했다(예컨대 TEV).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인의 관례와 배치된다. 카일과 델리치(Keil and Delizsch) 주석 편집자, 칼 F. 케일은 이렇게 기록했다. "히브리인들이 일주일의 어느 한 날을 구성하는 낮과 밤을 분리해서 언급하고자 할 때는, 낮과 밤의 수를 함께 언급한다. 예를 들면 옹근 40일

이나 3일을 말하고자 할 때는 40일 40야(창 7:4, 12;출 24:18;왕상 19:8)와 3일 낮과 3일 밤(욘 2:1;마 12:40)이라 하지 80밤 낮이나 6밤 낮이라고 하지 않는다. 히브리 사람이 2300주야의 시간의 기간을 읽을 때 2300개의 반날이나 혹은 1150개의 웅근날로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조 때의 주야는 반날씩을 의미하지 않고 완전한 하루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웅근 2300일로 이해해야 한다"(C. F. Keil,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Denial, trans, M. G. Easton, in C. F. Keil and F.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9], vol. 25, pp. 303, 304). 더 이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라. Hasel, "Sanctuary of Daniel 8," in Sanctuary and Atonement, p. 195;Hasel, "The 'Little Horn,' the Heavenly Sanctuary and the Time of the End," in Symposium on Daniel, pp. 430~433 ;Siegfried J. Schwantes, "Ereb Boqer of Daniel 8:14 Re-Examined," in Symposium on Daniel, pp. 462~474;Maxwell, God Cares, vol. 1, p. 174.

38.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2, p. 985;vol. 3, pp. 252, 743., vol. 4, pp. 397, 404. 예언적 하루가 실제적 1년을 나타낸다는 원칙을 위해서는, Shea, Selective Studies on Prophetic Interpretation, pp. 56~93을 참조하라.
39. 예컨대 Hasel, "Sanctuary in Daniel 8," in Sanctuary and Atonement, pp. 196, 197;Shea, "Unity of Daniel," in Symposium on Daniel, pp. 220~230을 보라.
40. 미쉬나와 같은 히브리 문서들을 분석해 보면 비록 **하타크**(chathak)가 '결정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더욱 일반적 의미로는 '끊어내다'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Sh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hecies of Daniel 8 and Daniel 9," in Sanctuary and Atonement, p. 242).
41.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 trans. Samuel p. Tregelles (Grand Rapids: W. B. Eerdmans, reprint ed., 1950), p. 314.
42. Ferch, "Commencement Date for the Seventy Week Prophecy," in 70 Weeks, Leviticus and the Nature of Prophecy, pp. 64~74.
43. 다니엘 8장에 따르면 2300주야는 오랜 세월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다. "환상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단 8:13)라는 질문이 주어져 있다. '환상'이라는 말은 1, 2절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상이 얼마나 긴 것이냐"는 질문은 하늘의 천사가 한 것이며, 그는 전체의 이상이 첫째 짐승의 표상에서 둘째 짐승의 표상을 거치고 뿔의 표상을 다시 거쳐서 다니엘 8장 17절과 19절에서 지적하는 기간의 끝에까지 이르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300주야라는 사실은 그 기간이 메대 바사제국에서 "정한 때 끝"(단 8:19)까지 이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해(年)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나타낸다.
44. Dam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pp. 14, 15;Fr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4.
45.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4, p. 404.
46. 예컨대 Francis D. Nichol, The Midnight Cry(Washington, D.C.:Review and Herald, 1944)을 보라.

47.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1~4; Dam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pp. 16~20.
48. Don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pp. 103~146;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p. 423~432 참조.
49. Froom, Movement of Destiny, p. 543.
50. Holbrook, "Light in the Shadows," p. 34.
51. White, Christ's Object Lessons, p. 310.
52. Holbrook, "Lihgt in the Shadows," p. 35.
53. 인간의 은혜의 시기의 끝은 회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때이다. 개인의 은혜의 시기는, (1) 죽을 때, (2) 성령을 훼방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마 12:31, 32; 눅 12:10), (3) 재림 직전에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의 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동안 자비는 효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업을 그치기 전에는 어떤 심판도 자비 없이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 재앙은 자비가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다(계 14:10, 15:1). 왜냐하면 재앙들은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일을 그치시고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부어지기 때문이다"(U. Smith, in SDA Encyclopedia, rev. ed., p. 1152).

다 니 엘 서


해 석
2 장
7 장
시간적 요소(7장)
8 장
시간적 요소(8, 9장)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헬라의 분열
이교 로마
금
은
동
철
사자
곰
표범
네 머리
넷째 짐승
숫양
숫염소
네 뿔
작은 뿔
그 리 스 도 의 초 림
457 BC
분열된 로마
(유럽)
법왕 로마
철과 진흙
열 뿔
작은 뿔
AD 538
1260년
AD 1798
작은 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
단 9 : 24 ;
히 8, 9장
AD 1844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돌
태산을 이룸
심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소의 정결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2300년
457 BC~AD1844

제25장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可視的)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 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 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딛 2;13;히 9:28;요 14:1~3;행 1:9~11;마 24:14;계 1:7;마 24:43, 44;살전 4:13~18;고전 15:51~54;살후 1:7~10, 2:8;계 14:14~20, 19:11~21;마 24장;막 13장;눅 21장;딤후 3:1~5;살전 5;1~6)

"엄마,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요. 언제 그분이 오시지요?" 한 어린아이가 침실에서 마음을 터놓았다. 그 아이는 그의 작은 마음의 소원이 각 시대의 소원이 되어 왔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성경의 마지막 말은 그분께서 신속히 오실 것을 약속해 준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성실한 친구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부언한다.

예수님을 대면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영원히 연합한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난다! 지금 안식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부활하여 영원히 기쁨을 함께 나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

신 후 그분의 친구들이 그날을 고대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느 날 그분은 오실 것이다. 성도들에게도 그분의 오심은 너무도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오래 기다리다가 모두 졸며 자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마 25:5). "밤중" 곧, 지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성경은 그 사건을,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계 16:17)온다고 묘사한다. 이 음성은 지구를 흔들고,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계 16:18)던 그런 지진을 일으킨다. 산들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온 땅은 대양의 파도처럼 부풀어 오른다. 지구의 표면은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계 16:19, 20).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계 6:14)게 된다.

자연계에는 혼돈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자의 징조"(마 24:30)를 보고 용기를 얻는다. 그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눈이 생명의 왕을 본다. 그분은 이때에 슬픔의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을 되찾기 위하여 오신다. 그분은 가시관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다.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6).

그분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의 요구를 생애에 실천하지 않았던 자들은 큰 실망에 사로잡힌다. 그분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겔 33:11)고 그처럼 끈질기게 호소해 온 음성이 이제는 그들의 죄를 뼈아프게 깨닫게 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5~17).

그러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들의 기쁨은 악인들의 절망을 압도한다. 구속주의 오심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영광스러운 절정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감동적인 함성으로 그들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

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사 25:9)고 부르짖는다.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자는 성도들을 무덤에서 일어나라고 부르시고 천사들에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마 24:31)라고 명령하신다. 온 세계에서 죽은 의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 얼마나 기쁜 순간인가!

그리고 살아 있는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고전 15:51) 변화된다. 그들은 영화롭게 되고, 불멸을 얻어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살전 4:16, 17).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딛 2:13; 히 9:28 참조)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이 재림 때 성취될 것으로 기대했다(벧후 3:13; 사 65:17 참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순례 생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천사들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눌 그 날을 열광적으로 고대한다.

성경의 증언. 재림의 확실성은 믿을 수 있는 성경의 보증에 근거한다. 예수께서는 죽음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다시 오"(요 14:3)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실 것이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도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죄악이 종식될 것이라고 에녹에게 말씀하셨다. 에녹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하려 하심이라"(유 14, 15)고 예언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

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시 50:3~5).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모든 난관을 꿋꿋하게 견뎌냈고, 이 약속이 가져다주는 보증은 그들의 용기와 힘을 새롭게 해 주었다. 그들의 주님은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었다.

초림이 증거하는 보증. 재림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밀접히 관련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죄와 사탄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얻지 못하셨을 것 같으면(골 2:15), 우리는 그분께서 마침내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이 세상을 그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을 근거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히 9:26, 28)실 것을 믿을 근거가 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봉사. 요한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늘의 성소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준다(계 1:12, 13, 3:12, 4:1~5, 5:8, 7:15, 8:3, 11:1, 19, 14:15, 17, 15:5, 6, 8, 16:1, 17).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의 마지막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예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미구에 오실 것이라는 보증을 더해 준다(본서 24장 참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확신은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용기가 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려 주는 징조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또한 당신의 징조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거짓 주장들에 속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다. 그분은 재림 전에, "거짓 그리

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 24:24)고 경고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 24:23)고 말씀하셨다. 사전 경고는 사전 대비이다. 신자들이 참사건과 거짓 사건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자 여러 성경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광경을 자세하게 알려 준다.

글자 그대로의 실제적 재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두 천사들은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여전히 위를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방금 그들을 떠나가신 동일한 주님, 즉 어떤 영적 존재(눅 24:36~43)가 아닌 살과 피가 있는 몸과 개체가 있는 존재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은 그분께서 승천하실 때처럼 글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다.

가시적(可視的)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적(內的)이거나 불가시적(不可視的)인 경험이 아니고 가시적인 인격체와의 실제적 만남이 될 것이다. 그분의 재림의 가시성(可視性)에 대하여 전혀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번개의 번쩍임에 비교함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이 은밀한 재림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셨다(마 24:27).

성경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동시에 그분의 오심을 목격할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요한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계 1:7)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의 반응을,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는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가청적(可聽的)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세계가 알게 된다는 묘사에 덧붙여 그분의 재림이 눈으로는 물론이요 소리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것이 성경상 주장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살전 4:16). "큰 나팔 소리"(마 24:31)가 그분

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수반된다. 비밀리에 오시는 일이란 없다.

영광스러운 재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능력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마 16:27) 오신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묘사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무수한 하늘 군대들을 거느리고 오신다고 묘사했다.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광휘 속에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계 19:11~16).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며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재림이 가까워 옴을 알게 될 것이다(살전 5:4~6). 그러나 바울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살전 5:2) 이를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 마 24:43 참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도적이 오는 것에 비교한 것은 그분께서 비밀리에 볼 수 없는 모양으로 오실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묘사한 성경의 기록과 배치된다(계 1:7). 바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비밀리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홍수 전 세상이 홍수에 의하여 예기치 않게 멸망된 것과 당신의 오심과를 비교하심으로 동일한 점을 강조하신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8, 39). 비록 노아가 여러 해 동안 홍수가 있을 것을 전파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일은 불시에 닥쳐왔다.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다른 부류는 방주 밖에 머무는 길을 택하여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마 24:39)였다.

격변적 사건. 노아 홍수의 예와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의 금속 우상에 대

한 꿈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격변적 형태로 이루어짐을 묘사한다(본서 4장 참조). 느부갓네살은 큰 우상을 보았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 (단 2:32~35)다.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세계 역사의 개요를 제시하셨다. 그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돌의 나라) 건설에 이르기까지, 네 주요한 나라 혹은 제국이 있은 후에 약소국과 강대국들의 혼합체가 세계 무대에 차례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대 이래로 줄곧 해석자들은 그 제국들을 바벨론(605~539 BC), 메대 바사(539~331 BC), 헬라(331~168 BC), 로마(168 BC~AD 476)로 인정했다.[1] 예언 그대로, 로마를 계승한 제국은 없었다. 주후 4세기와 5세기에 걸쳐서 로마는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후에 유럽의 열국(列國)들이 되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샤를마뉴, 찰스 5세, 나폴레옹, 카이저 빌헤름, 히틀러와 같은 강력한 통치자들이 또 하나의 다른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자 시도해왔다. 그러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단 2:43)고 한 예언 그대로 그들은 모두 실패했다.

마침내, 그 꿈의 계시는 극적인 절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이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나타내는데(단 7:14; 계 11:15), 그 나라는 재림 때에 인간의 노력 없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제국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곧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는 모든 나라를 부숴뜨리는 돌나라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의 시대, 분열된 국가들의 시대가 지난 후에야 그 나라가 올 것이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분리시키는 재림 때에 세워질 것이다(마 25:31~34).

그 나라가 임할 때는 이 돌 혹은 나라가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것들을 흔적도 없이 만들 것이다(단 2:34, 44, 35). 실로 재림은 지구를 흔드는 사건이다.

재림과 인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를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에게서 떠나간 자들 모두에게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택한 자들을 모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수립에서 하나의 중요한 일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늘 본향(요 14:3)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모으는 일이다(마 24:31, 25:32~34; 막 13:27).

국가의 통치자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소수의 사람만이 환영 파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지금껏 살았던 모든 믿는 자가 연령과 성별과 교육과 경제적 신분과 민족에 상관없이 위대한 재림 축제에 참여할 것이다. 두 가지 사건이 이 우주적 모임을 가능케 할 것인데, 그것은 죽은 의인의 부활과 산 성도의 승천이다.

1.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의인들은 썩지 않을 불멸을 입고 일어날 것이다(고전 15:52, 53).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살전 4:16)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살아 있는 의인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지기 전에 살아난다.

부활한 자들은 슬픔으로 헤어졌던 자들과 다시 연합한다. 이제 그들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고 환성을 올린다.

부활 때에 일어나는 것은 무덤 속으로 들어간 병들고, 늙고, 병든 육체가 아니고 새로워지고, 불멸을 입고, 완전해진 육체들, 그들을 부패케 한 죄악의 흔적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육체들이다.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회복사업의 완성을 체험하고 정신과 마음과 육체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전 15:42~54, 본서 26장 참조).

2. 살아 있는 성도들의 승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재림 시에 지상에 살아 있는 의인들은 변화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3).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떤 계층의 신자들도 다른 신자들보다 앞서지 않는다. 바울은 살아서 변화를 입은 신자들이 "그들(부활한 신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히 11:39, 40 참조)고 말한다. 그러므로 재림의 큰 모임에는 모든 신자들, 부활한 각 시대의 성도들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 있던 자들이 다 함께 참여할 것이다.

불신자들의 죽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재림이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지만,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그분의 초청을 너무 오랫동안 거절했기 때문에 기만적 미혹에 사로잡혀 왔다(살후 2:9~12; 롬 1:28~32 참조). 그들이 거절한 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안다. 공포와 절망으로 압도되어 그들은 무생물계를 향하여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애원한다(계 6:16, 17).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배교의 연합체인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계 18:8). 이 단체의 지도자—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살후 2:8). 짐승의 표(본서 13장 참조)를 강요한 데 대한 책임이 있는 세력들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악인들은,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을 것이다(계 19:20, 21).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광경과 목적을 나타내 줄 뿐 아니라 그 극적인 사건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들도 서술한다. 재림을 예고하는 첫 징조는 그리스도의 승천 후 1,7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증거를 보여 주는 다른 징조들이 그 뒤를 따랐다.

천연계의 징조들. 그리스도께서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눅 21:25)다고 예언하시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막 13:24~26)고 자세히 설명

하셨다. 또한 요한은 큰 지진이 하늘의 징조들에 앞서 있게 될 것을 보았다(계 6:12). 이 모든 징조는 1260년 동안의 핍박의 끝을 나타낸다(본서 13장 참조).

1. 땅의 증언. 이 예언의 성취로서 "가장 큰 지진"[2]은 1755년 11월 1일에 일어났다. 리스본 지진으로 알려진 그 지진의 영향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까지의 약 400만 평방 마일의 영역에 미쳤다. 그 파괴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는 불과 몇 분 만에 공공 건물과 주택들을 무너뜨리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다.[3]

그 지진의 물리적 영향도 컸지만, 그 당시의 사상에 끼친 영향 또한 그 못지않게 컸다. 그 당시에 산 많은 사람은 그것을 종말에 대한 예언적 징조[4]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리스본 지진은 예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2. 해와 달의 증언. 25년 후에 예언에서 말한 그 다음 징조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큰 환난, 곧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한 법왕권의 박해 기간인 1260년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것을 보시고 이 징조가 성취될 때를 지적하셨다(마 24:29, 본서 13장 참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징조보다 먼저 있게 될 환난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21, 22). 종교 개혁과, 거기서 연유된 운동들의 영향 때문에 법왕권의 박해가 사실상 단축되었음으로 18세기 중간에 그것은 거의 끝났다.

이 예언의 성취로서 1780년 5월 19일에 초자연적인 흑암이 북미 대륙의 동북부를 덮었다.[5]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예일 대학교 총장 티모디 드와이트(Timothy Dwight)는 이렇게 말했다. "1780년 5월 19일은 놀랄 만한 날이었다. 많은 집에는 촛불이 켜졌다. 새들은 노래를 그치고 사라졌고, 닭들은 홰에 올라갔다. …매우 일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그것은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었다."[6]

하버드 대학교의 사무엘 윌리암스(Samuel Williams)는 그 어둠이, "서남쪽에서 오는 구름과 함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밀려와서 그날 밤 자정까지 계속되었고' 지역에 따라 어둠의 정도와 기간이 달랐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실외에서도 보통의 인쇄물을 읽을 수 없었다'"[7]고 보고했다. 사

무엘 테니(Samuel Teny)의 견해에 따르면, "그날 저녁의 어둠은 아마도 전능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이래로 지금껏 목격되어 온 것 중에 가장 짙은 어둠이었다. …우주의 모든 발광체가 뚫을 수 없는 암막에 싸여버렸거나, 존재를 감추어 버렸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그보다 더 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8]

그날 저녁 9시에 보름달이 떴다. 그러나 어둠은 밤중까지 물러가지 않았다. 마침내 달을 볼 수 있게 되자, 그것은 피 같은 모습이었다.

사도 요한은, 그날의 초자연적 사건들을 예언했다. 그는 지진 후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온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계 6:12)라고 예언했다.

3. 별들의 증언. 그리스도와 요한은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려 주는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에 관하여 똑같이 말했다(계 6:13; 마 24:29). 1833년 11월 13일의 유성(流星)의 소나기, 곧 기록에 보존된 것 중에 가장 광대한 유성의 출현은 이 예언을 성취시켰다. 한 사람의 관찰자가 평균 한 시간에 60,000개의 유성을 볼 수 있었다고 산정되었다.[9] 그것은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또한 대서양 중부에서 태평양까지 보였고,[10]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성경 예언의 성취로 인정했다.[11]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공간이 떨어지는 별들로써 순간마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었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일반적으로 외관상 어떤 특별한 차이를 지각할 수도 없었다. 때로는 그 별들이 무리를 지어 소나기처럼 떨어졌는데, 그것은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리라는 말을 상기시켰다."[12]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오심이 가까움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이 고대하는 바에 기쁨을 갖고 그 일을 위하여 완전히 준비하게 하시고자 이런 징조들을 주셨다. 그분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눅 21:28~31)고 부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때에 정확한 순서대로 나타난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의 이 독특한 증언은, 많은 사람의 주의를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향하게 했다.

종교계의 징조. 성경은, 종교계의 많은 중요한 징조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의 시대를 특징지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1. 큰 신앙적 각성. 요한계시록은 재림 전에 세계적인 큰 신앙 운동이 일어날 것을 알려 준다. 요한의 이상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한 천사가 이 운동을 상징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 7).

이 기별 자체가 그것이 언제 전파될 것인지 알려 준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전해졌다. 그러나 복음의 심판 부분을 강조하는 이 기별은 오직 마지막 때에만 전파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경고하기 때문이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그 예언들이 개봉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단 12:4). 그때에 사람들은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798년에 법왕이 사로잡힘으로 1260년간의 법왕권 통치가 끝나자 그 예언들이 개봉되기 시작했다. 법왕의 유수(幽囚)와 함께 천연계의 징조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재림을 알려 주는 사건들에 관한 예언들을 연구하게 했다. 그 결과로 이런 예언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재림을 중심으로 한 이런 연구는 또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했다. 마치 종교 개혁이 그리스도교계 전역에 걸쳐 여러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재림운동도 그러했다. 이 운동의 세계적 성격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조들 중 하나이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재림운동은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의 기별, 구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를 전함으로 그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본서 13장과 24장 참조).[13]

2. 복음의 전파.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행 17:31)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온 세계가 회개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말

씀하셨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벧후 3:12)고 신자들을 격려한다.

금세기의 성경 번역과 보급에 관한 통계는 복음 증거의 성장을 알려 준다. 1900년에는 성경이 537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1980년이 되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1,811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그것은 거의 세계 인구의 96퍼센트가 사용하는 언어였다. 마찬가지로, 연간(年間) 성경 보급량도 1900년에는 540만 권이었는데 1980년에는 3,680만 권의 성경과 거의 5억 권의 성경 부분들로 상승되었다.[14]

더욱이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그 사명 완수를 위하여 전례 없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봉사 기관, 교육과 의료 기관, 국내와 국외의 교역자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엄청난 재정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강력한 단파 라디오 방송망을 통하여 지구의 모든 나라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의 지도 아래 이 엄청난 선교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다.

약 700개의 언어와 1000개의 방언들을 사용하는 교인들을 가진 제칠일 식일예수재림교는 204개 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교인들 중 거의 93퍼센트는 북미 지역 이외에 거주하고 있다. 총 347개 언어와 방언으로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합하면, 도합 882개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이 복음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 요양소, 의원 그리고 진료소 698개, 고아원과 어린이 보호소 34개, 의료선(醫療船) 10척, 건강식품 공장 28개, 대학과 대학교 101개, 중고등학교 1,385개, 초등학교 5,322개, 성경통신학교 125개 그리고 외국어 학원 33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57개 출판소는 190개 언어와 157개의 방언으로 인쇄물을 출판하고 있으며, 우리의 단파 라디오 방송국은 세계 인구의 약 75퍼센트에게 방송을 하고 있다. 덧붙여서, 매주 5,512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2,252개 텔레비전 방송국을 이용하여 방송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선교 사업에 풍성하게 축복하셨다.

3. 신앙적 퇴보. 세계적 복음 전파란 반드시 참그리스도교의 힘찬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참된 영성이 퇴보할 것을 예언한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

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딤후 3:1~5)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신과 물질적 사물들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과 그분의 율법이 그들의 생애를 지도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불법이 널리 퍼지고 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

4. 교황권의 부활.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1260년 기간의 끝에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나 고침을 받을 것이다. 교황권은 영향력과 존경을 크게 회복할 것이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계 13:3)를 것이다. 오늘날 이미 많은 사람은 교황을 세계의 도덕적 지도자로 본다.

교황권의 영향력은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통과 인간의 표준과 과학으로 성경의 권위를 대신함에 따라 증대되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악한 자"(살후 2:9)에게 공격받기 쉽게 되었다.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은, 세상을 기만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으로 표상된 악의 연합체를 이룰 것이다(계 16:13, 14, 13:13, 14), 오직 성경을 자신의 안내자로 삼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12)들만이 이 연합체에서 비롯되는 압도적인 기만을 성공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5. 종교 자유의 쇠퇴. 교황권의 융성은 엄청난 영향을 그리스도교에 줄 것이다.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종교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따라 보장된 종교 자유는 침해당하여 마침내 빼앗길 것이다. 강력한 정부들의 지지 아래 이 반역의 세력은 그 예배 형식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자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충성하든지 짐승과 피의 우상에게 충성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계 14:6~12).

순응케 하는 압력 수단에는 경제적 위협이 포함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계 13:17). 마침내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형에 직면할 것이다(계 13:15). 이 마지막 환난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개입하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단 12:1; 계 3:5, 20:15).

죄악의 증가.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영적 쇠퇴와 불법의 사람의 융성은 교회 안에서와 신자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차츰 등한히 하게 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믿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시는 범죄와 부도덕의 행위를 증가시켰다.

1. 세계적인 범죄의 증가.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경향은 법과 질서에 대한 현대 사회의 경멸의 한 원인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범죄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세계의 여러 수도(首都)에 주재하는 통신원들이 보낸 기사를 종합한 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증가 일로에 있다." "런던에서 모스크바, 요하네스버그에 이르기까지, 범죄는 많은 사람의 생활 방식을 변모시키고 있는 하나의 주된 위협이 되고 있다."[15]

2. 성(性)의 혁명.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정절과 순결에 대한 제약을 깨뜨리게 되자 부도덕이 창궐하게 되었다. 오늘날 성(性)은 우상화되고, 영화나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 노래, 잡지, 광고를 통하여 널리 팔리고 있다.

성의 혁명은, 충격적인 이혼율의 증가, 개방 결혼, 배우자 교환 등과 같은 탈선,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 소름끼칠 정도의 임신 중절의 증가, 널리 파급된 동성애, 성병의 만연, 최근에 대두된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을 초래했다.

전쟁과 재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시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눅 21:10, 11; 막 13:7, 8; 마 24:7).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의 투쟁이 심해짐에 따라, 이런 재난 역시 그 정도의 빈도가 심해져서 우리의 시대에 전례 없는 결과를 보여 줄 것이다.

1. 전쟁. 비록 전쟁이 역사를 통하여 인류를 괴롭혀 왔으나 그처럼 세계적

이요 파괴적인 것들은 이전에 결코 없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그 전의 모든 전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상자들과 고난을 초래했다.[16]

많은 사람은 또 다른 세계적인 전쟁을 예상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은 전쟁을 근절시키지 않았다. 그 전쟁이 그친 이래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운 싸움이 약 140회 있었는데, 그로 인해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죽었다."[17]

2. 자연의 재난. 최근에 재난들이 놀라울 만큼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의 홍수들과 이상 기후들이 새로운 기록들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연계가 광포해지지나 않았는가, 혹은 지구의 구조와 기후에 심각한 변화가 생겨서 미래에 엄청난 사태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다.[18]

3. 기근. 기근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금세기에 있었던 그런 규모의 것들은 없었다. 과거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림이나 영양 부족으로 고통당한 일이 없었다.[19]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 밝아질 가망이 거의 없다. 전례 없는 규모의 기근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알려 준다.

항상 깨어 있으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증해 준다. 그러면 그분께서 1년 후에 오실 것인가? 혹 5년, 10년, 20년 후에 오실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확언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고 친히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끝에, 말세의 교회가 경험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부류의 처녀들은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두 부류의 신자들을 대표한다. 그들이 순결한 믿음을 가졌노라고 공언하기 때문에 그들은 처녀들이라고 불린다. 그들의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외관상으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아 보인다. 둘 다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고, 둘 다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에는 차이가 없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기별을 들었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된다.

갑자기 한밤중에, 지상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마 25:6)는 부르짖음을 듣는다.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별이 생긴다. 어떤 사람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위선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름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했다(계 7:1~3 참조). 그들은 외형적인 행위로 만족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없었다.

신랑이 올 때,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그리고 문은 닫힌다. 마침내 기름을 사러 간 어리석은 처녀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한다(마 25:11, 12).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그분은 경고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 23).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내셔서 홍수 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멸망을 알려 주셨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고자 경고의 삼중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계 14:6~16 참조).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재림을 바라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계 19:9)는 보증이 주어져 있다. 진실로 그분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히 9:28)실 것이다.

구속주의 오심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사 25:9)고 외친다.

참고 문헌

1.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1, pp. 456, 894 ; vol. 2, pp. 528, 784 ; vol. 3, pp. 252, 744 ; vol. 4, pp. 396, 846. 본서 24장 참조.
2. G. I. Eiby, Earthquakes(New York, NY : Van Nostrand Reinholdt Co., 1980), p. 164.
3. 예컨대 Sir Charles Lyell, Principles of Geology(Philadelphia, PA : James Kay, Jun. & Brother, 1837), vol. 1, pp. 416~419 : "Lisbon," Encyclopedia Americana, ed. Francis Lieber(Philadelphia, PA : Carey and Lea, 1831), p. 10 : W. H. Hobbs, Earthquakes, (New York : D. Appleton and Co., 1907), p. 143 ; Thomas Hunter, An Historical Account of Earthquakes Extacted from the Most Authentic Historians(Liverpool : R. Williamson, 1756), pp. 54~90을 보라. Cf.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p. 304, 305. 초기의 보고는 사망자가 100,000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대 백과사전에는 60,000명 정도로 언급되어 있다.
4. John Biddolf, A Poem on the Earthquake at Lisbon(London : W. Owen, 1755), p. 9, quoted in Source Book, p. 358 ;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2, pp. 674~677. 영국 성공회는 1756년 2월 6일에 이 지진을 기념하여 금식과 겸비의 날로 지냈다(ibid.). T. D. Kendrick, The Lisbon Earthquake(London : Methuen & Co. Ltd., 1955), pp. 72~164.
5. Cf.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p. 306~308.
6. Timothy Dwight, quoted in Connecticut Historical Collections, compl. John W. Barber, 2nd ed.(New Haven, CT : Durrie & Peck and J. W. Barber, 1836), p. 403 ; Cited in Source Book, p. 316.
7. Samuel Williams, "An Account of a Very Uncommon Darkness in the State of New-England, May 19, 1780)," in Memoirs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 to the End of the Year 1783(Boston, MA : Adams and Nouse, 1785), vol. 1, pp. 234, 235. Cf. Source Book, p. 315.
8. Letter of Samuel Tenny, Exeter, [NH], Dec. 1785, in Colletions of the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for the Year 1792(Boston, MA : Beknap and Hall, 1792), vol. 1, p. 97.
9. Peter M. Millman, "The Falling of the Stars," The Telescope, 7(May-June, 1940, p. 60). 또한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 vol. 4, p. 295을 보라.
10. Dension Olmsted, Letters on Astronomy, 1840 ed., pp. 348, 349, in Source Book, pp. 410, 411.
11.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4, pp. 297~300, Cf.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p. 333, 334.
12. Phenomena as observed at Bowling Green, Missouri, reported in the Salt River Journal, Nov. 20, 1780 as quoted in American Journal of Science and Art, ed. Benjamin Silliman, 25(1834) : p. 382.
13.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 4 ; Dam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참조.

14. David B. Barrett, ed.,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A Comparative Study of Churches and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AD 1900~2000(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13.
15. "Abroad, Too, Fear Grips the Cities," U. S. New & World Report, Feb. 23, 1981, p. 65.
16.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The Wages of War : 1816~1965. A Statistical Handbook(New York, NY : John Wiley & Sons, 1972), pp. 66, 67.
17. Margaret Thatcher as quoted in Earnest W. Lefever and E. Stephen Hung, The Apocalypse Premise(Washington, D.C. : 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1982), p. 394.
18. Paul Recer, "Is Mother Nature Going Berserk?" U. S. News & World Report, Feb. 22, 1982, p. 66 참조.
19. Development Forum이라는 제목으로 된 국제연합 출판물의 특별 부록 "Facts on Food"(1974년 11월 호)은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억이 영양 실조에 걸려 있다."고 말했다. Ronald J. Sider, Rich Christian in an Age of Hunger (New York, NY : Paulist Press, 1977), p. 228, n.4에서 인용. 16쪽 참조.

제26장

죽음과 부활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 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무의식 상태가 된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 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롬 6:23; 딤전 6:15, 16; 전 9:5, 6; 시 146:3, 4; 요 11:11~14; 골 3:4; 고전 15:51~54; 살전 4:13~17; 요 5:28, 29; 계 20:1~10)

블레셋의 군대는 수넴으로 이동하여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사울의 마음은 전혀 낙관적이 아니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까이에 있는 길보아 산에 주둔시켰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이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도하여 그 원수를 두려움 없이 대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섬기지 않고 돌아섰다. 그러므로 그 배반한 왕이 임박한 전쟁의 결과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와 교신하기를 거절하셨다.

미지의 다음날에 대한 불길한 공포는 사울을 무겁게 눌렀다. 사무엘이 여기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사무엘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사울에게 조언할 수 없었다. 사무엘이 살아 있었다 해도 그에게 조언할 수 있었을까?

그의 초기에 신접한 자를 쫓아낼 때 피해 간 한 영매자를 찾아내어 그 키

큰 왕은 이튿날의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물어보기 위하여 몸을 굽혔다. 그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요구하였다. 강신술을 걸어서 그 영매자는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 신(영)은 속절없는 왕에게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할 뿐 아니라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려 주었다(사무엘상 28장 참조).

그 예언은 적중하였다. 그렇다면 예언한 것은 정말로 사무엘의 영이었던가? 하나님께 정죄받은 한 영매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지배할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에서 왔으며, 왜 그의 영은 "땅에서" 올라왔는가. 죽음은 사무엘에게 어떤 결과를 끼쳤는가? 사울에게 말한 것이 사무엘의 영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누구였던가? 성경이 죽음과 죽은 자와의 교신과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자.

불멸성과 죽음

불멸성은 죽음에 굴하지 않는 상태나 특성이다. 성경의 번역자들은 헬라어 **아다나시아**(athanasia, 불사)와 **아프타르시아**(aphtharsia, 부패하지 않음)를 **불멸성**(immortality)이라고 번역했다. 이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어떻게 관련되는가?

불멸성.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불멸이라고 알려 준다(딤전 1:17). 사실상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딤전 6:16)다. 그분은 창조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본서 2장 참조).

"성경은 어느 곳에도 사람이–혹은 그의 '영혼(soul, 네페쉬)'이나 '영(spirit, 루아흐)'이–천성적으로 불멸의 특성이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혼(네페쉬)'과 '영(루아흐)'이라는 말이…성경에 1,6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지만, '불사' 혹은 '불멸'이라는 낱말과는 결코 관련되어 있지 않다"(본서 7장 참조).[1]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들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약 4:14)에 비유한다. 그들은 "육체뿐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시 78:39)이다. 사람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욥 14:2)한다.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

다. 하나님은 불멸하시고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무상하다.

조건적 불멸성.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창조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말한다(행 17:25, 28; 골 1:16, 17 참조). 이 사실을 근거로 생각하면 불멸은 인간이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자유 의지, 곧 선택의 능력을 주셨다. 그들은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계속적인 순종에 의존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멸성의 선물을 소유하는 것은 조건적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선물이 박탈될 것이라는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2]

죽음: 죄의 삯. 불순종하면 죽음이 온다는 하나님의 경고와는 반대로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그들은 죄의 삯이 정말로 사망(롬 6:23)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죄는,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는 선고를 받게 했다. 이 말은 생명의 계속을 가리키지 않고 생명의 단절을 가리킨다.

이 선고를 하신 후 하나님은 범죄한 부부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차단시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창 3:22)지 못하게 하셨다. 그분의 행동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불멸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고, 죽음에 굴복하였다. 아담은 그가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한 것을 물려줄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롬 5:12)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아담과 하와에게 즉각적인 죽음을 면하게 해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들은 다른 기회, 곧 두 번째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때로부터 죽

임을 당한 어린양"(계 13:8, 영어 성경 참조)이셨다.

인간의 소망. 비록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을지라도 성경은 불멸성을 찾도록 그들에게 격려한다(롬 2:7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불멸성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요일 5:11 참조). 그분은,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음성이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다(요 5:28, 29).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인간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을 것이며 죽은 모든 사람은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멸망할 필요가 없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죄의 형벌을 도말해 줄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불멸의 선물을 보증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딤후 1:10) 드러내셨다. 바울은,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딤후 3:15) 한다고 우리에게 보증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불멸성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불멸성을 받음. 바울은 불멸성의 선물이 주어지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전 15:51~54).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죽을 때에 불멸을 주시지 않으시고 부활 때, 곧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반

면(요일 5:11~13), 이 선물의 실제적 실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그때에 가서야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서 불멸의 상태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죽음의 본질

죽음이 생명의 중단이라면, 성경은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는 것이 왜 요긴한가?

죽음은 잠자는 것임. 죽음은 완전한 절멸(絶滅)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의 일시적인 무의식 상태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 상태를 거듭거듭 잠이라고 부른다.

구약성경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른 왕들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들이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것으로 묘사한다(왕상 2:10, 11:43, 14:20, 31, 15:8; 대하 21:1, 26:23). 욥은, 다윗(시 13:3)과 예레미야(렘 51:39, 57)와 다니엘(단 12:2)과 똑같이 죽음을 잠이라고 불렀다(욥 14:10~12).

신약성경도 동일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죽은 야이로의 딸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잔다고 말씀하셨다(마 9:24; 막 5:39). 그분은 죽은 나사로도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셨다(요 11:11~14). 마태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마 27:52)났다고 기록했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그가 "자니라"(행 7:60)고 했다. 바울과 베드로 역시 죽음을 잠이라고 불렀다(고전 15:51, 52; 살전 4:13~17; 벧후 3:4).

죽음을 잠이라고 한 성경의 표현은 다음의 증거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상태와 분명히 일치된다. 1. 죽은 자는 의식이 없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전 9:5). 2. 잘 때는 의식적 사고(意識的思考)가 중단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시 146:4). 3. 잠은 일상의 모든 활동을 그치게 한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10). 4. 잠자는 자들은 깨어 있는 자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전 9:6). 5. 정상적인 잠은

정서적 활동을 그치게 한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전 9:6). 6. 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시 115:17). 7. 잠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나오리라"(요 5:28, 29).[3]

사람이 흙으로 돌아감. 죽을 때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사람의 본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의 유기체(有機體)라고 한다(본서 7장 참조). 때로는 성경이 전인적(全人的)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하여 '**영혼**'(네페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정과 정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말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분리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몸과 영혼(네페쉬)은 오직 함께 존재한다. 그것들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연합을 이룬다.

인간을 창조할 때, 흙(땅의 요소)과 생기와의 연합이 산 사람, 혹은 영혼(네페쉬)을 만들었다. 아담은 하나의 분리된 단위로서의 영혼(네페쉬)을 받지 않고 생령이 **되었다**(창 2:7; 본서 7장 참조). 그리고 죽을 때에는 반대 현상이 생긴다. 곧 땅의 흙으로 이루어진 사람에게서 생기가 제거되면, 의식이 전혀 없는 죽은 사람 혹은 죽은 영혼(네페쉬)이 된다(시 146:4). 몸을 이루었던 요소는 본래 그대로 흙으로 돌아간다(창 3:19). 영혼(네페쉬)은 육체를 떠나서 의식적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죽을 때 영혼(네페쉬)이 하나의 의식적 존재로 생존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진실로 "범죄하는 그 영혼(네페쉬)은 죽"(겔 18:20)는다.

죽은 자의 거처. 구약성경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가는 곳을 **스올**(sheol, 히브리어)이라 하고, 신약성경은 **하데스**(hades, 헬라어)라 한다. 성경에서는 스올이 가장 빈번히 무덤을 의미한다.[4] **하데스**의 의미는 스올의 의미와 유사하다.[5]

죽은 자는 의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모두 이곳으로 간다. 야곱은, "내가…스올로 내려…가리라"(창 37:35)고 말했다. 땅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삼키고자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은 "산 채로 **스올**에"(민 16:30) 내려갔다.

죽을 때 전체로서의 사람이 **스올**에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무덤(**하데스**)으로 내려가셨지만 부활 때에 그분의 혼은 무덤(**하데스**, 행 2:27, 31, 혹은 **스올**, 시 16:10)을 떠났다. 다윗이 치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는 그의 혼이 "**스올**"(시 30:3)에서 구원받았다고 증언했다.

무덤은 의식이 있는 장소가 아니다.[6] 죽음이 하나의 잠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무덤(**하데스**)이 그 죽은 자를 내어 주는(계 20:13) 부활 때까지 무의식 상태로 무덤 속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신(영, spirit)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솔로몬은 죽을 때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전 12:7)간다고 말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다.

많은 사람은 이 성경절이 죽은 후에도 사람의 본질은 계속 살아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은, 신(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ruach)와 헬라어 **프뉴마**(pneuma) 그 어느 것도 육체를 떠나서 의식적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지성적 실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용어들은 "호흡", 곧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명의 기운, 동물들과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소인(素因)을 의미한다(본서 7장 참조).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난외주에는 '영', **루아흐**)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루아흐**)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루아흐**)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 3:19~21). 그러므로 솔로몬에 의하면, 사람의 혼(루아흐)과 짐승의 혼(**루아흐**)과는 구분이 없다. [성경에는 'spirit'(루아흐)과 'soul'(네페쉬)이 일관성 있게 번역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spirit'은 '영'으로, 'soul'은 '혼'으로 번역된다. 성경에는 'soul'이 '영혼'으로 많이 번역되었고 'spirit'은 때때로 '혼'으로도 번역되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번역된 용어 옆에 원어를 표기해 놓았다.편집자 주]

혼(**루아흐**)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솔로몬의 말은, 하나님

께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생명의 소인(素因)을 가리킨다. 혼(**루아흐**) 혹은 호흡이 육체를 떠난 하나의 의식적 실체라는 뜻은 없다. 이 **루아흐**는, 하나님이 생명 없는 육체를 살리기 위하여 최초의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창 2:7 참조).

성경 전체와의 조화.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부활할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의 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영이나 영혼이 죽음 후에 의식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여러 성경절이 지지한다고 단정해 왔다. 그러나 주의 깊이 연구해 보면 죽으면 의식 작용이 중단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임을 밝혀준다.[7]

강신술. 만일 죽은 자가 전혀 의식이 없다면 강신술의 영매들은 누구와 혹은 무엇과 교통을 하는가? 모든 정직한 사람은, 최소한 이런 현상 중 어떤 것은 속이는 일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이 있다. 강신술에는 어떤 초자연적 세력이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 성경은 이 점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1. 강신술의 기초. 강신술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고 사탄이 하와에게 한 최초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말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류의 종교는 부지중에 이 오류를 반복한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겔 18:20)는 하나님의 선고가 "영혼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영원히 살리라"는 말로 뒤집혀졌다.

이 본질적 불멸성에 대한 거짓 교리가 죽어도 의식이 있다는 신조를 갖게 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런 주장은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된다. 그것들은 큰 배교의 시대에 이교의 철학, 특히 플라톤의 철학에서 온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혼합되었다(본서 13장 참조). 이런 신조들은 그리스도교 내에서 우세한 견해가 되었고, 오늘날도 지배적인 견해로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믿음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강신술을 받아들이게 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들이 봉사하는

영으로서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들에게 조언과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또한 불행을 피하거나 슬픔 중에 위로를 받기 위하여 그들과 교신하고자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이론을 세우는 일에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계 12:4, 9)은 그들의 기만을 관철시킬 교신의 통로를 마련했다. 강신술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그들은 각별히 사랑하는 자들로 가장하여 산 자들에게 가상적인 위로와 보증을 가져다준다. 때로는 그들이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서 신임을 얻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위험한 이단설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과는 반대될지라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기를 얻는다. 악을 저항하는 방벽을 제거해 버리고, 사탄은 마음대로 고삐를 쥐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분명한 멸망에 빠지도록 이끌었다.

2. 강신술에 대한 경고. 아무도 강신술에 의하여 기만당할 필요는 없다. 성경은 그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히 밝혀 준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의식 상태로 무덤 속에 누워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성경은 또한 죽은 자나 영계와 더불어 교통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강력히 금지한다. 성경은, 강신술의 영매들이 오늘날 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과 교신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실상 악령과 "신접한 자들"로 더불어 교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레 19:31, 20:27; 신 18:10, 11 참조).

이사야는 강신술의 어리석음을 잘 나타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19, 20). 진실로, 오직 성경만이 이 무서운 기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다.

3. 강신술의 현현. 성경은, 바로의 술객들과 니느웨와 바벨론의 박수와 점성술사와 술객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박수와 영매자들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강신술의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한 가지 예는, 이 장(章)의 서두에서 언급한 사울이 찾아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다.

성경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삼상 28:6)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

나님은 엔돌에서 일어난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로 가장한 마귀에게 기만당하였다. 그는 진짜 사무엘을 본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술사는, 사울이 사무엘인 줄로 안, 혹은 사무엘일 것이라고 단정한 한 노인의 형상을 보았다(14절).

만일 우리가 그 유령을 정말로 사무엘이라고 믿어야 한다면 우리는 점쟁이, 마술사, 무당, 마법사, 강신술사, 영매 등이 의인이 죽을 때에 간 곳에서 죽은 의인들을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경건한 사무엘이 땅속에서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수락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땅에서"(13절)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 강신(降神)은 사울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가져왔다. 이튿날 그는 자살을 했다(삼상 31:4). 그러나 이른바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삼상 28:19). 만일 그의 예언이 옳았다면 우리는, 죽은 후에 불순종한 사울과 의로운 사무엘이 함께 거하였다고 결론을 지어야 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악한 천사가 이 강신술을 통하여 기만적 장면들을 연출했다고 결론짓는 것이 타당하다.

4. 최후의 기만. 과거에는 강신술의 현현이 신비로운 영교(靈交)의 영역에 국한되었었다. 그러나 더욱 최근에 강신술이 그리스도교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교계를 기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성경을 받아들이노라고 공언함으로써 강신술은 신자들에게 극히 위험한 원수가 되었다. 그 영향은 미묘하고 기만적이다. 강신술의 영향을 통하여 "성경은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풀이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엄숙하고 주요한 진리들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주요한 속성으로 강조되지만, 그것은 선과 악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의 연약한 감상주의(感傷主義)로 전락되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그분의 경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 등은 모두 간과된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하나의 죽은 문자로 취급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매혹적인 우화들이 감각을 사로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거절하게 한다."[8]

이 수단들을 통하여 정(正)과 사(邪)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되고 각 사람이나 상황이나 문화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다. 사실상 각 사람이 신(神)이 되고, "너희가…하나님과 같이 되어"(창 3:5)라고 한 사탄의 약속을 성취시킨다.

우리 앞에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계 3:10)가 놓여 있다. 사탄은 세상을 속이기 위하여 마지막 노력을 함에 있어서 기사와 이적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노련한 기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말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 16:13, 14, 13:13, 14 참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무장하고 그것을 그들의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 기만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사람은 보호의 길을 잃고 이 기만에 휩쓸려 갈 것이다.

첫 죽음과 둘째 죽음. 둘째 죽음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곧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형벌이며, 그것은 1000년기 끝에 있다(본서 27장 참조). 이 죽음에는 부활이 없다. 사탄과 불의한 자들의 멸망과 함께 죄는 사라지고 죽음 자체도 없어진다(고전 15:26; 계 20:14, 21:8).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계 2:11)고 보증하셨다.

성경이 둘째 사망을 지적한 것에 근거하여 첫째 사망은, 승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타락적인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성에 나타나는 자연적 결과"이다.[9]

부활

부활은, "죽음 다음에 있는, 완전한 개체와 개성을 지닌 생명의 회복"이다.[10] 인간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덤 저편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려면 부활이 있어야 한다. 신구약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은 부활의 소망을 표현하였다(욥 14:13~15, 19:25~29; 시 49:15, 73:24; 사 26:19; 고전 15장).

우리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죽음이 모든 사람의 운

명으로 되어 있는 이 현실 세계 저편에서 더 좋은 미래를 누릴 수 있다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들을 최종적으로 일으키실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은 의인들이 불멸성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히 관련된다(요 5:28, 29).

1.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바울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한다. 1) 복음의 전파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고전 15:14). 2) 죄의 용서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17절). 3)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17절). 4)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부활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12절). 5) 죽음 저편에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17, 18절).[11]

2. 육체적 부활. 무덤에서 나오신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셨던 **동일**한 예수님이셨다. 이제 그분은 육체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여전히 실제적 육체였다. 그 육체는 너무도 실제적인 육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차이를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눅 24:13~27; 요 20:14~18).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유의 영이나 유령이 아니라고 직접 부인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9). 그분의 부활의 육체적 실체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분은 또한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다(43절).

3.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향.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의 제자들은 자극을 받고 분기되고 불이 붙었다. 그것은 약하고 겁에 질린 일단의 사람들을 용감한 사도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

를 갖추어 주었다(빌 3:10, 11; 행 4:33), 그 결과로 그들이 담당한 사명은 로마 제국을 진동시키고 온 세계를 뒤집어놓았다(행 17:6).

"복음 전파에 핵심과 능력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이었다(빌 3:10, 11).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산 소망이 있게 하'(벧전 1:3)심에 대하여 말한다.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행 1:22)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은 구약의 메시야적 예언에 근거한 것이었다(행 2:31). 그들의 증거에 '큰 권능'을 준 것은 '주 예수의 부활'(행 4:33)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었다.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2절) 전할 때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를 받았다. 산헤드린 앞에 소환되었을 때, 바울은 그가 '심문을 받'은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행 23:6, 24:21). 로마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롬 1:4)다고 편지를 썼다. 침례를 받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롬 6:4, 5).[12]

두 가지 부활.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의 일반적 부활, 곧 의인들에게 해당되는 "생명의 부활"과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셨다(요 5:28, 29; 행 24:15). 이 두 부활 사이에는 1000년간의 기간이 있다(계 20:4, 5).

1.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불린다(계 20:6). 그들은 천년기 끝에 불못에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14절). 생명과 불멸성을 입는 이 부활(요 5:29; 고전 15:52, 53)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고전 15:22, 23; 살전 4:15~18).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다(눅 20:36). 그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부활한 육체는 무엇과 같을 것인가?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성도들은 실제적인 육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된 분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의인들도 그러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1)고 말하

였다. 그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지 못한 몸과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을 각각 "육신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 라고 부르는데, 전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몸이고 후자는 불멸하고 죽지 않을 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불멸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일은 부활 시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고전 15:42~54 참조).

2. 심판의 부활. 불의한 자들은 1000년 끝에 있는 둘째 부활에 일어난다(본서 27장 참조). 이 부활은 마지막 심판과 정죄에 앞서 있다(요 5:29).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때에 부활하여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경험한다(계 20:14, 15).

그들은 이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다. 분명한 음성으로 성경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겔 18:30~32).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계 2:11)고 약속하신다. 예수님과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돌아오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쇠하지 않을 행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들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분과 함께 지낼 것이다.

참고 문헌

1. "immortality," SDA Encyclopedia, rev. ed., p. 621.
2. 여러 세기를 통하여 루터교, 개혁교, 성공회, 침례교, 회중교, 장로교, 감리교 등 많은 교파의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적 불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했다. 가장 두드러진 인물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Martin Luther, William Tyndale, John Frith, George Wishart ;17세기–Robert Overton, Samuel Richardson, John Milton, George Wither, John Jackson, John Canne, Archbishop John Tillotson, Dr. Issac Barrow ;18세기–Dr. William Coward, Henry Layton, Joseph N. Scott, M. D., Dr. Joseph Priestly, Peter pecard,

Archdeacon Francis Blackburne, Bishop William Worburton, Samuel Bourn, Dr. William Whiston, Dr. John Tottie, Prof. Henry Dodwell ; 19세기-Bishop Timothy Kendrick, Dr. William Thomson, Dr. Edeward White, Dr. John Thomas, H. H. Dobney, Archbishop Richard Whately, Dean Henry Alford, James Panton Ham, Charles F. Hudson, Dr. Robert W. Dale, Dean Frederich W. Farrar, Hermann Olshausen, Canon Henry Constale, William Gladstone, Joseph Parker, Bishop John J. S. Perowne, Sir George G. Stokes, Dr. W. A. Brown, Dr. J. Agar Beet, Dr. R. F. Weymouth, Dr. Lyman Abbott, Dr. Edward Beecher, Dr. Emmanuel Petavel-Oliff, Dr. Franz Delitzsch, Bishop Charles J. Ellicott, Dr. George Dana Boardman, J. H. Pettingell ; 20세기-Canon William H. M. Hay Aitken, Eric Lewis, Dr. William Temple, Dr. Gerardus van der Leeuw, Dr. Aubrey R. Vine, Dr. Martin J. Heinecken, David R. Davies, Dr. Basil F. C. Atkinson, Dr. Emil Brunner, Dr. Reinhold Niebuhr, Dr. T. A. Kantonen, Dr. D. R. G. Owen. Question on Doctrine, pp. 571~609 ; Froom, The Conditionalist Faith of Our Fathers(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65, 1966) 1권과 2권 참조.

3. "Death,"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p. 277, 278 참조.
4. R. L. Harris, "The Meaning of the Word Sheol as Shown by Parallels in Poetic Texts," Journal of th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Dec. 1961, pp. 129~135 ;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3, p. 999도 참조하라.
5. 예컨대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5, p. 387을 보라.
6. 단 하나의 예외는, **스올**이 상징으로(겔 32 : 21), **하데스**가 하나의 비유로(눅 16 : 23) 사용된 경우이다. **스올**은 구약성경에 60회 이상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곳에도 죽음 후에 있는 형벌의 장소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사상은 후에 **하데스**에가 아니고 **게엔나**에 주어졌고(막 9 : 43~48), 단 하나의 예외밖에 없다(눅 16 : 23). 또한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3, p. 999도 보라.
7. 다음의 성경 구절이 죽음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이 같은 가르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여 준다.

   1) **라헬의 죽음.** 라헬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의 혼이 떠나려할 때"(창 35 : 18)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의 의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다른 번역에는, "그가 마지막 숨을 쉬면서"(NIV)라고 되어 있다.

   2) **엘리야와 죽은 소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의 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살려주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왕상 17 : 21, 22). 이것은 생명의 소인(素因)이 육체와 연합한 결과였지, 그것들이 분리되었을 때는 어느 것도 살거나 의식을 가질 수 없었다.

   3) **산 위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 의식을 가진 영이 존재한다거나 모든 죽은 의인들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분의 나라에 계심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루어졌다(마 16:28~17:3).

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축도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거기에는 영광의 왕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 나라의 백성의 두 부류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있었다. 모세는 재림 때에 무덤에서 부활할 죽은 의인들을 대표했고, 엘리야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살아 있는 의인들을 대표했다(왕하 2:11).

유다는 모세의 특별 부활의 증거를 제시한다. 모세가 죽어 장사된 후에(신 34:5, 6), 미가엘과 마귀 사이에 모세의 시체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유 9절). 모세가 산 위에 나타난 사실은, 마귀가 그 싸움에서 패하고 모세가 무덤에서 부활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처음으로 보여 주게 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영혼 불멸의 교리를 옹호하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육체의 부활의 교리를 지지하고 있다.

4)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고 가르치는 데 사용되어 왔다(눅 16:19~31). 불행하게도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모든 면에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불합리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죽은 자들은 눈, 혀, 손가락과 같은 육체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가진 실제적인 사람으로서 그들의 보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의인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하늘과 지옥은 말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였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재림 시에 그들의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한 그리스도의 교훈과는 반대로 죽을 때에 보응을 받을 것이었다(마 25:31~41; 계 22:12).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즐겨 쓰시던 교수 방법 중 하나인 비유이다. 모든 비유는 하나의 교훈을 전할 의도로 주어졌는데, 이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교훈은 죽은 자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데 있다. 예수님은 부자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등한히 했다고 말했다. 영원한 운명은 현세에서 결정되며 두 번째 은혜의 시기는 없다. 성경은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침서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유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31)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죽은 자가 대화를 나누는 통상적인 유대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사용하셨을 뿐이다(아브라함의 품과 하데스의 비유적 관념은 유대의 전설과 매우 유사했다. "Discourse to the Greeks Concerning Hades," Josephus' Complete Works, trans. by William Whiston [Grand Rapids: Kregel, 1960], p. 637.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나무들이 이야기하는 비유를 발견한다(삿 9:7~15; 왕하 14:9). 그러나 아무도 이 비유를 나무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유에,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한 많은 성경상 증거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모순되게 할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5) **강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약속하셨다. 낙원은 분명히 하늘과 동의어이다(고후 12:4 ; 계 2:7). 우리말 번역문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금요일에 하늘에 가서 바로 아버지의 면전에 가셨을 것이며 행악자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주말을 지내셨다는 사실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 28:6)고 한 천사의 말이 밝혀 준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모순되셨던가?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 그 성경절을 바로 이해하게 해 주는 길을 그 성경절의 구두점에 있다. 초기의 성경 원고에는 낱말들 사이에 어떤 콤마나 간격이 없었다. 구두점의 삽입과 단어의 분리는 성경절의 의미를 상당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성경 번역자들은 구두점을 찍는 일에서 그들의 최선의 판단력을 활용하지만 그들의 일이 분명히 영감을 받아 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탁월한 일을 한 번역자들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코머를 "오늘"의 앞에 찍는 대신에 뒤에다 찍었다면, 이 성경절은 죽음에 관한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모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오늘(내가 한 사람의 범법자로서 죽어 가고 있는 이날)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의미로 적절히 이해될 것이다. 성경의 교훈과 일치되게 예수님은, 그 행악자가 낙원에서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을 보증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재림 때에 의인들의 부활 후에 성취될 약속이었다.

6)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빌 1:21, 23)라고 말했다. 바울은 죽을 때 즉시 하늘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던가?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문제에 관하여 많이 기록했다. 다른 편지서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기록했다. 그는 재림 시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산 의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살전 4:14, 17)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죽을 때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에 관한 어떤 말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그의 어려운 현실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단순히 나타내고 있다. 그의 희망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지낼 것이라는 약속에 중심을 두고 있다. 죽은 자들에게는, 죽음으로 눈을 감을 때부터 부활함으로 눈을 뜰 때까지의 긴 기간이 없는 셈이다. 죽은 자들에게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은 죽음 후에 순간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유익이 된다. 더 이상 유혹도, 시련도, 슬픔도 없다. 그리고 부활 때에는 영광스러운 불멸성의 선물을 받는다.

8.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 558.

9. “Death,” SDA Bible Dictionary, rev. ed., 278 ;cf. Questions on Doctrine, p. 524.
10. “Resurrection,”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935.
11. Questions on Doctrine, pp. 67, 68.
12. “Resurrection,”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936.

제27장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

천년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하늘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죽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지구는 완전히 황폐되어 산 거민들이 없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거처할 뿐이다. 그 기간의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도들과 거룩한 성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에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여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 성을 포위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태우고 지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주는 죄와 죄인들에게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다.(계 20장; 고전 6:2, 3; 렘 4:23~26; 계 21:1~5; 말 4:1; 겔 28:19, 20)

각 시대를 통하여 지옥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경배케 하고자 시도하는 자들이 있어 왔다. 그렇다면 그런 유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악을 제거하실 것인가? 사탄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무엇이, 죄가 다시는 그 더러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천년기가 시작될 때 있을 사건들

천년기, 곧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1000년의 기간에 지구에 대한

사탄의 영향은 제한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실 것이다(계 20:1~4).

재림.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은 함께 연결된다. 그 두 장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 그 두 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계 19:11~21)과 재림 후에 바로 계속되는 천년기를 묘사한다. 그리고 그 일련의 묘사는 천년기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됨을 알려 준다.

요한계시록은,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의 사업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의 나라들을 함께 모으는 세 세력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계 16:13)라고 표현한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분과 싸우기 위하여 모였을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다(계 19:19, 20). 그 다음에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20장, 곧 천년기에 관한 장은 그 마귀의 삼중 연합의 세 번째 정체인 용의 운명을 취급한다. 그는 사로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져 100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된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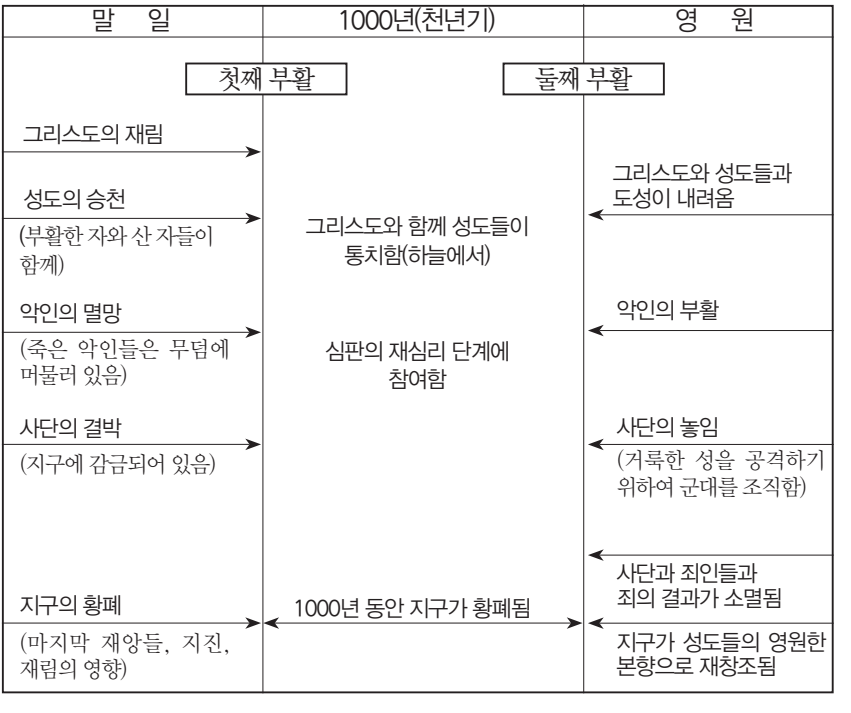
우리가 25장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즉 이 세상의 나라들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나라, 곧 영원히 존속할 나라를 세우실 때 있게 된다(단 2:44).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통치를 시작할 것이다.

첫째 부활. 재림 시에 첫째 부활이 있게 된다. 의인들, 곧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은 부활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계 20:6; 본서 26장 참조).

의인들의 승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한 후, 그들과 산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끌어올려진다(살전 4:17).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 3)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데려갈 장소를, "내 아버지 집", 혹은 "거처"라는 말로 묘사하셨다(요 14:2). 여기서 예수님은 천년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을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재림 시에 의인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 그들의 목적지는 하늘이지, 그들이 방금 떠난 이 지구가 아니다.[2]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에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지 않으신다. 그분은 천년기의 끝에 그렇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대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의 사건에 비교하셨다(마 24:37~39; 눅 17:28~30). 그분의 비교는 두 가지 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멸망이 악인들에게 불시에 닥쳐왔고, 둘째는, 다가온 것은 멸망이었다. 홍수가 "그들을 다 멸"(마 24:39)하였다. 소돔 위에 내린 불과 유황은 "저희를 멸하였"(눅 17:29; 마 13:38~40 참조)다.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의 반역한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후에 사탄을 따르는 자들 중 남은 자들이 죽을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은 전혀 없을 것이



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계 19:21)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3]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사 26:21)고 말했다.

땅이 황폐해짐. 의인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승천하고 악인들은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죽임을 당하고 나면 지구는 한동안 거민들이 없이 지내게 된다. 성경은 그런 상황을 지적한다. 예레미야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렘 4:23~25)라고 말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용어를 예레미야가 사용한 사실은 지구가 창조의 시작 때처럼 혼돈해질 것을 가리킨다.

사탄이 결박됨. 이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서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의식에 예표되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염소의 속죄의 피로써 성소를 정결케 했다. 이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아사셀, 곧 사탄을 표상한 염소에 관한 의식이 시작되었다(23장 참조). 대제사장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레 16:21)었다. 그리고 아사셀은 광야, 곧 "접근하기 어려운 땅"(레 16:22)으로 쫓겨났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봉사해 오고 계시다.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은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 구속(救贖)의 사업과 하늘 성소의 정결을 완성하시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탄, 곧 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에게 전가시키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탄이 신자들의 죄를 속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 사탄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범하게 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이 아사셀을 무인지경으로 끌고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거민이 없는 황폐한 지상으로 추방하실 것이다(본서 24장 참조).[4]

천년기에 대한 요한의 이상(異像)은 사탄의 추방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

는 1000년이 시작될 때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계 20:2)이 결박되어 "무저갱"(계 20:3)에 갇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핍박하고 기만하는 사탄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 준다(계 20:3).

요한이 사용하는 말 "무저갱"[헬라어, abussos(**아부소스**)]은 이때의 지구의 상태를 적절히 묘사한다.[5]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내린 일곱 재앙으로 파괴되고(특히 계 16:18~21을 보라.) 악인들의 시체로 뒤덮인 지구는 완전한 폐허 상태이다.

사탄은 이 세상에 갇혀서 '환경'의 사슬에 결박된다. 지구에는 아무도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유혹하거나 핍박할 대상이 없다. 그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결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천년기 동안의 사건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하늘에 계심.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하늘로, 그분께서 새 예루살렘에 그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처소로 데려가신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함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계 15:3)고 노래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 천년기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계 2:26)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멸망당한 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단 7:27)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첫째 부활 때 일으키신 자들은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계 20:4).

성도들이 하늘에 있고 모든 악인들이 죽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한 중요한 면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6]

악인들에 대한 심판. 요한은 성도들이 천년기 동안에 심판에 참여할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계 20:4)고 한다. 이때는 성경이 말하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심판할 때이다(벧후 2:4; 유 6절).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한 때이다(고전 6:2, 3).[7]

천년기의 심판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잃어버린 바 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전에 그 결정을 하신다. 그때에 부활하거나 승천하지 못한 모든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의인들이 참여하는 심판은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인들의 의문을 풀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영생을 받은 자들이 그분의 지도를 완전히 신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공의의 행사를 그들에게 계시하실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거기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사례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된다. 그런 의심을 품을 어떤 기회도 영원히 종식시키므로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 심판의 살피는 기간에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이 일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은 선악 간의 대쟁투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열렬하고 꾸준하게 돌보신 것에 대하여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죄인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완고하게 그분의 사랑을 배척하고 거절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외관상 경미한 죄인까지도 그들의 구주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더러운 이기심을 은밀히 간직해 온 것을 발견할 것이다."[8]

사탄의 깊은 사색의 시간. 천년기 동안에 사탄은 심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의 사자들과 함께 황폐한 지구에 갇힌 그는 그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수행해 온 기만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반역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강요당한다. 그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가 담당했던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그에게 책임이 있는 모든 죄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형벌에 대한 공포를 안고 미래를 바라볼 뿐이다.

천년기 끝에 있을 사건들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악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사탄은 갇혔던 무활동 상태에서 놓여날 것이다(계 20:5, 7). 그는 악인들을 다시 한 번 속여서 "성도들의 진"과, 이때쯤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을, "사랑하는 성(새 예루살렘)"(계 20:9)을 공격하게 한다.[9]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성이 내려옴.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분은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또한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그때에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슥 14:9)실 것이다.

심판의 부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요 5:28) 온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이 왔다. 재림 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활, "심판의 부활"(요 5:29)이 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역시 이 부활에 대하여 말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계 20:5).

사탄의 감금이 끝남. 1000년기 끝에 악인들이 부활하면 사탄은 감금 상태에서 "잠깐"(계 20:3) 놓이게 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정부에 도전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에서 "땅의 사방 백성을…미혹"(계 20:8)하기 위하여 나갈 것이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 소유했던 동일한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의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도성을 공격함. 세계의 나라들을 모으고 그는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하게 한다(계 20:8, 9).[10] "그리스도의 희생적 속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자들이 이제는 포위와 전쟁을 통해 들어가서 지배하고자 결정한다."[11]

하나님께서 다시 악인들에게 생명을 주시자 그들이 즉시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하는 사실은 그분께서 그들의 운명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확고하게 해 준다. 사탄이 더럽히기 위하여 애써온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 충분히 변호될 것이다.[12]

크고 흰 보좌앞 심판. 요한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성을 둘러싸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고 흰 보좌를 설치하신다고 알려준다. 모든 인류는 이 보좌 주위에서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 밖에서 심판자의 임재 앞에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마지막 단계를 집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눅 13:28) 고 말씀하신 때이다.

이 심판의 집행 부분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록책들이 펼쳐질 것이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그때에 하나님께서 운명의 선고를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가 다시 죽게 하시는가? 천년기 동안에, 구속받은 자들은 우주에 있는 모든 지성적 존재를 취급하시는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살피는 기회를 가져왔다. 이제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포함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의 공의로움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0)고 한 바울의 말이 성취되는 것은 이 큰 보좌의 심판에서이다. 거기에서는 타락하지 않은 자들과 타락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총망라한 모든 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빌 2:10, 11; 사 45:22, 23 참조).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은 영원히 해결될 것이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죄가 다시는 우주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그 거민들을 황폐케 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과 죄인들이 멸망함.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선고가 내리자 즉시 형벌을 받는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 "하늘

에서 불이 내려와"(계 20:9)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를 소멸한다. 성 바깥의 지구의 표면은 녹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벧후 3:7)을 위하여 하나의 큰 불못이 된다. 주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멸하시는 "비상"(사 28:21)한 일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사 34:8)이 이르렀다. 요한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5)고 말했다. 마귀와 그의 동료들도 같은 운명을 당한다(계 20:10).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악인들이 당하는 이 "둘째 사망"(계 21:8)은 그들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그러면 영원히 불붙는 지옥에 대한 관념은 무엇인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경은 그와 같은 지옥이나 고통이 있다고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1. 지옥(hell). 성경상으로 볼 때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할 때 영원한 불에 의하여 형벌과 멸망을 당하는 장소와 상태"이다.[13]

성경의 영어 번역판들은 히브리어 '**스올**(sheol)'과 헬라어 '**하데스**(hades)'를 번역하기 위하여 "지옥"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한다. 이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똑같이 무의식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을 언급하고 있다(본서 26장 참조). 지옥에 대한 오늘날의 관념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의미하는 바와는 너무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개역판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그 히브리어를 "스올"로, 그 헬라어를 "하데스"로 단순히 음역(音譯)한다.

반대로, 신약의 영어 개역판들이 또한 "지옥"이라는 낱말로 번역하는 헬라어 **게엔나**(geena)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불 형벌의 장소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지옥"은 반드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이 특성을 깨닫지 못하므로 가끔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게엔나는 히브리어 **게 힌놈**(Ge Hinnom) 즉 "힌놈 골짜기"–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에서 온 말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을 불사르는 이교의 의식을 행했다(대하 28:3, 33:1, 6). 예레미야는 이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골짜기를, 이스라엘의 시체가 더 이상 묻힐 장소가 없을 때까지 묻히는 "살육의 골짜기"로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다. 나머지 시체들은 새들의 밥이 될 것이었다(렘 7:32, 33, 19:6; 사 30:33). 예레미야의 예언은 의심

할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 힌놈**을 악인들의 심판의 장소, 혐오와 형벌과 수치의 장소로 여기게 했다.[14] 후기의 랍비의 전통은 그것을 시체와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로 간주한다.

예수님은 힌놈의 불을, 지옥의 불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셨다(마 5:22, 18:9 참조). 그러므로 힌놈의 불은 마지막 심판을 태우는 불을 상징했다. 그분은 그것이 죽음 후에 경험이며(눅 12:5) 지옥은 몸과 영혼을 다 같이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0:28).

지옥 불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가?

2. 악인들의 운명.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만 영생을 약속하신다. 죄의 삯은 사망이지,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다(롬 6:23).

성경은 악인들이 "끊어질 것"(시 37:9, 34)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친다(시 37:20, 68:2). 그들은 의식을 갖춘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말 4:1; 마 13:30, 40; 벧후 3:10). 그들은 멸망당하고(시 145:20; 살후 1:9; 히 2:14), 소멸될 것이다(시 104:35).

3. 영원한 형벌. 악인들의 형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신약은 "영원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은 헬라어 **아이오니오스**(aionios)를 번역한 것이며, 사람에는 물론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이오니오스**가 상대적인 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의미는 그것이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성경이 **아이오니오스**(영원한)를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할 때는 그분께서 무한히 생존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불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멸할 수밖에 없는 사물에 대하여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 사는 동안, 혹은 그 사물이 존재하는 동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다서 7절은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오늘날 계속 불타고 있지 않다. 베드로는 불이 이 도시들을 재가 되게 했고 멸망의 형벌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벧후 2:6). "영원한" 불은 탈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타고는 꺼져 버렸다(렘 17:27; 대하 36:19 참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을 "영원한 불"(마 25:41)에 들어가게 하실 때, 악인들을 태울 불은 "꺼지지 않"(마 3:12)을 것이다. 그러나 탈 것이 더 이상 남지 않았을 때 그 불이 꺼질 것이다.[15]

그리스도께서 "영벌"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마 25:46)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의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영생'(의인들이 누릴)을 영원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될 것으로 말씀하셨고, 형벌(악인들이 받을) 역시 영원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 형벌은 영원한 기간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형벌이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의 종국은 둘째 사망이다. 이 죽음 후엔 어떤 부활도 없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형벌이 영원한 것이다."[16]

성경이 "영원한 속죄"(히 9:12)와 "영원한 심판"(히 6:2)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은 끝없는 속죄와 심판의 과정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속죄와 심판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형벌에 관하여 말할 때도 그 형벌의 과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과가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 악인들이 당하는 죽음은 최종적이요 영원할 것이다.

4. 세세토록 고통받음. "세세토록"(계 14:11, 19:3, 20:10)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한 것은, 사탄과 악인들의 형벌 과정이 영원히 진행될 것이라는 그릇된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영원히"라는 말과 같이 그 말이 수식하는 대상이 "세세토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그 말이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불멸의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관련될 때는 그 의미가 제한적이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이런 용법에 대한 좋은 예증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불못에 던지셔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사 34:10)다고 말한다. 에돔은 멸망되어 버렸다. 그것이 지금껏 불타고 있지 않다. "세세토록"은 에돔의 파멸이 완료될 때까지만 계속되었다.

성경 전편을 통하여 "세세토록"은 한계가 지어져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구약성경은, 종이 그의 주인을 "영영히" 섬길 것이고(출 21:6), 아이 사무엘이 "영영히" 성막에 거할 것이며(삼상 1:22),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영영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욘 2:6) 말한다. 신약성경도 이 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원히"(몬 15) 영접하도록 권면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영영히"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을 의미한다.

시편 92편 7절은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큰 불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말라기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말 4:1)라고 말했다.

단번에 악한 자들, 곧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뿌리와 가지를 막론하고 모두 소멸된 다음에는, 죽음, 혹은 하데스가 더 이상 쓸모 없게 될 것이다(본서 26장 참조). 이것들 역시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계 20:14).

그러므로 성경은 형벌의 과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원한 것이며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알려 준다. 이 형벌 후엔 부활이 없으며 그 결과는 영원하다.

윌리암 템플(William Temple) 대주교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옳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영원한 고통의 교리는 결의에 따라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개인의 영혼의 본질적 불멸성에 대한 헬라 사상과 비성서적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약성경을 읽지 않았을 것 같으며, 그들은 거기서(신약성경에서) 영원한 고통이 아닌 완전 멸절에 관한 신조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지는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이 영원한 불이다."[17]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충분한 형벌이 집행되었으므로 공의의 요구는 충족되었다. 이제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의를 선포한다.

5. 형벌의 원리. 죽음은 죄에 대한 최종적 벌이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극악하고, 악마와 같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도덕적이요, 평화로운 생활을 했고, 그들의 죄는 주로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신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이 공정한가?

그리스도께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 12:47, 48)고 말씀하셨다.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반역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

다 더 크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최종적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둘째 사망"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거기서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은 죄가 야기한 아버지와의 무서운 분리, 곧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번민이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이생에서뿐 아니라 최후의 멸망에 있어서도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둔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다.

그러므로 죄가 크면 클수록 고통도 크다. 죄의 교사자요 조장자인 사탄은 가장 많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18]

지구의 정결. 모든 죄의 자취가 사라지는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면서, 베드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라고 말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불은 죄의 오염에서 지구를 정결케 한다. 이 지구의 파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하시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하신다(계 21:1). 정결해지고 새로 창조된 지구,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신다(계 21:4). 마침내 죄가 빚어놓은 저주는 사라질 것이다(계 22:3).

죄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멸절될 주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에 희망을 두고서 그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 3:11, 13, 14) 했다.

참고 문헌

1.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 885 참조.
2. Questions on Doctrine, p. 495 참조.

3.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질 때(계 19:20), '그 나머지'(계 19:21), 혹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 중의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이들은 왕들과 장군들과 용사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계 19:18)이다. 동일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섯째 인에서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듯이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들이 옮겨갈 때 어린양의 얼굴에서 숨겨지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계 6:14~17). 분명히 이 성경절들은 땅이 부숴지는 동일한 사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다.
'그 나머지'(계 19:21)의 죽음에는 몇 사람이나 포함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의하면, 재림 시에는 지상에 오직 두 부류만이 있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므로 '그 나머지가…검에 죽'(계 19:21)을 때에 짐승을 대적해 선 자들, 말하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계 13:8)"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 885).
4. Questions on Doctrine, p. 500. 아사셀은 의신의 구주가 아니다.
5. 70인역은 히브리어 **테흠**(tehom) 곧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깊음"을 번역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천년기 동안의 지상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은 태초의 지상 상태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가리킨다.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 879 참조.
6. 그들이 다스리거나 지배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악인들이 지상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주셨다(창 1:26).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 주신 피조물의 일부를 다스렸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배하기 위하여 꼭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7, p. 880.
8. Maxwell, God Cares(Boise, ID: Pacific Press, 1985), vol. 2, p. 500.
9.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묘사는, 반드시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 장(章)에서 우리는, 마귀의 군대들이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한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지구의 회복 전에 새 예루살렘이 이미 내려와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10.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관련이 있었다(겔 38:2, 14~16 참조).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성경의 여러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영적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것으로 말한 큰 원수의 동맹체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그의 군대들과 함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의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해 오도록 허용하실 때 성취될 것이다.
11. Questions on Doctrine, p. 505.
12. SDA Bible Commentary, rev. ed., vol. 4, p. 708 비교.
13. "Hell," SDA Encyclopedia, rev. ed., p. 579.
14. "Hell," SDA Dictionary, rev. ed., p. 475 참조.
15. 꺼지지 않는 불로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렘 17:27) 느부갓네

살이 그 도성을 취했을 때 성취되었다(대하 36 : 19). 불은 그 도성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탔으며, 그 후에는 꺼졌다.

16. Questions on Doctrine, p. 539.
17. William Temple, Christian Faith and Life(New York : Macmillan, 1931), p. 81.
18. "Hell,"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475 참조.

제28장

새 땅

의가 거하는 새 땅에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고, 배울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마련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실 것이며, 고난과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대쟁투는 끝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만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벧후 3:13; 사 35장; 65:17~25; 마 5:5; 계 21:1~7; 22:1~5; 11:15)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달은 한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 소년처럼 많은 사람은 죽을 때에 하늘을, "다른 장소" 대신에 택할 수 있는 차선(次善)의 곳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곳은 이 땅의 현실 생활의 실체와 욕망에 비해 달갑지 않은 차선의 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 만일 많은 사람이 내세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견해가 옳다면 이런 생각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묘사와 시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속받는 자들이 누리도록 준비해 두신 것은 현세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도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새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버리기를 주저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새 땅의 특성

실제적인 장소. 성경의 최초의 두 장은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본향으로 주신 것에 관하여 알려 준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 역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심에 관하여 말해 준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창조, 곧 죄가 초래한 폐허에서 지구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것이다.

거듭거듭 성경은,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이 본향은, 실제적인 장소, 육체와 두뇌를 가진 실제적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재어 보고, 묘사하고, 조사해 보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제적인 하늘나라를 이 새 땅 위에 두실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은, 이 사상의 성경적 배경을 간결하게 요약한다. 베드로는 홍수 전의 세상을 "그때에 세상"이라고 말하고 물로 멸망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세상은 지금 존재하는 세상인데 "의가 있는 곳인…새 땅"을 만들기 위하여 불로 정결케 될 세상이다(6, 7, 13절).[1] "세 번째"의 세상은 먼젓번의 두 세상과 똑같은 실질적인 것이 될 것이다.

계속성과 차이점. "새 땅"이라는 말은 지금의 세상이 계속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2] 베드로와 요한은 불로써 모든 더러운 것이 정결해지고 새롭게 된 옛 세상을 바라본다(벧후 3:10~13; 계 21:1).[3] 그러므로 새 세상은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곳이 아니고 **이 땅**이다. 비록 새로워졌지만 그것은 친숙하고, 잘 알려진 본향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죄가 초래한 모든 폐해를 하나님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것은 새것이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이 새 땅의 수도이다. 히브리어로 **예루살렘**(Jerusalem)은 "평화의 도성"을 의미한다. 지상의 예루살렘의 역사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그 이름의 뜻대로일 것이다.

연결시키는 고리. 어느 의미에서 그 성은 하늘과 새 땅을 연결시킨다. 보통 **하늘**(heaven)이라는 말은 '창공(sky)'을 의미한다. 성경은 그것을 (1) 대기권

하늘(창 1:20), (2) 별들의 하늘(창 1:14~17), (3) 낙원이 존재하는 "셋째 하늘"(고후 12:2~4)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낙원과 함께 하늘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거처가 있는 곳인 낙원과 동의어가 된다. 그러므로 범위를 넓혀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와 그분의 치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분의 백성을 "하늘나라"로 지칭한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지구에 세우실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주의 기도문에 나타난 간구를 훨씬 초월하여 응답하신다(계 21:1, 2). 그분은 지구를 일신시키실 뿐 아니라 그것을 높이신다. 이전의 타락한 위치를 벗어나서 그것은 우주의 수도가 된다.

물리적 묘사.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알려 주기 위하여 로맨틱한 말을 사용한다. 그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계 21:2)다. 그 성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그의 묘사는 우리에게 그 실제성을 인식케 해 준다.

1. 그 성의 빛. 요한이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았을 때 기록한 첫째 특성은 "그 성의 빛"이었다(계 21:9, 11).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어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게 되었다(계 21:23, 24).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새 예루살렘에 깃들지 않으리니 이는 그 성벽과 거리가 다 투명하고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계 21: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취심이라"(계 22:5).

2. 그 성의 구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세우실 때 가장 좋은 재료들만을 사용하셨다. 성벽은 벽옥, 곧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계 21:11, 18). 그 성의 기초석은 열두 개의 각각 다른 보석, 즉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으로 꾸며져 있다(계 21:19, 20).

그러나 이 보석들이 주된 건축 재료가 아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만드신 도성의 건물과 거리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계 21:18, 21). 이 금은 오늘날 알려진 어떤 금보다 더욱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것을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계 21:18)고 했기 때문이다.

각각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진 열두 문은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진주는 고난의 산물이다. 작은 자극물이 조개껍질 사이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그 작은 생물이 고통당함으로 그 자극물은 빛나는 보석으로 변한다. 그 문들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 그대를 위한 입구와 나를 위한 입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무한한 개인적 고통을 당하심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4] 그 성의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그 성을 보여 준 천사가 그 성벽을 재었다는 사실이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벽들이 측정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들이 높이와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그 성의 실제적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3. 그 성의 식사와 음료수. 성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계 22:1). 많은 줄기를 가진 보리수와 같은 생명나무는 "강 좌우"에서 자라난다. 그 열두 가지 실과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이래로 갖지 못한 채 지내온 생명의 요소, 곧 노쇠와 정력 손실과 단순한 피로를 없애는 해독제가 들어 있다(계 22:2; 창 3:22).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쉬어야 할 밤이 필요치 않다(계 21:25). 새 땅에서는 그들이 결코 피로를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성경은 최종적으로 구속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 준다(마 5:5; 시 37:9, 29, 115:16).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셨다(요 14:1~3).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본부는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계 21:2, 3, 5).

도시의 집.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성이다(히 11:10). 그리스도께서는 그 큰 성안에 "거처"(요 14:2), 곧 원래의 말이 가리키는 그대로 "거할 곳"–실제적인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

시골의 집. 그러나 구속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의 도시 집에서 구속받

은 자들은 시골로 나가서 그들이 꿈구어 온 가옥들을 설계하고 세우며, 곡식을 심고 그것들을 추수하여 먹을 것이다(사 65:21).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고 한 약속이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육신의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계 21:3),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살며, 그들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새 땅에서의 생활

새 땅에서의 생활은 어떠할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을 당신의 나라의 직무에 참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계 22:3~5, 5:10 참조).

우리는 그들의 통치 영역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 곧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주를 대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들이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새 땅에서의 육체 활동. 새 땅에서의 생활은 영원을 사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무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의 우리의 가능성의 한계를 긋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구속받은 자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사 65:21)다는 성경의 약속을 이미 보았다. 건축은 설계, 축조, 설비 그리고 개조나 개축의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또한 "살겠다"는 말에서 우리는 일상 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추리할 수 있다.

새 땅의 존재의 기조가 되는 주제는, 하나님이 본래의 창조에서 계획하셨던 것의 회복이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한 동산을 주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창 2:15)셨다. 이사야가, 사람들이 새 땅에서 포도원을 경작하겠다는 말했으니 과수원이나 곡식밭은 왜 없겠는가?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이 거문고를 연주할 것이라고 했으니 나팔과 다른 악기들은 왜 없겠는가? 분명히, 사람의 마음속에 창조적 의욕을 심어 주시고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셨다(창 1:28~31).

새 땅에서의 사회 생활. 우리는 새 땅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우리의 기쁨이 적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1. 친구들과 가족.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후에도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을 식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제자들은 그분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마리아는 그분의 음성을(요 20:11~16), 도마는 그분의 신체적 모습을(요 20:27, 28),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분의 생활습관을(눅 24:30, 31, 35) 알아냈다.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개인적 이름과 특징을 여전히 지니고 있을 것이다(마 8:11).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새 땅에서도 계속할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사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나누는 상호 간의 교제인데, 그것은 가족과 현재의 친구들과만 나누는 교제가 아니다. 그것의 많은 물질적 혜택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와 성령과 천사들과,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나누는 교제의 영원한 가치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더 이상 망가진 성격, 분열된 가정, 깨진 관계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완전하고 건전할 것이다. 육체적·정신적 일치가 하늘과 영원을 완전케 할 것이다."[5]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친히 심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답게 발휘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과의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각 시대의 성실한 자들과의 조화로운 사회 생활…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6]

2. 결혼? 그리스도 당시의 어떤 사람이 거듭거듭 과부가 됨으로써 결국 일곱 남편을 갖게된 어떤 여자의 경우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부활 후에 그 여

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물었다. 그것은, 만일 이 땅의 결혼 관계가 하늘에서 재연된다면 야기될 끝없는 혼란을 쉽게 상상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답은 하늘의 지혜를 보여 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마 22:30).

그렇다면 구속받은 자들은 오늘날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혜택들을 빼앗길 것인가? 새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어떤 좋은 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시 84:11)고 약속하셨다. 만일 이생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저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확실히 이루어지겠는가.

결혼의 진수(眞髓)는 사랑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고 말한다(요일 4:8; 시 16:11). 새 땅에서는 아무도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에 부족이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고독과 허무와 냉대를 느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결혼이 이 세상에서 기쁨이 되도록 계획하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께서 다음 세상에서는 더욱더 좋은 것, 그분의 새 세계가 이 세계보다 더 좋은 것처럼 결혼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새 땅에서의 지적(知的) 생활

지능의 회복. "그 나무(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2). 요한계시록은 "치료"를 "치유" 이상의 뜻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회복"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아무도 병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사 33:24, 20).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구속받은 자들은 여러 세기 동안의 죄악이 초래한 육체적·정신적 난쟁이 상태를 벗어나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 영원은 무한한 지적 시야를 제공해 준다. 새 땅에서는 "불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쇠하지 않는 기쁨으로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사랑의 신비를 탐구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능력은 계발되고, 모든 가능성은 증진될 것이다. 지식의 획득이 정신을 피곤하게 하거나 정력을 쇠잔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가장 큰 기도(企圖)도 성취되고, 가장 고상한 욕망도 이루어지고, 가장 숭고한 갈망도 성취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도달해야 할 새로운 높이, 경탄해야 할 새로운 경이, 깨달아야 할 새로운 진리, 정신과 영혼과 육체의 힘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7]

새 땅에서의 영적 추구.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생도 무의미할 것이다. 영원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고자 주리고 목말라할 것이다. 곧 그분의 생애와 사업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분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의 품성을 반영하는 품성을 더욱 완전히 소유하기 위하여 주리고 목말라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생애하셨고(마 20:28),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생애를 하도록 부르셨다. 오늘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그 자체가 상급이 된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관계는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더 큰 축복과 특권을 부가하여 제공한다. 그곳에서는 큰 기쁨과 만족으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계 22:3)게 될 것이다.

비록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천연의 보고(寶庫)를 연구하는 기회를 가질지라도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은 십자가의 학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유하도록 의도하셨던 정도까지 명석해진 지성으로, 죄의 눈먼 상태가 제거된 상태에서 그들은, 오직 이곳에서는 그들에게 희망 사항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들은 구원의 주제, 곧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가진 주제를 영원을 통하여 그들의 연구와 노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보다 큰 전망을 언제나 갖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일마다 안식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모일 것이다.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사 66:23).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악이 근절됨. 새 땅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중 하나는 그곳에 있

지 아니할 것에 관한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 21:4).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의 죄악, 모든 악의 원인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악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생명나무를 새 땅의 부분으로 열거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어떤 다른 유혹의 근원을 그곳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좋은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혈육과 마귀와 싸울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비록 죄로 더러워진 낡은 지구에서 이민한 사람으로 이루어질지라도 새 땅이 "새롭게" 남아 있을 것이라는 보증은 하나님께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계 21:8)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분께서는 어떤 죄악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씻겨 버린다…오직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만이 남아 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을 항상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처받은 머리,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손과 발에는 죄가 남겨놓은 단 하나의 잔인한 흔적이 남아 있다. 선지자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합 3:4)고 말한다.…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갈바리의 상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것이다."[8]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음. 새 땅에 관하여 이사야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사 65:17)고 말한다. 문맥에 비추어 그 구절을 이해할 때 구속받은 자들이 잊을 것은 옛 생활의 환난들임이 분명해진다(사 65:16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훌륭한 일들,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더불어 싸운 이 전체적인 투쟁이 허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 스스로의 경험은 영원을 통하여 그들이 증거할 내용의 핵심이 된다.

그뿐 아니라, 죄의 역사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나 1:9)는 보증의 주요한 요소를 이룬다. 죄가 빚어놓은 슬픈 결과에 대한 생각은 누구에게나 자살의 길을 다시 택하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방지책이 될 것이다. 그

러나 비록 과거의 사건들이 요긴한 구실을 할지라도 하늘의 분위기는 그들의 고난에 대한 무서운 기억들을 씻어 준다. 구속받은 자들에게 가책과 후회와 절망과 실망과 고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새 창조를 믿는 믿음의 가치

새 땅에 관한 교리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참고 견딜 수 있는 의욕을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히 12:2)셨다. 바울은 미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함으로 자신의 용기를 새롭게 하였다. 그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16, 17)라고 말했다.

그것은 상급의 기쁨과 확실성을 가져다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2)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전 3:14)을 것이라고 되풀이한다.

그것은 유혹을 대항하는 힘을 준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죄악의 낙"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할 수 있었다(히 11:26).

그것은 하늘을 미리 맛보게 해 준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미래에만 있지 않다(엡 1:14).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계 3:20)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언제나 하늘나라를 함께 가자고 오신다. 그분과의 교제는 "하늘이 마음속에 임함이다. 그것은 영광이 시작된 것이며, 바라던 구원의 임함이다."[9]

그것은 좀 더 효율적인 삶으로 이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에 대한 가치를 무시할 만큼 지나치게 하늘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내세를 믿는 믿음 그것이다. 루이스(C. S. Lewis)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대가 역사를 읽어 보면 그대는 현세를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무능하게 된 것은 내세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전반적으로 중지했기 때문이다.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땅도 얻을 것이고,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10]

"지혜 있는 사람은 눈사람을 만드는 데보다는 대리석 위에 상(像)을 조각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11] 영원히 살기 위하여 계획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내버려지기 위하여 태어난, 살고 나서 버려지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자연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생애를 건설할 것이다(그러므로 더욱 건설적인 영향을 사회에 끼친다.).

"성령이 마음에 넣어 주는 하늘의 주제들에 몰두하면 강한 동화력(同化力)을 소유하게 된다. 그 힘에 따라 영혼은 향상되고 고상해진다. 그의 전망의 범위와 능력은 커지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물의 상대적 비율과 가치는 더욱 분명하게 식별된다."[12]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품성과 이 지구에 대한 그분의 원래의 계획을 크게 잘못 나타낸다. 죄가 지구의 외형적 표면을 너무도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 세계와 창세기 1장과 2장에 묘사된 낙원과의 관련을 좀처럼 상상할 수 없다. 오늘날은 끊임없는 생존 경쟁이 삶의 양상이 되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믿는 자의 생애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 곧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세계, 하나님의 목적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그분의 품성이 더욱 잘 드러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하여** 새 땅을 묘사한다. 어떤 사람은,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된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처럼 실제적이

며, 그곳이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이 온갖 슬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심히 반대했다.

그는 말하였다. "그럴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악인들이 즐겨하는 방법일 뿐이다."

많은 사람은, 그 최후의 보상을 포함하여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희망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진정으로 희구하도록 내세에 누리게 될 복락들을 열거할 때 그들은 이런 방법이 참 종교가 취해야 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13] 이것보다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알려 주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몰두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다음에 오는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사물들을 식별하게 하는 데 있다.

영원히 새로움

이 낡은 지구에서는 "모든 좋은 것들엔 끝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새 땅에 관한 기쁜 소식들 중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 결코 끝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합창"에서 이런 가사를 볼 수 있다.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 단 2:44, 7:27). 그리고 성경은 모든 만물이 그 노래를 함께 부를 것이라고 말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14]

참고 문헌

1. James White, "The New Earth, The Dominion Lost in Adam Restored Through Christ," Review and Herald, Mar. 22, 1877, p. 92, 93 참조.
2. 영어의 "새"(new)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사용된 두 헬라어 단어에서 번역된다. **네오스**(neos)는 "시간에 관하여 새로운 것이라는 사상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새로운,' '최근,' '젊은'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것은 '옛,' '최초의,' '고대의' 등을 나타내는 **아르카이오스**(archaios)의 반대어이다." 다른 한편으로 **카이노스**(kainos)는 "형태나 질에서의 새로움을 암시하며, 그것은 '새로운', '신선한', '본질에 있어서 다른'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것은 '늙은', '나이 많은', '낡은', '훼손된' 등을 나타내는 **팔라이오스**(palaios)의 반대어이다. **카이노스**는 '새 땅'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말이다."("New Earth," SDA Bible Dictionary, rev. ed., p. 792).
3. Ibid.
4. Richard W. Coffen, "New Life, New Heaven, New Earth," These Times, Sept. 1969, p. 7.
5. Neal C. Wilson, "God's Family Reunited," Adventist Review, Oct. 8, 1981, p. 23.
6.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 677.
7. Ibid.
8. Ibid., p. 674.
9. "Clusters of Eschol," Review and Herald, Nov. 14, 1854, pp. 111, 112.
10. C. S. Lewis, Mere Christianity (Westwood, NJ: Barbour and Co., 1952, p. 113.
11. Fagal, Heaven Is for You, p. 37.
12. "Clusters of Eschol," pp. 111, 112.
13. Uriah Smith, "The Popular Hope, and Ours," Review and Herald, Feb. 7, 1854, p. 20.
14. White, The Great Controversy, p. 678.

주제별 색인

숫자

11월 13일의 유성 소나기 225,463
1260년 예언 227, 233, 236, 241, 462, 464
1755년의 리스본 지진 462
2300일 예언 439
  2300주야 439, 450, 451
  성소정결 440
  –의 끝 440
  70주일 혹은 490년 439
70인역 445, 447, 449
70장로 119
70주 예언. '2300일 예언'을 보라.
70주일 61
  70번째 주일 61
  69주일 61

ABC 순

A. T. 링컨 358
B. F. 웨스트코트 436
C. S. 루이스 517
F. F. 부루스 71
G. E. 래드 150
J. K. 하워드 265
T. F. 토렌스 164

ㄱ

가브리엘 79, 440
가스파레 디 포쏘 361
갈바리 20, 31, 38, 43, 51, 62, 89, 102, 109, 129, 130, 142, 152, 154, 157, 159, 170, 180, 229, 237, 288, 430, 434, 442, 515
강신술 480, 481
  친근한 영들 480, 481
  영매 481
개신교 361, 322
  –의 종교개혁의 진리로부터 이탈 240
개신교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보라.
개종 165, 329
거듭남 79, 128, 163, 164, 190, 191
거짓 선지자 466, 492
게세니우스 440, 450
게헨나 또는 게엔나 499
겟세마네 185
겟세마네 동산 248
결혼과 가족 405~425
  결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제정하신 것 406
    한 몸이 됨 409
    결합함 408
    언약함 408
    떠남 408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남자와 여자 406, 407
    하나님의 이상으로부터의 이탈 412
      이혼 414
      간음과 간통 413
      동성애 416
      부정한 생각 413

근친상간 414
일부다처 412
타락의 영향들 411
–의 제도들 104
부부의 친밀감 410
부부간의 사랑 410
새 땅에서의 결혼 512
가족 416
자녀들 419
우선순위 419
책임 420
지속성 420
성 정체감 421
순종을 배움 421
가치를 배움 422
사랑 419
사회화와 언어 개발 421
부모 417
아버지 417
어머니 418
확대된 가족 422
마음의 변화 422
고대 세계 437, 442
곡과 마곡 504
교황 226
교황 제도 232
종교개혁자들은 죄의 사람, 불법의 신비 그리고 작은 뿔로 규정했음 232
교황권 226, 466
–의 주장 245
–의 죽게 되었던 상처 243, 466
교황무오설 229, 244
교회 201~221
'하늘 예루살렘'으로서 207
군대, 군사 그리고 승리자로서 209
진리의 기둥과 기초로서 209
성전 206
–를 지도하는 권위, 성경 215
–의 성서적인 의미 203
그리스도의 몸 201, 206
그리스도의 신부 201, 207
반석 위에 세워짐 202
–의 머리 그리스도 215
남집사와 여집사 218
정의 201
교육(훈련) 219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다루기 220
제명 219
개인적인 죄악 219
공적인 죄악 219
범죄한 교인의 회복 220
장로 216
–를 대하는 태도 218
–의 자격 217
–의 책임과 권위 217
하나님의 가족 201, 208
–의 지도부 214
–의 원칙 215
–의 대배도 225
'죄의 사람' 등장 226
보이지 않는 교회 210
–는 참 이스라엘 204
–의 교인 208, 212
–의 자격 212
–의 본질 203
–의 직원들 216
–의 예식들 214
–의 조직 211
–의 기능들 213

–의 박해 225
1260년간의 박해 227
–의 광야에서의 박해 224
–의 기원 204
고난당하는 교회 227
보이는 교회 210
교회 교육 '교회'를 보라.
교회 예식 273
침례와 성만찬 274
세족예식 280
성만찬 280
성례 274
교회와 정부 212, 466
부정한 동맹 227
구약 시대의 성전 336,428, 429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둘로 찢어짐 337
구원 50, 55, 56, 60, 75, 82, 86, 87, 148~151, 154~163, 164, 170, 175, 178, 235, 335, 351, 354, 384, 428, 429, 431, 439, 442, 443, 444, 456, 494
–의 확신 163, 170
예언 가운데 나타난 구원 57
–의 계획 172, 184, 456
구원의 경험 163~181
–과 미래 177
–과 과거 164
–과 현재 170
구원의 계획 79
구원의 확신 '구원'을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183~199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으로 시작됨 188
자신을 죽임 188
–의 증표 191
열매 맺는 생활 196
사랑과 연합의 생활 192
기도의 생활 195
성령의 생활 191
영적인 전쟁의 생활 197
연구의 생활 194
예배, 증거 그리고 소망의 생활 198
새로운 생애를 살아감 190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247~259
연합의 성취 253
그리스도의 사랑하라는 명령 255
연합의 원천으로서 성령 253
영적 선물의 역할 254
연합으로 나아가는 단계 256
십자가에서의 연합 256
성경의 일치성과 교회 249
연합의 범위 250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 250
많은 선물, 한 성령 251
연합은 단일화가 아님 250
포도나무와 가지 251
믿음의 연합 251
성령의 연합 249
연합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 248
–의 중요성 252
연합은 그리스도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듦 252
연합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체를 보여 줌 252
연합은 교회의 힘을 보여줌 252
일곱 줄이 '하나됨' 249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453~47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참조

항상 준비할 것 468
–의 성서적 표현 454
'복된 소망' 453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 455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 456
초림으로 확인된 확실성 456
성경의 증언 455
그리스도 재림의 방식 457
큰 소리와 함께 오심 57
대격변 사건 458
영광스러운 재림 458
실제적, 개인적인 재림 457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재림 458
가시적인 재림 457
재림과 인류 460
불신자들의 죽음 461
선택된 자들을 모음 460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460
살아 있는 성도들의 승천 460
속히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 461
악인들의 증가 467
성 혁명 467
세계적인 범죄 증가 467
리스본 대지진, 암흑일, 유성 소나기 462
자연계의 징조들 461
지상의 증거 462
별들의 증거 463
해와 달의 증거 462
종교계의 징조들 464
대각성 운동 464
교황의 부활 466
종교 자유의 퇴보 466
복음 전파 464
종교적인 타락 465
전쟁과 재난들 467
기근 468
자연 재해 468
전쟁 467
그리스도의 피 427, 429~434, 436, 437, 448~450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427~452
'성소' 참조
마지막 심판 432
지성소 봉사 433
주님의 염소와 아사셀 염소 433
예언에 나타난 하늘 성소 435
하늘 성소의 기름부음 435
하늘 성소의 정결 436
심판의 시간 437
그리스도의 제사장 봉사의 종결 437
회복, 정결 그리고 심판의 시간 439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을 보라.
그리스도인의 행위 383~403
–와 구원의 관계 384
그리스도인의 의복 393
장신구와 보석 394
–의 원칙 393
건강 생활 385, 386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를 피함 387
해로운 약물을 피함 388
금연 387
영양가 있는 식사 391
정결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 392
규칙적이고 단순하고 균형진 식사 393
최초의 식사 391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 384

우리 몸은 성령의 전 385
그리스도인 표준의 원칙 395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389
영화, TV, 라디오 그리고 비디오의 선택 389
독서와 음악 390
부적합한 활동들 391
요구와 기준 397
기도 173, 176
기독교 32, 44
길보아 산 473

ㄴ

나눠주시는 의. '의'를 보라.
나답 119
나사렛 262
나사로 477, 488
나폴레옹 228
남은무리 234
–의 특성 234
정의 234
마지막 시대의 긴박성 235
예수의 믿음 소유 235
예수의 증거를 가짐 235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235
–의 사명 236
–의 기원 245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기별을 전함 242
남은무리와 그 사명 223~245
노아 47, 115, 139, 174, 204, 263, 458, 469
느부갓네살 428, 459, 504, 505
늦은 비 310
니느웨 481

ㄷ

다니엘 60, 61, 120, 435~442, 447~451
다니엘 8장의 예언 437
그리스를 대표하는 염소 437
알렉산더 대왕 437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됨 438
메데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수양 437
다니엘 9장의 예언. '2300일 예언'을 보라.
다니엘서 2장의 예언 459
–의 큰 신상 438
다니엘서 7장의 예언
–의 네 짐승 438
넷째 짐승의 열 뿔 438
다윗 48, 93, 121, 126, 127, 130, 148, 165, 176, 178, 202, 477, 479, 487
–의 왕위 80
대속의 희생 429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430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430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 희생 430
대속죄일 427, 433~436, 441, 444, 448, 449, 494
대쟁투 56, 137~146, 437, 442, 518
욥기에 나타난 대쟁투 140
–의 핵심 문제 141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순종 141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 141
우주의 구경거리인 지구 140
인류에 대한 영향 139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짐 140
–의 기원 138

천사의 반역 138
사단의 반역 138
하늘에서의 전쟁 138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넘어 143
갈바리에서 드러남 142
–의 교리의 중요성 144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현재의 사랑을 보여줌 145
고난의 신비를 알려줌 145
항상 깨어 있도록 만들어줌 144
십자가의 우주적인 중요성을 드러냄 146
대쟁투 기간의 중요한 것 442
준비할 시간 444
심판과 구원 442
하나님의 품성 옹호 442
하나님의 백성 옹호 442
도마 512
동고트족 227
동물 희생 58, 77, 335
두 번째 사망 503
두 측면: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 432
두로의 왕 138

ㄹ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의 일요일 성수 반포 360
라파엘 173
그의 작품 '변화' 173
라헬 487
레오나르드 버두인 129
레위 제사장직 431
로마 교회
영적인 바벨론 239
로마 가톨릭교회 228
성직자의 독신 232
미사 229, 232
성만찬을 집전함 229
로마
로마에 관한 성경 예언 438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438
로마의 주교 226
로버트 M. 그랜트 233
루아흐 480

ㅁ

마르틴 루터 173, 231
그의 95개 조항 173
마리아 41, 55, 59, 64, 66, 79, 88, 92, 117, 230, 232, 512
마지막 7재앙 242, 451, 495
만인 제사장직 212
말씀 연구 172
말씀. '성경'을 보라.
멜기세덱 376
모세 21, 25, 27, 29, 56, 81, 119, 149, 202, 324, 328, 329, 332, 334, 336, 342, 428, 429, 487, 488, 495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495
미쉬나 450
미켈란젤로 112
믿음
–과 행위 167, 168
증거에 기초한 믿음 34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 57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177
역사하는 믿음 167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238, 241, 343, 355

ㅂ

바로 38, 481
바벨론 61, 459, 461, 481
  –의 무너짐 239
  –의 정교 연합을 통한 우상 숭배 239
  사단의 도시 239
  거짓 가르침을 표상하는 포도주 240
바벨론의 왕 138
바벨론의 탈무드 446
바벨탑 139
발람 23
방종 230
뱀 57, 68, 128
  구리뱀 57
  –의 모양을 취한 사단 124, 139
  –의 근원 57
  사단의 상징 57
  하와를 유혹함 100
벌코프 113
베들레헴 51, 58, 59, 108, 148
베르띠에 장군 228
벨리사리우스 227
변화산 81, 487
복음 335
복음사명 294
부자와 나사로 488
부활 483
  그리스도의 부활 48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참조
  몸의 부활 484
  부활의 영향 484
  부활의 중요성 484
  두 종류 부활 485
  심판의 부활 486
  생명의 부활 485
부활
  첫째 부활 492
불가타 라틴어 성경 434, 449
불멸성 121, 172, 179, 229, 473, 475
  조건적인 불멸 121, 475, 485
  자연불멸설의 잘못된 교리 480
  하나님만이 불멸하심 474
  인간의 유한함 474
빈센트 테일러 152
빌라도 80
빌레몬 501

ㅅ

사람
  관계를 위해 창조됨 119
    –의 창조 112
  천사들 보다 조금 못함 120
    티끌 + 생기 = 생령 114, 474, 478
    땅의 티끌로부터 113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 114
    생명의 기운 113
    하나님의 형상으로 111, 113, 119, 120, 121
  인간론 134
  –의 타락 122, 128~131, 139, 436
  –의 자유의지 38, 120, 475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정의 40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102
  예수님은 사랑이심 248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150
사마리아 여인 248
사무엘 23, 473, 474, 482, 487
사무엘 윌리암스 462
사울 473, 474, 482
사탄 56, 57, 73~75, 122~124, 128, 130, 131, 137~146, 148, 168, 174, 179, 223~245, 434, 435, 436, 442, 443, 448, 456, 466, 475, 480~483, 491~498, 500~504
–의 표적과 이적 483
–의 최초의 거짓말 480
참소자 168
용 223
산헤드린 80, 485
삼위일체 40, 42, 43
새 땅 507~519
영원히 새로워짐 518
새 땅에서의 삶 511
새 땅에서의 고상한 삶 513
정신적인 회복 513
새 땅에서의 영적인 일 514
무제한의 가능성 513
새 땅에서의 육체적인 활동 511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스림 511
새 땅에서의 사회생활 512
친구와 가족 512
결혼 512
우리의 영원한 집 510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 511
도시 집 510
시골 집 510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들 515
모든 죄악이 사라짐 514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임 515
새 땅의 특징 508
실제적인 존재 508
계속성과 차이 508
새예루살렘 508
연결된 고리 508
실제적인 묘사 509
건축물 509
음식과 물 공급 510
빛 509
새로운 창조에서 믿음의 가치 516
기쁨과 확실한 보상을 줌 516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감 517
인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 516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줌 516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줌 517
하늘을 미리 맛보게 함 516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줌 517
새 예루살렘 80 '새 땅: 새 예루살렘' 참조
생명나무 112, 121, 124, 475, 510, 515
생명책 435, 437, 443, 444
선악과 112, 121, 123
성경 17~30
–의 정확성 25
–의 권위 26
성령 27
예수님 27
–의 범위 28
–의 저자(출처) 20
–의 주장 26
–의 중심 사상 19
–의 영감 21
–과 역사 24
–의 과정 21

–의 번역과 배포 465
–의 통일성 29
–의 저자들 22
성령 17, 20~24, 26~29, 31~41, 45, 49, 50, 55, 59~64, 66, 71, 80, 113, 118, 249, 250, 253, 254, 258, 455, 465, 468, 512, 516, 517
위로자: 권위자, 변호자로서 91
–의 침례 89, 93, 294
영적인 선물을 부여함 93
그리스도를 임재케 함 92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줌 92
교회의 활동을 지도함 93
–의 충만. '성령의 침례'를 보라
능력이 아닌 인격체 86
진정한 하나님 87
–의 사명 91
죄를 분별케 함 91
회개케 함 91, 92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함 91
심판에 대해 경고함 91
–의 부어주심 294, 309
성령 충만의 삶 170, 174
지상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리자 92, 93
성령 안에서 걸어감 258
성령(Holy Ghost) '성령(Holy Spirit)'을 보라
성령의 전
성령의 전으로서 몸 237
성막
구약 성경에서 58
성만찬(Lord's Supper) 201, 229, 279~292
–과 발효된 포도주 문제 291
–의 의식 284
의식의 횟수 292
–의 의미 285
재림에 대한 기대 288
죄에서의 구원을 기념 279
그리스도와의 집단적 교제 287
빵과 포도 열매의 상징성 284
참여할 수 있는 자격 289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289
침례식과의 관계 31
먼저 자신을 살핌 290
성소
–의 정결 432, 434, 436, 437
지상 성소 57, 62, 154, 229, 337
번제단 77, 431
분향단 431, 432
복음의 예시 429
–의 매일 그리고 연중 봉사 431
지성소 431
하늘 성소의 모형 429
희생제도 62, 77, 154, 335, 337
에덴에서 시작됨 343
원형과 표상 337
–의 봉사 58, 155, 335
하늘 성소 55, 81, 212, 334, 456, 494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보라
지성소 436
–의 보좌가 있는 곳 437
성육신 56
성화 163, 164, 169, 170, 176, 177, 432
평생의 과정 178
정의 169
거룩한 삶 170
점진적인 성화 172
성화된 삶을 살아감 170, 175

–의 표징으로서 안식일 353
–의 세 단계 169
세계교회평의회 316
세족 279
교회의 한 예식 280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본 280, 281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248
세족 예식의 의미 281
용서의 교제 282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교제 283
더 높은 정결의 한 형태 282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념 281
그것을 위한 영적인 준비 280
세천사의 기별 234
첫째 천사의 기별 237, 464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외침 273
세상을 향한 영원한 복음 236
심판하실 시간의 기별 237
둘째 천사의 기별 239
바벨론의 무너짐 239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기별 26, 240
셋째 천사의 기별 240, 444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쟁점이 됨 241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에 대한 경고 240
셈 204
셋 204
소돔과 고모라 493, 500
소조멘 359, 367
속죄 42, 77, 147, 151, 153, 154, 336, 430, 431, 432, 433, 434, 439, 448, 449, 494, 498
솔로몬 126, 178, 428, 477, 479
순종 38, 42, 323, 327, 331, 335, 338, 339, 341
–의 믿음 323
스가랴 23, 168
스올 478, 479, 487
스잔 웨슬리 386
승리하는 생애 75, 170
시기 예언 61, 62
시내(Sinai) 47, 149, 324, 331~336, 339, 347, 350, 351, 357
시내산 324, 333, 336, 429
시련 451
시온산 234, 241
신성 31~44, 82
창조에 동참한 분들 102
–의 충만 63
하나님 아버지 45~54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45, 120
–에 대한 견해 45
구약에서는 46
성령 하나님 85~95
–의 창조와 재창조 사역 87
집행자의 역할을 완수함 88
아들 하나님 55~84
하나 39~41
다수 39
삼위의 관계 39
신약 18~21, 26, 30, 46, 50, 53, 58, 115, 116, 117, 127, 134, 135, 153~155, 161, 174, 180
신학
–의 기능 144
심판 163,237, 323, 432, 442
집행 심판 432, 434

조사 심판 432, 434, 439, 441, 442, 443
재림 전 심판으로 불림 432
천년 동안의 심판 432, 435
심판의 날 45
십계명 22, 100, 238, 323~332, 335, 338, 342, 347, 348, 352, 367, 433
출애굽기에서 인용된 십계명 324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보라.
십일금 375, 376
십일금의 실례들 375
우리의 모든 소득의 십분의 일 375
-의 사용 375
십일금과 헌금의 불충실성 378
십일금과 헌물 이외의 것들의 사용 377
십자가 상의 강도 489

ㅇ

아나니아 87
아닥사스다 61, 82, 440
아담 56, 57, 67, 68, 72, 73, 82, 98, 99, 102, 105, 106, 109, 112, 113, 120, 122~130, 149, 156, 204, 474~476, 478, 483
'첫번째 사람' 68
아담과 하와 25, 56, 57, 88, 99, 112, 113, 122~126, 137, 139, 149, 332, 335, 343, 345, 355, 357, 474, 475, 504
아론 21, 119
아리아스주의 227
아브라함 25, 59, 66, 82, 133~135, 140, 167, 168, 174, 204, 510, 512
-의 믿음 167
아비후 119
아사셀 염소 433~435, 447, 448, 494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제사장직 중보자, 아사셀' 참조
아우구스티누스 227
하나님의 도시 227
악한 자의 종말 494
안식일 97, 99, 100, 104, 345~369
하나님의 율법의 인 349
예배일 변경 시도 358
천주교 교리문답서와 안식일의 일요일 변경 362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음 358
일요일 준수의 시작 358
예언되어 있는 안식일 변경 360
절기 안식일 350
-의 변경 245
십계명 중 넷째 계명 345
하나님께서 창조시 거룩하게 하셨음 104
-의 의미
창조의 영원한 기념 353
충성의 표시 355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 355
성화의 표징 345, 354
구원의 상징 354
그리스도 안의 쉼의 상징 357
친교의 시간 355
창조의 기념 104, 345
-의 준수 364 '안식일 성수'를 보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364
진리의 회복 362

제칠일 안식일 97, 100, 102, 233
성경 전체에서 346
창조시 346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심 347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심 346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심 347
시내산에서 347
안식일과 언약 350
안식일과 율법 348
안식일과 만나 347
연중 안식일 350
안식일과 그리스도 350
그리스도는 규례대로 안식일에 예배드림 351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 351
그리스도는 창조 이후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안식일에 쉬심 351
안식일과 사도들 352
영원토록 준수될 것임 353
안식일 성수 356, 364, 368
율법주의가 아님 366
안식일 쉼 357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38
알렉산더 교황 130
알렉산더 대왕 437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레쿠스, 프톨레미에 의해 나누어진 네 왕국 438
야고보 167, 168
야곱 38, 39, 75, 79, 512
사닥다리 꿈 75
야이로의 딸 477
야하시엘 306
약속의 땅 202
양자 177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163
하나님의 가족으로 169
재림운동 236, 464, 465
언약 46, 49, 130~133, 135, 336, 342, 350 '은혜의 언약'을 보라.
아브라함의 언약 133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 267
언약 관계 57
최초의 언약 133
타락 시 주어진 언약 131
-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율법 329
새언약 133, 429
옛언약 134, 135, 428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워짐 133
시내산의 언약 134, 135
언약궤 334, 336
에녹 455
에덴동산 99, 108
에돔 501
에드 휘트 411
에서 38
에스겔 20, 23, 26
엘렌 G. 화잇 305 '예언의 선물' 참조
-의 책
대쟁투 총서 시리즈 318
정로의 계단 316, 317
교회증언 319
시대의 소망 316
80권 이상을 집필함 317
그녀의 생애의 간략한 요약 315
그녀의 업적을 개괄적으로 살펴봄 317

'주님의 기별자'로서 알려짐 305
엘리야 28, 81, 143, 487, 488
엠마오 512
여자
하나님의 진리 교회를 대표 164, 224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 57, 223
–의 자손 57, 131, 335
여호사밧 305, 306, 320
여호수아 168
영생 476
–의 선물 170
영적 변화 171~173, 178, 179
영적 선물 85~88, 254, 293
–과 그리스도의 몸 295
성령에 의해 부여됨 293
성경에 기록된 영적 선물들 297
발견 301
몸에서 확인 302
섭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302
–를 위해 영적인 준비 301
성경 연구 301
–의 적용 299
일반적인 봉사 299
사용하지 못함 300
선물과 사명을 위해 299
성직자의 역할을 위해 299
단일화가 아닌 다양성 속의 일치 300
증거: 선물의 목적 300
–의 목적 295
교회의 성장 298
교회 내의 조화를 이룸 295
영적 선물과 봉사 293~303
영적 성숙 175
영화 177, 178
예레미야 26, 28, 143
예루살렘 61, 80, 81
하나님의 도성 239
예배 201, 213
예수 그리스도
–와 시험 69
–의 승천 80, 214, 294, 351, 436, 437, 454
우리의 대속 155, 156
–의 침례 41
–의 배신당함 60, 275
신랑 468, 469
창조주 63, 143
창조의 적극적인 수행자 102
–의 십자가 19, 42, 43, 55, 56, 80, 102, 129, 132, 153, 166, 183~188, 204, 224, 256, 288, 334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한 약속 489
–의 십자가에 못박히심 60, 85, 109, 224, 275, 515
아버지와 동등하심 62
인간으로서 시험받으심 55
–의 초림 39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141
–의 대제사장직 봉사 229
화목의 사역 151
임마누엘 60, 64
–의 성육신 41, 56, 63, 75, 85, 92, 129, 171, 314
하나의 신비 63
하나님의 어린양 62, 78, 148, 242, 342, 428, 476
–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 147~162
중보자 41, 42, 78, 430, 433, 439,

451
생애에서 보여준 명상 172
메시야 20, 55, 58, 59, 60, 61, 62, 73, 76, 76~80, 202, 204, 224, 235, 268, 336
–의 사역 60
–의 기적 55
자신을 위해서는 행하지 않으심 66
–의 역할 77
왕 78
영광의 왕국 81
은혜의 왕국 79~81
제사장 77
지상의 제사장직 77
하늘의 제사장직 78
선지자 77
성령을 통한 무소부재 93
독생자 82
우리의 모본 73, 163
우리의 대제사장 73, 77, 152, 229, 429, 430, 436, 437, 439, 444, 445, 451
우리의 중재자 437
우리의 중보자 232
우리의 대속자 163, 168
우리의 죄를 지신 분 153
–의 비유들 52
잃어버린 동전 53
잃어버린 양 52
탕자 53
부자와 나사로 274, 488
달란트 294
열 처녀 468
혼인 예복 157, 443
밀과 가라지 209
유월절 양 285
약속된 분 57
구속자 19, 57, 58, 324, 429, 514
–의 부활 55, 62, 85, 88, 89, 145, 157, 168, 175, 179, 443
아버지를 보이심 51
–의 의 153, 157, 168, 175, 179, 443
그분의 피의 역할 154
–의 살리신 생명과 사망 156, 157
–의 구원의 사역 158
칭의를 주심 159
우주를 화목케 하심 159
선교를 하게 함 160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함 160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은 불가능함을 보여주심 160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심 159
구주 57, 62
언급한 예언들 57
둘째 아담 67, 69, 73, 74, 109, 129, 156
다윗의 자손 58
사람의 아들 57
고난 받는 종 78
–의 초자연적인 탄생 58
광야에서 시험받으심 141
성경 가르침의 중심 143
죄에 대한 속죄 153, 161
인류의 대표자 156
반석 202
–의 변화되심 174
–의 시련 80
승리의 입성 80

–의 두 가지 본성 63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 63
신적인 속성 64
하나님의 이름 64
신성은 사라질 수 없음 72
하나님의 능력과 특권 64
참되고 완전한 인간 66
죄된 육체를 닮음 68
인성을 취하신 신성 68
그리스도의 인성의 증거들 67
악의 성향이나 기질은 없으심 72, 83, 84
죄 이외에는 인간과 동일하심 71
죄 없는 그분의 인성 68, 71, 83
–의 연합 74
하나님의 말씀 65, 82, 98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37, 53, 81, 171, 177, 210, 288, 309, 312, 333, 435, 436, 438, 451, 455, 456, 459, 460, 461, 463, 469, 492
임박함의 징조들 90, 236, 461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233, 312, 321
예식. '교회 예식'을 보라.
예언의 선물 235
예언의 선물 305~322
–과 남은 교회의 표징 305
신약에서의 역할 307
교회의 설립을 지원함 307
논쟁의 시대에 믿음을 확고히 해줌 308
교회를 교육시킴 308
교회의 선교 활동을 하게함 307
교회를 연합시키고 보호함 308
미래의 시련에 대해 경고함 308
성경 시대에는 306
마지막 시대에는 308
영적인 선물의 연속성 308
마지막 위기 시에 도움 309
남은 교회의 예언의 선물 309
재림 직전의 예언의 선물 309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는 314
엘렌 G. 화잇의 봉사를 통해 나타남 305, 315 '엘렌 G. 화잇' 참조
그녀의 봉사를 예언으로 검증 315
그녀의 봉사의 영향 316
성경과 그녀의 저술과의 관계 318
개신교와 천주교의 연합을 예견함 316
현대 강신술의 등장을 예견함 315
여선지자의 명칭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음 315
영적인 선물 가운데 하나 305
성경 이후 시대의 선지자와 성경 312
기별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자들 313
예언의 선물 시험해보기 313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313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313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314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314
예언의 연일(年日) 원칙 61, 82, 439
예언의 영 313, 318 '예언의 선물' 참조
예정설 37
–과 인간의 자유 37

하나님의 선지(先知)하심과 예정설 38, 39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 131
오네시모 501
오를레앙 종교회의와 일요일 법령화 360
오순절 87, 88, 92, 165, 309
우리 안의 오순절 165
오월의 암흑일 28, 462
오직 성경 361
완전 175, 178
성서적 174
그리스도 안에서 175
그리스도의 완전 174
요나 25, 26
요세푸스 446
요엘 309
요한 18, 21~25, 27, 86~95, 147, 151, 153~155, 160. 224, 225, 231, 233~235, 237, 240, 243
요한 위클립 231
종교개혁의 새벽별 231
욤 킵푸르 448
욥 174
용 466, 492, 494
용서 48, 49, 57, 147, 154, 155, 165, 168, 187, 336, 429, 431
용서받지 못하는 죄 87, 451
윌리암 템플 502
윌버 M. 스미스 158
유다 60, 282, 290
유대 305, 306
유대 나라 61, 205
유럽의 분열 왕국 459
유스티니안 227, 243
-의 법전 227
유월절 62, 279, 280, 284, 285, 291, 428
율법과 은혜. '하나님의 율법 :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은혜
값싼 은혜 190
-의 언약 131~135
값없이 그러나 가치 있게 190
하나님의 구원 148
음녀
배도한 교회를 대표 239
음부 494
의
나눠주시는 의 169
하늘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 169
입혀주시는 의 168
하늘에서의 우리의 직책 169
-의 옷 175
의문의 율법 336, 342
선생으로서 342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남 337
의지 174
이방인 205, 221
이삭 168, 512
이집트 46, 57
인간의 본질 111~135
영혼(soul)의 성서적 의미 115
영(spirit)의 성서적 의미 117
그리스어 프뉴마(pneuma) 117
그리스어 프쉬케(psuche) 115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 115
히브리어 루아흐(ruach) 117
-의 연합 115, 118, 119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148

일반계시 18
입혀주시는 의. '의: 부여됨'을 보라.

ㅈ

자백 164, 165, 168
작은 뿔 세력 360, 363, 438, 442
  성경은 교황권이라고 말함 361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시도함 361
잠김의 침례 232
제2차 바디칸 종교회의 316
제롬 231
제사장 중보자 430
  아사셀 염소 433
  중보자와 속죄 431
  심판의 다른 국면 434
  성소 봉사 431
    속죄 제물 431
제임스 기본스 추기경 358
제임스 오르 128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465
  관련 통계들 465
조나단 에드워드 351
존 에크 361
존 칼빈 179
존 A. 오브리엔 362
종교개혁 173, 228, 316, 440, 441
  -의 태동 228
  -의 교리적인 문제 228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봉사의 마침 229
    지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228
    교회와 그 머리의 무오성 229
    선행의 값어치 230
    고해성사와 방종 230
    교회 내의 최고의 권위 231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오직 성경 232
  정체됨 232
  오래 잊혀졌던 진리들을 회복함 231
종교재판 232
종교적인 자유 233, 466
죄 430
  -와 죄의식 125
  특성 124
  인간의 죄의 결과 124
    비난 123
    두려움 123
    수치 124
  -의 삯은 사망 473, 475
  -의 정의 125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의 구원 56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126
  범죄한 자의 멸절 127
  -의 조정자인 마음 126
  유전되었느냐, 획득한 것이냐 126
  행동만이 아니고 생각에도 관여 125
  -의 본질 186
  -의 기원 123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인가? 122
  -의 형벌 57, 165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킴 40, 88
  -의 끝 491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 57
죄로부터의 정결 170
죄의 기원. '죄: -의 기원'을 보라.
죄의 용서 168, 169
죄의 제물 431, 436, 437
죽음. '죽음과 부활'을 보라.

죽음과 부활 473~490
불멸과 죽음 474 '불멸' 참조
조건적인 불멸 475
사망은 죄의 삯 475
인류를 위한 소망 476
불멸 474
불멸을 부여받음 476
죽음의 본질 477
죽음은 잠 477
성경 전체와 조화 480
강신술 480
강신술의 등장 481
강신술의 기초 480
마지막 기만 482
강신술에 대한 경고 481
죽은 자가 있는 곳 478
티끌로 돌아감 478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 479
지성소 431~434, 449
지옥 491, 499
악인은 영원히 불타는가? 500
진화론 128, 129
유신론적 진화론 128
진화론의 가설 238
짐승 238, 239, 240, 466, 492
'세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참조
정교 연합 241
-의 이미지 239, 240, 242
-의 표 241
짐승
'죄의 사람'으로 불림 241
짐승의 표. '짐승: 그의 표'를 보라.

ㅊ

찰스 다윈 238
종의 기원 238
창조 46, 51, 85, 87, 97~110, 113, 114, 118, 121, 129~133, 238, 345, 346, 349~354, 357, 364, 366, 369, 474
창조 이후 6000년 99~101, 107
-와 선재(先在) 물질 98
-와 구원 107
6일만의 창조 97, 108
-의 날들 98, 99
문자적 24시간의 날들 100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말씀 98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심 97
-의 목적 102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해 104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102
-의 중요성 103
우상숭배의 해독제 104
진실한 교제의 기초 105
진정한 자존감의 기초 105
개인적인 청지기 직분의 기초 105
삶의 거룩함 강조 106
진정한 예배의 기초 104
결혼의 신성성 104
창조의 기념 104
염세주의, 고독 그리고 무의미의 치료제 106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을 드러냄 106
육체노동의 존엄성을 보여줌 105
물질세계의 가치를 보여줌 105
-의 성경 기록 99
천년기와 죄의 종말 39, 81, 434, 485,

491~505
천년기 시작 사건들 492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죽임 당함 493
사단이 갇힘 494
지구가 황폐해짐 494
첫째 부활 492
의인들의 승천 492
재림 492
천년기 끝의 사건들 497
그리스도, 성도 그리고 새예루살렘의 강림 497
영원한 형벌 500
지옥 499
사단의 갇힘이 끝남 497
새예루살렘에 대한 공격 497
지구의 정결 503
악인들의 운명 500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 498
형벌의 원리 502
심판의 부활 497
영원한 고통 500
천년기 기간의 사건들 495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거함 495
사단의 불명예스러운 시간 496
악인의 심판 495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 495
천사들 62, 65, 67, 75, 119, 122, 130, 137, 138, 141, 145
천주교
–의 '전통'에 대한 가르침 231
–의 고해성사 230, 231
–의 로자리오 사용 232
–의 반종교개혁 228
–의 성수(聖水) 232
–의 성인 숭배 교리 232
–의 성찬식 279 '성만찬'을 보라.
–는 세족예식과 성만찬을 포함함 280
–의 연옥 교리 228, 230, 232
–의 종부성사 232
–의 죽은 자를 위한 기도 232
–의 화체설 232
청지기 371~382
–의 영역 372
능력과 재능 373
물질 소유 374
신체 373
시간 374
–의 축복 379
정의 372
창조시 인간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 121
십일금
어떻게 계산하는가 382
이스라엘에서의 십일금 382
출애굽 46, 47
친교 201, 208, 213
침례 261~277
–와 구원 263
–와 부활 276
–의 담금, 뿌림 또는 부음 264
–의 잠김 261
쿰란 에세네파의 물에 잠기는 침례 265
예수님의 모본
요단강에서 잠김 265
침례 요한의 침례 265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침례 265
'baptize'는 '잠김'의 의미 264
예수님의 명령 262
침례후보자 시문 271
예수님의 모본 262
죽은 자의 침례 276
–의 열매 272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263
신약에서의 침례 265
–의 의미 266
성도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의 상징 266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 266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헌신의 상징 269
언약 관계의 상징 267
교회 입교의 증표 269
유아와 어린이 침례 271
한 침례 263
침례 자격 270
믿음 270
회개 270
회개의 열매를 보임 270
재침례 274
–의 역사 265
침례 요한 89, 464
칭의 163~171, 177, 231, 242, 432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168
매일의 176
정의 166
–의 경험 168

ㅋ

칼 울만 71
콘스탄틴 황제
–와 일요일 법령 360

ㅌ

트렌트 종교회의 361
특별계시 18
티모디 드와이트 462

ㅍ

파라다이스 489, 509
팔레스타인 204
페트루스 디 안차라노 361
품성
거룩함 176
변화 171
프뉴마 479
프랑스 혁명 236
프레드릭 파라 233
플라톤 480
필립 샤프 71, 158

ㅎ

하나님
–의 활동 34, 36
–의 속성 34, 36
전능 36
무소부재 36
전지 36
자존(自存) 36

불변 36
창조하신 사람들을 돌보심 101
–의 품성 18, 55, 149, 225, 517
자비와 공의가 섞임 149
옹호 442
오늘도 계속되는 창조사역 106
–의 실존 19, 31, 33
–의 신실하심 49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31
–의 선하심 49
–의 은혜 56
–의 지식 31, 32
–의 사랑 52, 55, 56
창조시 보여준 사랑 102
–의 자비 48
–의 이름 35
–의 자기 계시 18, 31~34
방법과 내용 23
–의 주권 37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도권을 취하심 149, 150
–의 보좌 147
하나님에 대한 진실 18
–의 무조건적인 사랑 49
–의 보복 50
죄에 대한 진노 150
하나님을 받아들임
우리의 자리 179
하나님의 말씀 17~30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 172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라.
하나님의 율법 323~343, 432, 481
–과 하나님의 은혜 338
–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337
하나님의 품성의 반영 332
순종의 축복 341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율법 339
그분은 폐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이루셨다 339
–의 저주를 제거하심 339
율법과 복음 335
십자가 이후 336
시내산에서 336
시내산 이전 335
–의 본질 325
기쁨의 법 328
원칙의 법 327
도덕법 325
긍정적인 법 326
단순한 법 326
영적인 법 325
독특한 법 327
제정자의 품성이 반영된 법 325
결코 폐해지지 않음 337
–의 영속성 332
시내산에서 율법 332
그리스도 재림 이전의 율법 333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 334
성도들은 율법을 옹호함 334
공격을 받는 율법 333
시내산 이전의 율법 332
–의 목적 328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329
회심으로 인도함 330
죄를 지적함 329
참된 자유를 줌 331
악을 억제하고 축복을 줌 331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 328
–의 두 부분 327

하나님의 인
  세 가지 요소 포함 349
  –으로서 안식일 348
하늘 148, 516
하늘 성소 428
  분향단 429
  일곱 촛대 429
하데스 478, 499
하와 112, 113, 120, 122~126, 128, 137, 139, 142
할렐루야 합창 518
헌금 376
헤롯대왕 428
헤르마스의 목자 163
헨리 알포드 436
홍수 25, 126, 455, 458, 459, 470, 493
화해 430~434
환난의 시간 466
회개 163, 164, 169, 451
  정의 165
  –를 위한 동기 166
  침례 자격 270
  하나님의 선물 165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172
후쓰 231
희생 제물 57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1990년 2월 15일 초 판 1쇄 인쇄
2018년 1월 19일 개정판 4쇄 인쇄
2018년 1월 23일 개정판 4쇄 발행

편 역 인 : 박 재 만
발 행 인 : 황 춘 광
출 판 인 : 엄 길 수

출 판 사 : 시조사
출판등록 : 1955년 1월 29일(제5-2호)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홈페이지 : http://www.sijosa.com
전자우편 : bookeditor@sijosa.com
전 화 : (02)3299-5300
팩 스 : (02)960-0848

(정가 15,000원)